

# 「청소년기에 있어서 올바른 성공을 위한 목표 설정 연구」



- 김성기

1988년 03월 09일생

혈액형 / 정열의 O형

학력 / 꾸러기학교(유치원) - 재동 초등학교 - 간디청소년학교  
M.T.B school 수료

별명 / 버터남, 콜라 없이 피자10판, 깜찍 텡커벨, 무언의 미소,  
레포츠 강사

취미&특기 / 운동,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컴퓨터 게임, 마인드 컨트롤,  
독서, 백어택, 샤워하다 자기, 5초 만에 화장실 문 따기,  
축제 때 쇼하기, 대화, 말 만들기.

소속 / 솔피바람(회장), 기숙사 D.J(동장), B.P(Bike police총장),  
P.P.P, 간디주접대표 4인방, 탁구부 훈련부장,  
Best 11(FW), 꾸러기학교 동문회(초대회장).

좌우명 / 긍정적인 말과 행동은 행복을 부르는 주문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하지만 세상은 힘이 전부는 아니었다.

# 차례

## I. 서론

## II. 본론

1. 성공이란
2. 간디학교 학생들의 설문자료 결과
3. 간디학교 학생들의 설문자료 분석
4. 목표설정의 방법
  - 1) 구체적인 목표
  - 2) 목표를 기록하라
  - 3) 목표는 긍정적이어야 한다
  - 4) 목표는 근본적인 성격을 변화시켜야 한다
  - 5) 중간 목표를 세워라.

## III. 결론

## I. 서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 하지만 그럼 사람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런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 없이 그저 성공을 하기를 바라고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내가 이 논문을 쓰게 된 이유는 평소에 성공과 목표설정 에 관해 관심이 많았었고, 나의 일상생활이나 방학 때를 되돌아보며 목표설정 없이 지냈던 좋지 않았던 점을 반성하고 내가 변화를 하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연구하게 되었다. 또한 나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목표설정을 할 때에 어려운 점과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고, 청소년들에게 자기 삶에 대한 꿈과 목표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리고 싶어서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간디학생들의 현재의 생각이나 상태를 조사, 분석하여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가려내어서 긍정적인 부분은 일깨워주고 문제점들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려 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목표설정의 방법을 제시하고 그 목표설정을 함으로서 일어날 힘든 점과 그 대안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목표설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서 그 개인들의 꿈들을 이루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나를 비롯한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날을 꿈꾸며 성공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본다.

## II. 본론

### 1. 성공이란?

세상에 많은 성공관이 있다. 사람은 각자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교육을 받거나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도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될 성공은 자신에게 가치 있는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성공의 사전적인 의미도 ‘목적하는 바를 이룸’인 것으로 미루어 봐서 위와 같이 정의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고 무리가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여러분의 목표는 개인적인 것이다. 목표는 자신의 목표여야 한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할 때가 다른 사람의 목표성취를 위할 때보다 더 동기부여 된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하며, 여러분의 목표가 스

스로 선택된 목표여야만 한다. 만약, 주위에 환경이나 시선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설정된 목표이라면 그 목표를 실행할 에너지가 별로 생기지 않는다. 또한 목표는 먼저나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지만, 그 목표는 다른 사람에게도 가치 있는 것이며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내 목표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거나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목표가 가치 있고 좋은 의도에서 설정되었을 때 성공은 나에게 가까워진다.

성공은 점진적인 것이다. 성공은 무엇을 이루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목표를 위하여 계속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실현해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루었고 이루고 있다는 것도 포함한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훌륭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 해도 몸으로 움직여서 그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지 않다면 그 목표는 빛을 내지 못한 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성공과는 이미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2. 간디학교 학생들의 설문자료 결과

이 설문지는 간디학교 학생들이 현재 꿈과 목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그 꿈과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나 자신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돌리게 되었다.

이 설문엔 학생 50명이 응답하였고, 주관식 문항에서는 퍼센트 지수가 쉽게 나누어서 떨어지지 않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이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 극소수의 개인적인 의견은 기타 의견으로 모으게 되었다.

▷ 1.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우리 나이엔 자주 변할 수도 있지만...)

① 있다 30명 (60%) ② 없다 7명 (14%) ③ 잘 모르겠다. 13명 (26%)

▶ 2.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 9명 (30%)

각종 직업 - 15명 (50%)

기타 의견 - 5명 (17%)

무응답 - 1명 (3%)

▷ 3.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혹은 삶에 있어서의 목표(계획)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뭐든지 노력한다. - 7명 (23%),

진학문제 - 4명 (13%)

- 성인 때의 계획 - 3명 (10%)
- 없다 - 6명 (20%)
- 기타 - 5명 (17%)
- 무응답 - 5명 (17%)

▶ 4. 현재 그 꿈(목표)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8명 (16%)    ② 아니다 - 11명 (22%)    ③ 잘 모르겠다 - 31명 (62%)

▷ 5. 실현시키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 뭐든지 열심히 한다 - 2명 (25%)
- 동아리 활동과 - 1명 (13%)
- 개인연습 - 2명 (25%)
- 지금 논문을 통해서 - 1명 (13%)
-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 1명 (13%)
- 그냥 잘하고 있다 - 1명 (13%)

▶ 6.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확실한 목표가 없어서 - 13명 (31%)
- 주변 환경 때문에 - 2명 (5%)
-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 3명 (7%)
- 무응답 - 24명 (57%)

▷ 7. 꿈(목표)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의 단점은?

- 집중력 부족 - 6명 (12%)
- 인내심 부족 - 6명 (12%)
- 자신감 부족 - 3명 (6%)
- 노력 부족 - 4명 (8%)
- 기타 의견 - 17명 (34%)
- 무응답 - 14명 (28%)

▶ 8.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관을 적어 주세요!!

-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 11명 (22%)
- 행복한 것 - 11명 (22%)
- 기타 의견 - 13명 (26%)
- 무응답 - 15명 (30%)

### 3. 간디학교 학생들의 설문자료 분석

#### 1) 긍정적인 점

긍정적인 점이라면 2번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간디학생들의 꿈들이 자기 자신의 것이라는 점이다. 청소년기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뭘 원하는지도 혼란스럽고, 뭘 원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도 힘들다. 하지만 간디학생들은 60%의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있고, 또한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의 30%의 학생들이 다른 외부의 강요나 분위기에 휩쓸려서가 아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원하고 50%의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직업을 꿈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시기에 겪는 사춘기를 생각해 보았을 때의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점은 간디인들은 자신들의 단점을 알고 있고 또한 인정한다는 점이다. 청소년기엔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외부의 나쁜 시선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하지만 간디인들은 응답을 하지 않은 28%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단점을 집중력 부족, 인내심 부족, 기타의견 등으로 알려졌다. 자기의 단점이나 안 좋은 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더욱 발전한 가능성이 높다. 나의 부족한 점을 안다는 것은 그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결과는 참으로 긍정적이다.

#### 2) 문제점 및 대책 방안

간디인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꿈을 실현하기 위한, 혹은 자기 삶에 있어서의 목표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20%의 학생들이 목표가 없었고, 또 약 20%의 학생들이 '뭐든지 열심히 한다'라는 매우 추상적인 답변을 해왔다. 그리고 또 약 20%의 학생들은 응답이 없었고, 나머지 학생들도 목표라고 보기에 불확실한 답변을 해왔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학교의 생활 방식 때문인 것 같다. 목표가 확실하다는 것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확실히 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하루 종일 친구들과 같이 붙어다니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이 실제적으로 별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 문제의 대책으로는 2주나 한달에 한번씩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날을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날엔 좀 진지하게 많은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다. 특히 우리 같은 청소년시절엔, 특히 우리 간디학생들의 나이 때에는 사춘기가 오고 보통 '나는 누구인가?', '난 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의 의문을 품게 된다. 나만의 시간은 사춘기 때의

자신에 대한 질문을 답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게 될 것이고 알게 된다면 확실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어느새 어렵지 않은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간디인들은 현재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이유는 현재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1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꿈이나 목표가 없어서 일수도 있고, 위에 경우처럼 목표가 확실하지 못해서 일수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목표의 달성여부를 미리 결정하고 그 가능성을 제한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간디인 들은 체육시간에 새로운 놀이나 종목을 시도하려고 할 때, 시도해보지도 않고 어찌 보면 걸모습일 수 있는 설명만 듣고 이것을 직접 해봄으로써 설명 때는 알 수 없었던 그런 좋은 현상이나 일들을 제한해 버린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가 도시와는 떨어진 시골에 자리잡고 있고 문화생활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서 많은 목표를 설정할 때 분명히 불리한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그 불리한 작용들이 두렵거나 힘들다고 생각되어서 설정된 목표를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목표로 내버려 둔다면 어떤 상황에서건 목표를 시도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지금 당장,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들을 실행시켜 나가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이고 모였을 때의 목표는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다.

#### 4. 목표설정의 방법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설정한 목표는 나 자신에게 동기가 부여되는 영향도 적고, 목표보다 단순한 몽상이나 공상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청소년들이 아래와 같이 목표 설정을 한다면 청소년들의 수준에서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이고, 목표설정을 할 때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은 성공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고, 성공을 하기 위해선 그 발걸음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성공을 향하여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목표설정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1) 구체적인 목표

청소년 시기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란 어렵다.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려면 이미 나의 생각이 구체화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TV와 만화책 등은 생각을 하기 싫어지게 하고, 생각을 적게 하게 한다. 이런 상

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처음엔 조금 쉽거나 경험해 본 일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해본 일이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에는 그러지 않을 일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하기 마련이다. 자기가 경험하거나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은 새로 해보는 것과 느낌이 다르다. 해 보았던 것은 자신감도 붙고 말이다. 먼저 쉽거나 경험해 본 목표로 시작해서 목표 설정하는 것을 익숙하게 하고 목표 설정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다면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더 익숙하고 쉬워질 것이다.

막연히 목표를 세워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얼마 후면 하게 될 체력장에서 “그냥 잘 하겠다.”와 “합계 27점을 맞겠다.”와는 그냥 보아도 구체성에 큰 차이가 있으며, 목표를 이루어야겠다는 의지 또한 달라질 것이다. 또한 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겠다.”와 “체력을 기르기 위해 매일 다섯 바퀴씩 운동장을 뛰고 자기 전에 50개씩 꾸준히 윗몸일으키기를 하겠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체력장 때의 자기 자신이 변화한 모습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다 보면 꿈 가운데 진정한 목표와 단순한 몽상이나 공상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 2) 목표를 기록하라

목표를 기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증명하는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다. 미국에서 한 조사 결과가 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2차대전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조사를 했다. 즉, 머리로 하버드 대학을 나올 정도로 좋고 역사의식도 꽤나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 결과는 놀랍게도 27%의 사람들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기 어렵거나, 돈에 대한 압박감에 눌러 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60%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집을 가지고 회사를 다녀서 매일 월급을 타서 쓸 데에 쓰고 조금씩 저축을 하는 정도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10%는 그래도 호화로운 집에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상류층에 속했지만 그 분야에서 최고로 불리지는 못하고 그냥 상류층에 속했다. 마지막 나머지 3%의 사람들은 정말 자기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올라 있고, 자기의 힘과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성공했다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좋은 대학을 나오면 성공할 수 있다”, “머리가 좋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뒤엎는 결과이다. 저들 중에서 저렇게 나뉘는 차이는 자신의 꿈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실천했는가에 따른 차이였다. 27%의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 아무런 꿈과 목표가 없었고, 그냥 중류층에 60%의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의 욕구를 채우는 계획 정도를 세웠을 뿐이고, 상류층 10%의 사람들은 자신의 꿈이 있고 목표도 세웠지만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사람들이고 최고라 불리는 3%의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점이다.

글로 쓰는 것은 생각을 가다듬어 주고, 생각은 행동에 동기를 제공한다. 또, 기록된 목표를 매일 체크하면서 자신의 목표에 똑바로 나아갈 수도 있다.

사람들은 기록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특히 청소년들은 기록하는 것이 좋은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기록하지는 않는다. 나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청소년들은 복잡하고 귀찮은 걸 싫어한다. 머릿속에 있는 것을 직접 기록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귀찮고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목표 설정에 있어서 기록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보다 목표 설정에 있어서 기록하는 것을 잘 하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마구 적어보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마구 적어본 단어들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볼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일단 그냥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보고 그것들을 점점 좁혀 나가고 깊이 생각해본다면 기록하는 데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 3) 목표는 긍정적이어야 한다

목표는 긍정적이어야 한다.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힘들고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주위의 일들이 불만스럽고 자신의 현실을 불평하며 부모님을 원망하곤 한다. 난 내 자신이 부끄럽고 불만스러웠던 적은 없지만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났던 적은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괜히 화를 내고 자신을 한탄하고 앓아 있던 시절은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사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좋은 점을 찾아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태도가 중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의 하나가 모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자신의 목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때 진심으로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사고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 부정적인 사고를 갖는다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은 흔히 무슨 일을 할 때에 “난 키가 작아서 못해.”, “난 저 아이보다 얼굴이 못 생겼어.”라는 이유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과 해야 할 일들을 제한하고 있다.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의 생각과 목표를 제한하고 있는 나 자신을 없애 버리자.

### 4) 목표는 근본적인 성격을 변화시켜야 한다

청소년 시기엔 계속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게 불안정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 힘들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많은 대화나 생활로 나 자신을 알아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다면 변화를 하

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근본적인 성격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근본적인 나를 알자. 그리고 근본적인 나를 알려면 다른 사람과의 많은 대화를 나눠보자. 그리고 깊은 자기 자신의 반성을 해보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는 흔한 이유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내면적인 성격변화를 이룩하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꿈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현재 자신의 모습은 물론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목적지를 선택하는 것 못지않게 출발점이 어디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은 어떤 것을 획득한다는 실제적인 목표에 앞서 어떤 사람이 된다는 목표 곧 필요한 성격적 자질을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부터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 5) 중간 목표를 세워라

인생이란 어떤 의미에서 끝없는 결정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어디로 가고 싶은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알기 위해서 생각을 분명히 정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에 어떤 태도로 맞설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린 문제이다. 겁을 먹고 뒷걸음칠 수도 있고 용기를 갖고 뛰어들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그렇다고 그건 선택이 쉽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어떤 선택이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막이나 정글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을 그리며 배회하곤 한다. 이와 같이 목표가 없으면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마련이다.

어느 겨울날 세 명의 소년이 숲 속을 걷다가 500제곱미터쯤 되는 넓은 빈터에 이르렀다. 그들은 그 눈 덮인 벌판을 직선으로 횡단하는 경주를 했다. 첫 번째 소년은 똑바로 앞만 바라보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자기가 직선으로 가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맞은편에 도착해서 뒤를 돌아보니 자신의 발자국은 할처럼 휘어져 있었다. 두 번째 소년은 첫 번째 소년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천천히 걸었다. 그는 몇 발자국을 간 다음 뒤를 돌아보고 다시 몇 발자국 걸어가는 방법을 썼다. 이렇게 해서 맞은편에 도착한 소년은 자신이 첫 번째 소년보다 더 비뚤비뚤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세 번째 소년은 앞의 두 소년을 가만히 지켜보고 나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다. 맞은편 정면 맨 앞에서 있는 나무와, 그 뒤쪽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를 기준으로 삼고 그 두 나무가 계속 일직선으로 보이도록 방향을 잡으면서 걸어갔던 것이다. 맞은편에 도착한 세 번째 소년은 자기 발자국이 화살처럼 일직선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에 시선을 고정하고 중간지점을 정해 둔다면

목표를 향해 이탈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다. 많은 청소년들은 그저 큰 목표만 세운 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똑바로 나아온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어딘가를 들렀다 온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시기엔 주위의 유혹들로부터 저항하기가 힘들다. 컴퓨터나 TV부터의 유혹이라던가, 친구들의 유혹 등이 있다. 이런 것들도 때론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에 빠져 할 것들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중간 중간에 목표를 점검해 줄 중간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려면 중간중간 점검해 줄 중간목표가 필요하다.

### Ⅲ. 결 론

이 논문을 연구하고 쓰면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의 차이도 아니고, 학교 성적이나 학력도 아니었다. 그 차이는 꿈이 있느냐 없느냐 에서 시작되었고 그 꿈을 구체화시켜 목표로 설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설정된 그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에서 결정이 났다.

간디학교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인 점도 있었고 또한 문제점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고민을 통해 긍정적인 부분들은 계속 키워나가고 문제점들은 올바른 현재상황 판단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였지만, 그 방법을 활용해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진정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몰라서 꿈을 꾸지 못해 항상 아쉬움만 남기고 있는 청소년들, 목표가 없거나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지 몰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꿈과 목표들을 어떻게 실현시켜야 할지 모르는 청소년들, 많은 열의를 가지고 성공을 위한 목표 설정의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 등 성공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청소년들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있어서 올바른 성공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어나가는 데에는 참 필요한 부분, 알아야 할 부분, 힘든 부분 등이 많았다.

하지만 목표를 정함으로서 일어나는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이 위에 제시된 목표설정 방안을 토대로 하여서 각자의 목표를 설정한다면,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꿈을 구체화 시키고 목표를 설정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적인 삶을 시작한 것이다.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 - 논문을 쓰고 나서

논문을 쓰면서 참 많이 힘들었다. 많이 힘들었던 만큼 논문이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은 더하였다. 매일같이 무거워지는 눈을 치켜세우며 친구들과 함께 깜깜한 밤을 새웠고, 밥맛을 잃어서 내가 세 끼씩이나 굶은 적도 있다. 참 많이 힘들고 지치는 과정이었지만 이제야 왜 우리학교에 졸업논문이 있는지 알 것 같다. 내 인생에 있어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한 값진 경험이었다. 비록 아직 우리가 어려서 논문이 논문답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해냈다는 성취감이 있고, 이렇게 하고 난 뒤의 졸업은 더욱 값진 것 같다.

힘들 때 도움을 받은 것은 더 기억에 남는다. 먼저 항상 옆에서 격려를 아끼지 않고 힘을 불어 준 친구들, 정말 너무너무 바쁘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항상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손 쌤, 항상 우리들 모두의 논문을 위해 고민하시고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위해 달려와 주신 인섭 쌤, 그리고 내 논문 담당 쌤으로서 내 논문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틀과 방향을 잡아주신 양 쌤, 그리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함께 해준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끝으로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 「자연적인 삶에 대한 연구 및 생태적 간디학교를 위한 제안」



- 신현우

1988년 03월 24일 오전 6시쯤 출생

별자리 / 양자리

혈액형 / B형

학력 / 진명유치원 - 수원초등학교입학 5번의 전학을 거친 후 졸업

별명 / 친구, 주접대마왕

취미&특기 / 거짓말 진짜처럼 하기, 살살 둘러대기, 뻔뻔한 짓 잘하기,  
밥을 향해 질주하기, 침 안 흘리고 자기, 마인드컨트롤, 쇼핑하기  
사람 도발하기, 잡종스포츠, 예쁜 여자 따라다니기

소속 / G.R연합(Gandhi Rockstar), G.B.S, 스크린 속의우상,  
기숙사G.S(기상), B.P(바이크폴리스), P.P.P, 간디대표 주접 4인방 중 한  
명.

좌우명 / 나 하나만 구제하자

## I. 서 론

### - 글을 쓴 동기

부모님이 귀농을 하게 되면서 시골생활과 자연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직접 해 보게 되었다. 우리 집은 지금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물도 안 쓰고 있다. 나름대로 자연적인, 생태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무(無)농약 으로 채소를 키우고, 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 이런 집에서 헬렌과 스콧 니어링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부모님과 지낸다면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교로 돌아오면 다시 소비적인 생활로 돌아와 버리고 만다. 물론 간디학교도 대안학교로서 일정 부분 생태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적당히 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좀더 확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나의 가치관을 확실히 하고 간디학교의 생태 지향적인 교육 방법과 생활 방식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의 생활은 너무나도 자연적인 삶에서 떨어진 것 같다. 우리는 헬렌 니어링과 스콧 니어링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좋다고, 존경스럽다고, 너무 멋진 삶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소비적이고 안락한 삶에 익숙해져 있다. 사람들은 프레온 가스가 안 좋다는 걸 잘 안다. 그게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시킨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에어컨을 쓰고 스프레이를 쓴다. 그리고 오존층이 파괴되어 들어오는 자외선을 막기 위해 또 썬 크림을 바른다. 썬 크림을 발라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피부만 답답할 뿐이다. 거기다 지금보다 더 오존층이 파괴되면 과연 그때도 썬 크림이 통할 수 있을까? 썬 크림이 자외선으로부터 ! 우리를 영원히 지켜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존층은 점점 더 파괴되고 그럼 피부병 정도가 아니라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짙은 자외선이 지구로 들어올 수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별다른 느낌 없이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을 한다. 편안한 생활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더운 여름날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집에서는 선풍기조차 사용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면 곳곳에서 엔진

소리와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돌아가는 에어컨으로 인해 발생하는 따가운 자외선을 우리는 어떻게 피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별 느낌 없이 우리의 집인 지구를 부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간디학교는 어떨까?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다가 간디학교를 다니는 동안 해본 기숙사 생활과 우리들의 모습이 그다지 자연적이지도 생태적이지도 못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대다수가 왜 자연적인 모습의 삶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자연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과 그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지구의 모습 : 인류의 위기

오늘날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것들은 환경파괴문제, 자원고갈문제 같은 것들인데 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 자원 고갈 문제

지금 지구에 남은 석유는 사람마다 말들이 다 다르지만 길어 봐야 70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한다. 이것은 그냥 나온 헛소리가 아니다. 『파국적인 석유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를 쓴 ‘케니스 데페이에스’에 따르면 100여 년의 석유시대가 이제 마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원유 생산은 2003년 경에, 늦추어 잡아도 2009년 경에, 정점에 달한 후 계속해서 감소할 뿐 결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의 예측은 정밀한 수학적 계산에 근거한 것이기에 엉터리 예언으로 일축하기 어려울 정도로 설득력이 있다.

데페이에스의 예측은 일찍이 1956년에,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1972년경에 정점에 달한 후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했던 킹 허버트의 추론과 계산 방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데페이에스는 세계 석유 생산량 추이를 전망하기 위해 허버트의 방법을 한층 더 정밀한 수치와 함께 원용하였다. 데페이에스에 따르면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2004~2008년 사이에 세계 석유 생산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결국에는 에너지가 고갈될 것이라는, 다소 구체성이 결여된 전망이 아니라 바로 향후 10년 이내에, 짧게는 5년 안에 석유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데페이에스는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 석유기

술자의 아들로 태어나 지질학자가 되어 프린스턴대학의 교수가 되기까지 유명한 석유회사인 '셸(Shell)'의 연구소에서 석유 자원 분석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렇듯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석유자원의 고갈 문제를 심각히 따지고 있다. 석유가 다 고갈되면 우리는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고 어떻게 난방을 하며 어떻게 차를 타고 또 어떻게 밥을 할 것인가?

『석유시대,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서 이필렬 교수는 허버트의 모델을 이용해서 석유 생산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를 2008년 경으로 잡고 있는 캠벨의 연구를 근거로 석유시대의 종말은 필연적이라고 단언한다. 석유 매장량에 대해 말할 때, 흔히들 앞으로 40년 또는 50년 쓸 수 있는 양이 남았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40년이나 50년이라는 헛수는 보통 현재 남아있다고 추정되는 매장량을 현재의 소비량으로 나눈 값으로, 이런 표현은 앞으로 40~50년간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풍족하게 석유 소비를 즐길 수 있다고 은근히 암시함으로써 지금 세대에게 별다른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언급했던 허버트 모델에 따르면 석유생산량은 종 모양을 그려, 최고생산량에 도달한 후 차츰 줄어든다고 한다. 즉, 수년 후 최고생산량을 통과한 이후부터는 석유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석유시대, 언제까지 갈 것인가』는 석유부족 사태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석유에 대한 의존을 능동적으로 줄여야 함을 강조한다. 기후변화는 화석연료의 과다연소로 인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축적되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가진 이필렬 교수가 제시하는 대안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기반한 기존의 중앙 집중적이고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풍력이나 태양에너지 같은 분산적이고 소규모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석유를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자연적인 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석유로 여러 종류의 생활에너지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석유를 중심으로 중앙으로 모든 것이 몰리는데 그런 부분을 자체적인 자가 발전시스템으로서 분산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적게 쓰는 것이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의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량과 꼭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쓰는 원시부족이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비교조차 힘들 정도이다. 아프리카와 미국과의 에너지 소비량 차이가 1:50이라고 한다. 미국인 한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 50명이 쓸 양의 부존자원을 소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그런 적은 (적은 게 아니라 적당한 것이겠지만) 자원으로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아도 미국(선진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은 너무나 많은 양의 자원을 필요 이상으로 과소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개

발우선주의와 발전지향주의에서 벗어나 조금 더 소박하고 자연적으로 산다면 결코 지구의 자원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인구가 60억이 아니고 100억이라고 해도 지구는 충분히 그 인구를 수용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 환경 문제

지금 지구의 환경문제는 심각하다. 흙, 공기, 물 등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이 요소들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모두 흙에서 나온다. 그런 먹을거리들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는 흙을 죽이고 있다. 농부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쓰는 화학 비료 속에는 As, Cd, Cr, Co, Cu, Pb, Ni, Se, Va, Zn 따위의 불순물들이 들어 있다 또 농토에 살포된 유기 염소계 농약은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오랜 기간 토양 중에 잔류한다.

1964년 C. A. Edward가 세계 각국의 토양 중에 남아있는 농약 성분을 조사한 결과 농약의 95%가 소실되기까지 DDT는 4~30년 (평균 10년), dieldrin(살충제)은 5~25년 (평균 8년), lindane(살충제, 제초제) (평균 6.5년), heptachlor는 3~5년 (평균 3.5년)이 걸린다고 하였다. 흙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과 공기 모두가 심각한 지금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대기오염은 시정을 감소시킨다. 시정 감소란 인간이 물체를 볼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만약 대기오염물이나 토양먼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정은 단지 지형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대기오염은 대기의 색깔을 변하게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은 많은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오염물의 입자 크기가  $0.3\mu\text{m}$ 에서  $1.0\mu\text{m}$  정도로 작은 경우 생기는 '갈색구름' 현상은 서울 등의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또 갈색 기체인 이산화질소의 영향으로 이런 현상은 가중된다. 고정상 및 이동상 배출원은 광산란을 일으킬 정도로 크기가 매우 작은 입자상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내놓는다. 또 배출원에서의 이산화황,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 가스 배출물은 태양광의 존재 하에 광화학 반응을 통해 더욱 많은 입자상 물질을 생성시킨다. 이런 현상이 수백 km에 걸쳐서 일어났을 때, 이들 입자상 물질은 강수의 도움이 아니면 쉽게 제거되지 않고 배출원으로부터 수천 km까지도 이동하여 사람이 적은 지역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오염물에 의한 시정 감소는 별다른 실험장치 없이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으나, 이것이 기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함에도 잘 알지 못한다.

첫째, 안개 생성 빈도수를 증가시킨다.

둘째, 강수량을 증가시킨다.

셋째, 대기온도를 변화시킨다.

이 밖에도 수질오염으로 생겨나는 기형의 물고기들과 물고기들의 폐죽음, 그리고 더 이상 식수로 사용 불가능해질 물, 각종 질병 발생을 초래하는 문제점 [일본의 ‘이타이이타이병’ (등뼈, 손발, 관절이 아프고 뼈가 약해져 잘 부러지는 공해병. 카드뮴이 체내에 축적되어 일어난다. 일본 도야마 현(富山縣)의 진즈가와(神通川!) 유역에서 처음 발생하였다), 비소 중독, 각종 수인성 전염병-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아메바성 이질, 콜레라, 소아마비, 유행성 간염, 피부병 등]을 유발한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겨나는 많은 예러 사항들 중의 하나 일 뿐이다.

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정말 엄청난 것이다.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50만ha에 달하는 인천 앞바다 밑에는 현재 19만4000여m<sup>3</sup>(9만7000여 t)의 쓰레기가 쌓여 있으며, 덕적면 장구도, 울도 등 섬들이 밀집한 해역 바다 밑에는 1~2m 정도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년 한강 등을 통해 유입되는 19만1000m<sup>3</sup>의 쓰레기 중 30% 가량이 인천 앞 바다 밑에 침전되고, 나머지는 계속 인근 해상을 떠다니거나 먼 바다로 흩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1997년 기준)는 8톤 트럭 1,630대분(13,063톤)이며, 연간 트럭 60만여 대 분량에 이른다. 이 양은 트럭을 일렬로 세우면 서울과 부산을 8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듯 쓰레기 문제는 자연환경 파괴 문제와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면 국물 한 컵을 버리면 이를 맑게 하기 위해 5천 배에 해당하는 75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된장국 한 그릇을 버리면 7,050배나 되는 1,410리터, 소주 한 병이 버려지면 1만5천 배인 5천1백 리터, 우유 한 컵이 버려지면 1만5천 배인 3,000리터, 식용유 한 스푼이 버려지면 19만8천 배인 2,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하니 수질오염은 버리는 음식찌꺼기에 의해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쓰레기 문제는 곧바로 환경오염과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문제들과 그에 따른 영향들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간디학교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조차 제대로 못하고 매일 나오는 음식 쓰레기는 다 무엇인가. 이것이 생태적인 학교에서 보여줄 모습인가. 우리는 학교에서 생태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그런데 왜 실천이 안 되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옳

다고 믿는 것들만 모두 실천할 수 있다면 학교에 따로 규칙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럼 그토록 중요한 실천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 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기해 본다.

## 첫째. 환경

바로 주위 환경이 첫째 문제다.

학교 주위의 환경이 자연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학교의 건물은 모두 시멘트와 조립식 판넬로, 그다지 자연적이지 못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또, 기숙사는 학교의 바로 위층에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거의 모든 시간을 학교 건물 내에서 보내게 된다. 학생들이 자연과 더불어 어울릴 장소 또한 마땅치 않다. 어느 한 곳에서 조용히 쉬고 싶어도 그럴 장소가 없다.

학교 정면에 있는 것은 숲이나 계곡이 아닌 아스팔트 도로이다. 쉬는 시간마다 나와 밖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움직이는 자동차와 도로가 보인다. 이런 요소들로 인해 학생들의 관심은 주로 밖으로 쏠리는 것 같다.

그런 환경과 함께, 우리는 너무 들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지낸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모습에서 들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식사 후 아무렇게나 던져지는 식판들과 다른 반의 수업 시간에 그 교실 앞의 복도를 경주하듯 뛰는 학생들의 모습은 들뜬 학교의 분위기를 말해 주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물건을 함부로 대하고 아낄 줄 모르는 문화가 생겨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운동장에 방치되어 비를 맞고 녹슬어 가는 자전거를 누구 하나 나서서 관리하거나 비를 맞지 않게 옮기는 이가 없다. 또 위에서 말했듯이 깨져나가도록 함부로 던져지는 식판의 모습은, 만약 우리가 좀더 모든 물건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절약(소비를 촉진시키지 않는 것) 정신을 철저히 가진 학생들이라면 보이지 않아야 할 모습이다.

## 둘째. 먹거리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음식이 독(毒)으로 변해가고 있다.

- 1996년 4월, 미국의 방송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오프라 윈프리 쇼의 한 내용이다.

“바로 지금, 우리는 영국 사람들이 간 길을 똑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처를 하는 대신 오랫동안 광우병을 그저 공연한 이야기로만 여겨온 겁니다. 미국

에서는 해마다 수십만 마리의 소가 바로 엿저녁까지 괜찮았는데 다음날 아침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그런 소의 대다수는…….(중략) 사료로 만들어져 다른 소의 먹이가 됩니다. 그중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소였다고 가장해본다면 수천마리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죠.” (하워드 리먼 - 4대째 축산업을 이어온 대규모 축산업자로 자신이 경영하던 산업축산으로 인해 척수종양이라는 병에 걸려, 목숨을 건 수술 끝에 살아나 채식주의의 실천가, 운동가로 변신하게 되었다)

오프라조차도 뒤통수를 맞은 듯 놀란 표정으로 찝막하게 한마디 했다.

“소는 초식동물이잖아요? 소가 다른 소를 먹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절대 버거를 먹지 말아야 할 것 같군요.”

- 또 로렌이라는 6살짜리 여자아이는 10일 전에 먹은 치즈버거로 두 번의 심장발작을 일으킨 끝에 죽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다섯 주에서 유행병이 발생하여 732명이 병에 걸렸으며 그중 195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로렌 말고도 3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그들 모두는 새로운 병원균인 대장균 O157:H7의 희생자였다. 이 박테리아는 1980년대에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서양의 식생활로 인해 늘어나는 하나의 전염병으로까지 불려지는 비만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의 어린이의 10%가 걸려 있다고 한다.

이렇듯 현재 우리의 식탁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아도 지금의 먹을거리 문화보다는 자연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럼 과연 우리 학교의 식탁은 어떨까. 우리 학교의 식탁에서 무시당하는 것은 항상 채소다. 우리는 그 엄청난 문제를 품고 있는 고기를 좋아하고 채소만 가려낸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음식을 맛으로 먹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 반면 지구의 다른 한 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긴다.

“지난 90년대 이후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려온 북한은 올해도 110만t의 식량이 모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일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조용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북한의 식량 수요량은 632만 톤이지만 자체 생산량 413만 톤에 수입과 지원량 백여 만 톤을 합쳐도 11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2003/YTN)

그런데 우리는 입맛에 맞지 않는다거나 혹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음식을 마구 버리고 있으며,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의 양은 엄청나다.

환경부는 낭비되어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의 경제적 가치가 1991년 연간 8조 원으로 발표된 이래 10년 만에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연간 총 15조 원(147,47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이 연구결과로 밝혀진 약 15조 원이라는 경제적 가치는 농축수산물 수입 전체 액수(약 9조5천억, '99)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우리나라 자동차 연간 수출액에 맞먹는 액수이고, 상암동 축구장을 7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이 얼마나 크게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셋째. 간디학교에서의 적극적이지 못한 자연적, 생태적 교육

간디학교는 생태적 학교라고 하지만 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중요히 생각하여 하나의 수업 과정으로 넣은 의·식·주 교과 수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농사 수업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기에도 뭔가 부족한 감이 있다.

또 자율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들이 너무 방관적인 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준다. 기숙사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를 비롯한 많은 생활 부분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자유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간디학교의 자립교과라는 과정이 형식적인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의·식·주 교과는 일주일에 단 2교시 동안 진행된다. 의·식·주 교과의 성과를 느끼기에는 너무 적다 싶은 수업 시간이다. 텃밭 가꾸기 시간에는 그저 '텃밭을 가꾸어 보았다'거나 '재미없는 노동'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날 뿐, 왜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가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가 힘들다.

간디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현실적인, 그래서 형식적인 수업이 아니라 정말 그 수업을 통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 Ⅲ. 결 론

대안적인 삶을 위하여

- 자연적인 삶의 필요성

사람들은 자연적인 삶의 모습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안다.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미 드러난 사실들만으로도 자연적인 삶의 필요성은 강조된다. 지금의 문명사회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형태가 아니다. 이런 문명사회에 대한 대안으로써 더 이상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 바로 그러한 모델로 자연친화적인 삶의 모습이 적합하다고 나는 주장한다.

### - 자연적 삶의 방법

헬렌 니어링과 스콧 니어링은, 서구 문명이 그 누구에게도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 뉴욕을 떠나 버몬트 시골로 들어갔다. 자연 속에서 서로 돕고 기대며, 자유로운 시간을 실컷 누리면서 저마다 좋은 것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삶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원칙을 세운다. 먹고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적어도 절반 넘게 자급자족한다. 스스로 땀 흘려 집을 짓고, 땅을 일구어 양식을 장만한다. 그럼으로써 이윤만 추구하는 경제에서 할 수 있는 한 벗어난다. 돈을 모으지 않는다. 따라서 한 해를 살기에 충분할 만큼 노동을 하고 양식을 모았다면 더 이상은 돈 버는 일을! 하지 않는다. 되도록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 일을 해낸다. 짐짐승을 기르지 않으며,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이들은 '삶은 만족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삶의 원칙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땅에서 얻는다는 건강한 철학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 단순하면서 충족된 삶, 그것이 그들이 평생토록 추구한 삶이었다. 그토록 철저한 삶의 방식에 경건한 기분마저 들었다.'

- 류시화

‘에덴동산이나 고대로 가면 이런 빌딩도 없고 글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거짓말도 없었을 그 때는 삼라만상이 홀연히 전체로 살고 있었기에 전체가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얼마 안 있으면 오게 돼 있어요. 왜냐? 문명의 극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면 기우는 법이에요. 환경보호라고 하는 것이 지경에 이르게 한 사람이 땅과 협력해서 이루는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식물, 동물, 광물, 산, 강, 지구와 대화하는 인간이 배출될 때만 홀연히 낙원이 되지. 모세가 야훼께 경청하듯이 이 지구의 소리로, 나무의 소리로, 짐승의 소리로 듣는 겸허한 자세를 가질 때라야 홀연히 우리가 지구의 낙원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 글은 10월 26일 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영성강좌에서 광노순 목사가 강의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자연친화적인 삶의 길을 걷는 일이다. 우리는 기상을 예측하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동물들은 그러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느

킨다. 우리는 매일 뉴스의 일기예보를 보지 않으면 날씨를 알 수가 없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현상을 느끼지 못하는 생물은 인간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려드는 것도 인간뿐이다. 물론 그것을 도전정신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가끔은 대자연 앞에 겸허하게 고개 숙일 줄도 알아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진 않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생명체의 입장을 두루 생각해야 한다.

### 자연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집 같은 경우엔 100여 평이라는 크지 않은 땅에서 여러 종류의 곡식, 채소를 가꾸어 우리의 식탁을 자연적이고, 오염되지 않고, 자급자족 적으로 만들어 낸다. 이런 방식은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 학교의 텃밭을 이용해 여러 작물을 가꾸어 우리의 먹을거리를 생산해 내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조금 부족하다면 이 마을의 농가와 계약을 맺어 무농약으로 지은 농산물을 제공받고 간디학교는 꾸준히 그 농가의 소비자가 되어 주는 방식의 거래를 하는 것이다.

또 학생들이 채소를 가려낸다면 간단한 메모로 ‘이 00은 이번에 1학년들이 정성스럽게 가꾼 것입니다.’ 라고 적어 놓는 식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시키면 학생들의 바라보는 눈과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소박한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박한 삶의 모습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여기서 소박하다는 것은 소비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우리 집에서는 석유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으로 만들어 지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석유에 대한 소박한 모습을 지킨다. 우리 학교도 다른 곳에서 소박해야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의 생활 속에서 소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밖에 비를 맞아 녹슬어 가는 자전거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비를 맞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등 학교의 비품을 정성스럽게 다루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빨리 망가져서 다시 사야 되게 되는 소비적인 모습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작은 일로부터, 학교에서 소박한 모습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소박한 삶은 시작되는 것이다.

셋째,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바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환경파괴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자원이 급속히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지구가 인간만이 아닌, 다른 모든 생명체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환경을 파괴할 수가 없다. 수십 억 년에 걸친 그 오랜 기간 동안 저장돼 온 자원을 불과 이백여 년 만에 다 고갈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버림으로써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 사람들의 인간 중심적인 사고, 더 깊이는 개인 중심적인 사고로 누구는 굶어 죽고 누구는 음식이 남아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반대편에서 굶어죽어 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음식을 아까운 줄 모르고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집은 산 속에 있다. 집 마루에 앉아서 자연을 느끼고 마당에 서서 자연을 느낀다. 자연과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자연과 같은 숨을 쉰다. 그러니 더욱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간디학교의 우리들도 잔반을 버리지 않는 것으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 공동체적인 사고와 실천을 하는 것 등을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공생한다는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구겨서 버리는 종이를 만들기 위해 한편에서는 엄청난 양의 나무가 살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천하지 않음으로 해서 더럽혀지는 공기(특히 종이에 섞여 태워지는 비닐)는 오존층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 하나가 청소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잡히지 않는 기숙사의 분위기를 생각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런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삶의 중요성에 대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금처럼 그저 형식적인 자립기초 수업이나 농사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왜 이런 것들을 배우고 행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부분을 가르칠 수 있는 수업이 된다면, 그렇다면 수학공식 몇 개를 더 외우고 과학공식 몇 개를 더 외우는 그런 수업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수업이 될 것이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맛을 따라 혀를 즐겁게 하는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혀를 즐겁게 하는 일에 빠져 있는 동안 다른 한편에선 굶어죽어 가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만약 그걸 안다면 우리는 혀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릴 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할 만큼의 식량만 먹는 게 맞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수업, 그것이 진짜 인생 수업이 아닐까?

간디는 자발적 가난을 택했다. 직접 물레를 돌리고 소금을 생산하게 했다. 그로써 인도는 해방되었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 가난함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 인간이 욕심을 부릴수록 자연은 괴로워진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좀더 깊이 볼 줄 알아야 한다.

자연적 삶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 속으로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지구의 얼마 남지 않은 자연으로 모든 인구가 들어가 살 수는 없다. 누군가는 교육을 위해, 누군가는 또 다른 이유로 도시에 남을 것이고, 그럼 그에 대한 도시에 맞는 자연적 삶을 택해야 한다. 도시에서도 자연적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그만큼 포기해야 할 부분이 많아질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시에 사는 사람 중에 차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차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대기 오염을 초래하고 차를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석유는 엄청난 양으로 자원고갈 문제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경멸스러워하지만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에 대해서는 살인행위만큼 심각히 생각하지 않는다. 자동차는 이렇듯 너무나도 생태적이지 못한 발명품이다. 이 자동차를 포기한다면, 자동차를 포기하고 롤러스케이트나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밀리는 출퇴근 시간을 좀더 환경적이고 능률적이며 자기건강에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즐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장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움직이고 더 발전시켜 그 대중교통 수단을 대안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면 훨씬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가 될 것이다.

실제로 너무 많은 자동차 때문에 생기는 교통체증의 스트레스와 시간 낭비를 감소하며 출근하는 것보다, 지금 뚫려 있는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로 자전거를 타

고 출근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자연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발명품인 자전거에게 자동차를 대신할 기회를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소비적인 삶은 자연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이다. 소비적인 삶은 모든 문제의 원흉이 되고 있다. 소비적인 삶을 살아서는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다. 우리는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더불어 나누는 공생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간디는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했다. 직접 물레를 돌려 옷감을 짜고 소금을 만들게 했다. 그로써 인도는 해방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 가난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 인간이 욕심을 부릴수록 자연은 괴로워진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좀더 깊이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 논문을 마치면서...

처음에 이런 주제의 논문을 쓰려고 했던 이유는 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모두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틀이 커진 것을 느낀다. 이제 나로선 고민하던 고민거리가 해결되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되었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방법역시 알게 되었다. 이제 실천만이 남은 것이다. 사실 논문을 쓰면서 많이 힘들었고 또 내 속에서 이미 다 해결되어 버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보충해 나가려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경험이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 만족이다.

「미타쿠에 오야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 박기범

1988년 08월 04일

**혈액형** / O형(세포 하나당 23쌍의 염색체를 가지며, XY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음.)

내 몸속 세포들은 사랑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오순도순 살아감)

**학력** / YMCA유치원 선생님의 사랑을 단신으로 받으며 엄청난 문제와 사건을  
거쳐 평범하게 졸업~♡ - 구서초등학교 입학, 많은 여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초등학교 생활 만끽함, - 간디중 입학,  
내 평생 잊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도 한 번 더 경험해 보고 싶은

Good, Great, Excellent, Perfect한 간디중 생활

**별명** / 기봉, 샤프, 예쁜이, 주접 대마왕, 럭셔리 깔쌈

**취미&특기** / 주접떨기, 괴롭히기, 사람 설득하기, 운동, 독서 및 공부, 말 안  
되는 거 말 되게 만들기, 기타 치기, 멍하니 있기, 샤워 오래하기, 남의 기분  
컨트롤 하기, 쇼핑하기, 노래 부르기, 피아노 치기, 아무 말 없이 사람  
쳐다보기, 뛰어난 집중력, 투시, 언어구사능력, 게임, 짱구 흥내내기

**소속** / 방송부회장, 탁구부회장, P.P.P, 2ch, BP,  
간디대표 주접 4인방 중1명, H.H, 간디사커베스트11(FW)

**좌우명** / 홍익인간이화세계, 한다면 한다!

<졸업논문>

# 미타쿠예 오야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 ● 차례

<서 론>

<본 론>

### 1. 인디언 삶의 방식

- 1-(1) 무소유
- 1-(2) 자연친화적인 삶
- 1-(3) 공동체적인 삶

### 2. 간디학교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

- 2-(1) 자연과 하나 된 인간
- 2-(2) 공동체적인 인간

### 3. 간디인과 인디언 삶의 비교 분석과 우리의 과제

- 3-(1) 자연과 하나 된 인간
- 3-(2) 공동체적인 인간
- 3-(3) 인디언의 삶의 방식이 주는 교훈과 우리의 과제

<결 론>

논문 발표 : 간디청소년학교 3학년 박기범  
지도 교사 : 김병삼 선생

## <서 론>

미국에 있는 그랜드캐년에 통조림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인디언 보호지역을 보고 난 후 옛날 그 용감하고 고귀한 인디언들의 삶을 알아보고 싶어서 인디언에 관한 책을 읽어 보게 되었고, 인디언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간디인에게도 많은 교훈과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이 논문을 쓰게 되었다.

나는 인디언의 삶의 방식들을 알아보고 간디인들의 삶과 비교하여 어느 점에서 인디언과 간디인이 비슷하고 다르며, 또 우리가 인디언들에게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과연 이들이 우리에게 던져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 간디인들의 삶의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논문을 살피기 전에 ‘인디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인디언’이란 아주 오래전부터 아메리카 대륙에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던 부족을 일컫는데, 한때는 인구가 1300만에 달했다고 한다. 인디언의 피부는 적색, 황갈색 그리고 담색이 많다고 한다.

지금은 대부분의 인디언이 멸망해 소수의 생존자들만 미국의 그랜드캐년과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살아가고 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뒤 그 땅을 인도의 일부분이라 착각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을 인디오(에스파냐어로 인도인이라는 뜻)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 말이 인디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그런 착각에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디오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인 디오’라고 부른 것이라고 한다. 인디언들은 콜럼버스가 나타나 ‘인 디오’라고 부르기 전에는 ‘니누옥’이라고 불렸다.

이 뜻은 ‘사람’ 또는 ‘참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콜럼버스가 착각을 해서 인디언이라는 호칭을 쓴 줄 잘못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콜럼버스의 착각에서 인디언이라는 말이 유래된 것이 아니며, 콜럼버스 자신도 그런 착각으로 인디오라는 말을 쓸 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는 그 뜻과 유래가 그릇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sup>1)</sup>

1)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류시화, 김영사, p434

## <본 론>

### 1. 인디언의 삶의 방식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디언은 손으로 입을 두드리며 괴기한 소리를 내며 약탈과 살인을 일삼는 야만인,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미개인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사실 인디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개인이 아니라, 자연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 숨쉬는 것들을 존중하는 자연인이다.

지금 현대인들은 자연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 가지 자료나 책을 통해 보면 인디언의 삶이 현대인들의 삶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행복했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

#### (1) 무소유

인디언들은 어려서부터 소유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sup>2)</sup>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가지지 않았으며, 남는 것은 부족한 부족민들에게 나눠 주는 ‘더불어 사는 생활’을 하였다. 소유하는 것 자체가 인디언에게는 삶에 대한 모욕이며 타락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남아돌기 때문에 주는 것은 결코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베푸는 생활을 한다. 그래서 기쁨과 순수한 즐거움만 남을 때까지 주는 게 ‘진정한 베품이라고 여기는 것이다.’<sup>3)</sup>

인디언들은 집을 지을 때도 자유롭게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원형으로 천막을 지었으며 들소를 사냥할 때도 필요한 만큼만 죽였으며 들소의 가죽은 따뜻한 옷을, 들소의 살코기는 고기를, 들소의 뼈와 뿔은 장식구와 무기를, 이런 식으로 주위의 모든 것들을 욕심 부리지 않고 자연에서 가져다 쓴 것이다.

또 미국인들이 인디언들에게 그들이 사는 땅을 준다면 원하는 모든 것을 준다고 했으나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인디언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 주는 법을 배웠고,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 되는 데 베품을 필수요건으로 삼았다.

인디언들은 “이 물건이 내 것이다.”<sup>4)</sup>라는 관념이 없었다. 필요할 때마다 서로 나눠

2)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류시화, 김영사, p53

3)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류시화, 김영사, p94~95

4)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류시화, 김영사, p97-107

주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다.

인디언은 자연에서 태어나고 자연 속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필요한 건 자연에서 다 찾아서 사용했다. 그러므로 물건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것이다.

## (2) 자연 친화적인 삶

인디언들은 대지를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대지 위의 모든 것들을 하나의 생명체로 귀중하게 여기며 사랑한다.<sup>5)</sup>

자연에 자신을 맞추고 '자연을 이해하고자 노력한 진정한 자연인'<sup>6)</sup>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인디언이다.

‘인디언들은 절대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인디언의 영혼도 대지 위 어딘가에서 떠문다고 느끼고 모든 것들이 생명이 있다고 믿으며, 자기 옆에는 항상 생명이 깃든 소중한 존재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인디언들은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자연 안에서 명상을 하여 자연이 주는 의미를 깨닫곤 한다.

그들은 자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산과 호수, 강, 계곡, 덩불숲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자연 속에 몸을 던지며 수행하고 자연 안에서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을 가지는 것도 아마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으면서 자연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연 속으로 몸을 맡기는 그런 용기가 생겼을 것이다.

그들은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며 자연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운다. 그들은 자연인이다, 또한 대지는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의 최종 휴식처라고 느낀다. 땅에 눕거나 기댔으로 인해 어머니인 대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느낌을 받는다. 또한 흙은 부드러우며 힘이 있고 정화하는 힘과 치료의 힘을 갖고 있다고 인디언들은 말한다. “몸을 다치거나 피로가 쌓이면 흙에 눕거나 대지나 돌 위에서 명상을 해 치유를 하곤 했다.”<sup>7)</sup>

## (3) 공동체적인 삶

‘윗웃 입은 자들은(추장) 자기 부족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아 주고 부족민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선발된다.’<sup>8)</sup>

5)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류시화, 김영사, P16~18

6)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류시화, 김영사, p67

7)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류시화, 김영사, p200

8) 『크레이지 호스』, 마리 산도스, p21

추장은 부족민들에게 제일 많은 도움을 주고 부족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치일 뿐이다.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는 부족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공동체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이들은 미군과 전투를 치를 때도 다른 부족들과 같이 뭉쳐서 함께 격과하곤 했다.

인디언에게는 법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sup>9)</sup>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해 왔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인디언 스스로가 자기 절제를 할 수 있었으며, 그럼으로 인해 부족민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 2. 간디학교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

### (1) 자연과 조화된 인간

자연과 조화된 인간이란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자각하고 그 자각을 삶 속에 구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보호나 환경 보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sup>10)</sup>

위에서 말하듯이 간디인이 간디학교 내에서 자연과 조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자연과 자신을 하나의 생명체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간디인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끼고 사랑하는 삶을 지향하면서 생활하는 교육공동체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각자가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체험하기도 하고, 도시와는 다른 생활양식을 경험하기도 한다.

더운 여름날, 수업 시간 외에 시간이 나면 친구들과 계곡에 놀러가 물에 몸을 던지며 더위를 씻어 버리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변 자연을 돌아보는 것, 도시와는 전혀 다르게 산과 들로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자연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생활하는 것이나, 체험학습으로 산을 등반하는 것조차도 자연과 삶을 분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다. 그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 내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간디학교에서는 ‘의·식·주 교육을 통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9)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류시화, 김영사, p97

10) 「간디학교의 대안 찾기」, 여태전, p102

삶을 추구하며 교육목적의 하나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을 길러내고자 한다.<sup>11)</sup>

## (2) 공동체적인 인간

‘공동체적 인간’이란 ‘역사와 사회 속에서의 책임성’을 갖는 인간을 의미한다. 즉,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다른 개인들과 ‘함께’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공동선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들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는 뜻이다.<sup>12)</sup>

공동체적이란 말은 서로서로 양보해 가며 함께 그들 공동체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감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간디학교에서는 학교 생활과 기숙사 생활을 병행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간디학교에서는 다른 어떤 생활보다도 직접적으로 기숙사에서 경험하는 공동생활 속에서 행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 여러 명의 친구들이 방을 정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서로 죽이 잘 맞는 간디인들과 행복하게 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과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와 방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 나름대로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맞춰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한다. 그렇게 간디인은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끈끈한 줄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다.

간디학교는 ‘사랑과 자발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자연 친화적이고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인간을 교육하고 길러내는 데 다른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율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하며, 교사와 학생, 부모를 포함해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간디학교가 지향하는 공동체적 인간은 ‘역사와 사회 속에서의 책임성’을 전제로 한 인간상이다.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나 생활 안에서 그러한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해 나름의 특성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식구총회, 학생회 활동, 다양한 동아리 활동, 각자의 방장을 중심으로 당번들이 주체적으로 간디인들의 생활을 조정하고 협력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기숙사 생활 등 모든 학교 생활에서 각자 책임이 따르고 자신이 맡게 될 역할에 충실을 다해야만 하는 일련의 단련 과정이 주어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문제를 실천해 나가도록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궁극적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것이 간디학교에서 추구하는 공동체적 인간이다.

11) 「간디학교의 대안 찾기」, 여태전, p102 / 간디학교 홈페이지 [gandhi.hompy.com/](http://gandhi.hompy.com/) 교육목표

12) 「간디학교의 대안 찾기」, 여태전, p101

### 3. 간디인과 인디언 삶의 비교 분석

#### (1) 자연과 하나 된 인간

간디인과 인디언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공통된 철학을 삶의 바탕에 깔고 있다.

인디언은 삶 자체가 자연을 사랑하면서 이루어지며, 자연을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하면서 자신들도 그것과 분리되지 않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살아간다.

간디인은 산과 물 등 주위의 자연 환경과 자연스럽게 접하는 교육적인 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신비함을 알아 가게 되는 것이다. 더러는 간디인이라고 할지라도 교육 목표와 달리 주변 환경의 소중함과 본래 지향하던 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가 잠시 겪는 혼돈 속에서 본래 간디가 지향하는 바를 놓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인디언은 자신들이 믿는 신 위대한 정령이 세상이 태어날 때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부여한다고 믿어 자연의 모든 것들에게 하나의 인격체로 대한다.

간디인들도 자연을 대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는 문명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 보다는 훨씬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에 동화된 모습을 보이며, 자연의 고마움과 신비함을 느끼는 쪽에 가깝다. 그러나 자연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혜택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라면서 겪게 되는 정신적 혼돈과 사춘기와 관련된 일들, 집으로부터 떨어져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 하는 부담감, 자신만의 시간이나 공간을 허락받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연과의 일치감이나 소중함을 갖는 기회를 잃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속 삶에 익숙했던 간디인들에게 간디학교는 자연과의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교육 과정과 생활환경을 끊임없이 제공하려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 (2) 공동체적인 인간

공동체 생활은 단체 생활에서 꼭 필요한 조건이다.

인디언은 항상 같이 움직이며 활동했다. 전투를 치를 때도 남자들만 전장에 나가지 않았다. 여자들도 전쟁을 위해 출전하는 남편이나 아들을 응원을 해주었고, 부족민 모두가 전쟁의 승리를 기뻐해 주었으며, 무엇이든 함께 하려고 했다. 서로들 한 가족처럼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살아온 것이 인디언들이다.

우리 간디인들도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고 있는 집단이다. 그래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모여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서로서로 믿어 가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가족처럼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하면서 간디학교라는 공동체를 다같이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며,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형제자매처럼 살아가는 기숙사 생활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법을 배우고 남에게 배려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고 있다. 개개인의 생활을 중시하는 현실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그것을 하나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잡도록 다같이 노력하는 공동체, 그것이 간디공동체이다. 간디인들은 하나의 가족처럼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디언들처럼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간디인들도 아직은 어린 나이지만 스스로 간디철학의 뜻을 제대로 새겨가면서 공동체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인디언의 삶의 방식이 주는 교훈과 우리의 과제

사랑과 자발성을 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자연 친화적이며 공동체적인 삶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간디학교에서 간디인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

자연 친화적인 삶을 지향하고 살아가려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이버 컴퓨터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이나 컴퓨터를 단순한 정보 습득을 위한 매개체로 보지 않고 시간만 가면 컴퓨터를 하루 종일 잡고 있는 그릇된 생활 습관이 그 예이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청소 기숙사 청소도 작년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자신이 사용하는 공간인 방을 청소하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청소표를 작성하는 등 자발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기도 하고, 당번이 정해졌다고 해도 모두들 술선수범해서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다.

분리수거 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매점 사용도 금지하고 일주일에 주말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학교에서 큰 행사가 또는 다 같이 할 일이 있을 때 일거리가 생겨도 자기 일만 후딱 해치우고 다들 사라져 버린다. 다같이 몇 번만 하면 될 것을 하는 사람만 하니 공동체 생활에 큰 영향이 미친다.

간디학교에서 의·식·주 교육을 통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데, 간디인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고 그 결실을 거둬들이는 일도 적으며, 실제 우리가 먹는 식단에서 먹어본 음식은 거의 없다. 간디학교에서 텃밭을 체계적으로 구

체적으로 계획을 짜 우리 식단의 한 끼라도 올라오도록 간디인과 함께 노력해갔으면 좋겠다.

간디학교를 자신 생활의 일부로 여겨 학교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인디언이 자연을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듯이 간디인들도 작게는 간디학교를, 넓고 크게는 자연을 자기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해 간디학교와 자연을 위해 스스로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간디인이 되었으면 한다.

## <결 론>

인디언들은 자연의 모든 것들에게 생명이 깃들여 있고, 그것 모두를 하나의 생명체로 여겨 사랑하고 아끼며 사는 아름답고 신비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은 소유할 수 없는 것이며, 모두가 언제든지 쉴 수 있는 휴식처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고 있었기에 자신들을 말살시키려는 거대한 문명 앞에서도 자신의 목숨보다도 대지를 먼저 생각했으며, 공동체적으로 자연을 지키려고 우선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인디언들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느끼고 자연 안에서 모든 것을 배웠으며, 음식과 옷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필수품을 자연에서 얻어 냈으며,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렸다.

간디학교에서도 나무와 흙으로 만든 도서관을 짓고 생태적인 화장실도 만든다고 한다. 간디인도 모두가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과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것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우리 간디학교가 위치해 있는 선고리나 우리 학교의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나 일주일에 세 번을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날로 지정한다든지,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해서 학교 안에서부터 자연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갈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다른 누가 대신해 주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일이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하는 태도를 자연과 자기 자신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생명체로 바라본다면 자연의 고마움과 사랑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이다. 간디인들이 자연 속에서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고 자연 속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

우리는 간디학교라는 교육 공동체에서 3년을 살아간다. 간디학교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최고 학년 중3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느껴진다. 비록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중3들이 학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모두 함께 하자고 동기들에게

권하고 싶다.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후배들에게 최고 학년의 행동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학교 분위기도 자연 친화적이며 공동체적으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중3이 될 후배들에게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간디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여 최고학년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친구들이 전국 각지에서 와 이곳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는 그 시간들 속을 하나처럼, 가족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연으로 만났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역사 속에서, 자신의 운명 앞에서, 간디의 역사 속에서 간디인들이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지켜 나가고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된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앓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또 다른 노력일 수 있을 것이다.

## 논문을 마치며

먼저 논문을 쓰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다.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는 학교는 아마 우리 학교 밖에 없을 것이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내 생애 절대 잊지 못할 중학교 생활을 지낸 것 같다.

남은 학교생활 두 달 정말 간디인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게 열심히 생활할 것이다.

밤새 가면서 하루 종일 논문을 쓰면서 정말 열심히 했다. 힘든 만큼 끝낸 뒤의 희열은 내 가슴을 뺨 뚫은 듯한 시원한 느낌이다. 논문을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새로운 경험을 하였으며,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의 소중함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인디언의 삶과 간디인의 삶을 연결하여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제를 정해 논문을 직접 쓰고 나의 주장을 펼쳐 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나름의 지식적인 한계와 글을 써 나가는 데 필요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마치게 된 것에 대해 ‘하나 되어 연결된 모든 것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나의 논문 지도와 힘이 되어 주신 병삼쌤, 밤마다 정성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고 걱정해 주신 손쌤, 논문의 틀을 잡아주시고 격려의 말을 해주신 사부님, 밤늦게까지 걱정해 주시고 논문 편집하는 데 정말 도움을 많이 주신 혜상쌤, 논문에 막혀 끙끙대고 있을 때 따뜻한 한마디와 힌트를 던져 주시고 홀연히 사라지시는 태쌤, 논문을 열심히 쓰라고 공강을 내주신 임주쌤, 희숙쌤, 필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밤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해준 우리 반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 <참고문헌>

류시화,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인디언 식으로 세상을 사는 법』, 김영사, 2003.

마리산도스 『인디언의 전설 크레이지 호스』, 옮긴이 김이숙, 휴머니스트, 2003.  
양희규,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 내일을 여는 책, 1997.  
여태전, 「간디학교의 대안 찾기 : 삶과 교육에 관한 연구」, 2002.

## 「0에 관한 보고서」



— 오창민

1989년 01월 23일생

혈액형 / B형

학력 / 리라유치원 - 청암유치원 - 승학초등학교 - 뚝중 -  
반딧불자연학교 - 간디학교 (논문 당시 중졸)

별명 / 비밀

취미 / 낮잠 안 자고 야간작업, 음악감상, 독서, 게임과 정보 공유

특기 / 낮잠 자기, 야행성

소속 / 개그동아리(부회장직 창립 멤버), 야구부(좌익수 창단 멤버), 활빈당

좌우명 / 정한 것 없다. 그냥 내 판단에 옳은 것을 행할 뿐.

## 논문 서문

주제를 자연과학 부분으로 잡은 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일단 사전 지식 부족과 어려운 내용 선택 그리고 논문의 범위가 너무 넓었다. 차츰 논문의 범위를 줄여가던 중 0이란 존재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로 했다. 0이란 존재는 지금의 수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그 쓰임새가 같은 다른 정수보다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시급하진 않지만 누군가는 생각해봐야 했던 부분이고 평소 의문점까지 더해 나는 이 논문에서 0에 대해 여러 가지 시점을 가져보고 실험적인 과정을 가져 보고 싶다.

내 가설은 실수 혹은 정수 부분에서라고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게 가능하다는 거였다. 하지만 그 것은 수학에서 하나의 약속이고 이미 많은 증명이 있다. 그리고 일단 시도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많다. 인정하는 순간부터가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다.

내 논문이 가지는 중요 요소 중 하나는 발상의 전환이다.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내 논문의 시작과 끝 그리고 목표는 바로 발상의 전환 즉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기본 틀은 기존의 것으로 한다. 발상의 전환은 특히 자연과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위상기하학을 들어보자.

현재의 기하학은 유클리드에서 끝났고 그가 세운 5개의 공준과 공리는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문제점을 찾아보려 했지만 별 다른 문제점 없이 넘어간다. 그러다 우연히 생각을 바꾸어 생각 바꾸어 위상기하학을 생각해본 것이다. 위상공간에선 일반 도형의 상식이 먹히지 않는다. 물론 유클리드가 틀리다는 것은 아니다. 평면에서 그는 존재한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묻는다. 물론 그 부분은 그리 시급한 증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존의 수학에 대한 반항이고 단순한 오만일 수도 있다고. 0은 그 필요성에 비해 과거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자리표기나 무의 존재를 아주 명확히 해결해 주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래서 난 이 논문에서 0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의 존재 자체를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예부터도 이런 작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많이 행해졌다. 6세기경 인도에서 시작했고 이만한 위치에 서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스에도 0이 없었다. 수학의 꽃을 피운 나라 그리스에서조차 0의 쓰임이 없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대제국인 로마도 찬란한 문화나 역사 속에서도 0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숫자만 보면 골치가 아프고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늘어나는 숫자를 요즘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다. 단지 0의 존재 하나 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편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엄청 편한 것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만약 우리가 아직 로마 숫자를 사용했다면 우리는 최악의 학문으로 수학을 꼽을 것이며 나라면 이미 때려 치웠을 것이다. 혹은 그리스와 로마에는 0이란 존재 자체는 있었지만, 여러 부분에서 정서가 맞지 않았던가, 많은 부분에서 일반적인 수들과 다르다거나, 그냥 정서에 맞지 않았던가 하는 이유로 사용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다.

0의 흔적은 그 이 외에도 많은 문명 속에서 발견이 되어 왔다. 최근 로버트 카플란이란 저명한 수학자도 0에 대한 논문을 낸 바가 있다. 0을 역사에 따라 그 존재 자체만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갔다. 나와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도 있었기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시작이 1이다. 하지만 그 것 때문에 문제를 걸 필요는 없다.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좌표평면은 원점도 0이고 수의 시작 역시 0이다. 우리는 보통 바로 세면 1부터 시작하곤 하지만 거꾸로 수를 세면 0을 끝으로 잡곤 한다. 우리는 이렇게 0이란 중심적인 존재 본 바탕에 두고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 논문 본문

### 1장. 이론 정리

0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다. 0에서 양수를 뺀다면 그 답은 음수다. 음수에서 0을 뺀다면 음수이고, 양수에서 0을 뺀다면 그 답은 양수이다. 그리고 0에서 0을 빼면 0이다. 이걸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단 음수를 이해 못하는 몇몇 사람은 제외). 간단해 보이지만 놀라운 의미가 숨어있다. 0이 다른 수들과 닮은 점 중 하나가 이 속에 숨어 있다. 바로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을 빼면 0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0은 자기 자신에 자신을 더해도 0이다. 이러한 수는 0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점이다. 0은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다른 수들과 다르다. 예를 들어 우린 수학에서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다. 하지만 난 앞에서 말한 바 있듯이 내 논문의 주요 가설은 실수에서 0으로 어떤 수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왜 금기시하고 있는지 간단한 귀납적 추리로 예를 들어보자.

(1) $2*2=4$	(2) $10/3=10/3$
$2*1=2$	$10/2=5$
$2*0=?$	$10/1=10$
$2*(-1)=-2$	$10/0=?$
$2*(-2)=-4$	$10/(-1)=-10$
	$10/(-2)=-5$

1번식의 경우를 보자  $2*0$ 은 상황으로 추론해 보았을 때 0이 들어가면 맞을 것 같다. 하지만 2번식을 볼 때  $10/0$ 은 나머지 식들로 답을 예측조차 안 된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귀납적 추론은 수학에서의 증명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대수적인 접근으로 증명을 해보자.

0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을 경우.

$17*0=0$  이다,  $6*0=0$ 은 역시 0이다. 그렇다면 둘은 같다고 할 수 있다.

$17*0=6*0$  이런 식이 나온다. 여기서 양변을 0으로 나누어 보자.

$17*0/0=6*0/0$  그렇다면 0끼리 상쇄돼서 결과적으로

$17=6$  이라는 황당한 식이 나온다. 물론  $17=6$ 이 맞는다고 증명할 수만 있다면 내 가설은 들어맞는 것이고 증명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내가 이 논문을 써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6은 17이 아니다(증명식 참조 0의 세계: 로버트 카플란).

현재 수학에서 어떤 수를 0으로 나눈다면 그 것은 무한대라고 정리하고 있다(옛날 1115년경 인도의 수학자 바스카라가 무한대라고 했다). 결과는 나누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컴퓨터의 경우를 들어보자. a란 수를 b로 나눈다는 건 a에서 b가 몇 번 빠지는가로 나타낸다. 그렇다면 0의 경우로 생각해 보자. 10을 0으로 나눈다고 치자. 그렇다면 0은 10에서 몇 번 빠지는 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을 때 대부분 무한대라거나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바꾸어 보자. 0은 10에서 몇 번 빠지나 했을 때 쉽게 생각하면 한번도 안 빠진다고 볼 수도 있다.  $10/0=x$  라고 했을 때  $0/x=10$  이라는 식은 성립한다. 여기서 x를 무한대로 뒤 보자. 0에 10을 무한히 곱해도 답은 0이다. 하지만 0도 사칙연산에서 다른 수들과 다른 부분이 보이듯 미지의 존재인 무한대 역시 그렇지 않을지. 위치만 있는 점이 모여서 어떠한 하나의 존재를 이룰 수 있다면 0이 어떤 것과 결합하면 하나의 완벽한 수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0을 0으로 나눈다는걸 보자.  $1/1=1$ ,  $2/2=1$  같이 그 분모와 분자가 같다면 그 답은 1이다. 그렇다면 0의 경우 역시 1로 둘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들의 수학책과 선생님들은 0은 제외라는 말을 붙이곤 한다.  $0/0=1$ 이라고 하면 역시  $1*0=0$ 이란 식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이 식도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은 아니다. 다른 부분에서의 오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보통 수학에선  $0/0$  쉽게 생각하면 분자와 분모가 같은 0인 수 그냥 말해서 '0 나누기 0'이라고 보면 된다.  $1/1$ 은 1,  $2/2=2$  이렇게 생각해서 단순히 1로 단정 짓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다. 분모가 같아서 그 답이 1이라는 걸 생각하기 전에 분모가 0인 분수는 현실에선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0/0$ 조차도 아직은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부분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증명 하나를 보자.

$A = B$ 라고 두고 시작했을 때 B를 이항하면

$A - B = 0$  라고 나오는데, 여기다가 양변에 C를 곱한다.( $C \neq 0$ )

$C(A - B) = 0$ 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시 C로 나눈다고 하면

$A - B = 0/C$  라고 나온다. 여기다가 아까 말한  $0/0=1$  이라는 식을 적용한다면,

$A - B = 1$ 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 정리해서 보자.

$A + 1 = B$  라는 식이 나와 버리는 것이다. 문제점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이 증명을 보자. 시작은 ' $A = B$ '라고 시작했는데 끝에 가서 ' $A + 1 = B$ '라는 초등학생도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 버린다. 하지만 물론 이 증명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분명 아직까지는 0으로 어떠한 수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게 통념이다. 그래서 보통에선 이 증명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내 논문에 상식 하에서만 그것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어떤 수를 나누면 무한이 된다는 주장을 대입시켜 보자. 0도 결국은 실수의 한 부분이고 무한대를 그 사이에 넣어 보자. 그렇다면 0/0의 답은 무한대에 있는 것일까.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다시금 나누기를 몇 번 빠지는가로 정리하고 문제에 접근해 보자.

0을 0으로 나눈다면 0을 0 속에서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까. 다른 수처럼 한 번 뽑아내고 끝일까. 알겠지만 0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거기서 무언가를 뽑아낸다는 것은 얼핏 보기엔 말이 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답은 0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0에서 0을 뽑아낸다는 점이다. 무에서 무를 뽑아낸다면 그 값을 무한히 끄집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한대로 두면 그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위의 증명에서 무한대를 대입시켜 보면 안다.

$A - B = 0/C(C=0)$ 가까 사용했던 증명이다. 0/0=무한대라는 식을 적용해보자.

$A - B(A=B) = \infty$  라는 식이 나온다. 하지만 좌변은 0 그렇다면 0은 무한대라는 값이 나온다. 그렇다면 아까는 문제 제기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증명의 해답은 0이 돼야 성립한다. 결국 이 증명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이 부분을 눈감아 주자.

어떤 수를 0으로 나눈다는 것, 이 부분에서는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더 있다. 좀더 사고의 폭을 넓혀 보는 것이다. 과연 어떤 수에 0을 곱한다는 점과 0을 어떠한 숫자로 나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보면 어떤 수에 0을 곱한다는 것도 참 이상한 작업이다. 우리들이 잘 쓰는 그런 숫자들에게 아무 것도 아닌 것이 곱해지더니 자신과 똑같이 만들어 버리니 말이다. 쉽게 말해서 어떤 수  $x$ 에다가 0을 곱하면 0이 된다는 것이다. 곱한다는 것, 흔히 우리는 곱한다는 것을 ' $a*b$  라 했을 때  $a$ 가  $b$ 번 더해진다.' 라고들 한다. 알기 쉽게 하자면  $3*4 = 3*3*3*3$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 문제는 쉬워진다. 어떤 수에 0을 곱한다는 것은 어떤 수를 0번만큼 더한다고 했을 때 결과는 0이다. 3이던 4던 한번도 더해지지 않으면 0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0이란 답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니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을 듯 싶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0을 실수 부분에 어떠한 수로 나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0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 살펴보자. 옛날 브라마굽타([598~670] 인도의 수학자

이자 천문학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

‘양수나 음수를 영으로 나누면 영을 분모로 하는 분수가 되고, 영을 음수나 양수로 나누면 영이 되거나 혹은 영을 분자로 유한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가 된다. ...영을 영으로 나누면 영이 된다.’

이 주장에서  $x$ 를 0으로 나누면 0을 분모로 하는 분수가 된다. 이걸 그냥 표기법만 바꾸어 낫을 뿐이고 될 수도 없는 분수다.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간단히 증명했다.  $0/0=0$ 이라는 계산은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 0이 분모로 오면 안 될 뿐이거니와 여러 애매한 부분에서 이 부분은 증명이 안 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0을 어떤 수로 나눈다면 0이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이다.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듯이 그냥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도 굳이 증명을 보고 싶은 사람은 대학교수에게 찾아가 보도록. A4 용지 몇 장 분량의 내용을 듣고 싶다면 말이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는 뭐하고 이것 역시 귀납적 추리라도 한 번 해보자.

$5/10=1/2$	$-1/10=-1/10$
$4/10=2/5$	$-2/10=-1/5$
$3/10=3/10$	0 $-3/10=-3/10$
$2/10=1/5$	$-4/10=-2/5$
$1/10=1/10$	$-5/10=-1/2$

우리는 이 양 대칭 관계 중간에서 0을 찾을 수 있다. 결국 답은 대칭 관계 중간에 있는 0이다. 다시 한 번 말하겠지만 이것은 증명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논리이다. 이것이 절대적인 해답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수학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 제 2장. 수의 체계에서의 0

무한개의 방을 가진 호텔이 있다. 어느 날 이 호텔에 방이 가득 찼다. 그런데 한 손님이 찾아와 방을 요구했다. 문제는 간단하다. 손님들을 한 칸 씩 옆으로 옮기면 1번 방이 된다. 5명의 손님이 온다면 5칸씩 옆으로 방을 옮기면 된다. 그렇다면 만약 무한대의 손님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 모든 손님이 자기 방 번호에 두 배가 되는 방으로 옮기면 된다.

1-2, 2-4, 3-6, 4-8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홀수 방들은 비게 될 것이다. 무한의 손님들은 이제 방에 들어가면 된다.

유한집합이 그 자신의 부분집합과 일대일 대응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아마 진

부분 집합일 듯). 하지만 무한집합은 그 자신의 부분집합과 일대일 대응이 가능한 집합이다(이런 것이 가능한 집합은 둘 밖에 없다. 무한집합, 공집합, 단 공집합의 부분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앞에 것은 무한의 특별한 기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무한은 0처럼 신비로운 존재이며 재미있는 존재이고, 0과도 공통점이 많다.

무한대라는 존재는 말 그대로 무한히 숫자이다. 갑자기 무한대가 왜 나왔냐 하면, 무한대와 0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만약 0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무한대와 연결고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수를 0으로 나눈다면 그것은 무한대다라고들 많이 정의를 내린다. 물론 꼭 틀린 말은 아니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그 부분은 정의된 것이 아니어서 그것을 무한대라 주장해도 무조건 틀리다고만은 볼 수 없다.

혹시 0.999999... 이 1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황당한 말이지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순환소수는 그렇다.

$$x=0.999999\dots$$

$$10x=9.999999\dots$$

$$10x-x=9x$$

$$9x=9 \text{ 즉 } x \text{는 } 1 \text{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1.999999...는 2이고 2.999999...는 3이다.

생각해 보자. 극한의 값이 어떻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수들과 같단 말일까. 단순히 생각해봐도 2하고 3이 다르듯이, 물론 이런 무한 소수의 경우에도 엄연히 1 또는 2와는 다른 것이다. 그 존재 자체도 명확치 않은데 명확하고 올바른 값을 가진 자연수들과 동등하다는 것일까.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수학책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없다. 확정난 것은 아니지만 수학에선 옳다는 의견이 등등하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견해 차이는 있다. 여기 또 다른 증명이 하나 더 있다.

$$0.333333\dots \text{ 에다가 } 3 \text{을 곱하면}$$

$$0.999999\dots \text{ 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 0.333333\dots \text{은 분수로 나타내면 } 1/3 \text{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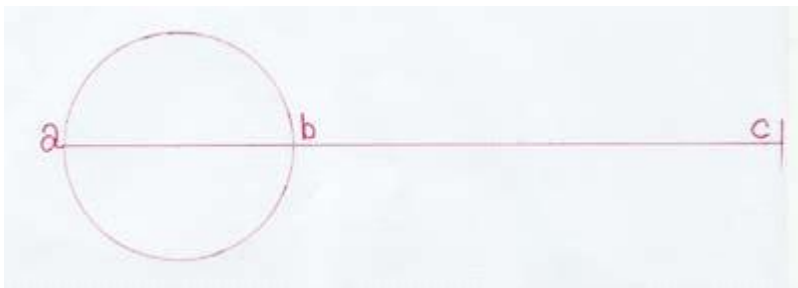
$$\text{그렇다면 } 1/3 \text{에 } 3 \text{을 곱하면 } 1 \text{이다.}$$

$$\text{그러므로 } 0.999999\dots \text{은 } 1 \text{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

황당한 증명식이 아닌가. 단지 표현 방식만이 변했을 뿐인데 0.99999...이 어느 순간 1로 변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사람들이 여기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0.000...1 (여기서...이란 무한대이므로 이 것을 유한소수로 보는 것은 안 된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자. 1에서 0.99999...를 빼다면 그 값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앞서 0.99999...가 1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건 역시 0.00000...1이다. 잘 생각해 보자.

맨 끝 자리수가 9인 경우 우리 거기에 1을 더한다면 앞쪽 한자리가 더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무한한 수를 잠재울 수 있도록 같은 무한대를 대입시켜 보는 것이다.  $0.99999\dots$ 에  $0.0000\dots 1$ 을 더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 끝없는 미지의 무한대를 잠재울 수 있을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다시금 말하지만  $0.99999\dots$ 는 1이다. 여기에  $0.0000\dots 1$ 을 더한다면 그 결과는  $1.0000\dots 1$ 이 돼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쉽게 생각해 본다면 그 해답은 1로 딱 떨어진다. 생각의 차이가 결과를 바꾸어 놓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0.99999\dots$ 가 1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수학에선 정확한 답이란 없다. 단 아직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고 있을 뿐 문제점이 생긴다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수학이다. 비록 그것이 하루아침 만에 바뀌는 것은 아니어도 틀린 답은 언젠가는 드러나고 올바른 답이 그 정점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증명이다.



그림에서  $ab$ 는 원의 지름(1)이고  $ac$ 는 원둘레(원주율)라고 하고 이 값을  $3.x$ 라고 하자. 그리고 수와 그림(원)을 같은 근본에 놓고 비교하여 정의한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학자들은 원에 내접하는 정6각형을 그려놓고 정6각형의 길이 단위를 3이라 한다. 이렇게 하여  $6, 12, 24, 48, \dots$ . 정다각형을 더하여 가  $3 + 0.1 + 0.04 + 0.001 + 0.0005 + 0.00009 + 0.000002, \dots$ . 무한의 소수점  $3.141592, \dots$ 로 갈 것이지만 결코  $3.x$ 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제는 직선  $ab$ 를 같은 방식으로 해보자. 직선  $ab$ 를 2등분(또는 3등분) 하고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한다면  $2, 4, 8, 16, \dots$ 등분을 무한대로 만들어  $0.5 + 0.25 + 0.125 + 0.0625, \dots$ . 이러한 방식을 취하여 합산하여 간다면 0점 다음 앞에는 무한대의 9가 있을 것이고, 또한 9보다 작은 수들이 꼬리표를 영원히 더할 것이다. 이제는 직선  $ab$ 를  $9/10$ 씩 자르고.

나머지의 값도 무한히 반복하자 이렇게 하여 더하여진 값이 무한소수  $0.999\dots$ . 일 것이다. 이제는 원(원둘레 값 1인)도 같은 방식으로 원에 내접하는(수에서 1아래와 같이)  $0.9$ 의(수) 값을 가진 정 $n$ 각형부터 출발하여 수에 비교하여 무한소수  $0.999\dots$ .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무한대의 정 $n, \dots$ 각형을 만들어 갔다고 했을 때 정신 이상자의 수학자가 아니라면 그 값을 원(원둘레 1인 값)이라고(여기의 수에서 1이라 함은 즉 완전한 하나, 일치 완성의 의미라 할 것이다) 정의하여 놓진 않을 것이다. 결코 1에(원)도달하지 못함으로.....

따라서 무한소수  $0.999\dots$ 는 분자에는 무한대의 9가 있고 분모에는 그 값보다 딱 1이 더하여진 분수의 값이라 할 것이다. 이것을 수에서 무한소수  $0.999\dots$  라 함은 그림에서 원(완전함,

완성, 원둘레1인)을 분모에 두고 무한소수 0.999...에 해당하는(수) 무한대의 정n...각형을 분자에 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분모에는 완전함이 있고 분자에는 부족함이 있는 값이라 할 것이다. 혹자는 무한소수 0.999...를 무한소수 0.333...의 3배의 값이니 1이라 한다.

되물고 싶다. 무한소수 0.333...은 0.3과 1/3이라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니 무한소수 0.999...를 0.9와 3/3이라 표시 할 수 있느냐고? 만약 12진법을 사용하였다면 그러한 비교가 나올 수 있는 것이냐고? 또한 어떤 수에다 어떠한 수를 나눔 하여야 무한소수 0.999...를 만들 수 있느냐고?(중요하게도 여기에 대한 의문의 바탕은 정립하여 놓지 않은 채...)

그리고 분자와 분모의 값이 일치 하느냐고? 그리고 앞뒤에 1이 각각 있고 앞 1의 숫자 다음에 점을 찍고 그사이에 0을 무한대로 넣어 놓는다면 그 숫자에는 어떠한 값을 매겨 놓을지? 자신은 분모에는 1 다음 0이 무한대로 있고, 분자에는 그 값보다 딱 1이 더하여져 있는 분수의 값이라 정의하여 놓겠지만..... 그리고 무한소수 0.999...로 만들어 이어가는 과정 군데군데 8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 놓는다면 그 숫자는 어떻게 정의하여 놓을 것인지? 또한 무한소수 0.999...로 이어가는 과정 우주가 소멸하는(너무 비약된 예지만)어느 시점에 8이라는 숫자 하나만 짚어 넣고 무한으로 9를 계속 이어간다면 어느 시점까지를 유한소수 0.999...라고 할 것이냐고? 그리고 원(원둘레 값 1)에 내접하는 무한대의 정n...각형을(수의 값으로 비교했을 때 무한소수 0.999...) 1(원)이라 정의를 내릴 수(이것은 결코 원에(완전한) 도달할 수 없다) 있느냐고? 그리고 0점 다음에 무한개의 9가 있는 무한소수와 1점 다음에 무한개의 0이 있으면서 끝자락에 1의 숫자가 딱 한 개 붙어다니는 무한소수 중에 점 다음에 있는 무한대의 개수의 수가 서로 동일한 값을 가진다면 1(참)의 경계선에 있는 두수의 값이(거리) 서로 다르다고 정의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1.000...0이 무한개 있으면서 끝자락에 1의 숫자가 딱 한 개 붙어다니는 무한소수의 수에는 어떠한 수를 대입시켜 보탬을 하여야 2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느냐고? 여기에는 무한소수 0.999...를 대입시켜 더하여 야만 2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고?

그리고 무한소수 0.333...은 분자에 1에 0이 무한대 있는 것이라면 분모에는 3에 0이 무한대 같은 비율의 개수로 있는 분수의 값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무한소수 0.999...는 분자보담 분모에 하나의 숫자 개수가 더 있는 분수의 값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무한소수 0.999...는 더도 덜도 아닌 액면 그대로의 값일 뿐이며, 참에서 극이 벗어난다면 이미 그 값은 참이 아니며, 극한은 결코 참을 수렴(거두어)할 수 없다.

이해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리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증명에는 곳곳에 허점이 보인다. 뭐 그래도 그리 엉뚱한 부분은 아니니 우리는 이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0의 0승이 무엇일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우리는 중학교 과정에서 제곱을 배운다. 하지만 교과서 그 어디에도 0의 0승에 관한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숫자를 0제곱한다는 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 문제의 답은 1이다. 이것은 수학에선 하나의 약속이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많은 식들이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것은

증명도 아주 간단하다.

$4^5/4^3 =$  얼마인가??  $4^2$ 승이다. 이것은  $4^{(5-3)}$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4^5/4^5$ 는 얼마인가.

$4^{(5-5)=0}$ 이다. 이 분수는 분모와 분자가 같으니 답은 1.

$(1/2)^0$ 이라던가  $(1/5)^0$  역시 답은 1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0^0$  이다.

$0^0$  이라면 다른 수들처럼 1이 아닐까?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

$0^5/0^5=0^{(5-5)=0}$  식을 풀면  $0^5$ 는 0이니깐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은  $0/0$ .

하지만 이미 앞서 말했듯이  $0/0$ 은 아직까진 1로 정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로선  $0^0$ 을 1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럼 여기서 0에 대한 다른 의문점 0!

(!=factorial) (여기서 factorial이란?  $5!=5*4*3*2*1$ ,  $4!=4*3*2*1$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그렇다면 0! 은 과연 무엇끼리 곱해지는 것일까?

그리고 문제는 왜 하필 이것을 1로 정의했느냐인데, 이 부분은 증명보단 그 조합(combination)을 구하는 공식 때문이다.

$nCr = n!/r!(n-r)!$  이 공식이 있다.(여기서 C가 combination의 약자다.)

이 식에서  $n = r$ 인 경우  $nCn = 1$ 이지만, 우변을 풀면  $1/0!$ 이 된다.

보통 0!이 나타나지 않도록  $0 \leq n \leq r$  인 경우만 공식을 적용하고,  $n=r$ 인 경우는 따로 계산해도 되겠지만,  $0! = 1$ 로 정의하면 공식이 별 무리 없이 적용 된다.

그리고 이런 식이 있다.

$n/n! = (n-1)!$  라는 식에서  $n$ 을 1이라 한다면

$1! = 0!$  이라는 식이 나온다. 여기서  $1!$ 은 1이므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저 식이 과연 0에게도 통하느냐는 것이다. 알다시피 0은 많은 부분에서 제한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다른 수와 같은 상식이 통하느냐는 것인데, 0에도 다른 것들처럼 똑같은 방식이 적용할지 아님 0은 제외일지 그 부분이 문제다.

하지만 단순히 조합을 구하는 공식 때문이던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부분에서라도 이런 터무니없는 답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앞에 제곱을 보는 방향으로 한 번 증명해 볼까.  $4!/5!$  은 어떻게 될까?

$$4! = 4 \times 3 \times 2 = 24, 5! = 5 \times 4 \times 3 \times 2 = 120, 120/24 = 5$$

재미있지 않은가. 답은 5가 됐다. 어렵게 생각할 부분도 아니지만 !에서 자기보다 숫자가 1만큼 크다면 그 답은 1큰 그 숫자만큼 곱해진 것이 된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x+1)! = x! \times (x+1)$  이렇게 되는 것이다. 만약 숫자가 2만큼 더 크다면,

$(x+2)! = x! \times (x+1) \times (x+2)$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가는 것이다.

더 이상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알고 있다. 굳이 '3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직접 계산해 보도록.

좋다. 그렇다면  $5!/5!$ 은 어떻게 될까? 계산해 보면 된다.

$5 \times 4 \times 3 \times 2 / 5 \times 4 \times 3 \times 2 = 1$  이라는 답이 나온다. 결국  $1! = 1$ 이라는 답 이외에 내려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방법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5! - 5!$ 은 어떻게 될까? 물론 그 답은 0이 된다. 그렇다면  $0! = 0$ 이란 말인가. 물론 그 것은 아니다. 5!에서 5!을 뺀 것이 0!이라는 증거가 없다. 그냥 0일 뿐이다. 결국 이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냥 편의상 0!을 아직까지는 1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하지만  $5! - 5!$ 이 0!과 같다는 것을 정확히 발견해낼 수만 있다면 바뀌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번 장에서는 0에 대한 여러 부분을 수의 개념에서 살펴보았는데 놀랍고 애매한 부분이 많았다. 0이란 것은 그 어디에 가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재란 것을 장이 거듭될수록 느끼게 된다. 이번 장에서도 역시 0이 다른 숫자와의 다른 점 때문에 0의 각 여러 부분에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번엔 기하학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 제 3장. 기하학

내 주먹이 포개져 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공기? 그렇다면 공기를 다 빼낸다면 무엇이 남을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하기가 쉽겠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자. 정말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공간이다. 공간이란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물체가 점유하고 있지 않은 곳. 즉 아무 것도 없이 비어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역시 3차원 공간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살펴볼 부분이 바로 기하학이기 때문이다.

기하학, 이번엔 도형을 말하고 싶다. 도형과 0이 무슨 상관이 있냐 한다면 앞 장에서 이미 눈치 채 사람도 있을 것이다. 0과 점, 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점은 길이도 부피도 없는 0의 존재이다. 0과 같이 점에겐 위치만 있을 뿐이다. 전 장에서 말했듯이 실수 부분에 가면 수직선을 딱 채울 수 있다고 한다는 건 단순히 그런 숫자들이 수직선에 대응되는 각 점들

이 숫자들과 1:1 대응이 되는 즉 꼭 채운다는 의미보다는 실수들이 수직선 내에서 자기만의 위치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난 생각한다.

점이란 것은 나타낼 수도 없으며 가진 것이라고는 위치뿐이다. 종이 위에 점을 찍을 수 있다고들 하는 데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 그것은 0이 아니다. 이미 아주 작지만 길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점이 아무런 존재가 없다면 선과 면, 그리고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선 역시 나타낼 수가 없다. 선을 나타낼 수 없다면 이미 넓이나 부피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것들은 제대로 된 도형이 아니라란 것을 알게 되었다.

0이 모든 숫자의 원점이라면 점은 모든 도형의 시작이다.

선이란 것은 나는 점이 지나간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면이란 사방이 선으로 둘러싸인 경우라 할 수 있겠다. 만약 조금이라도 틈이 있다면 그것 역시 면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입방체란 무엇일까. 그건 면이 지나간 흔적으로 볼 수 있겠다. 점이 모여 선이 된다면 그냥 입방체 역시 면이 모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둘러보다 보면 점의 여러 쓰임새를 찾아볼 수 있다. 빈 공간, 명확하지 않은 것, 등등 그리고 0의 역할. 점이 왜 0이 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도형 속에서 찾아보자.

이번에는 대수적인 바탕을 깔고 도형으로 접근해 보자. 이런 문제를 보자. '선에서 선을 빼 보인다.' 선을 기하학에서 일반적인 숫자들과 비슷한 입장으로 보자는 것이다.

$$\text{—————} - \text{——} - \text{—————} = \text{?????}$$

'선에서 선을 빼다.'라. 참으로 어이없는 문제가 아닌가. 길이만으로 놓고 따져 보자. 우리는 여기서 두 선의 길이를 똑같이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길이는 무한대가 아니다 라는 가정 하에 이진 선분이다.). 그러므로 길이만으로 본다면 답은 0이다.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을 빼다면 그 답은 0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게 수의 어느 부분에 가셔도. 정수든 무리수든 심지어는 복소수까지도. 좋다. 길이만으로 본다면 답은 0이다. 그렇다면 진짜 선에서 선을 빼다면 어찌 되겠는가. 애매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답은 다들 예상하듯이 점이다.

선은 점이 지나간 흔적이라 했다. 그러므로 흔적이 지워졌으니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선의 창조주인 점이다. 점은 아까 말했듯이 형체가 없다. 선에서 선을 빼다면 그것은 형체가 없는 존재가 아닌가. 선에서 선을 빼면 점이라는 나의 해답 그게 그리 이상한가?

선은 길이라도 있으니 어떠한 연산이 가능하지만 점은 그렇지 않다. 점은 0과 같은 존재라 했다. 그러므로 웬만한 연산으로 다른 도형들과 같이 보면 곤란하다. 0이 그랬듯이.

'선에서 선을 뺐으니 아무 것도 안 남는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바라던 질문이다. 안 남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0이고 그게 바로 점이다. 0이란 존재가 도형으로 가면 어느새 점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면으로 볼까. 우리는 면적을 구할 때 선 \* 선으로 구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선 \* 선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한 선이 다른 한 선에 길이만큼 펼쳐져 있다.’라고 보면 어떨까.

그림으로 보자면,



세로로 누워 있는 선(A)이 가로 선(B)의 길이만큼 퍼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과연 A선이 B선에 길이만큼 펼쳐져 있다 할 때 과연 A선이 B선에 길이만 무수히 뻗뻗하게 들어서 있다 하면 내가 처음 말한 것은 완전히 광이 되는 것이다. 선은 점의 시점에서 봤을 때 자신에 혼적이다. 그런 선이 길이가 아닌 부분에서 이어져 선이 만들어진다는 건 점이

모여 선이 된다는 소리와 같은 뜻이 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무한대이다. 여기서 이러한 가설을 한번 던져볼까. ‘A선이 B선만큼 무수히 뻗뻗하게 즉 무한대로 들어서 있다. 그리고 그것이 면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명제를 던졌을 때 지금까지 찾아왔던 답을 우리는 기하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선에는 길이 이 외에 다른 부분 쉽게 말해 길이를 선의 가로라고 한다면 세로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없다는 것은 점이다. 그런데 그러한 점들이 무수히 모여 어떠한 값을 가지는 선이 된다. 우리가 여기서 점과 0을 대수와 기하학을 이어주는 열쇠로 보고 1:1 대응을 시킨다면 점을 무한히 곱해주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대수적으로 표현하다면 ‘0이 무한히 곱해진다면 그 값은 진정한 참의 값에 오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쉽게 정리해서 어떤 수 A를 0으로 나눈다면 무한대가 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내가 원하던 답을 어떤 의미로는 찾았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기하학적인 의미와 대수적인 의미는 차이가 있다. 어디까지나 둘을 같은 상황으로 보고 점이 0 그 자체가 된다면 진정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처음 가설의 해답은 가까워졌다. 이것을 문제없이 매끄럽게 대수에 적용시킬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다.

## 제 4장.

지금까지 우리는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 0이라 존재를 살펴봐 왔다. 하지만 0은 수학에서만 머물러 있는 존재는 아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는 존재가 그 0이다. 가깝게는 과학 그리고 생활의 여러 부분 심지어는 인문학계 에서도 접할 수 있다.

0의 시작은 알다시피 인도 혹은 아라비아로 알려져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1400~1500년도 가량에 인도에서 다른 숫자(1,2,3,4,5,6,7,8,9)들과 함께 발명된 걸로 알려져 있다. 그 뒤에 아라비아로 옮겨간 뒤 그게 유럽으로 전해진 것이다. 그 뒤로부터 아무리 큰 숫자여도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고, 어려운 셈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마 그래서 그 뒤로 유럽에선 수학이 많이 발달하게 된 것 같다. 우리는 그 숫자들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혹은 왜 발명됐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로마 혹은 바빌로니아, 마야 문명 등의 숫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간편하다는 것이다. 그냥 자리수가 올라갈 때마다 0을 넣어주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적 유치원 시절에 별 생각 없이 간단히 배운 걸로 기억하고 있어 이 숫자에 대한 고마움 등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 숫자 덕분에 그 옛날 몇 천년간 유럽에선 할 수 없었던 작업들도 거뜬히 해낼 수 있었고 사칙연산 제곱근 등도 문제 없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아직 이집트나 로마의 숫자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집트 숫자로 2964 라는 숫자를 나타내려면 MMCCCCCCCCXXXXXIII이라고 표기해야 하며, 좀더 개량된 로마 숫자라 해도 MMDCCCLXIII라고 쓴다. 게다가 이 숫자들은 숫자가 한자리 늘어날 때마다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색즉시공이란 말을 아는가(야한 뜻이 아니다)? 불교에서 쓰이는 말로 최근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하지만 영화에선 한자를 다르게 해 뜻을 바꾸어 사용했으니 의미는 없다. 이 뜻을 간략히 말하자면 색, 즉 물질적인 사물의 본바탕은 공에 있다. 여기서 공이란 아마 정신적인 것 아니며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난 여기서 진리를 알 수 없고 색즉시공이란 의미를 알 수 없어 사전적인 의미로만 나타났다.

여하튼 불교는 공 혹은 무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나 공 둘 다 아무 것도 없음을 표현한다고 나는 보고 싶다. 즉 0과 비슷하게 봐도 별 무리 없을 것이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불교와 숫자 모두 인도에서 왔다는 점이다.[비록 인도에선 불교보다는 힌두교가 더 많기는 해도.(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점 때문이다.)] 아마 인도에서는 0을 대단한 수로 알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사람들은 0 덕분에 많은 수학의 어려움을 다른 문명들보다 잘 해결해 왔다. 그로 인해 종교도 영향을 받아 무란 존재를 중요시했을 수가 있다는 가설을 던지시 던져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 한다면 왜 불교에선 무를 중시하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진리 같은 건 모른다. 보이는 것만을 믿을 뿐.

우리의 일상에서도 0은 존재한다. 하지만 1에 밀려 그 빛을 잃은 존재이다. 우리는 1에 묻혀 항상 0이란 시작과 원점에 존재를 잊곤 한다. 하지만 왜 꼭 0으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 1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나쁠 것이 무엇 있겠는가. 책의 1권은 시작보다는 처음이라는 의미가 더 잘 부여되니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원점은 0이란 것이다. 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정수에 중간에 무엇이 있는가. 그 것은 0이다. 좌표평면에 원점은 좌표는 (0,0) 이다. 그리고 우리는 0으로 시작하는 것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스포츠에서 스코어의 처음 시작은 0:0이며, 하루의 시작인 자정을 우리는 흔히 0시라고 부른다. 1은 처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0은 시작의 의미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내 생각은 시작과 끝 모두 0이라고 생각한다. 자정이란 의미는 시작이란 의미 이외에도 하

루의 끝이란 의미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인생은 공수래공수거란 말이 있지 않은가. 어차피 아무 것도 없이 와서는 끝에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수에서도 그렇다. 똑바로 세어간다면 시작이지만 거꾸로 세어간다면 끝은 0이 된다. 이처럼 우리는 0에서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다. 시작과 끝은 동등하다. 결론은 모두 0이기 때문이다.

'0의 존재는 무엇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약간의 모순을 찾을 수 있다. 0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아무 존재도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기 스스로가 엄연히 있는데 아무 것도 없다니.

그렇다면 여기서 0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내 주어야 할 것인가. 0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억측이다. 0은 어디까지나 존재한다. 존재하는 것은 사라질 수도 있다. 0의 공백을 메워 줄 만한 존재가 없을까? 그건 아니다. 그 해답은 있다. 바로 0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공백을 메꾸면 문제가 없다.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했다. 그렇다면 0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 0을 쓰고 또 그 0을 다른 0이 변론해주고 또 다시 그 0을 또 다른 0이 메워주고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나가다 보면 결국 해답은 찾을 수 없지만 0은 자기 자신이 곧 존재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다. 쉽게 말해 0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고나 해야 할까. '0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0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해답일 듯싶다.

어쩌다 보니 0이 갈수록 참담해지는 듯싶으니 한 번 띄워 줘 보자.

우리는 0이란 돋보기를 통해 0을 들여다보고, 또 그 0으로 그 안의 0을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즉 그 무한대로 갈 수 있다.

양쪽에 거울이 마주보고 있다. 이 때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는 무한한 거울들이 이어져 간다. 0이란 존재는 이러하듯 여러 부분을 자기 거울에 비쳐 무한한 것을 보여주는 존재이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는 보잘 것 없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와 결합했을 때 비로소 0이 그 빛을 발한다.

1이라는 숫자가 있다. 자연수 중에는 제일 작은 수이다. 이 수를 단숨에 열 배로 해 줄 수 있는 존재 그 것이 바로 0이다. 9를 더하면 더 크다는 무식한 생각은 말은 안 하기를... 10이 없다면 19따윈 존재하지도 않으니깐.

0은 숫자를 늘려주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앞에 점과 함께 붙이면 10배가 적어지고 자신을 곱해주면 상대방을 자신과 똑같이 만들어 준다. 0은 항상 혼자 일 때보다는 함께 할 때 그 빛을 발하는 것 같다. 그 모습이 마치 혼자서 별 존재 아닌 총알 하나가 총이라는 물체와 결합해 강한 파괴력을 보여 주듯이 말이다.

게다가 0의 능력은 또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수십 번도 더 이야기한 다리의 역할. 0은 수학의 여러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과의 만남을 주선한다. 여러 번 말한 무한대와도(내 논문에서 어떤 수를 0으로 나눈다면 그 값은 무한대라고 정리했다.)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를(정수 앞에 점과 함께 0을 주어 보라. ex : 0.1) 또 무리수를 정수가

지도(무리수  $x \neq 0$ ) 끌어들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논문 결론

지금까지 무척이나 힘든 작업들을 해왔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충돌하고 아직 배경 지식도 부족한 내가 접하기엔 조금 버거운 작업이었다. 하지만 이 것으로 나름대로 얻은 것이 있는 것 같다. 그 중에 하나가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자세가 좀 더 나아졌다는 것. 내가 생각해도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깊이 생각하는 자세였다. 논문 덕분에 좀 나아진 듯싶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내가 처음 잡았던 가설 일부 부분에서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던 점, 원래 이 부분은 수학에선 잘 거론되지 않는 까다로운 부분이다. 그냥 하나의 약속으로 보면 무난하겠고 그 약속은 지금의 수학 체제에서는 불변의 값으로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그 답을 평범한 수 체제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결국 결과를 무한에서 찾기로 했다.

무한과 0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이다. 0을 조금만 가공처리 해도 바로 무한의 값이 나오니 말이다. 무한은 추상적인 값이고 그 한계가 보이지 않는다. 무한은 결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말도 있을 것이다. 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 수를.

결과적으로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그 결과가 일반적인 숫자와는 차이가 있어 수에 체계에 대입하는 것은 조금 힘들 뿐이다. 이번 가설 해결의 큰 도움을 주었던 부분은 기하학에 있었다. 비록 그것이 대수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싶다. 어떠한 값을 내 주관적인 입장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요점은 무한대라는 값은 이 논문의 결과로만 보면 된다. 굳이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그 해답을 구하지 못했다. 그 중 특히 아쉬운 부분이  $0/0$ 이다. 도대체 어떻게 정의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 존재자체가 복잡했다. 분모 분자가 같으니 1이라고 정리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처음부터 분모에 0이 왔으니 제대로 풀 수 없는 문제였다. 그리고 이것은 무한대로 놓기에도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다.

0이란 신비한 존재는 다가갈수록 골치 아파지고 간단한 사칙연산 자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접근이 더 어려웠던 것 같다.

요즘 사람들은 0의 고마움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듯싶다. 교과서에 항상 0으로 나누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명제에 아무도 그러한 질문을 던진 사람을 아직 난 본 적이 없다. 교육에 문제를 두어야 할지 갈수록 문제 푸는 기계로 변해가고 있는,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여 절망적인 수능시험 결과가 현 시점이 문제일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답만 알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박아가고 있는 현실이 문제인지. 이러한 부정적인 낙담은 되지도 않는 인간들이 늘어놓는 푸념일 뿐이다. 아직까지 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단지 귀찮을 뿐이라고 해석해야 하는가. 그리고 단지 모든 것이 책 속에 다 나와 있어서 탐구심이 옛날보다 더 떨어졌을 뿐.

이 논문을 쓰면서 느낀 점이지만 자료의 한계가 무엇보다도 힘든 점이였다. 참고 문헌도 다

른 부분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이 외의 자료들 역시 부족했다. 이 어렵고 난해한 부분을 사람들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나 보다. 몇 편의 논문들을 살펴보았지만 유쾌한 해답을 준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긴 수학엔 유쾌한 해답이란 없지만 말이다.

원래 수학이란 현실에 존재 할 수 없는 상상 속에서의 논리 전개를 하는 학문이다. 수학에 정확이란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써서도 안 된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점을 찍으며 그것을 점이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점이 아니고, 자를 사용해 3cm를 그었다고 해도 그것 역시 3cm가 아니다. 수학은 나타낼 수가 없다. 그냥 단지 나타내는 것은 보다 낫은 해답을 구하기 위해 머리 속 부족한 용량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허구적인 사실들을 기호에 맞춰 꺼내 놓았을 뿐이다. 그렇기에 수학만큼 불확실한 학문도, 일상의 문제들의 해답을 은근히 제시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이 글을 마치며 그동안 여름 방학 내내 논문과는 담을 쌓게 놀기만 했던 것이 후회된다. 그럼 요 며칠 밤낮을 넘나들며 머리를 쥐어짜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후회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다고 생각하는 나이지만 이번만큼은 좀 반성을 해야겠다. 아무튼 나의 처음 목표는 달성이다. 이 논문을 무사히 마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노력이 크면 기쁨과 완성도 역시 크게 보는데 나 역시 나 자신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것이 기쁘다. 허점투성이의 중3의 논문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마지막으로 하나 해두고 싶은 말이 있다. 'A는 B다'라는 말과 'A는 B 같다.'라는 말은 엄청나게 다르다. '같다' 같은 비확실한 말은 자기주장이 강력해야 하는 논문과는(수학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확실 하게 말하면 불리하게 작용되는 점이 많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시대에는 통하지 않으니 자기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 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다. 그리고 하나 더 처음 말했던 생각의 전환. 이것은 어딜 가나 꼭 필요하고 급박히 돌아가는 시대에 갖추어 두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한 번 풀어보자.

$1+6=1$ ,  $6+9=2$ ,  $0+8=2$ ,  $9+8=3$  생각을 잘 바꾸어 보라.(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0이다.) 이것이 내 논문의 마지막이다.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해보아야 될 것이다. 발상의 전환은 그리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많고 깊은 생각 끝에 나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할 줄 아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이제 닥칠 많은 어려움도 임기응변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 듯싶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생각하라. 이 능력은 다른 것들은 할 수 없는지 혹은 생각 이란 게 물증이 있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처음 주제를 못 잡아 고민 중이던 나에게 수학이라는 키 카드를 주어 준 엄마와 지속적으로 조언을 해주신 아빠. 그리고 한 번이지만 논문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던 고모부와 방학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도움을 주

썼던 김동출 선생님, 그리고 논문 중간 중간마다 많은 도움을 주신 태 선생님까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쓰면 내 논문이 너무 거창해 보일 수가 있다. 그냥 형식상 썼다고 하기엔 그렇고, 논문을 도와 준 보답으로 남기기 위해 썼다고 봐두면 좋을 듯싶다.

## 참고 자료

로버트 카플란, 『존재하는 무 0의 세계』, 이끌리오, 2003

마틴 가드너, 『이야기 패러독스』, 사계절, 2003

요시다 요이치, 『0의 발견』, 사이언스북스, 2002

찰스 사이프, 『0을 알면 수학이 보인다.』 나노미디어, 2000

관련 사이트

네이버 [www.naver.com](http://www.naver.com)

대한수학 협회 <http://www.kms.or.kr>

## 「Wonderful Magic」



### - 노영규

1989년 02월 13일생

혈액형 / 초등학교 B형 - 중1 AB형 - 중3 B형

학력 / 동정성모유치원 수석으로 졸업, 오정초등학교(우수하게 졸업),  
현재 간디청소년학교 재학중.

별명 / 노구라, 노빵규, 노간사, 천재피아니스트.

취미 / 김진우갈구기, 범탱이 괴롭히기, 피아노치기, 짬질방 가서 아이스식혜  
먹으면서 티비 보기, 야구, 농구, 축구, 배구, 탁구, 당구, 수구, 족구.

특기 / 놀란 라이언보다 빠른 강속구, 범탱이 괴롭히기, 진우갈구기

소속 / 최강야구부, 허접안티프라민, 보통영화부

좌우명 / 영위계구, 무위우후(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말자)

## 목 차

### I. 연구 동기

### II. 마술 소개

#### (1) 마술의 역사

① 서양의 과거 마술

② 동양의 과거 마술

③ 현대 마술

#### (2) 마술의 원리

① 눈속임

② 경우의 수

③ 트릭

#### (3) 마술의 종류

① 카드마술

② 동전마술

③ 로프마술

④ 스테이지 마술

### III. 사람들은 왜 마술에 열광적인가?

- (1) 과학의 발달
- (2) 대중문화의 성장
- (3) 마술의 창의력과 집중력
- (4) 대중예술
- (5) 마술의 산업성
- (6) 대중매체의 영향

### IV. 간디인들의 마술문화 이해도 연구

- (1) 마술현장
- (2) 간디인들의 문제점(설문지를 통한 자료 해석.)

### V. 결론 및 제언

- 간디인들이 제대로 된 마술문화를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Ⅰ. 연구 동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마술은 단순히 눈속임, 욕구충족 같은 장난인 줄 알았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마술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사람들의 관심이 남달라져 가면서 점차 마술이 예술로 승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술로 정신병을 치유한다던지, 심리테스트 등 여러 가지를 마술을 통해 이루어내는 것을 보았다. 또 마술사가 스타 또는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술에 집착을 하는 지 그 비밀을 풀어 보고 싶어 이런 논문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마술을 보여줄 것이다.

이 논문을 쓰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간디인들에게 올바른 마술문화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이다. 우리 간디인들은 지금 텔레비전, 인터넷 등 대중매체와 같이 사는 세대이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영향을 받는 세대인 만큼 우리도 마술 같은 이슈를 피해갈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의 동호회, 카페 같은 곳에서는 해법과 마술강의가 너무 대책 없이 나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간디인들이 마술을 하거나, 볼 때 또는 문화수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문화수용이 되는지 알려 주고 싶다. 나의 논문을 통해 우리 간디인들이 제대로 된 마술문화 수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Ⅱ. 마술 소개

마술문화를 이해하려면 마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술의 역사, 마술의 원리와 종류를 알면 마술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마술의 역사와 원리,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마술의 역사

## ① 서양 마술의 역사

매직의 역사는 오래되어, 기원전 100~3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 이집트에는 "타오르는 불을 먹는다." "맹수를 마음대로 부린다." 등의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또 중부 이집트의 베니 핫산 마을의 동굴 벽화에는 기술의 걸작 <컵 앤 볼> 의원형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다.(자세한 기록이 안 남아 있음.)

중세의 박해시대를 지나면, 14~15세기에 걸쳐 유럽에 전해진 카드에 의한 기술이 생겼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술은 드디어 무대의 쇼로 각광받기 시작한다. 탈리아의 빈티가 이 무렵 등장한다. 그리고 19세기, 20세기에는 황금시대. 산뜻한 연출과 거창한 장치를 최초로 시행한 프랑스의 우단, 코르크는 손가락 사이에서 불을 만들어 내는 [4개의 구슬>로 인기를 끌었다. 또 케라가 처음으로 발표한 <인체 부양>은 대 걸작으로 지금도 건재 한다.

20세기에 들어서면 기술사상 제일의 거인, 후디니가 탈출 기술을 선보이며 등장하고, 또 무대에서 <자동차 사라지게 하기>를 실행한 서스톤, 1920년에 소녀의 <몸통 자르기>를 처음 보인 세르빗드. 인도의 소루카, 러시아의 키오 등 일류 매지션이 차례로 등장한다. 영화 「유럽의 밤」에 출연한 보로코는 처음으로 <비둘기 꺼내기>를 보여줘 인기스타가 되었다. 그리고 매직은 드디어 현대로 돌입, 과거의 스타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점점 발전하고 있다.

## ② 동양마술의 역사

동양의 마술과 요술의 발상지는 중국과 인도인데, 인도에서는 『우파니샤드』라는 힌두교 경전이나 불교 경전(經典)에도 마술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인도의 마술로 유명한 것은 관객이 보고 있는 앞에서 망고나무를 쭉쭉 자라게 하는 마술, 컵과 구슬을 이용한 요술, 상자 속에 소년을 들어가게 하고는 사방팔방에서 칼로 찌르는 마술, 한 손으로 기둥을 잡고 공간에 몸을 눕혀 잠을 자는 마술, 쌀이 든 항아리에 막대기를 꽂아 그대로 들어올리는 마술, 저절로 위로 뻗어 오르는 로프 등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뻗어 오르는 로프의 마술은 유명하였다. 이것은 로프를 땅에다 놓고 주문을 외면 로프가 뻗어 오르기 시작하여 그 끝이 구름 속으로 숨는다. 이어 소년이 이 로프를 타고 올라가면 마술사가 입에 칼을 물고 뒤쫓아 올라가 두 사람 모두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이윽고 비명이 들리면서 하늘로부터 두 토막 난 소년의 시체가 떨어지고, 마술사가 바로 뒤따라 내려와 그 토막 난 소년을 바구니에 담고 주문을 외면 원래대로 소년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이러한 마술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전설일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마술도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여러 가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흥미를 끄는 것은 공중을 나는 접시라든지, 작은 항아리에 사람을 넣는 마술 등인데, 인도나 중국의 마술은 고대에는 상당한 수준과 발전을 이루고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중세와 근세를 거치는 동안 더 발전된 내용은 없고, 단지 명맥만 잇는 정도였다.

### ③ 현대 마술

20세기에 들어와 마술은 비약적인 진보를 이루었고, 서양에서는 연달아 걸작이 발표되었다. 즉, 수갑을 채우거나 사슬로 몸을 묶고, 상자나 수조 속에 들어가 짧은 시간 안에 탈출 또는 벗어나는 탈출마술(escape magic)이라든지, 관객이 보는 앞에서 자동차나 코끼리를 없애 보이는 마술, 사람을 트렁크 속에 넣어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하는 마술, 회전톱으로 인체를 절단하였다가 다시 붙이는 마술 등 근대의 기계 기술이나 기구를 이용한 대규모적인 마술이다.

거기에 심령술의 유행에 따라 붐을 일으킨 ‘예언’ ‘텔레파시’ ‘독심술’과 같은 형태를 가진 멘탈 매직(mental magic)과 같은 것 등, 매우 넓은 범위의 마술을 해 보이고 있다. 그런데 현대 마술의 특징은 심리적인 트릭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쓰디렉션(misdirection)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관객의 관념이나 시각적 실재를 엉뚱한 방향으로 쏠리게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하여 설치된 내용이나 응용 방법, 또는 솜씨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은걸 같은 신세대 마술사가 현대 마술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 (2) 마술의 원리

### ① 눈속임

눈속임은 아주 간단한 손동작으로 상대방을 속인다. 마술에서 가장 중요한 misdirection(미쓰디렉션). 바로 연기, 연출이다. 예를 들어 왼손에 동전을 쥐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눈치를 못 채도록 하기 위해 오른손에다가 시선은 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나의 시선이 멈추는 곳에 시선이 가게 된다. 그렇다면 미쓰디렉션은 성공하는 것이다.

미쓰디렉션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눈속임으로 하는 마술의 실패와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중 하나이다. 또 눈속임으로 하는 마술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손동작이다. 만약 정말 딱딱하고 부드럽지 못한 손동작이라면 기본적인, 초보적인 마술도 못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손동작을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마술의 신비로운 감을 한층 더 줄 수 있다.

## ②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수학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마술 원리이다. 카드의 수에 맞춰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그 확률을 조금씩 좁혀 가면서 마술을 성공케 하는 아주 과학적인 마술원리이다. 이 마술은 매우 쉽다. 간단하게 수학적 경우의 수의 원리를 이해만 하면 이 마술은 식은 죽 먹기이다. 이 마술은 오차가 없다. 계산적으로 마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이 틀리지만 않으면 마술은 100%성공할 것이다. 물론 이 마술에도 미쓰디렉션이 들어간다. 사람이 경우의 수라는 원리를 깨닫지 못하게 아주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해야 한다. 마치 자신이 초능력을 써서 카드를 맞추었다는 듯이.

## ③ 트릭

이 트릭이라는 말은 스테이지 트릭이 (stagetrick). 이 마술은 일단 기본적인 준비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장을 보드로 붙여놓은 카드라든지, 또는 미리 게스트를 일부러 고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기술은 상대방이 미리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면 안 되는 원리이다. 왜냐하면 용품을 준비해 놓은 상태라고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은 마술에 대한 신비감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마술에도 미쓰디렉션이 매우 중요하다.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카드와 준비해 놓은 카드가 같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하기 때문에 미쓰디렉션이 중요한 것이다.

일단, 지금까지는 카드마술의 원리를 보았다. 이 원리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미쓰디렉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쓰디렉션은 어느 마술에서든 빠져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마술사들은 연기자이다. 마술은 하나의 연기이며, 완벽한 연출이다.

## (3) 마술의 종류

### ① 카드마술

카드마술은 말 그대로 카드로 하는 마술이다. 하지만 카드마술을 하는 카드는 'bicycle' 바이시클 이라는 카드이다. 이 카드는 보통 슈퍼마켓에서 파는 카드와는 차원이 틀리다. 바이시클 카드는 공기로 이중 처리가 되어 있어 미끄럽지가 않고, 손에 잘 붙는다. 반면 보통 카드는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잘 미끄러지고 손에 잘 붙지가 않는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이런 바이시클 카드를 많이 쓴다.

카드 종류가 바이시클 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빅 카드, 스몰 카드 등 마술의 스케일, 종류에 따라 이 카드를 바꿔 쓴다. 빅 카드는 보통 바이시클 카드의 크기의 2배

나 3배 정도 되는 크기이다. 그리고 스몰카드는 바이시클 카드의 1/3 크기 정도가 된다. 카드마술은 제일 쉽고 간편한 마술이면서도, 제일 고난도 마술이다. 카드마술은 눈속임, 경우의 수, 트릭의 원리가 모두 결합된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마술이다.

## ② 동전마술

동전마술은 초보기술로 모든 마술을 하는 특별한 마술이다. 백 팜, 썸 팜, 클래식 팜, 핑거 팜 등 여러 가지 초보 기술을 사용하여 고급 마술을 한다. 동전마술은 눈속임 기술을 아주 잘 이용하는 대표적인 마술이라고 볼 수 있다. 동전마술은 미쓰디렉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술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로프마술

이 마술은 카드마술, 동전 마술보다 종류는 적다. 하지만 동전마술, 카드마술 같은 마술보다는 스케일이 조금 더 크고 화려하다는 것이다. 로프를 이용하여 향아리를 들어 올린다든지, 로프 커트 마술 등 몇 개가 있다. 하지만 이 마술은 무대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마술이다. 이 로프마술은 눈속임과 트릭이 교묘하게 조합되어 있는 교묘한 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추어 마술사들이 즐겨한다는 마술이 바로 로프마술이다.

## ④ 스테이지 마술

이 마술은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술이다. 예를 들어 사람 몸통 자르기, 순간이동, 감옥에서 탈출하기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마술이다.

스테이지 마술은 일단 미쓰디렉션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쇼맨십도 필요하다. 마술사가 쇼맨십이 강해야 그 마술은 더욱더 화려해지고, 사람들은 그 마술에 더 열광을 하게 된다. 스테이지 마술이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영상매체의 영향이 크다. TV에서 보여주는 마술은 다 스테이지 마술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마술 종류의 설명이다. 카드마술, 로프마술, 스테이지 마술, 동전마술은 가장 대표적인 마술만 설명한 것이다. 마술의 종류에는 수십 가지가 있다. 실크마술, 클로즈업 마술, 페인크 마술 등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한 마술들이 매우 많다.

### III. 사람들은 왜 마술에 열광적인 것일까?

현재 마술동호인은 대략 20만 명에 이르고, 동호회만도 수천 개가 있다. 또한 대학이나 직장마다 마술 동아리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으며, 각급 학교의 특별활동이나 문화센터 강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마술사를 꿈꾸는 청소년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의 고교생이 일본에서 열린 국제마술대회에서 최연소 입상을 하는가 하면, 마술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이은결이 마술월드컵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국제대회에서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과학문명이 발달한 21세기에 이르러 더욱 마술에 매료되고 또 열광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 (1) 과학의 발달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점점 삭막해지는 사회구조에 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고도로 발달된 문명사회는 그것을 받아들여 기다려 주거나 덮어 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물질문명에도 소외되고, 외롭고 삭막하다. 마술은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준다.

자신이 처한 처지나 능력에 상관없이 그저 상상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행복감을 준다. 자신은 비록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지만 마술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잠깐의 시간이지만 마술이 펼쳐지는 동안 그곳에 집중하고 감탄하고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열광하는 것이다.

#### (2) 대중문화의 성장

대중문화의 성장이 마술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한다. 작년 부터 세계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등 판타지 영화와 소설이 대박을 터뜨림으로써 마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흥미를 더해줬다. 판타지가 갖는 매력은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동심의 세계로 이끌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나가려는 강한 욕구를 자극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술과 판타지의 공통점 때문에 마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다.

### (3) 마술의 창의력과 집중력

마술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과 창의력 때문이다. 마술은 그 어떤 것보다 창의력이 필요하다. 어떤 마술도 남에게 그대로 배울 수는 없다. 과학적 원리를 터득해서 수많은 연습을 통해 마술의 세계에 들어서는데, 이때 자신만의 마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창의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술은 집중력이 필요하다. 아주 잠깐의 시간에 연기를 해야 하므로 보여주는 마술사나 펼쳐지는 마술을 보며 즐기는 사람들이나 여간한 집중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요즘엔 집중력과 창의성 계발을 위해 마술이 교재로 활용되거나 특별활동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 (4) 대중예술

마술은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대중예술이다. 그러므로 마술을 펼쳐내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끌어내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이고 무대정신이 강해야 한다. 또 이은결의 말대로 요즘 마술은 마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 엔터테이너로서 불가능이 없는 예술이다.

마술은 특히 음악, 조명, 기술, 의상, 연기가 모두 어우러져야 하는 대중예술로, 요즘 청소년들의 대중문화 욕구에 맞아떨어진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내성적이거나 수동적인 성격을 고치는데 마술이 활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마술이 펼쳐지는 자리는,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갈채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

### (5) 마술의 산업성

오늘의 마술은 일종의 문화상품이며 산업이다. 즉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산업의 위치까지 감히 넘볼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미국의 카퍼 필드는 매년 세계 각국 공연을 통해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인다.

그의 마술에는 물론 '자본의 힘'이 엿보인다. 그러나 원리는 기존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관객들로 하여금 그의 마술에 열광하게 만드는가?

바로 '포장'이다. 그의 마술은 잘 포장된 하나의 '고가 브랜드 상품'이다.

같은 원리의 마술도 연출과 기획력의 우위를 앞세워 관객들을 동심의 세계로,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또한 그의 마술엔 이야기가 있다.

어느 때는 가슴 따뜻한 옛 시절의 회상이 있고 때로는 가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그의 마술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그의 마술을 보면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말없이 진행하는 이른바 ‘정통마술’을 격하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분야의 전통적 기법은 항상 ‘변화를 향한 출발점’이자 ‘발전을 위한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바로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갈급하는 관객들의 요구이다. 연예인이나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연에 ‘정통’이나 ‘철학’을 담아내는 것을 주로 삼기보다는, 관객이 흥미를 느끼는 가운데 그 속에 잔잔한 혹은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문화산업이다.

IMF체제에 들어옴에 따라 문화산업이 많이 위축되었다. 문화는 기본생계문제 등 필수사항이 해결된 뒤에 부차적으로 뒤따르는 2차적 욕구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아직도 마술이라 하면 곡마단에서 잠시 나와 공연하거나 명절날 특집 프로그램 정도로밖에 인식되어 있지 않다.

할리우드의 영화와 우리의 영화를 비교해 보자. 그 동안 우리나라 영화계는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판 블록버스터 영화’의 제작으로 과감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독특한 문화상품이 있는 곳에는 항상 관객이 몰리게 되어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마술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다.

## (6) 대중매체의 영향

요즘 사람들은 텔레비전과 컴퓨터(인터넷)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회사의 모든 작업은 컴퓨터로 이루어져가고, 모든 커뮤니티는 인터넷으로 통해 전해가면서 살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에 들어 텔레비전에서 마술을 하나의 상품으로 내걸어서 방송을 해나가고 있다. 이은결, 최현우 등 여러 유명마술사들을 초청해서 마술쇼를 하게 한다. 또 인터넷에서는 마술 동호회와 카페가 수백 개 정도 생겼다.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즐기고, 인

터넷으로 들어가 직접 해보면서 사람들은 마술과 친하게 된 이유이다.

마술이 현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열광케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술은 각박한 현실세계에서 꿈과 호기심을 주어 인간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펼쳐내게 해준다. 또 판타지문화의 성장과 발맞춰 요즘 사람들의 대중문화 욕구에 걸 맞는 종합 예술로서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마술을 문화상품으로 바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마술의 힘이다.

불가능 없는 종합예술! 이걸 어쩌면 신세대 우리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마술이 갖고 있는 이런 역할과 효과를 짚어봄으로써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세계를 찾아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자, 역할일 것이다. 또한 제대로 된 문화를 물려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될 것이다.

#### IV. 간디인들의 마술문화 이해도 연구

우리 간디인들이 마술문화를 이해하고 양상하기 전에, 마술문화를 받아들임에 있어 기본자세를 먼저 말하겠다.

보통 마술을 학원이나, 과외를 하면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마술 헌장’이라는 것이다. 이 마술헌장을 배우는 이유는 마술헌장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지 제대로 된 마술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마술 헌장은 마술세계의 하나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규칙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술의 헌장을 간단히 살펴보고, 설문지를 통해 간디인들의 마술문화 이해도를 조사해 보았다.

##### (1) 마술헌장

###### ① 제 1조, 비밀 공개 금지

마술의 구성요소 중 가장 필요한 것이 비밀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다. 마술을 배울 때 돈을 주고 배우는 이유도 그 중 하나이다. 마술을 가르쳐 줄 때는 그 대가를 대신 치러야 된다. 그 이유는 마술사들도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이다. 직업의 비밀이 새어나가면 그 직업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마술사라는 직업은 비밀이 절

대적으로 지켜져야만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요즘 인터넷 같은 곳에서 떠돌고 있는 마술해법 같은 것들은 마술문화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② 제2조, 반복연기 금지

마술사들은 반복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마술사들이 카드마술을 보여줬으면 처음에 사람들이 매우 신기해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마술을 다시 보인다면 사람들은 그 마술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자세하게 볼 것이다. 그러면 마술의 비밀은 새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연기는 금지가 된 것이다.

## ③ 제 3조, 비밀의 존중과 비공개 의무

비밀의 존중은 서로 마술사간의 존중이다. 마술사들은 서로 마술의 해법을 물어보거나 가르쳐 주지 않는다. 혼자서 독학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선생님한테 대가를 치른 뒤 마술을 배운다. 마술사들끼리 서로 해법을 주거나, 받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마술사의 기본적인 에티켓이다. 비공개 의무는 제 1조와 비슷한 항목이다. 해법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마술사의 의무이다.

## ④ 제 4조, 비밀공개 요구 금지

비밀공개 요구 금지라는 말은, 마술을 보여주고 나면 “이거 가르쳐 줘.”라고 하는데, 이런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비밀을 공개하게 요구하면 그것은 상대 마술사에게 상당히 불쾌한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술에서 중요한 것은 비밀 비공개이다. 하지만 비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가장 중요한 항목을 어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은 마술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제 5조, 늘 창조적인 사고를 지닌다

마술을 배웠다고 해서 거기서 다 배운 것이 아니다. 그 마술에서 더욱더 발전시키고, 변하게 하면서 마술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창조적인 사고를 지녀야 한다. 카드마술을 배웠다고 해서 그게 다 아니다. 그 마술에서 조금 더 나아가, 또는 그 마술을 변형시키는 것이 마술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아마추어 마술사들은 어려운 마술만을 배우려고만 하고, 그 마술을 변형시키거나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술사들은 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늘 창조적인 사고를 지녀야 할 것이다.

앞에서는 마술의 기본 현장을 보여주었다. 이 현장을 보여준 이유는 우리 간디인들이 이 현장을 보고 제대로 된 마술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 (2) 간디인들의 문제점 (설문지를 통한 자료 해석)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간디인들 절반(50%) 정도가 마술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이걸 가르쳐준 사람은 친구, 선배, 후배였다(80%). 사실, 친구나 후배, 선배에게 배운다면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고 배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술현장 ‘제 1조, 비밀 비공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가르쳐 주는 것은 마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동이다.

간디인들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마술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85%). 이러한 행동도 마술현장 제 4조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지만 간디인들의 마술에 대한 인식도는 높았다. 대부분의 간디인들이 마술을 하나의 문화이면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94%). 그리고 간디인들 대부분이 마술을 좋아한다고 했었다(91%). 그 이유는 마술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면서 신기하기까지 해서 그렇다고 했다(82%).

간디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마술은 카드마술(52%)과 스테이지 마술(34%)이다. 간디인들이 카드마술과 스테이지 마술을 좋아하는 이유는 대중매체(텔레비전)의 영향이 커서 그렇다. 우리 간디인들도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같이 살아가는 세대이다. 그러므로 텔레비전에서 항상 보여 주는 카드마술이나 스테이지 마술을 자연스럽게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간디인들은 마술을 좋아하고, 인식까지 높은 것은 좋았다. 하지만 간디인들이 마술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게다가 마술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신기해서 좋아하기 때문에 마술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 간디인들이 제대로 된 마술문화를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간디인들의 마술문화 수용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또 마술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마술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즉 우리들의 세대를 따라가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텔레비전 없이는 살 수 없는 세대이다. 즉 대중매체와 동떨어져서 살 수 없는 세대이다. 요즘 대중매체에서는 마술을 이슈로 정해놓고 마술쇼를 틈만 나면 보여준다. 그런 것을 많이 보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술에 끌리게 된다. 그러면서 마술을 하고 싶어지면서 마술을 배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술문화가 성립하게 된다. 우리 간디인들도 그러한 세대에서 살고 있다.

나는 우리 간디인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무분별하게 잘못된 마술문화까지 받아들지를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 간디인들 역시 개선해야 될 점은 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마술의 현장에 적혀 있는 것만 잘 지키면 된다. 마술 현장을 잘 지키고 마술을 하거나 볼 때 마술사에 대한 에티켓을 지켜주면 될 것이다.

둘째, 만약 어려운 마술을 배우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보되, 해법을 돈을 주고 사서 보든지, 또는 자기 혼자서 독학을 해서 알아내어야 할 것이다.

마술을 배우려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루고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그 마술의 비밀을 안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간디인들은 외부와 많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배우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디인들은 인터넷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간디인들은 대가를 치루고 고난도 마술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간디학교의 마술문화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세대의 마술문화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 감사의 글

먼저 이 논문을 완성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마술의 '마'자도 모르고 시작할 때 처음 마술을 가르쳐 주시고 마술의 대한 정보를 주신 마술램프의 마술사 선생님, 마술쇼 때문에 고민할 때 고급마술을 가르쳐 주신 간디고3 문 영준 형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논문이 막혀 고민하고 있을 때 논문의 틀을 정해 주시고 정보를 주신 김인섭 선생님과 이임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마술쇼 준비를 위해 마술용품 몇 가지를 주신 교무실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문 때문에 지쳤을 때 용기를 북돋아준 친구들과 후배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영규 -

<참고 사이트>

<http://dic.naver.com/search.naver?where=dic&query=%B8%B6%BC%FA%C0%C7+%BF%AA%BB%E7&frm=tap>

## 「여고괴담의 특징 분석」



- 김소은

1989년 01월 04일 12시 20분경 서울시 노원구 한일병원 출생

혈액형 / 자랑스런 A형;

학력 / 남산선교원 - 성애유치원 - 한국영재유치원 - 은곡초등학교 -

불암초등학교 - 상명여중 - 간디청소년학교

별명 / 김소팔, 짱딱지(이건 지우고 싶다ㅠ)

취미 / 거울보고 한탄하기, 뽕카와 카강 놀러먹기,

자면서 뽕따스틱한 꿈꾸기, 득행하기, 앞머리 망쳐놓기

소속 / 지구특공대, 촌담, 안티프라민 배우(카하하), 2003년 2학기 학생회

좌우명 /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 (이지랄...)

## <목차>

### 1. 논문의 동기, 목적

### 2. 공포영화의 이론적 배경

- I. 공포영화의 역사와 개념, 특성
- II. 한국 공포영화의 역사, 종류

### 3. 여고괴담 세 편의 특징

- I. 시놉시스
  - 1) 시놉시스 소개 (1~3편)
  - 2) 시놉시스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
- II. 촬영 장소, 소품, 음향의 특징
  - 1) 여고괴담
  - 2)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 3) 여고괴담 세 번째 이야기-여우계단

### 4. 여고괴담의 흥행과 속편의 실패

- I. 여고괴담의 흥행 성공요인
  - 교육 현실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과 공포의 효과적 사용
- II. 속편의 실패

### 5. 결론

- I. 여고괴담의 특징과 유독 여성팬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
- II. 여고괴담의 흥행과 속편의 실패 요인

### 6. 논문을 마치며



## 1. 논문의 동기, 목적

일본을 대표하는 공포영화가 링, 미국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공포영화가 <스크림>이라면 한국을 대표하는 공포영화는 단연 여고괴담이다.

1998년 상당한 흥행기록을 세운 박기형 감독의 <여고괴담>에 이어 1999년에는 김태용, 민규동 공동연출의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2003 여고괴담-<여우계단>이 윤재연 감독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 영화들은 '공포영화'하면 의례적으로 떠오르는 막연한 '무서운 것'을 넘어서 평범한 여고생들이 가질 수 있는 풍부한 감수성과 미묘한 감정에 대해서 잘 그려 내었다고 호평을 받았다. 나도 공포에 관한 것들을 매우 좋아해서 이 여고괴담 시리즈뿐만 아니라 다른 공포영화도 많이 보았다.

하지만 여고괴담은 사춘기 여학생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학원 문제와 공포적인 요소를 잘 조합하여 표현한 영화였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갔다. 그리고 나 역시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과 비슷한 연령이고, 그 만큼 그들의 문제를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다른 공포 영화보다도 특별히 여고괴담에 더 애정이 많이 간다.

나는 이 논문을 통해서 공포영화의 이론적 배경과 촬영장소, 소품, 음향의 특징과 시놉시스의 특징, 여고괴담의 흥행 성공과 속편의 실패의 요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공포영화'라는 장르에 대해 좀더 깊이 알아보는 것과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의 문제점도 영화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반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2. 공포영화의 이론적 배경

### 1. 공포영화의 역사와 개념, 특성

#### 1) 호러 시리즈의 기원

18~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왕조시절에 유행했던 문예사조인 '고딕 문학'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과 브람 스토커의 <드라큐라>라는 두 편의 걸작을 낳았다. 이들은 엄격한 의미의 시리즈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여러 형태로 영화화되었다. 그 중에서도 '드라큐라'는 영화사상 가장 많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진 캐릭터 중 하나일 것이다.

독일 표현주의 시대 무르나우가 만든 <노스페라투>(1922)를 필두로 할리우드에서

는 토드 브라우닝이 호러영화의 전설적 인물 벨라 루고시를 기용해 <드라큐라>(1931)를 만든다. 이후 영국 호러 영화의 전통을 세운 해머필름의 명감독 테렌스 피셔가 <드라큐라>(1958)를 내놓는다.

'프랑켄슈타인' 또한 애용되었던 캐릭터이다. 드라큐라와 함께 무성영화시대부터 만들어졌던 <프랑켄슈타인>은 1931년에 제임스 웨일에 의해 영화화되면서 크게 각광받는다. 인조인간을 만들어낸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이야기는 50년대 영국에서 <프랑켄슈타인의 저주>(1957)로 살아난다.

## 2) 70년대, 호러 시리즈의 시작

고전 호러에 대한 리메이크 시대를 지나 1970년대에는 현재 우리가 접하는 '호러영화'의 단초가 성립된다. 그 시작은 종교 호러영화였는데,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의 <엑소시스트>(1973)는 엄청난 흥행과 함께 77년에는 존 부어맨 감독에 의해 2편이, 90년에는 3편이 만들어진다. 갈수록 수준이 처지기도 했지만 이 시리즈로 악령들인 여자아이 역을 맡았던 린다 블레이어는 당시까지 가장 섬뜩한 호러 캐릭터로 떠올랐다.

리처드 도너 감독의 <오멘>(1976)도 그 인기로 시리즈를 만들어 냈다. 영화사상 거의 최초로 '666'을 전면에 내세웠던 <오멘>은 오컬트 무비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하지만 70년대 이전, 우리는 한 편의 걸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1968). 흑백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이후에도 17년에 걸쳐 3부작을 내놓는다. 이 영화가 만약에 컬러였다면 정말 잔인했을 것이다.

1975년에는 흔히 최초의 블록버스터로 이야기되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쥬스>가 나온다. 이 영화는 영화사상 최초로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영화로 기억된다.

## 3) 80년대, 호러 영화의 전성기

변화의 조짐은 1978년에 있었다. 존 카펜터가 감독한 <할로윈>은 마이클 마이어스라는 살인마를 내놓으며, 극도의 공포를 경험할 준비가 안 된 순진한 관객들에게 오싹한 전율을 안겼다. 1980년에는 손 커닝햄의 <13일의 금요일>이 등장했고 1984년에 웨스 크레이븐의 <나이트메어>가 나온다. 또한 샘레이비의 <이블 데드>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영화로 인해 드라큐라와 프랑켄슈타인 이후 기념할 만한 제이슨, 프레디 등의 전설적인 살인마 캐릭터가 생겨났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잡은 그들의 위치는 실로 엄청나다.

그 당시 이들이 누렸던 인기로 말미암아 수많은 후속편들이 제작되었는데, <할로윈>시리즈는 제작년 개봉한 <할로윈:H2O>를 마지막으로 7편이, <13일의 금요일>은

총 9편이, <나이트메어>는 7편이다. 물론 후속편들이 전편보다 좋지 않은 것만 이렇거나 많이 제작된 걸 보면 그 인기를 가늠할 수 있다.

#### 4) 90년대, 슬래셔와 스플래터 열풍

90년대 또한 호러 영화의 전성기라 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구스 반 산트의 <사이코>(1998), 존 카펜터의 <슬레이어>(1998), <양들의 침묵>, <세븐>, <사탄의 인형>시리즈, <블러어 윗치> 등 수많은 히트작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영화는 <스크림>이라 생각된다.

90년대 웨스 크레이븐 감독이 불러일으킨 <스크림> 열풍은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호러 장르의 하나의 트렌드가 되다시피 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선 공포영화가 10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고, 소위 N세대를 겨냥한 감각적인 호러물을 탄생시켰다. 이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와 <패컬티>같은 영화를 낳았고, 한국에서도 <가위>, <해변으로 가다>, <찍히면 죽는다> 등의 호러 붐을 일으켰다. 이 영화들은 슬래셔와 스플래터무비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슬래셔는 최근에 들어서 난도질보다 긴장감을 즐기는 쪽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또한 스플래터는 잔혹성에 코미디를 가미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스크림>에서 고스트페이스가 주인공은 뒤쫓다가 엉뚱하게 넘어지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출처: <http://my.dreamwiz.com/hermione2/history.htm>]

공포영화는 스릴러영화 라고도 한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유령, 요괴, 괴물이 등장하는 괴기영화, 초자연적, 마술적, 신비적인 '영혼재래 등을 제재로 한 오컬트영화(Occult film), 살인범죄를 제재로 한, 피가 튀는 뜻인 스플래터 영화(Splatter movie), 이상한 사태에 직면한 인간들의 혼란과 고통을 그린 SF영화, 또 특수효과로 연출한 SFX영화, 충격적인 공포와 전율에 역점을 둔 호러영화(horror picture)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출처: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315&docid=3224](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315&docid=3224)]

여기서 공포영화의 용어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호러무비Horror Movie** : 관객에게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도록 의도된 내용의 영화를 말한다.

**하드고어Hard Gore** : 하드고어라 하면 그 잔인함의 정도가 진한 영화를 말한다. 전기톱이나 잔디 깎는 기계로 사람을 절단한다거나, 피가 사방팔방으로 튀고, 배에서 창자와 온갖 알 수 없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장면들이 나오는 영화를 말한다.

많은 사람이 하드코어와 하드고어를 같은 용어로 오인한다. 하지만, 분명히 이 두 용어는 다르다.

**스플래터 무비Splatter Movie** : 피가 튀어다니고 사지가 절단되지만 보면서 도저히

웃지 않고 배길 수 없는 영화를 말한다.

시체들이 무덤에서 때로 살아나오는데, 그 중 한 좀비가 무덤에서 나오려는데 다른 좀비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거나, <데드얼라이브> 같은 영화에서 남녀 좀비가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러면서 눈알이 튀어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영화이다.

**슬래셔 무비Slasher Movie** : 사이코 살인마가 얼굴에 무언가(하키마스크, 유령가면, 털가죽...)를 뒤집어쓰고 무자비하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사람들을 살인하는 영화이다.

Slash- '베다, 자르다'에서 유래한 말로 <할로윈><13일의 금요일>과 최근의 <스크림>이 대표작들이다. 이들 영화들은 마약이나 술, 섹스를 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사회의 경고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나중에는 섹스 신이 공포영화에서는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오컬티즘무비Occultism Movie** : 신비주의 혹은 초자연주의라는 의미의 이 단어는 악마와 그를 숭배하는 사교집단을 내세운 새로운 경향의 호러영화를 일컫는 말이다.

로만폴란스키의 <악마의 씨>나 <엑소시스트><오멘>, 웨스크레이브의 <악령의 관>이 대표적인 영화로, 그중에서 부두교가 가장 많이 다루어진다.

[출처: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54085](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54085)]

하지만 위의 것들은 대부분 서양의 공포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이다. 서양의 공포영화의 특징은 스피래터 무비, 슬래셔 무비, 오컬티즘 무비처럼 대부분 혼령이 많이 나오지 않고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또 잔인하고 살육적인 방법으로 공포감을 안겨 준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공포영화의 특징은 대부분이 한 맺힌 원혼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편 정서이기에 지금까지는 주로 한 맺힌 원혼이 공포의 하나의 맥락을 이루었다.

여고괴담은 심리적인 공포만 담겨 있지 않고 조금 색다른 공포를 주고 있다. 한국의 공포영화인 만큼 여고괴담 시리즈에도 심리적인 공포가 더 많이 들어가 있긴 하다. 그러나 시대가 조금씩 발전하면서 서양 공포영화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서양 공포영화의 특징인 약간은 잔인한 면도 첨가되었다.

## II. 한국 공포영화의 역사, 종류

지금까지 한국 영화사에서는 공포영화가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처음엔 공포 또는 호러 영화 대신 괴기영화라는 이름으로 <목 없는 미녀>(66년작),



<월하의 공동묘지>(67년작)' 그리고 <천년호>(69년작) 정도의 영화만이 기억되고 있다.

이 중 한국 공포영화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월하의 공동묘지>는 DVD로 출시되어 팬들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수준 높은 공포영화에 물 들어 있는 팬이라면 이 영화의 장르가 코미디라고 생각 할지도 모른다.

60~70년대에는 비록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한국 공포영화였지만 시대상과 인간본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묘사로 마니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80년대에는 <월하의 한>(80년작), <망령의 웨딩드레스>(81년작), 그리고 <목 없는 여 살인마>(85년작) 등이 제작됐지만 모두 흥행에 실패했고, 오히려 TV시리즈 <전설의 고향>이 공포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인식됐다.

90년대에 들어서며 할리우드의 특수효과로 길들여진 팬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포영화가 제작됐다.

94년도작인 <구미호>(박헌수 감독)를 비롯하여 <퇴마록>(98년작), <여고괴담>(98년작) 등이 대표적인 영화로 손꼽히고 있다. 여고괴담은 전형적인 토종귀신과 특수효과로 한국적 공포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구미호>, <퇴마록>은 뭔가 어색한 특수효과로 공포영화의 맛을 반감시킨다는 비평을 감수해야만 했다.

2000년도에는 <가위>, <해변으로 가다>, <찍히면 죽는다>, <하피>, <아티스트> 등이 출시됐지만, <가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흥행에 참패하면서 공포라는 장르가 여전히 흥행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줬다.

2002년 여름 안병기 감독이 현대 공포영화의 한 흐름인 '테크놀로지 바이러스'를 차용해 만든 영화 <폰>은 흥행순위 7위(서울관객 76만 5천 명)를 기록하며 한국 공포영화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올해에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는 가장 흥행에 성공한 김지운 감독의 <장화, 홍련>을 필두로 올 8월 개봉예정인 <여우계단: 여고괴담 세 번째 이야기>, <거울 속으로>, <4인용식탁>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아카시아> 등의 영화가 있다.

[출처: www.cine21.co.kr]

### 3. 여고괴담 세 편의 특징

## 1. 시놉시스의 특징

### 1) 1998<여고괴담>

한 여학교. 겉으로는 무척 평범해 보이지만 9년 전 진주라는 아이의 자살사건이 있었던 곳이다. 왕따였던 진주는 유일한 친구였던 은영마저 자신을 버린 후 다른 아이들의 따돌림을 참아내지 못하고 미술실에서 자살했다. 9년 후에 그 학교 문학교사로 부임한 은영은 그 곳에서 지오라는 학생을 만난다.

지오는 털털하고 뒤끝 없는 성격에 성적과는 담을 쌓아서 담임인 미친개의 구타 대상 1호이다. 진주가 자살한 미술실에서 지오를 만난 은영은 9년 전에 진주가 주었던 방울과 똑같은 지오의 방울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고 재이라는 아이가 방울을 주었다는 지오의 말을 듣게 된다.

재이를 찾아간 은영은 재이가 9년 전에 죽은 자신의 친구 진주이고, 그녀가 자신을 버리지 않는 진정한 친구를 찾기 위해 9년간 학교에 다시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은영만 없으면 다시 지오와 친하게 지내서 행복하게 졸업을 할 수 있는 재이는 은영을 죽이려 하고 은영과 지오는 그녀를 타일러서 학교에 그만 나오게 하려고 한다.

여고괴담은 참신한 시놉시스를 가진 영화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성공한 호러 시리즈이며 그 만큼 호평, 비평도 많이 받았다.

1998년에 나온 <여고괴담>은 한국 교육현실의 암담함을 잘 나타내어 많은 호평을 받고 흥행에 성공하였다. 여고괴담의 컨셉은 화끈하다 싶을 정도로 밀어 붙이는 방식을 취했다. 미친개가 여학생에게 살해되는 장면, 늙은 여우가 목 매달려서 죽어 있는 장면, 그리고 그 당시 학교 붕괴, 공교육의 문제점을 극단적으로 해소하는 수법으로 학생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었다.

### 2) 1999<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시간에 따라서 아주 길고, 신나고, 슬픈 하루, 죽음이 가른 24시간.

여고의 어느 하루, 민아에게 자춧빛 일기장이 찾아들고,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마주친 눈 -난청으로 달리는 아이, 시은의 뒷모습을 쫓게 된다. 갑자기 자신을 찾아든 교환일기의 주인공중 하나가 시은임을 알면서 더욱 그녀에게 집착하게 되는 민아는 일기에 그려진 시은과 효신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혼란에 빠진다.

점심시간을 지나 신체검사로 소란스러운 여고의 오후. 갑자기 들이닥친 효신의 죽음으로 학교 전체는 음산한 분위기에 휩싸이고, 효신이 남긴 일기장의 지시에 따라 헤매던 민아는 이상한 현상을 하나하나 목격한다. 죽음에 관한 소문이 난무하면서 학

교 전체는 마치 축제를 벌이는 듯한 번잡함으로 빠져들어간다.

[출처: www.ghost3.co.kr]

<여고괴담> 이후 1년 뒤에 나온 1999<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는 전편의 화끈함과 달리 몹시 몽환적이며 추상적인 화술로 영화를 풀어나가고 있다. 누군가 살해되거나 분노에 가득 차 피 흘리며 복수하는 장면 따위는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말로 다 풀어놓지도 않는다. 모든 것은 배경음악과 장소와 소품, 배우의 표정 하나하나에 나타나있다. 전편이 공포를 거칠고 혐기적으로 드러내었다면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런 면을 세련되고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

여고괴담2가 이런 추상적인 컨셉을 취함으로써 전편의 어둡고 무거운 그늘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대신 이 괴담은 무섭기는커녕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괴상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오늘날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는 공포영화라기보다는 멜로 영화, 아트필름으로 인식되었다.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동성애이다. 동성애는 영화의 소재로 사용하기엔 아직까지는 조금 생소한 주제다. 특히나 여고생들의 시점에서 공포라는 장르로 표현한 영화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가 유일하다. 이 영화는 이런 면에서 이렇게 은밀하고 모두 쉬쉬하지만 그냥 물어버릴 수 없는 주제를 택했고 그것을 두 여학생을 통하여 잘 표현했다.

### 3) 2003<여고괴담 세 번째 이야기-여우계단>

학교 기숙사로 오르는 숲길에 28개의 층계로 된 계단이 있다. 여우가 소원을 들어준다 해서 여우계단이라 불린다. 간절히 소원을 품고 한 계단씩 오르면, 없던 29번째의 계단이 나타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지만, 그 소원의 답은 여우계단의 끔찍한 저주와 함께 되돌아온다는 것을 잊은 채 아이들은 남몰래 여우계단을 오른다…….

“여우야, 여우야, 나 ,항상 진성이 옆에 있게 해 줘.” 소희가 소원을 빈다.

진성과 소희는 무용반 단짝친구다. 하지만, 발레에 있어서는 피나는 노력형인 진성은 타고난 재능을 가진 소희에 밀려 항상 2등이다. 서울 발레 콩쿠르에 나갈 교내 대표를 뽑는다는 공고는 진성을 잔뜩 설레게 한다. 기쁨도 잠시, 소희를 학교 대표로 보내자는 선생님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는 진성은 홀린 듯 여우계단으로 향한다.

“여우야, 여우야, 내가 서울 발레 콩쿠르에 나가게 해 줘.” 진성이가 소원을 빈다.

깨진 유리가 든 토슈즈를 신고도 학교 대표로 뽑힌 소희는 진성을 찾아간다. 서로에게 화가 난 소희와 진성. 다투다가 그만 소희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한편,

학교 얼짱(얼굴 짱)인 소희를 동경하는 미술반 똥보 혜주는 모든 아이들의 놀림감이 다. 급기야 많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한 혜주는 여우계단을 오른다.

“여우야, 여우야, 살이 빠지게 해 줘.” 혜주가 소원을 빈다.

다친 소희를 대신해서 콩쿠르에 출전한 진성은 1등으로 입상한다. 어느 밤, 진성의 기숙사 방 창문을 통해서 병원에 있는 줄만 알았던 소희가 몰래 찾아온다. 너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고 여우계단에서 빌었다고 고백하는 소희. 진성은 미안하기만 할 뿐이다. 다음 날, 학교에서 진성은 그젓밤 소희를 만나기 전에 벌써 소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진다. 이즈음 똥똥했던 혜주는 점점 야위어가고, 아이들의 소원이 부른 여우계단의 저주는 학교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출처: www.ghost3.co.kr]

1편의 왕따, 2편의 동성애. 이런 선례를 거친 후 나온 <여고괴담 세 번째 이야기-여우계단>은, 1,2편이 각각 지니고 있는 주요 포인트인 1편의 으스스하고 직접적인 공포 효과와 2편의 은밀한 분위기를 잘 활용한 작품이다.

직접적인 공포효과가 ‘귀신’이라면 은밀한 분위기는 ‘동성애’이다. 귀신은 알겠는데 동성애라니. 여우계단은 여고괴담2만큼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그것이 영화의 흐름상 빠질 수 없다.

<여우계단>에서 갈등의 원인은 ‘열등감’탓도 있겠지만 ‘소희가 진성에게 품은 엄청난 집착’도 한 몫을 한다. 여우계단에서 빈 진성의 소원은 소희에 대한 열등감을 내비치는 “내가 발레 콩쿠르에 나가고 싶어”이다. 그런 반면에 소희의 소원은 ‘영원히 진성과 함께 있고 싶어.’이다. 소희는 그냥 진성과 함께 놀고 싶은 것일 뿐이고, 진성은 그저 이러한 상황이 귀찮아 피해 다니는 것일 뿐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혜주이다. 그녀는 소희를 매우 짝사랑한다.

여우계단은 이렇게 1,2편의 특징을 잘 섞었지만 ‘공포감 조성’이라는 면에서는 그다지 실감나지 않는다. 도대체 아무리 귀신이 나와도, 위협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희가 아무나 목 졸라 죽이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는 위험하지 않은 비교적 ‘착한 귀신’임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한 이 세 영화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고생들의 심리에 얽힌 주제를 잘 사용했다는 점이다. 여고괴담1의 주제는 왕따,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동성애, 여우계단의 주제는 질투이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사춘기의 학생, 특히 여학생이라면 더 민감할 부분이다. 왕따, 동성애, 질투 이 세 가지 주제의 공통점은 애정에 목말라하는 여성적인 본능을 공포영화라는 장르와 접목시키면서 색다른 맛을 전해주는 것 같다.

## II. 촬영 장소, 소품, 음향의 특징

### ① 여고괴담

여고괴담은 여고괴담2나 여우계단처럼 특별히 눈요기가 되는 소품이 없다. 있어 봤자 진주가 은영에게 선물하는 방울이 잠깐 나올 뿐이다. 그러나 특별한 소품이 없어도 이 영화에서 최고의 캐스팅은 학교건물. 오래된 교정, 희디흰 벽과 나무 마루바닥, 목매는 신에 더없이 어울린 높다란 시멘트다리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이 여학교는 일요일과 야간에 한해 촬영을 허용하고 학교 이미지를 고려해 학교이름을 밝히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영화에서 '귀신 나오는 미술실'이 들어있는 별채 창고건물만은 춘천 강원사대부고에서 찍어왔다.

여고괴담의 O.S.T가 있다면 들어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O.S.T 앨범은 나오지 않았다.

### ②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여고괴담2의 소품 중에 단연 빠질 수 없는 건 여학생이라면 학창시절 친구와 한두 번쯤은 써봤을 만한 교환일기장이다. 효신과 시은을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들은 그 교환일기라는 매개체를 그냥 대화의 수단으로만 이용하지 않았다. 여기 저기 붙이고 그리고 꾸민 어지럽고 화려한 일기장.

이들이 여고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까. 사실 여고괴담2라는 영화는 화면 가득 온갖 고운 것들로 채워져 있다. 반짝이는 펜으로 교환일기를 쓰는 장면이나 코르크마개를 채운 병에 들어 있는(정체 모름) 알약 두 알, 또 효신과 시은이 학교 지붕위에 올라가서 캠코더를 찍으면서 즐겁게 뛰어다니는 장면이라던가 피아노 안에 효신이 시은을 위해 정성스럽게 꾸며 놓은 여고생다운 메시지 같은 것들이 영화의 멋과 맛을 더한다.

난 개인적으로 여고괴담 시리즈 중에서 이 2편을 가장 좋아하고, 영화 속에 나오는 교환일기도 매우 좋아한다.

몇 개의 이미지를 소개하자면.....

[시은과 효신의 교환일기 가운데.....]



이 소품은 전국에서 교환일기를 잘 꾸민다고 소문이 자자한 고등학생 몇 명을 뽑아서 직접 만든 것이다. 극중에서 교환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만큼 더 공들여서 만든 것 같다. 여학생의 심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예쁜 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친구에게 집착하는 것도 여성의 대표적인 본능이다.

이성과의 접촉이 찾기 힘든 사춘기 시절, 특히 여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부모님, 선생님보다는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마음이 많이 통하는 친구로부터 그 애정을 채우려 한다. 그 애정의 상징이 교환일기이고 친구의 애정에 같은 관점을 두고 있는 여고괴담2의 소재로 아주 잘 잡아내었다고 생각한다. 비단 교환일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섬세한 소품들까지도 남자감독 둘이 만든 영화라고 치기에는 너무 여성적이고 여자의 심리를 잘 이해했다. 여고괴담2를 자세히 잘 보면 영화 평론가들이 왜 그렇게 그 영화를 좋게 평가했는지 알 수 있다. 여고괴담2의 영화평론에 대해서는 4번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자.

대부분의 공포영화들이 그럴듯 촬영장소의 섭외는 배우를 섭외하기 만큼 힘이 든다. 여고괴담2의 본거지(?)는 정신여자고등학교. 실제로 여고괴담2 O.S.T에 있는 memento mori와 kyrie eleyson 이 두 곡을 정신여고 합창단이 불렀다. 그 학교의 구조는 커다란 광장(?)에서 1,2,3,4층 계단이 한번에 보이고 양쪽 복도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것은 영화상에서 이승과 저승의 이어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사진이 있다면 더 자세히 참조할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사진이 없다.



☞ 이 사진은 효신과 시은이 학교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인 옥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다. 이들은 옥상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

### ③ 여고괴담 세 번째 이야기-여우계단

1. 지하작업실 - 주로 혜주가 사용하는 곳이다. 이 곳엔 살아서 꿈틀대는 조소상,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는 석고상 등이 영화의 분위기를 살려준다.

조소상, 석고상

2. 무용실 - 학생들이 연습할 때는 한없이 밝은 곳이지만 불이 꺼진 무용실엔 눈동자 동공마저 사람을 닮은 마리오네트 인형이 기괴한 형상으로 춤을 춘다. 진성이가 질투의 눈이 멀어 유리조각을 넣어놓은 소희의 토슈즈는 피로 물든다.

마리오네트, 토슈즈

3. 혜주의 방 - 집착이 심하고 어두운 혜주의 성격과 같이 매우 음침하다. 구체관절인형은 소희의 형상을 하고 있다. 미술부인 혜주의 그림일기는 이예림이라는 만화가가 그린 것인데, 음침하고 어두운 폐쇄적인 분위기를 띄고 있다.

구체관절인형, 식충식물, 플라로이드사진, 그림일기

#### 3. 혜주

프로스테릭 메이크업(똥똥이 분장)이 국내 최초로 사용되었다. 실제 배우는 47kg.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의 기네스 펠트로의 특수 분장이다.)

예술고등학교라는 공간적인 배경은 아름다움, 그 뒤편에 붙어있는 끔찍한 공포를 표현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다리 없는 아이가 무용실에서 발레를 하고, 토슈즈의 발자국마다 핏빛이 배어나오고, 찰흙으로 빚은 전신 조소상이 꿈틀대는 장면 등 여우계단은 이런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2개월 가량 전국 70여개의 폐교들을 뒤졌고, 결국 수도여고와 전주공전 폐교사를 촬영장으로 낙점했다. 깨진 유리창, 먼지 교실, 낡은 책걸상, 공기마저 차가운 그 곳은 자체만으로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한다.

## 4. 여고괴담의 흥행과 속편의 실패

### 1. 여고괴담의 흥행 성공 요인

-교육 현실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과 공포의 효과적 사용

여고괴담은 우리나라의 차가운 교육현실을 대단히 현실적으로 꼬집고 여름이라는 계절과 동시에 "공포"라는 장르로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그 해 엄청난 흥행을 한 영화이다. 장르가 호러인 만큼 어둡고 음침한 배경을 공포영화의 쓰임새에 걸맞게 잘 사용하여 암담한 교육현실이라는 사회문제와 공포를 잘 접목시켰다. 여고괴담은 "퇴마록"이나 "링(한국판)"처럼 한몫 잡아보자…….식의 단순 상업 영화가 아니다.

기성세대나 신세대 모두가 공감할만한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삼으면서 전하고자하는 메시지가 뚜렷하다. 출연 선생님들 중 제정신이라 볼 수 있는 '이미연'의 경우에도 선생다운 대접을 못 받고 있고, 결정적으로 본 작품에서도 별거 아닌 역을 맡고 있어서 그 쪽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이 영화가 공교육을 모독하는 발칙한 영화라고 느껴지실 지도 모르겠다. 실제로도 본 작품은 그 '관련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구동성으로 '간판을 내려라'라는 해프닝까지 벌어져서 영화의 성공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만들었다. <여고괴담>은 호러 장르로서의 흥행성공이 아닌 이 땅의 교육 현실에 대한 부분이 고교생들의 발길을 극장으로 불러들였다고 봐야 한다.

어찌되었건 여고괴담이란 영화는 200만 명이라는 관객을 동원시켜 그 당시에 굉장 히 히트 쳤다. 이것은 단지 관객이 많이 몰려서 흥행해서 성공한 것보다 사회에서 큰 존재감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는 여학생들의 이야기를 공포영화로 만들어냈다는 자체가 여고괴담의 큰 성공 같다.

## II. 속편의 실패

그에 반해 여고괴담2,3은 여고괴담만큼 흥행하지 못했다.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는 평론가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들은 영화이다. 완성도와 수준도 높다. 완성도와 수준도 높은 영화가 왜 실패했을까?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는 여고괴담의 속편이 아닌 두 번째 다른 이야기로, 이런 전작의 후속편이라는 부담감과 그런 이점의 반사이익으로 높은 흥행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출발한 영화이다. 그러나 영화의 제목이 여고괴담2가 아닌 것은(위에 제가 여고괴담2라고 써놓은 것은 편의상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미 속편으로서의 성격보다는 말 그대로 똑같은 소재로만 만들 뿐인, 내용은 다른 '두 번째 영화'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고괴담과는 달리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는 공포영화라고 말하기 무색할 정도로 무섭지 않다.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공포영화로서는 정말 형편없다. 공간적 배경이나 다른 것에 너무 많이 신경을 많이 써서 공포라는 본 장르는 잠시 망각한 것이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다.

여고괴담의 화려한 공포(?)를 회상하며 잔뜩 등골 오싹할 기대하고 영화관에 갔는데 보여지는 건 레즈비언 여고생들의 배배 꼬인 미묘한 심리에 얽힌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고 알 수 없는 말들이 마구 나오는 심오한 영화라니. 아마도 감독이 계산을 잘못된 것 같다.

여고괴담2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트필름이나 쿼어 무비로 인정받고 있다. 그 만큼 잘 된 작품인데, 평론가들 입맛은 잘 맞추었으나 관객들은 이 영화를 외면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여고괴담2를 재밌게 본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다. 여학생의 경우도 영화의 분위기와 예쁜 것들이 좋아서 여고괴담2를 좋아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공포영화로서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

난 이 영화가 조금 아깝다고 생각한다. 남자 감독이 그것도 두 명이나 함께 만들었다는 영화인데, 화면 가득 남성스러운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 정도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이 영화는 여자를 위해 만들어진 영화 같다. 본 장르가 공포인 만큼 조금 더 공포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었다면 엄청나게 흥행했을지도 모르는 영화일 텐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는 작품성으로는 뛰어나지만 공포라는 본 장르를 망각해서 관객을 놓친 안타까운 작품 같다.

<여고괴담 세 번째 이야기-여우계단>은 영화가 개봉하기 전부터 평이 좋지 않았다. 제작비를 적게 투자한 것도 아니고 뽕뽕한 캐스팅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우계단은 실패한 영화 측에 속한다. 이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가 평단의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관객들이 차갑게 외면한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다.

우선 여우계단. 이 영화는 스토리가 너무 뻔하다. 1등하는 애랑 2등하는 애가 있는데 2등하는 애가 1등하는 애를 너무 시기해서 죽이고 살리고……. 이런 뻔한 이야기가 관객들을 지루하게 만든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장화홍련이나 거울 속으로 같은 딱히 보여줄 만한 반전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져서 이해하긴 쉽지만 영 보고 나면 결말이 짹짹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소녀괴담의 공포가 어디에서 오는지 오해했다. 아이들은 <소공녀>의 무대에서 예상 가능한 규칙대로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진실의 폭로도 없고 단지 짹 막힌 우리 안에서 한정된 재원을 놓고 싸우는 여자애들 밖에 없다. 이것은 ‘뭔가 특별하고 더 무서운 것’을 보러 오는 관객들을 실망시키는 행위이다.

여우계단은 여고괴담과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를 보완해서 잘 섞어놓은 영화이긴 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 한다;;) 하지만 여고괴담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은 것 같다. 여우계단이라는 영화는 여고생들의 욕망과 소원을 보여주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들의 진정한 심리적 상태와 감정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다.

## 5. 결론

### I. 여고괴담의 특징

여고괴담을 논문 주제로 정하면서 그 세 가지 영화의 특징을 잡아보려고 애썼다.

우선 시놉시스의 특징은 영화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여고생들의 심리에 얽힌 주제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여고괴담1의 주제는 왕따,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동성애, 여우계단의 주제는 질투이다. 여고괴담은 주제를 사춘기의 학생, 특히 여학생이라면 더 민감한 부분인 왕따, 동성애, 질투를 사용함으로써 애정에 목말라 하는 여성적인 본능을 잘 사용했다.

우선 여고괴담의 왕따, 내가 남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특히 여자들은 뭔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집단을 형성하는 것에 민감하다. 꼭 집단이 아니라도 친하던 사람이 조금 멀어져도 노심초사하며 눈치를 본다.

영화상에서 진주는 아무도 자신과 친한 사람이 없자 9년 동안이나 학교를 다니며 따뜻한 애정을 얻고자 한다.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동성애라는 주제와 같이 애정에 목말라하는 효신이 나온다. 효신은 시은의 애정을 받지 못하자 자살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다. 마지막으로 여우계단의 주제 질투. 여우계단에서 비는 진성의 소원이 “발레 콩쿠르에 나가게 해 줘.”라는 출세 지향적인 남성적 본능의 소원인데 반해 소희의 소원은 “영원히 진성과 함께 있고 싶어.”라는 여성적인 본능의 소원이다. 영화상에서도 소희는 거의 진성에게 기대며 자기 감정 표현에 거침이 없다. 그러나 진성은 반대로 자기 감정을 숨길 줄 알고 침착하며 냉혈적이다.

이렇듯 세 가지의 영화에서 나온 여성적인 본능은 여고괴담 시리즈가 많은 여성팬(특히 여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다.

### II. 여고괴담의 흥행과 속편의 실패

여고괴담1의 흥행은 전국 200만 명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다. 전반적인 영화 평도 좋았고 여고괴담의 관객은 주로 학생들이었는데, 관객들의 호응도 좋았다. 관객은 주로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같은 또래의 여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체벌을 받는다면지 너

무 공부만 강요받는다던지 하는 비슷한 처지에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 장면 (미친개, 늑은 여우가 공포에 시달리다가 죽는다)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러므로 <여고괴담>은 호러 장르로서의 흥행성공보다는 이 땅의 교육현실에 대한 부분이 고교생들의 발길을 극장으로 불러 들였다고 봐야한다.

이에 비해 비교적 흥행에 실패했다고 봐야 할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와 여우계단.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는 여고괴담보다 많이 다듬어지고 여고생의 심리를 잘 표현한 작품이다. 많은 평론가들에게서 호평을 받았지만 정작 관객의 호응은 좋지 못했다. 공포영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애매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동성애라는 생소한 코드를 주제로 잡은 탓도 있겠지만, 영화의 구성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여우계단은 여고괴담의 호러 적인 분위기와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의 미적인 요소를 잘 결합한 것 같다. 하지만 여고생들에게 일어나는 이야기를 심리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결말을 지어내고 영화의 전개부가 너무 길어서 지루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여우계단이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보다 흥행한 이유는 여고괴담의 호러적인 분위기를 강조해서 공포영화라는 장르에 걸맞게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 6. 논문을 마치며

늦게 정한 논문 주제만큼이나 힘든 논문 작업이었습니다. 솔직히 인터넷에서 그냥 베낀 자료들도 있고 얼렁뚱땅 넘겨 버린 부분도 적지는 않지만 배운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은 논문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논문을 쓰기엔 우리학교 전산실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한 것과 개인적으로 방송기기를 만질 수 없어서 영화를 원한 만큼 많이 보지 못한 것...

내년과 내후년, 그리고 그 뒤로 논문을 써야 할 후배들은 논문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논문 쓴다고 오랜 시간 방황할 동안 여기저기 자료도 많이 찾아주시고 격려해주신 부모님, 담당 쌤이신 태쌤, 비디오 자료 빌려주신 창민이 어머니님, 밤에 간식 싸주시고 항상 걱정해 주신 손쌤 그 외 논문 쓰면서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같이 고생한 중3친구들 다들 수고했고, 특히 나랑 같은 자리 쓰면서 고생한 재화야 수고했다, 고마워.

## 「바람직한 축구 서포터즈 문화의 수용」



- 김도현

1989년 01월 06일생

혈액형 / O형

학력 / 대구 신천동에 있는 어느 한 유치원 졸업 - 검정고시로 초졸 -

영국 Sackville Community College로 전학 - 현재 간디청소년학교

3학년 재학중 - 2004년 간디자유학교 입학 예정

별명 / 꿈동이, 꿈동씨, 존나세(?;::;), 베크(자칭), 100미터 미남,

ACE(과자X 원피스 등장 인물), 비 짝퉁

취미 / 현실 생각하기, 락 음악 듣기(가끔 클래식 음악도 들음), 노래 부르기,

잠자기, 공차기, 탁구 치기, 기타 치기, 핸드폰문자 보내기, 서태지 카페

뒤지기, 배슐이 뽀뽀하기, 대구 시내에서 예쁜 여자 찾아 헤매기

특기 / 축구, 노래, 기타치기, 글쓰기, 영어 등등

소속 / 간략연, 개동, 야동, 솔피바람, 축구동아리,

스크린 속에 우상, 촌담 등

좌우명 / 사랑하는 것을 가질 수 없을 때에는 가진 것을 사랑하라.

## <차 례>

### I. 서 론

1. 논문 제작의 동기와 필요성

### II. 본 론

1. 축구에 열광하는 한국인들
2. 서포터스의 유래와 활동
3. 사례를 통해 본 서포터스 활동의 양면성
  - (1) 긍정적인 면
    - 1) 한국인의 위대한 단합
    - 2) 외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상승
  - (2) 부정적인 면
    - 1) 개인 우상 주의
    - 2) 무질서와 혼란초래
    - 3) 상대방 팀과 국가에 대한 악성 응원
    - 4) 월드컵의 어두운 그늘, 소외계층
    - 5) 월드컵 열기에 파묻혀 잊혀진 어린 두 여중생의 죽음

### III. 결 론

# 1. 서론

## 1. 논문 제작의 동기와 필요성

2002년 한국-일본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 축구에서는 <서포터스>라는 응원 문화가 새로이 주목을 받게 됐다. 작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쳤던 우리에게 월드컵 기간은 아직도 생생한 감동과 흥분 그 자체로 남아 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은 그 감동을 K-리그로 이어갔다.

하지만 우리의 우리와 같은 응원이 있는 한편에는 사회에 소외당하던 계층의 사람들은 더욱더 소외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이 외에도 경찰들을 피해 노상방뇨, 음주, 소란을 피우는 등등 부정적인 문화도 적지 않았다.

또 상업적 목적에 있었던 회사나 여러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월드컵이 순수한 의미의 스포츠 축제가 아니라 자신의 회사 상품을 더욱 더 상업화 시키고 한 몫 잡을 기회라고 여기는 의식이 우리를 더욱 실망시켰다. 게다가 명색이 월드컵 주최국이라는 나라의 국내 리그는 매스컴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고, 또 아시아 정상 리그에 3팀씩이나 올라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시민들은 “아 그래? 그렇군.” 이런 무관심 속에 머물러서 프로 축구 따로 월드컵 따로 라는 생각을 가졌다. 월드컵 전까지 붉은 악마 단체 이외에는 서포터스라는 응원문화를 쉽게 볼 수 없었다.

만약 우리들의 관심과 애정이 일찍부터 팀과 선수들에게 표현될 수 있었다면 좀더 성숙한 축구 문화를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국내리그에 있는 서포터스는 월드컵 이후 조금씩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점은 우리를 아쉽게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또 다른 한국의 보다 성숙된 응원문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희망일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내에 축구문화에서는 아직도 개인 선수 우상주의가 많다. 특히 여성 팬들과 광적인 팬들에게 개인우상주의가 극히 심하다. 그 팀이 어떤 팀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팀이 좋고 그 선수가 다른 팀으로 옮겨가면 또 다른 팀이 좋고, 솔직히 이런 문화는 그 선수를 위한 것도 그 팀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단지 개인우상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응원문화라는 측면에서 ‘서포터스’ 문화를 되짚어



2002 한국-일본  
월드컵 공식 휘장

보고 아울러 바람직한 응원 문화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서포터스란 무엇인지, 그 유래와 활동 사항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 사회에 나타나 있는 긍정적 부정적인 응원문화의 사례들을 외국문화와 비교하여 검토해볼 것이다. 그리고 비교를 통해 한국 축구 응원문화에 발전적인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더욱 더 멋진 대한민국의 서포터스 응원 문화 확립을 위하여 이 논문을 쓴다.



세계 10대 축구경기장에 선정된 서울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 II. 본 론

### 1. 축구에 열광하는 한국인들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많이 즐기고 좋아한다. 예를 들자면 직장인 동료, 친구들이나 한 무리의 사람들과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야! 우리 내기축구나 한 게임 할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축구는 내가 생각하기엔 여러 가지 묘미가 있지만 가장 큰 묘미는 처음 만난 사람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과 게임을 한다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 갈 수 있고 친목을 다지기에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동네 아저씨들이나 어르신들이 흔히 즐겨하시는 족구도 어떻게 보면 배구- 테니스- 축구를 결합해 놓은 게임이다.

만약 축구 게임이 fair play(공정한 시합)로 진행된다면 무엇 하나를 걸고 깨끗하게 물러서거나 싸움까지 가지 않을 수 있게 막아 줄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이라고도 생각된다. 혹은 축구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과 몸을 부딪키기도 하고 서로 칭찬을 주고

받으면 그 사람들은 벌써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갖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를 열광하는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월드컵 당시 한국팀을 응원하기 위해 모여든 인파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승승장구 하던 시절, 어느 한사람이 브라질과 브라질보다 좀 한수아래인 팀과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브라질이 이긴다는 쪽으로 몇 십억을 내기했다가 브라질 수비수가 자책골을 넣어서 1:0으로 브

라질이 경기에서 패했다.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한 나머지 자책골을 넣은 수비수를 총으로 사살했다고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은 축구에 집착한다. 한국은 서포터스 문화의 형성단계라서 그런지 아직은 훌리건 등의 사태가 심하지 않지만 영국 같은 나라는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좋아하게 되어서 그게 집안내력인 집이 대부분이다.

내 친구들 중에도 너무 축구에 목숨을 걸어서 경기에서 지면 너무 억울하다고 했는데, 그 때마다 우리 지어 꼭 다른 사람들의 차를 긁어 놓거나 아니면 차를 부시곤 했고, 모르는 사람의 집에다가 돌을 던지기도 했다.

한국도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뒤면 이런 현상이 일어 날것이라고 생각된다. 축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더욱이 축구는 하나의 경쟁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누구나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요소들이 사람들을 축구에 열광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축구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박진감이 넘치는 게임이라서 사람들을 더욱 중독 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열광적인 에너지가 마음 어디선가 솟아나오는 것 같다. 숨어 있던 애국심을 한국 사람들은 작년 2002년 6월에 한꺼번에 토해낸 것 같았다. 한국사람들은 축구에 대한 열성이 대단하다.

그리고 그 만큼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굉장한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욱더 멋지고 자랑스럽다.

## 2. 서포터스의 유래와 활동

‘서포터스’라는 의미와 뜻을 한 번 알아보자.

서포트(support)의 사전적 의미는 다르다, 지탱하다, 지지하다, 후원하다 등등 ‘무엇을 위해 지지하거나 후원한다’는 뜻이므로 여기서는 서포트(support)에다 er을 붙여서 supporter가 된다. 여기 supporter에서 er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을 뜻하는데, 그리하여 supporters의 의미는 지지하는 사람 후원하는 사람임을 뜻하고 뒤에 적혀 있는 s는 복수형으로 즉 support-er- s 가 되는 것이다. 즉 축구의 개념으로서 supporters는 팀을 위해 지지하는 사람, 후원해주는 사람임을 뜻한다.

그렇다면 최초로 일반적 서포터서가 생긴 팀은 어느 팀일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번씩 떠올려 보았을 듯한 의문이다.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크로아티아(구 유고)의 바로 토르 치다(Torcida), 하유크 스플리트(Hajduk Split)팀의 서포터서들로 추정된다고 한다.

1911년 하유크 스플리트(Hajduk Split) 팀은 창단 이후 줄곧 유고의 정상의 자리를 지켰고 축구의 명가로서 명성을 쌓아갔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유크 스플리트(Hajduk Split)의 팀이 유명해진 것은 하유크 스플리트(Hajduk Split)의 서포터서 토르 치다(Torcida)가 생기면서부터라고 한다. 우리가 작년에 불렀던 ‘오~필승 코리아’ 노래와 ‘대한민국’ 박수와 같은 응원가, 현수막, 통천, 조명탄, 그리고 원정응원까지 바로 토르 치다(Torcida)라는 작은 항구도시의 서포터서들이 시작했다고 전해온다.

1940~50년에 오면서 유고 축구는 유럽 정상의 실력을 자랑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스플리트 팬들의 사랑도 여기 못지않게 열광적이었다. 이들은 유고는 물론이며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응원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1950년, 월드컵이 열린 브라질로 최초의 장거리 원정단을 보내게 된다. 경기는 브라질에게 2:0으로 패했지만 유고 사람들은 아직도 그 경기를 잊지 못한다고 한다. 비록 그 형태가 지금처럼 조직화된 ‘서포터’의 형태가 아니었지만 민속복장을 입고 하나의 마음으로 통일이 되어 응원하는 이들의 열정 하나만은 대단해서 유고 팀이 있는 곳마다 이들이 있었다고 한다. 하유크 스플리트(Hajduk Split)팀의 열성은 대단했으며, 아직까지도 하유크 스플리트(Hajduk Split) 팀은 남아 있다.

지금까지의 서포터스들을 소유하기까지 여러 각 구단들은 나름대로의 노력과 성의가 있어야만 했다. 각 팀들이 서포터서들을 끌어 모으려면 우선 팀의 좋은 이미지를



열광적인 축구팬이 많은  
잉글랜드 축구팀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을 보유한  
축구 명문 구단 Real Madrid

보여야한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친숙함과 여러 면에서 가능성을 느끼게 해야 하고, 팀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는 물론이며 자신의 팀은 승리와 우

승을 향한 가능성이 있는 팀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 자기 소속 팀에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플레이어들을 영입한다든지 승리를 위해 끊임없이 피눈물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면에서 노력과 성의를 보여준다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도 서포터서 들을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다. 서포터스가 많은 구단은 그것을 아주 잘 실천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유럽을 예로 들어보자. 유럽 팀들은 하나같이 무척이나 많은 서포터스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유럽의 팀들은 서포터스들을 위해서 무척이나 많은 일을 한다. 그리고 서포터스는 절대 팀을 버리거나 모독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 자기 팀을 욕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정도로 유럽 사람들은 축구에 목숨을 건다.

유럽 팀들은 서포터스들을 위해 세계 정상급 선수를 영입해 온다든지 아니면 서포터스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연다든지 아니면 서포터스들을 위해 마스코트들이 새겨 있는 액세서리 등을 증정하는 등의 구단 차원에서 활발한 지원을 한다. 그리고 서포터스들은 눈이 와도 비가와도 경기를 관전하러 가기 위해 노력하고 경기장마다 비는 곳이 없다.

내가 영국에 살았을 때 문화에 대해 감동했었던 점은 아무리 팀이 1부 리그건 2부 리그건 3부 리그건 아무리 성적이 나쁘고 팀이 못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자기가 응원하기로 한 팀은 영원한 팀으로 끝까지 응원을 한다는 것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오나 시간이 나면 축구경기를 관람하러 가고 끝까지 자기 팀을 응원해 주고 이기건 지건 자기 팀은 자기 팀으로 인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2부 리그는 꿈도 못 꾸지 못한다. 한국 제일의 팀도 경기장을 반도 매우지 못하는데 아무리 팀이 잘 한다고 해도 그 팀은 별 호응 없이 끝나게 될 것이다.

각 구단들은 자기 팀이 얼마나 많은 서포터스를 소유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

을 수가 없다. 별로 좋지 않은 예이지만 만약 구단 서포터서 간에 싸움이 나도 자기 팀의 서포터서가 해 주고 팀의 응원 또한 서포터서가 해주며, 팀이 성적이 좋지 않을 때도 끝까지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서포터서이기 때문이다. 어느 유럽의 팀들은 돈을 사람들에게 그냥 주면서까지 서포터스를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는 팀들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서포터스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엄청난 조직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팀의 가장 큰 공백을 차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로서 각 구단들 혹은 국가에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서포터서가 없는 팀은 축구에 관한 어느 하나도 진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작년 4강신화의 12번째 선수 붉은 악마 응원단을 한번 생각해 보자, 붉은 악마 단체도 하나의 서포터로서 정말 이런 것이 응원이라는 것을 외국 서포터서들에게 몸소 보여주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대~한 민국!”을 외치지 않았다면 우리의 4강 신화는 언제까지나 영원한 꿈이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외국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한국 선수들과 싸우는 건 그다지 두렵지 않았지만 붉은 악마의 천둥 같은 응원과 함성, 야유가 가장 두려웠다."라고 말한다.

그만큼 우리의 응원은 우리 선수들에게는 힘을,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는 간접적인 무기의 수준이 되어 버렸던 것이었다. 그리고 경기마다 상황에 알맞게 관중석에서 보여준 월드컵 최대 무기인 거대한 카드 섹션은 상대팀이 경기에 임하기도 전에 기분을 초초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응원은 그만큼 태극 전사들에게 많은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는 적당한 부담도 줘서 선수들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의지와 일본과 더불어 월드컵 개최국이라는 자존심 덕분에 우리는 4강까지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듯이 한국의 서포터스 ‘붉은 악마’뿐만 아니라 구단과 타국의 서포터스의 힘과 존재성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단체이자 서포터스 문화의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우리의 현실 앞에 다가와 있다.



### 3. 사례를 통해 본 서포터스 활동의 양면성

#### (1) 긍정적인 면

##### 1) 한국인의 위대한 단합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일을 한 사람들일 수가 있다. 이름 하여 길거리 응원과 시민들의 놀라운 단합, 이것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도 아니고, 엄청난 거부할 수 없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도, 독립을 위해서도 아니고 반미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우리는 축구하나만을 위해서 뭉치고 싸웠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친구였고 골이 터지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마저 끌어안기도 했다. 일부 한국에 대해 창피한 점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은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워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처음 폴란드 전 때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쓸쓸히 시청 앞 대형 스크린 앞에서 게임을 지켜 보았지만, 곧 첫 승의 소식과 승리에 감격한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너도나도 시청 앞으로 뛰쳐나와서 시청 앞의 사람들의 머릿수는 급증하였다.

그 수는 태극전사들에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어가는 승리에 걸잡을 수 없이 불어났고 사람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시청 앞에 모인 사람들의 머리 수는 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14만여 명(미국 전), 45만 명(포르투갈 전), 55만 명(이탈리아 전)으로 급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폴란드 전 당시 49만 8천여 명이었던 거리응원이 미국 전에는 76만 9천여 명, 14일 포르투갈 전엔 278만 6천여 명, 18일 이탈리아 전엔 420만 명, 22일 스페인 전엔 500만 명, 25일 독일 전엔 700만 명이 길거리 응원에 참가했다고 한다. 우리는 어느 민족도 해내지 못한 일을 축구라는 단순한 스포츠만으로 엄청난 단합을 보여 준 것이다.

##### 2) 외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상승

무엇 하나를 위해서 전 국민이 뭉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더욱더 놀라웠던 점은 모든 시민들이 축구경기를 관전한 다음 뒷정리가 깔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외국인들 시각에도 아주 좋게 부각되어서 당시 한국에서 지내고 있던 외국

언론인들은 한국의 시민 문화와 단합성에 대하여 매료되었고, 한국의 밝은 이미지에 대해 자신의 나라에 알렸다. 그리고 한국축구 4강 신화 때문에 우리가 전부터 힘겨워했던 I. M. F 나 다른 나라에게 있어서 나쁜 한국의 이미지를 많이 떨쳤다.

이것은— 외국 사람들에게 이제 아시아 하면 일본을 가장 대표적인 나라라고 떠올리기 전에 한국을 먼저 언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한국의 이미지는 상당히 상승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한국 K-리그에 좋은 점은 아직은 훌리건 같이 폭력적이거나 라이벌 팀의 감독에게 협박 전화를 건다든가, 이러한 문화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직은 때 묻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 그리고 한국은 작년 월드컵 때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잘 해내리라고 믿는다. 현재 유럽의 때 묻은 서포터스 문화보다 한국의 독특한 성격을 섞어서 훨씬 더 멋진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 (2) 부정적인 면

### 1) 개인 우상주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큰 축구 이벤트 따위를 좋아한다. 예를 들자면 국가간의 친선경기나 한일전 월드컵 등등 그러나 축구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K-리그나 고등학교 축구경기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축구문화는 여러 면에서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서포터스 문화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걸림돌들이 많이 있다. 하나 예를들어보자.

우리나라 안에서는 개인 우상주의로 축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개인우상주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다면 평소에 즐기던 경기도 관전하러 가지 않고 경기장 곳곳을 텅텅 비게 만든다던가 관중들이 한꺼번에 확 줄어든다거나 출전시키지 않은 감독을 욕하기도 한다. 원인은 “우리 오빠 왜 안 뛰게 해 주는데요?? 휴~ 재수 없어.”라고 말하는 각 개인들의 의식에 있다.

개인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그 감독은 한순간에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느낄 것이고, 팀의 운영 능력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서포터스들은 팀의 기둥이나 다름이 없는 존재라서 감독은 서포터스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우상주의로 축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감독의 생각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플레이어를 계속 출전에 내버려둔다면 그 선수는 컨디션 조절부터는 물론 개인적인 사생활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중요한 경기에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우상주의의 시각으로 축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팀의 우승이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랄 뿐일 것이다.

유럽의 축구문화와 우리나라 축구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유럽에 비하면 고정 팬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어느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우리나라는 유럽 축구문화에 많이 뒤진다는 하나의 커다란 증거일 수 있다.

요즘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보면 K-리그가 한창 진행 중이다. 경기 내용은 대체로 만족도도 있고 나름대로 한국만의 축구 방식이 돋보이지만 카메라가 경기장을 비춰 줄 때면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경기장은 텅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 있는 팀들이 유명한 스타플레이어선수들을 유럽이나 해외로 방출해 낸 후부터 더욱더 심해졌다. 그 후로 개인우상주의로 축구를 바라보던 사람들도 경기장을 찾는 발걸음이 뜸해졌다.

모두들 정말 챔피언스리그 같은 유럽 관중석과 너무 달라 보이는 한국 관중석은 마치 가끔씩은 관중이 아주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화가 난다.

시민들이 축구에 대해 신경을 쓰면서 조금 더 관심을 보여 주고 시간이 날 때 한번씩 축구경기장을 방문해 준다면 우리가 보기에 창피할 정도로 텅 빈 경기장의 모습은 앞으로 보기 힘들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특정한 팀을 정해서 좋아하는 것도 굉장한 축구 서포터스 문화의 발전에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무질서와 혼란 초래

한국-일본이 주최한 월드컵 경기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길거리응원에 참석하곤 했다. 진심으로 경기를 알고 그렇게 다들 좋아했을까? 정확한 이유는 자세히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에게겐 그냥 '아! 우리나라에서 큰대회가 열렸다. 아! 우리나라가 잘 한다.'라는 정도로 인식되었다.

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이러한 생각으로 그냥 분위기에 맞게 축구경기의 방식이나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응원을 했다. 일부의 사람들은 김남일이 나 송종국 같은 미남 스타들의 얼굴과 플레이가 멋있다는 생각에서 열광하고 응원을 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작년에 사람들이 펼친 응원들을 그냥 단순한 '애국심'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특히 월드컵 승리에 흥분을 못 이겨서 미친 듯이 날뛰는 사람들을 보

면서 서울경찰청 소속 2,600여 명의 경찰관들은 혹시 터질지도 모르는 안전사고를 우려해 시민들이 모두 흩어진 자정 무렵까지 승리의 감격도 뒤로 한 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 시내버스 10여대가 인파에 둘러싸여 30여 분 운행이 중단되는 등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고 일부 흥분을 이기지 못한 시민 1,000여 명이 편도 4차로에 뛰어들어 교통을 방해하고 일부시민들은 술에 취해 도로를 점거했다.

여기서 월드컵 기사를 한번 살펴보자.

월드컵 당시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사 자료 (스포츠투데이)

판치는 음주, 노상방뇨=경기장과 달리 장외에서는 음주가 제한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거리에서 술판을 벌이기도 했고 노상방뇨를 일삼았다. 대부분의 상가가 초저녁에 철시, 화장실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시민들은 주위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 뒤편을 찾아 ‘볼 일’을 해결하였다. 경찰도 안전사고 방지에 신경을 기울인 듯 이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이날 광화문 응원전에 참가한 고등학생 김은주 양(16)은 “지하도가 점거당해 집에 갈 수도 없었다.”면서 “좀더 성숙한 응원문화를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

3) 상대국가 / 팀에 대한 악성 응원  
계속해서 위의 기사를 인용해 보자.



시청 앞 40만의 인파가 붉은 물결을 이루고 있다

상대편 비방은 이제 그만=4일 폴란드 전 때 광화문에 모인 시민응원단 중 일부는 폴란드 선수가 공을 잡거나 좋은 찬스를 맞을 때 심한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반미감정이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서 10월 미국전은 이보다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각종 소문이 난무,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에 따라 극단적인 시위성 행동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 있어서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반미성 응원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자 나섰다.

정부도 반미감정을 노골적으로 부추기거나 한미 관계에 손상을 미친 우려가 있는 시위 등에 대해 강력 대응기로 했다. 재수생 김동근 군은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관전

문화가 필요할 때”라며 “상대편을 비방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4) 월드컵의 어두운 그늘, 소외계층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사회에서 소외당하던 계층의 사람들은 더욱더 소외된 느낌을 받았다는 점이다.

지난 월드컵이 한창이던 당시에 동남아 어느 노동자가 부당하게 정신병자로 몰려 강제 수용되는 사건이 있었다. 엄청난 인권 무시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축구열기에 파묻혀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월드컵이나 또는 커다란 스포츠행사의 열기 뒤에는 항상 세심하게 보살펴 주어야 할 우리의 이웃들도 있을 것이다. 지나친 열기로 인해 평소의 관심이 자칫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위에 언급한 동남아 아주 노동자의 감금 사례에서 느낄 수 있듯이 변함없이 사회 구석구석의 소외 계층에도 두루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 5) 월드컵 열기에 파묻혀 잊혀진 어린 두 여중생의 죽음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45분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 면 56번 지방도에서 미2사단 44공병대 (캠프하우스) 소속 미군 장갑차(운전사 워커 마크 병장, 36세)가 앞서 가던 여중생 신효순(14, 조양중 2년), 심미선(14, 조양중 2년) 양 두 명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 양 등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생일잔치에 가기 위해 갓길을 걸어가던 중이었고, 미군 장갑차의 오른쪽 궤도 부분에 치어 장갑차가 몸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 어린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다.

6월 13일, 월드컵 당시 한국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게임인 조 본선의 마지막 게임 (포르투갈 : 한국)을 하루 앞둔 날 있었다. 한국 월드컵 사상 48년 만에 꿈에 그리던 16강으로 갈 수 있느냐 마느냐가 걸린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 시민들에게는 마치 월드컵이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모두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행복함과 어우러진 월드컵 얘기뿐이었고, 선수들에 대한 찬사뿐이었다.

그 날 당시 미군 탱크에 깔려 죽어간 효순이, 미선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냥 혀만 찻을 뿐이고, 사실 “뭐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라며

“우리가 뭘 어떻게 신경 쓴다고 그게 바뀌겠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무관심을 표했다.

사실 나도 이 사건의 개요를 들었을 당시에는 “하루에 세상 사람들이 한두 명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경 쓴다고 뭐가 어찌 바뀌겠어?”라고 한심한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월드컵 행사 기간이 끝나고 난 후 국민들이 점점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효순이, 미선이 얘기가 점점 사람들 사이에 언급되기 시작했고, 월드컵 당시 황홀한 분위기에서 휩쓸려 느끼지 못했던 분노를 온 국민이 토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온 국민이 힘을 쓰기에는 늦어버린 것이었을까? 이렇듯 우리는 월드컵이 끝난 후에 모두들 SOFA개정을 외쳤다. 사건 당시에 외쳤다면 상황을 좀 더 빨리 수습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효순이, 미선의 한을 풀어 주었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우리는 스포츠경기나 큰 행사에 너무 열광한 나머지 사회적, 정치적인 문론 우리 주위에 있는 세심한 것들, 위에 언급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등을 잃어버리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도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큰 행사 등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도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순간적인 기분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

2006 월드컵 때에는 더욱더 성숙한 서포터스 문화를 기대하면서…….

이 단원을 마친다.

### III. 결 론

#### 1. 결 론

지금까지 서포터스 활동과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른 나라와 비교 분석해 보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서포터스 문화에는 사회적 활기와 국민이 하나로 단합되게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무질서와 개인 우상주의, 상대편 비방,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당하던 사람들의 인권무시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한국의 서포터스 문화에서 더 나아가 응원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구를 즐기고 사랑하는 차원에서 축구를 바라보는 것과 깨끗한 관전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다른 나라들보다 개인 우상주의가 훨씬 더 압도적이며

심각하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는 유럽의 서포터스 문화의 시작이 한국보다 적어도 8,90년 먼저 앞서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의 개인 우상주의 시각을, 팀 또는 연고위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한 플레이어를 너무 미친 듯이 좋아하지 말고 팀에 대해 좀더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팀에 소속해 있는 선수들은 잘 몰라도 이름이나 ‘이 선수는 무엇을 잘하며 개인기는 무엇이 돋보인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한국 서포터스의 수준은 조금 더 성숙된 문화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침체되어 있던 지역문화에도 축구로 인해 활기와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지역 문화의 에너지 활력소로 축구문화가 자리매김한다면 선수들에게 상당히 보람차고 즐거운 일일 것이다. 그리고 소속 팀의 회사나 기업에서 축구 팀이 속하는 지역, 도시에서는 적극적 후원과 팀의 관리에 신경을 써 준다면 훨씬 더 수준 높고 바람직한 서포터스 문화를 우리 모두가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절대로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각 팀의 서포터스끼리 다툰다거나 협박전화 또는 유럽의 훌리건들과 같은 올바르지 못한 문화는 한국 서포터스들이 피해가야 할 하나의 과제이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축구라는 단순한 경쟁 게임에 목숨을 걸지 말고 그냥 즐기고 경기장을 찾아서 관전하고 좋아해 주고 어느 특정 팀을 정해서 그 팀과 마음을 함께한다면 그만큼의 좋은 대책 방안은 없을 것이다. 개인 응원 차원의 서포터스 문화가 아니라 팀 내지 단체의 응원문화가 성숙된 서포터스 문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몰지각한 응원단에 의한 무질서, 혼잡 등의 사례는 구단뿐만 아니라 응원하는 개인의 의식 수준과 관련된 만큼 지속적인 의식 변화를 위한 갖가지 방법이 요구된다.

셋째, 적대적 응원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정적 응원 행위이자 하나의 문화이다.

좀더 성숙하고 질적으로 높은 축구 문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대적인 응원을 줄이고 자기 팀이 아니라고 야유만 보낼 것이 아니라 상대 팀에 대해서 조사도 해보고, 그 팀의 역사와 키 플레이어는 누구며 감독은 누구라는 정도만이라도 알아 놓는다면 쉽게 상대팀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팀을 비방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먼저 야유를 보내기 전에 한번만 더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고 같은 사람으로서 만약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런 상황에서 심한 야유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다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팀들 사이에 나쁜 감정만 쌓을 것만이 아니라 동맹 서포터스 문화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 제시하고자 한다. 타 구단과 서포터스의 교류는 서포터스 간의 선의의 응원 경쟁뿐만 아니라 선수들 사이에도 상대팀 응원을 고려한 페어플레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구단 서포터스 동맹은 자연스럽게 교류를 통해 상대 지역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수원 서포터스가 경기가 있는 날이면 경기가 없는 전북 서포터스가 가서 응원을 해주고 그런다면 유일하게 적대적 응원 문화가 없는 깨끗한 프로축구 문화가 형성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논문을 마치는 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축구팬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축구문화를 되짚어 보았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문화도 있었듯이 나쁜 문화도 있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의 축구문화가 지금보다 한층 더 성숙해지고 한국의 축구문화가 활성화되어서 우리나라에 정착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아울러 축구문화뿐만 아니라 많은 스포츠에서 발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훌리건이나 축구문화의 나쁜 문화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에 서포터스 문화의 올바른 지점을 나라 안에서 고치고 좋은 점은 다른 나라에서 본받아서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활기찬 응원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것이 또한 나의 바람이다.

이 글로 논문을 마친다.

---

### <출 처>

- 붉은악마 홈페이지 <http://www.reddevil.or.kr/>
- 네이버 지식인 --(스포츠 신문)스포츠 투데이
- [http://www.noustroop.org/home/noustroopmain\\_2.html](http://www.noustroop.org/home/noustroopmain_2.html) 효순이, 미선이 추모 사이트

## 「바비가 바뀌 놓은 미의 기준과 그 영향」



— 한수민

1988년 07월 09일생

별자리 / 게자리

혈액형 / B

학력 / 리라유치원 - 선부초등학교 - 중앙초등학교(졸업) - 간디청소년학교

별명 / 한수, 한수팔, 소록도할머니(안해지가 이렇게 부름)

좋아하는 것 / 십자수, 밖에서 놀기, 자기, 음악, 쇼핑, CD굽기, 만화책,  
비디오, TV, 먹는 것(먹기도 좋아한다), 여자에게 짹짹거리기, 음반 모으기

소속 / 슈팅스타, 지구특공대, 역사사랑, 옷 만들기, 방송부(탈퇴), [C.C소속,  
양궁싸부 모시기], [03년도 2학기, 02년도 2학기 학생회].

좌우명 / 앞만 보고 달리자.

## ■ 바비가 바꿔 놓은 미의 기준과 그 영향

### <논문 목차>

#### 1. 서론

#### 2. 바비란?

- (1) 역사
- (2) 만드는 과정

#### 3. 미의 기준에 대해

- (1) 과거와 현재의 미의 기준
- (2) 바비의 탄생의 따른 시대별 미의 기준

#### 4. 바비가 우리에게 관한 2가지 측면

- (1) 긍정적인 측면들.
  - 인종차별을 불식한 바비인형
- (2) 부정적인 측면들
  - 여성들의 미적 기준을 고정화시킴

#### 5. 간디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비

- (1) 설문조사에 따라서 정리!
  - 여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비
    -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눈다.
    - 자신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

#### 7. 결론

- 궁극적인 주장
- 소감

# 1. 서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많이 갖고 놀던 바비인형.

바비인형은 다른 인형들보다도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고,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과 눈길이 집중되어 있는 인형이다. 그만큼 모두들 바비인형에 대해 집중하게 되고 인형의 몸매를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 마련이다. 서양인의 몸매에 맞추어서 제작된 바비는 전에 있던 미의 기준을 더 확실하게 잡아가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들도 움직이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 인형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이나 영향, 또 바비인형의 유래와 역사와 또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바비를 보고 있는지도 궁금했고, 바비인형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여러 세계에 나가 있는 바비인형의 미에 기준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한 번쯤 살펴보고 싶어 이렇게 논문을 쓴다.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학교 여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본다.

또한 많은 자료를 통해서 바비가 우리에게 미치는 미의 기준의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 2. 바비란?

### (1) 바비의 역사

- 사전에서 찾아본 바비

Bárbie Dóll [bá : rbi-] : 바비 인형(금발·푸른 눈의 플라스틱 인형 ; 상표명); (미국 속어) 전형적인 미국인, (특히) =WASP2 ; 비개성적인) 평범한 인물.

1959년대 바비의 창시자인 Ruth Handler는 그녀의 딸 Barbara가 종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어린 소녀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인형을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장난감을 통한 놀이라는 것을 일찍이 알고 있었다.

Barbie는 패션에 있어서도 패션모델을 상징으로 한 전설상의 패션들을 입었다. 초기에는 흑백의 수영복 차림에 딸은 머리가 상징이었으나 차차 자체의 패션과 유행경향을 따라 패션이 변화했다.

1959년 뉴욕에서 있었던 완구박람회에서 냉소적인 완구 소비자들에게 처음으로 십대들의 패션모델인 바비를 소개했다. 이렇게 바비는 탄생하였고, 4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연 수입 1조 9백억 달러의 거대한 시장을 이루어 내고 있다. 거의 1초에 전 세계에서 바비인형이 2개씩 팔리고 있다. 인터내셔널 시리즈'는 지금까지 50여 개국의 바비가 등장했다.

1980대부터의 바비 시대를 흔히 '모던 바비 시대'라고 한다. 1980년대에 들어서 이전까지 백인의 모습만을 하고 있는 바비인형만 제작해 오던 마텔사는 1980년대에 들어서 '흑인바비', '히스패닉 바비'와 '인터내셔널 바비 시리즈'를 선보이면서 인종차별적 장난감이란 비난을 불식시키며 소비자의 층을 더욱 다양하게 확산시켜 나가게 된다. 바비가 탄생한 지 21년이 지난 후이다.

1990년도 요즘은 너무나도 많은 양의 바비가 생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99년에 들어 선보인 바비 인형만 해도 수백여 종에 이른다. 2003년도 지금은 2003line 이런 식 등의 바비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다. 또한 바비의 콘테스트식, 그리고 바비가 모델이 되는 것, 또 여러 가지 영화에 대보는 바비인형 패션에 따라가고 있는 바비인형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많은 종류들의 인형을 팔고 있고, 여러 가지 못 보던 옷들을 만들어 팔거나 바비를 꾸며 주는 그런 개성 경향들도 많이 생겨났다. 또 바비 박람회 등 많은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59년도의 바비인형은 점차 달라지고 있는 것을 새삼 느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바비에 대한 생각과 의견 등이 많아지고 있다. 내년 후년 멀게는 몇 십 년까지 생기는 바비를 기대해 볼만도 하다.

## (2) 만들어지는 과정



### 두상 만들기

얼굴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얼굴을 찍어낸다.



### 몸통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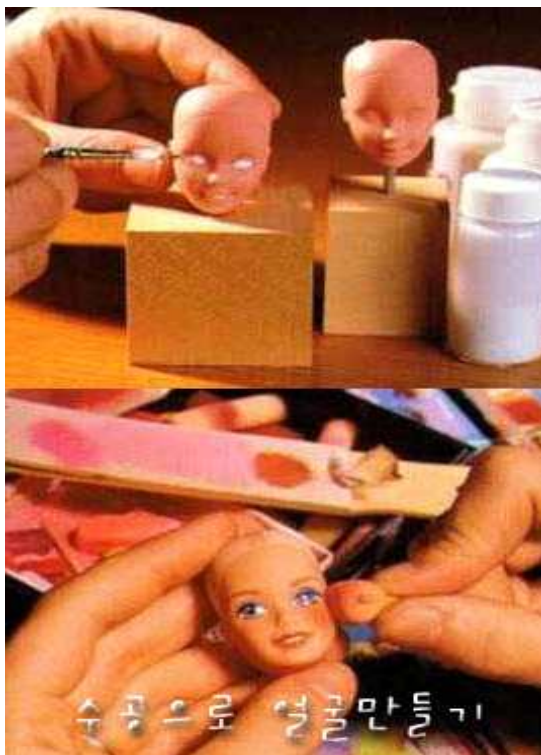
이번에는 몸통. 몸통도 찍어낸다. 바비의 몸은 거의 모두 다 비슷하다. 그리고 틀린 것이 있다면 피부색깔이다. 팔과 다리 목을 붙일 곳을 잘 해놓아 만든다. 한 다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팔과 다리 목을 끼운다.



**여러 얼굴색 샘플 만들기**  
 얼굴색을 골라서 얼굴을 그린다.  
 어떤 얼굴색이 좋을지 선택한 다음  
 눈과 입을 그린다.



**참고모델 메이크업**  
 가는 펜으로 얼굴을 정한 다음에  
 입과 눈썹 눈을 그려서  
 이렇게 머리는 완성이다.



**수공으로 얼굴 만들기**  
 수작업으로 얼굴을 그린다.  
 눈썹을 그리고 눈도 그리고 볼터치 등



**선별**

눈과 입이 그려진 인형의 얼굴들은  
 쪽 나열되어서 가지와  
 피부색이 비슷한 몸을 찾는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인형의 얼굴들은 똑같은 얼굴이 없다.



**머리 심고 다듬기**

위에 얼굴을 골라서 어울리는  
 머리스타일을 심는다.  
 어느 정도의 길이 그리고  
 머리카락의 색깔을 정하고서  
 정렬하게 머리카락을 심는다.  
 이렇게 해서 얼굴은 완성이다.



**완성된 바비**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바비가 완성된다.  
 그리고 완성된 바비는 절차를 거친다.  
 튼튼한지 얼굴에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조화가 맞는지 등  
 바비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관문이 지나면 예쁘게 포장되어서  
 시장으로 세계로 나간다.

바비인형은 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사람 손을 다 거치고 눈썹 하나 그리는데……. 그리고 머리카락하나 붙이는데도 사람들의 손을 거쳐 간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똑같이 생긴 바비가 없다. 우리사람들도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눈 하나가 다르고 다리 길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모두 다르다

### 3. 바비가 미의 기준을 바꿔 놓기 전과 후

#### (1) 과거와 현재의 미의 기준

##### ① 과거 미의 기준

동양의 경우 과거에 미인이 되려면 세 가지는 까맣고 또 세 가지는 하얘야 했다. 까매야 할 것 세 가지는 머리카락이 흑단처럼 까매야 했고, 눈썹과 눈동자가 까매야 했다. 반대로 하얘야 할 것 세 가지는 피부가 백옥처럼 하얘야 했고, 이빨과 눈자위가 하얘야 했다. 이러한 까맣고 하얀 3가지의 조건 외에 옛날 미인의 기준은 얼굴은 둥글둥글한 형, 눈은 가느다란 실눈, 눈썹은 반달눈썹, 입술은 앵두같이 작아야 하고, 몸매는 통통한 몸매 여야 미인이라고 불렀다.

##### ② 현재 미의 기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개성이다. 피부가 하얘야만 하는 이유도 없고, 머리가 꼭 까매야 할 이유도 없다. 피부는 돈 들여서 일부로 선택을 하고, 머리는 노랑머리, 빨강머리, 보라색 머리 등등, 그리고 피어싱과 귀걸이로 개성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현대 미인의 조건을 굳이 정해 본다면 얼굴은 계란형, 눈은 쌍꺼풀지고 큰 눈, 오뚝한 코, 도통하고 섹시한 입술, 잘 빠지고 긴 다리, 삐쩍 말라서 안쓰러울 정도의 마른 몸매 등으로 이것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미인의 기준이 되고 있다.

#### (2) 바비의 탄생의 따른 시대별 미의 기준 [시대별로1800~1990]

##### ① 1800~1890년대

‘모래시계’형이 미인의 체형조건이다. 가슴과 엉덩이는 풍만하되 허리는 개미허리처럼 가는 체형을 말한다. 이를 위해 당시 여성들은 코르셋으로 허리를 잔뜩 졸라했으며 가슴을 커보이게 하기 위해 솜 등을 덧댔다.

##### ② 1900~1940년대

마른 체형이 처음 이상형으로 등장했다. '말랐다'='우아함'='지성미'가 통용될 정도였

다. 코르셋 등 몸을 조여 주는 속옷의 필요성도 없어졌다.

③ -1940~1960년(바비인형이 탄생함)

큰 가슴과 개미허리, 풍만한 hips이 '이상형'의 타이틀을 다시 거머쥐었다. 1959년에 처음 나온 '바비인형'의 몸매가 여기서 생겨난 것이다.

④ 1960~1970년

깡마른 체형이 이 시대의 이상형이다. 말랐으면서 젊어 보이고 행동이나 옷차림도 생동감이 넘쳐야 미인소리를 들었다. 다이어트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가 이때 시작됐고, 운동이 다이어트의 방법으로 인정받은 것도 이때였다.

⑤ 1980년대

역사상 새로운 몸매가 이상형으로 등장한 시대다. 길고 가느다란 몸매가 이상형인 시대는 지나고, 근육형의 단단한 몸매가 이상형으로 등장했다. 물렁한 살집 대신 팔과 다리, 배 등에 탄탄한 근육질을 가진 여성이 미인 체형으로 부각됐다. 가슴과 hips도 과장되게 클 필요가 없다. '출렁거리는 가슴' 표현은 더 이상 몸매에 대한 찬사가 아니다.

⑥ 1990년대 초반

지금까지 나왔던 마른 체형중 가장 마른 체형이 이상형으로 떠올랐다. 근육 없이 뼈만 앙상한, 마치 덜 자란 아이 같은 체형이 이상형의 몸매로 자리잡으면서 여성들에게 광적인 다이어트를 자극했다.

⑦ 1990년대 후반

말랐다, 퉁퉁하다를 놓고 보면 여전히 마른 체형이 선호되고 있다. 단 마르되 약간 근육도 있고 다부지며 관능적인 면모도 갖춘 체형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유방확대 수술 등을 통해 가슴을 키우는 여성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 4. 바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1) 긍정적인 측면들 - 인종차별을 불식시킨 바비인형



왼쪽에 보면 피부가 검은 바비인형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비인형이 나오고 20년 후에 나온 흑인 바비인형이다



여성 몸과는 다른 마른 몸매를 볼 수 있다. 꼭 여성의 몸매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 (2) 부정적인 측면들 - 여성들의 미적 기준을 고정화시킴.

바비인형은 장난감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던 흑인과 백인의 인형을 만들었다. 인종차별 누구도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관념을 바비인형은 그것을 깨고자 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을지 궁금하다. 쉽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백인(얼굴이 하얀) 바비인형이 만들어지고 나서 20년 후에 흑인 바비인형이 생겼다. 다른 장난감 회사들은 생각도 못한 점일 것이다. '흑인은 사람도 아니다'라는 관념에서 흑인 바비인형이 약간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것 같다. 흑인 바비인형이 생기고 나서 그리고 바비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부분이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바비인형을 봄으로써 바비인형처럼 생긴 몸매가 원래의 여자의 몸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 많은 미의 기준에 변화가 일어났다. 허리는 잘록해야 하고 가슴은 크고 그리고 다리는 길고 키도 큰 몸매가 미의 기준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은 완전한 여성의 고정관념까지 깊게 들어가게 되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르고 가슴이 크거나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과연 이런 것이 올바른 것일까? 이런 몸매가 사랑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 어느 회사들은 여성의 회사를 뽑을 때 몸매도 하나의 심사 기준이 되기도 한다. 실력으로 뽑아도 부족한 회사에 여성들은 얼굴이나 몸매가 좋아야 한다는 생각에 박혀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많은 편견이 일어나고 있다. 여성은 꼭 이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버린다.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부터가 달라진다.

여성들은 남자들에 기준에 맞춰야 하는 노리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눈초리를 받아도 일부 여성들은 어떤 저항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겨 바로 다이어트가 시작된다. 흔히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많이 이야기 한다. 그래서 혼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진다. 이런 상황들이 만든 것이 바로 어릴 때부터 접해 오던 날씬하고 예쁜 만화 주인공과 바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사람들은 이처럼 예쁜 얼굴, 날씬한 몸매로 만족하고 살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날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기의 개성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쁜 얼굴, 날씬한 몸매의 기준선이 생기면서 그 기준에 들지 못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게 될 것이다.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과 행동에 의해 자기 자신의 몸을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런 생각들부터 고쳐야겠다는 생각이다.

### ○ 설문지 돌린 것

안녕하세요. 중3 한수민입니다.



5) Barbie가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해 고정관념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① 여성상품화 ② 여자들의 이상 ③ 아무런 느낌이 없다  
④ 기타[자신이 생각하는 것, ]

[결과 ①10(29.41%) ②9(26.47%) ③9(26.47%) ④6(17.64%) 고정관념 이라는 것은 여성상품화를 한다고 나왔다 모두 비슷비슷하게 나왔다.]

6) 요즘 Barbie의 얼굴과 몸매가 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서 Barbie를 여성에 대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부정적이라 생각하나요? 자신생각을 자세하게 적어 주세요.

그럼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① 긍정적이다 ② 부정적이다 ③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세히..적어주세요]

[결과 ①3(9.3%) ②16(50%) ③13(40.7%) 아이들은 바비를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자기 생각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7) 자신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① Barbie 같은 몸매 ② 뚱뚱한 몸매 ③ 몸매 말고 마음 ④ 얼굴만을 보고  
⑤기타[ ]

[결과 ①1(2.94) ②0 ③12(32.35%) ④0 ⑤15(64.70%) 마지막으로 미의 기준 아이들은 기타에 많이 표를 던져 주었다. 기타 의견은 아래쪽에...]

5번 기타)에 대한 의견 :

바비와 같은 몸매, 몸매만이 여자의 모든 것을 대신한다, 여성의 미의 기준선, 규격화된 여성의 편견, 얼굴과 몸매가 여성의 모든 것을 대신한다 등.

6번 자기 생각)에 대한 의견 :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은 꼭 이래야 한다는 생각, 인형을 갖고서 부럽냐고 하는 것이 한심하다

날씬한 몸매를 만들려는 모습이 좋아보이지 않는다, 자기의 개성적인 얼굴이 있는데

사람의 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우상이 생겨도 괜찮을 것 같다.  
 바비 몸이 미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 짜증난다,  
 사람 몸이 바비인형처럼 된다면 징그러울 것 같다.  
 여성편견, 바비의 몸매는 서양적이고 우스꽝스럽다.  
 여성의 몸을 과장되게 나타내는 것 때문이다.  
 바비를 기준으로 두는 사람을 보면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미의 기준을 내세워 고정관념을 생기게 만든다.

7번 자신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

성격, 마음, 몸매 좋고, 얼굴 되고, 마음씨 곱상, 그냥 예쁘다 하는 여자,  
 자신의 개성과 예쁜 마음씨, 인간의 됴됨이, 몸매 조금 얼굴 조금 마음, 끌리는 매력,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 예쁘고 착하고 몸매 좋고, 조화롭게, 어느 정도 포함 등이다.

(1) 여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비 (설문지 분석 결과)

아래는 간디 여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나서 정리해 본 결과들이다. .바비인형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6번 문항 정리 결과를 보고 정리해 본 내용이다.

바비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7명중 3명이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6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모르겠다. 라는 문항도 있었는데 그 문항은 13명이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었다. 모르겠다고 한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보다도 많았다.

나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거의 비슷할 줄 알았지만 결과를 보니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바비를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그 이유를 써 달라고 했다. 그 다음 문항을 선택하고 이유를 쓴 사람들 중에서 부정과 긍정을 나눌 것이다.

① 긍정을 선택한 여학생들

- 누구나 돼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한 번쯤 바비가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자기의 우상이 생겨서 되고 싶은 만큼 노력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 그냥요?!

- 자기의 꿈이 그리고 되고 싶은 것이 바비의 몸매라면 한 번 정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아이들이 긍정적이다, 라는 쪽에 손을 들어 주었다.

## ② 부정을 선택한 여학생들

- 미의 기준을 몸매로….
- 상품화된 미인관의 기준에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한다.
- 바비인형 같은 몸매를 만든다면 징그러울 것 같다.
- 여성은 꼭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 인형의 몸매가 부럽다는 것은 한심하다
- S자 모양으로 몸매를 만들려고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 각자 개성 얼굴이 있는데 왜 꼭 바비를….
- 생각만 올바르게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 미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에 있다.
- 바비의 몸매가 미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좋지 않다.
- 사람 몸매가 바비인형처럼 된다면 징그러울 것 같다.
- 개성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서양문화를 따라가는 것 같다.
- 여성의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 바비몸매를 기준에 대는 그 사람은 참 어리석어 보인다.
- 완벽한 여자는 바비다, 라는 건… 이런 말은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부정적인 의견이다.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바비인형의 몸매는 미의 기준이 아니다. 그리고 바비인형은 그냥 우스꽝스럽다는 이 정도가 아이들의 생각이었다. 거의 비슷한 의견들이 많았다. 간디여학생들은 바비의 몸매가 여성의 몸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다.

## (2) 분석 결과

아이들은 바비에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바비를 구입한 아이들은 많이 없었다. 외국의 아이들은 집에 평균 6개의 바비 인형을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 학교 여학생들은 바비 인형을 평균 약 1개 정도만을 갖고 있다고 알게 되었다.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무려 59.10%가 나왔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은 바비 인형의 몸매가 미의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50%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대답했다.

여학생들이 말하는 이유는 비슷했다. 그런 몸매를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런 것이 미의 기준이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간디 여학생들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 7. 결 론

### 1) 궁극적인 주장

이 논문을 쓰면서 느낀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고 놀던 인형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 논문의 소재인 바비 인형이 여성들에게 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고, 그 기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이런 고정관념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많은 남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쉽게 고칠 수 없는 사회의 편견으로 자리잡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얼굴과 외모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비 인형도 이런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것들을 연예인들이 더 악화시킨다. 통신들을 접하는 청소년들은 유행을 타면서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배운다. 인격체보다도 사람의 외면을 보고서 판단한다는 것 등을 말이다. 그리고 이것들의 하나의 사례는 회사를 뽑을 때에도 능력보다는 어느 정도의 외모도 본다고 한다.

그렇게 볼 때 바비 인형은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어쩌면 치명적인 시각을 만든 것 같다. 여성의 몸매가 이렇지 않으면 여성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몸매가 되더라도 허약해서 많은 폭행을 당하기도 쉽다.

물론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서이다. 안정감 있는 비너스의 몸매에서 바비 인형 같은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문화로 미의 척도가 바뀌면서 여성들은 다이어트에 목숨까지 거는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미스코리아도 한몫을 한다. 특히 “미인선발대회가 강요하는 ‘아름다움’과 ‘여성다움’은 ‘강요되는 여성미’로서 36-24-36의 '바비 인형'이고 왜곡된 여성 기준을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미스코리아도 선정 기준이 수영복 잘 어울리는 이런 몸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의 노리개로 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빠른 시간 안에 바뀌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개개인도 노력해야겠지만, 이런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을 쓰면서 어릴 때부터 우리들이 가지고 노는 작은 인형이 우리에게 잘못된 관념을 심어줄 수 있고 그 그릇된 가치관에 의해 우리의 생각이 지배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비록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다.

첫째,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의 생각들도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영향이 커서 어린아이들까지 그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유행을 많이 탄다. 통신에서나 아니면 여러 곳에서 영향이 미친다.

텔레비전을 예로 들어보자. 텔레비전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나온다. 연예인들은 섹시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또한 그런 단어에 맞게 행동한다. 섹시라는 단어보다 청순가련으로 나가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언젠가는 섹시라는 것이 미의 기준, 그리고 사람의 눈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청소년들은 통신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통신에서의 영향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받아 온다. 그래서 생각들도 그렇게 되는 것 같다. 바비와는 좀 먼 얘기이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쉽게 유행을 타니까 이런 점을 이용해서 많은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관심 있게 본다면 이런 문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단은 청소년은 유행에 잘 타기 때문에 많은 유행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둘째,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인형에서 ‘미의 기준은 이런 것이다’라는 인식을 무의식중에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인형이 다양하고 개성적이 라면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8등신에 키 크고 날씬한 몸매의 바비뿐만 아니라, 통통하고 키는 아담한 인형이나 심지어는 뚱뚱한 인형까지 자기만의 개성을 지니고 있는 인형들을 접하게 한다면, 아이들의 심리도 무조건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기회가 된다면 바비처럼 획일적인 몸매를 가진 인형이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고 개성이 존중되는 인형을 한번쯤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런 인형을 만들어서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아름다움을 인정할 수 있는 열린 사고를 전해 주고 싶다.

## 2) 논문을 쓰면서 잊을 수 없는 분들...

나를 낳아 주신 부모님, 지도 쌤이셨던 현숙 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담당 쌤 아니신데도. 논문을 봐주신 병삼 쌤, 사감 쌤, 희숙 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돌린 설문지를 성실하게 답변해준 여학생들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설문지 맨 아래 제게 할 말을 써달라고 비워 뒀었는데. 거기에 격려에 말을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설문지 맨 아래 말들이 논문 쓰는 데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설문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학년이 전산실을 최고 오래 쓴 게 새벽 5시였는데. 그때 엄청 배가 고팠었는데 그 다음날에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신 미리 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저는 4번 컴퓨터인데, 영규가 많이 자리를 비워줘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힘드셨던 우리 사부님, 매일 저녁에 오셔서 우리 논문 진행정도 많이 논문을 지도해 주셨는데요,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준 사이트\*>

네이버: <http://barbieinfo.hihome.com/history/history.htm#>

네이버: <http://myhome.naver.com/barbienara/menu0.php> 등

# 「욕과 비속어, 은어 사용을 통해 본 간디인들의 언어생활」



- 민한별

1989년 01월 25일생

혈액형 / O형

학력 / 서울 잠신초등학교 졸업 - 간디청소년학교 졸업 예정

(\*2003년 서울지구 고입검정고시 합격)

별명 / 별이

취미 / 음악 듣기, 잠자기, 인터넷 사진 찍기, 영화 보기,

폭식하기, 주접떨기, 책 읽기.

특기 / 주접 떨면서 춤추기, CD 굽기

소속 / 슈팅스타, 역사사랑, \*휘봉클럽.

좌우명 / 후회할 짓은 하지도 말자,

뭐든지 열심히 하자!

(좋은 말은 모두 다 내 꼴루 만듦--)

# 욕과 비속어, 은어 사용을 통해 본 간디인들의 언어생활

## <차례>

### 1. 서론 /

### 2. 본론 /

- (1) 청소년들의 언어생활
- (2) 청소년들의 욕 문화에 대해
- (3) 욕, 비속어, 은어의 유래와 배경에 대해
- (4) 간디인들의 언어생활(설문지 결과를 토대로)
  - (4)- 1 설문지 양식과 결과
  - (4)- 2 간디인은 어떤 종류의 욕들을 많이 하나?
  - (4)- 3 간디인들이 생각하는 욕의 양면성
  - (4) -4 올바른 언어생활을 하기 위한 간디인들의 생각

### 3. 결론 /

논문 발표 : 간디청소년학교 3학년 민한별

논문 지도 : 윤혜상 선생님

## 1. 서론

내가 다루고자 하는 논문의 주된 주제는 간디인들의 언어생활에 관한 것이며, 좀더 넓게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계기는 언젠가 인터넷을 하다가 ‘욕의 유래’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띄어 읽게 되면서부터이다.

나도 평소에 욕을 쓰기도 하는 터라 욕을 왜 사용하는가 하는 의문도 생기고 언어생활에서 욕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만큼이고, 욕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일까 등등 궁금한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욕’이란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조금씩 욕과 청소년의 언어생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주제로 간디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문을 써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논문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 논문을 쓰는 이유는 내가 보았을 때 나를 포함한 간디인들이 평소에 비속어, 은어, 욕들을 쓰는 것을 적지 않게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간디인들의 언어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저런 말들은 어디서 배웠으며 그런 언어들을 쓸 때 기분은 어떠한지 등등... 그러면 어떠한 말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고, 욕이나 비속어, 은어 등 흔히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습관과 생활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고자 하다 보니 논문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결정된 것이다.

이번 논문을 쓰게 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일상 속에서 쉽게 쓰는 언어습관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각도로 욕이나 비속어 은어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었다. 또한 자료수집의 측면에서도 찾은 자료들이 현재 우리 또래가 사용하는 것들과는 거리가 있어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다.

논문의 순서는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와 이유와 목적, 그리고 진행상의 어려움들을 적은 서론,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언어생활과 욕 문화를 살펴보고 욕의 유래와 종류를 설명하였으며, 간디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내용으로 짜여진 본론, 끝으로 간디인들의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위한 제언을 담은 결론으로 되어 있다.

또한 논문의 목적은 ‘간디학교에 있어서 올바른 언어생활이란 과연 무엇인가’, 지금 과연 우리들이 올바른 언어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데 있다.

## 2. 본론

### (1) 청소년들의 언어생활

요즘 청소년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미디어와 영상매체, 정보화 시대를 가져다준 컴퓨터와 게임 등 아주 많은 매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그로 인해 적지 않게 청소년의 문화에는 기성세대가 이해하기 힘든 문화적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고, 옷차림에서부터 언어 습관이나 생활 태도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달로 각종 인터넷 언어, 신조어 등이 사회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마구잡이로 쓰이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욕과 비속어, 은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출처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가장 많이 인터넷에서 영향을 받아 생겨나고 쓰이고 있는 욕들이 있다. 또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배워서 써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질문을 해본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해 주었다. 또한 친구들이나 주변 어른들 심지어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아쓰고 있는 욕이나 비속어들도 많았다.

### (2) 청소년들의 욕 문화에 대해

청소년들의 욕 문화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검색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http://www.naver.com))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다음 글들은 여러 차례 검색을 한 결과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이다.

#### ○ 욕설은 하나도 긍정적인 점이 없다

욕설을 습관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자가 굳이 욕설의 긍정적인 면을 열거한다면 욕설은 서로 간에 친밀성의 표현이라거나 욕설을 내뱉음으로써 이른바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는 강변을 할지 모른다.

욕설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없는 저질스러운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 욕설이 만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이를 두 가지 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가. 심리적 원인

욕설을 하는 자의 본래의 목적은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그러한 심정 자체가 비도덕적이고 비이성적인 감정의 발로이지만 그렇더라도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반드시 욕설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욕설을 하는 이유나 원인은 하나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원인과 이유에서 욕설을 한다.

첫째는 욕설을 하는 사람의 인격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역시 인격의 미성숙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자기감정을 이길 만한 자제력, 즉 극기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 사회적 원인

우리 사회는 욕설이 널리 만연된 욕설의 대중화 시대가 되었고 욕설을 지껄이는 것을 ‘욕 문화’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은 질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 ○ 청소년들이여 욕설을 쓰지 말자

경제력의 확대만으로는 결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청소년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선진 국민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개개인이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욕설 또한 결코 입에 담는 일이 없는 행실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출처 : 네이버 CHARMDAE님]

이 글을 쓴 사람은 전체적으로 욕 문화에 대해 나와는 다르게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욕은 무조건 더럽고 저질스러운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점은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입에 예쁜 말만 담고 듣기 좋은 말만 담는다면 화가 나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엔 그때도 예쁜 말만 해야 하는 걸까?

간디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을 때에도 욕을 쓰면 감정 표현이 자유로워져서 쓴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욕이 저질스럽고 비도덕적인 걸 떠나서 욕설이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타할 때에도 쓰인다는 걸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 (3) 욕, 비속어, 은어의 유래와 배경에 대해

욕, 비속어, 은어는 종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쓰임도 다르고 종류도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다. 종류가 많은 만큼 욕의 유래와 사회적 배경도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고 또한 조금씩 뜻이나 쓰임이 다르다.

욕이란 남을 저주하거나 미워할 때 쓰는 말이다. 또한 자신을 타하거나 비하할 때 쓰기도 한다. 따라서 욕은 그 시대에 가장 무시되고 하찮은 것들이 대상이 된다. 또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경멸스럽게 생각하는 행동들이나 또는 그 시대에 참혹한 형벌들이 욕의 소재나 배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음은 욕의 유래와 배경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적은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욕의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실었으며, 욕의 내용은 현재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음을 밝힌다. 욕을 순우리말로 표현하면 '상소리' 또는 '쌍소리'이다.

가. 단어의 유래와 뜻

- ☞ 가시내 : 여자의 순우리말 '가시'와 태생을 뜻하는 '나이'가 합쳐서 가시내, 가시나가 되었다.
- ☞ 개나발 : '개'란 '야생의', '마구잡이의'란 뜻의 접두사로 마구 붙어대는 나팔.
- ☞ 개차반 : 개가 먹을 차반(잘 차린 음식). 즉 똥. ->행세가 고약하고 성격이 나쁜 행동.
- ☞ 건달 : 불교의 건달바(乾達婆)라는 말에서 유래. 건달바는 수미산 금강굴에 사는 하늘나라의 신으로 고기나 밥은 먹지 않고 향만 먹고 살며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하는 존재다. 원래는 존재의 뿌리가 불확실하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를 뜻했으나 '빈둥거리며 게으름 부리는 사람'. 또는 '빈털털이'란 뜻으로 쓰이고 요즘은 불량배나 깡패의 의미로 쓰임
- ☞ 계집 : 모계 중심이던 사회에서 집에 계시는 사람이란 뜻으로 '계집'이라 했으나 점차 부계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계집' 자체가 하대용으로 쓰이게 됨.
- ☞ 고문관 : 한국전쟁과 미군정 시기에 미군의 군사 고문관들이 한국 군대에 주둔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말에 서투르고 한국 실정에도 어두워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이를 한국인들이 이용하여 속이고 잇속을 챙기는 일이 많았다. 이로부터 군대 내에서 어리숙한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사회 전반으로 퍼진 것이다.
- ☞ 곤죽 : 원래는 끓여서 썩은 죽이란 의미에서 밥이 몹시 질거나 떡이 질척한 상태란 의미로 변하였고, 다시 사람이 몹시 상하거나 늘어진 상태를 비유하는 말로 변하였다. 즉 몹시 상하고 엉망이 되어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 ☞ 깡패 : 영어의 '갱(gang:강도단)'과 한자 '패(:패거리)'의 합성어이다.
- ☞ 꺼병이 : 꿩의 어린 새끼를 꺼병이라고 하였다. 이 꺼병이는 암수구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생긴 것도 못생겼는데 이에 빗대어 어딘가 모자란 듯하거나 못 생긴 사람을 꺼병이라 하게 되었다.
- ☞ 등신 : 등신(等神)은 한자어 그대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신상을 말한다.
- ☞ 마누라 : 조선시대 '대비 마노라'와 같이 왕비에게 쓰이던 극존칭이 조선후기 이후부터 늙은 부인이나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 됨.
- ☞ 멧렁구리->멍청이 : 멧렁구리란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이름인데 이 물고기는 못생

기고 동작이 느리다. 여기에 비유하여 판단력이 느리고 시비를 잘 모르는 사람을 뜻하게 되었다.

- ☞ 모리배 : 모리배(謀利輩):도의를 무시하고 단순히 이익만을 꾀하는 무리.
- ☞ 바가지 : 옛날에 콜레라가 돌 때 귀신을 쫓는다고 바가지를 문질러서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여기서 유래해 잘못을 듣기 싫을 정도로 귀찮게 나무라는 뜻이 됨.
- ☞ 바보 : '밥+보'에서 'ㅂ'이 생략되어 바보가 되었다. 울보, 느림보 등 '보'는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로서 밥보는 밥만 먹고 할 일없이 노는 사람을 가리키다가 지금은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 ☞ 사이비 : 사시이비(似是而非)의 준말로 겉은 비슷하나 본질은 다른 것.
- ☞ 샷대질 : 배의 샷대를 젓는 행동. 싸울 때의 손가락질이 샷대질과 비슷한 데서 유래한다.
- ☞ 씨알머리 : '씨알(종자)머리'가 없다. 즉 근본, 가운이 없어서 무례하다.
- ☞ 아니꼽다 : 장(臟)을 뜻하는 '안'과 굵은 것을 뜻하는 '곱다'가 합쳐져서 '장이 뒤틀린다'는 뜻. 즉 장이 뒤틀려 토할 것 같이 불쾌하고 매스껍다는 뜻이 되었다.
- ☞ 애물단지 :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이나 매우 속을 썩이는 물건이나 사람이란 뜻.
- ☞ 얼간이 : 음식을 소금에 약간 절이는 것을 '얼간'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대충 어리숙하고 어딘가 모자라는 사람을 뜻한다.
- ☞ 엠병할 : '엠병(장티푸스)을 알아서 죽을'이란 뜻. 엠병할 놈.
- ☞ 엇먹다 : '엇'이란 남사당패에서 여자의 성기를 뜻하는 은어였다. 즉 '엇 먹어라'라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이다.
- ☞ 우라질 : 오라(죄인을 묶던 붉은 줄)+지다(묶다)가 합쳐서 오라지다. 즉 '오라질'은 '못된 짓을 하여 오라에 묶인다는 뜻'으로 미운 사람에게 하는 욕이다. 우라질 놈.
- ☞ 욱시랄 : 욱시(戮屍)는 이미 죽은 사람을 관에서 꺼내어 머리를 베는 형벌을 말한다. 그만큼 저주가 담긴 욕이다. 욱시를 할 놈 -> 욱시랄 놈
- ☞ 지랄하다 : '지랄'은 간질병을 뜻한다. 즉 간질환자들의 발작증처럼 마구 법석을 떨거나 분별없는 행동을 떠드는 뜻이다.
- ☞ 젠장할 : '네 난장(亂杖)을 맞을'이 줄어서 된 말. 난장이란 조선시대 정해진 형량 없이 닥치는 대로 때리는 형벌임. '제기, 난장을 맞을'을 줄여 젠장 할이 됨.
- ☞ 쥘병 : 전병(煎餅:참쌀가루나 수수가루로 반죽하여 속에 팥을 넣고 부친 떡)에서 나온 말. 이 떡은 잘 부서져서 모양내기가 힘들다. 즉 실력이나 기술이 없음을 뜻한다.



요.

이름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쁘게 표시해 주세요 ~^^ ^  
감사합니다.

< 남 / 여 학년 : >

1. 지금 바른 언어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① 그렇요

(남1 : 15.4%, 남 2 : 25%, 남3 : 25%, 여1 : 10%, 여2 : 52.9%, 여3 : 14.3%)

② 아니오

(남1 : 84.6%, 2남 : 75%, 3남 : 75%, 여1 : 90%, 여2 : 47.1%, 여3 : 85.7%)

2. 바른 언어 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①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

(남1 : 0%, 남2 : 75%, 남3 : 0%, 여1 : 0%, 여2 : 17.6%, 여3 : 14.3%)

② 때와 장소에 맞게 말하는 것

(남1 : 38.5%, 남2 : 75%, 남3 : 100%, 여1 : 0%, 여2 : 35.2%, 여3 : 85.7%)

③ 욕을 사용하지 않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

(남1 : 46.2%, 남2 : 25%, 남3 : 0%, 여1 : 20%, 여2 : 23.5%, 여3 : 14.3%)

④ 기타(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주세요^^\* :

(1남 : 15.4%, 남2 : 0%, 남3 : 0%, 여1 : 40%, 여2 : 23.5%, 여3 : 0%)

3. 간디인들은 욕, 비속어, 은어 등을 어느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① 매우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남 : 30.8%, 남2 : 30%, 남3 : 0%, 여1 : 10%, 여2 : 23.5%, 여3 : 14.3%)

②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남1 : 38.5%, 남2 : 25%, 남3 : 100%, 여1 : 60%, 여2 : 58.8%, 여3 : 57.1%)

③ 보통입니다

(남1 : 15.4%, 남2 : 23%, 남3 : 0%, 여1 : 30%, 여2 : 11.8%, 여3 : 14.3%)

④ 조금 사용하고 있어요

(남1 : 15.4%, 남2 : 0%, 남3 : 0%, 여1 : 0%, 여2 : 5.9%, 여3 : 0%, )

⑤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남1 : 0%, 남2 : 0%, 여1 : 0%, 여2 : 0%, 여3 : 0%)

⑥ 잘 모르겠어요

(남1 :0%, 남2 : 0%, 남3 : 0%, 여1 : 0%, 여2 : 0%, 여3 : 0%)

⑦ 기타

(남1 : 0%, 남2 : 0%, 남3 : 0%, 여1 : 0%, 여2 : 0%, 여3 : 14.3%)

4. 욕, 비속어, 은어를 어느 때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① 기분이 나쁠 때

(남1: 23.1%, 남2 : 25%, 남3 : 0%, 여1 : 60%, 여2 : 11.8%, 여3 : 57.1% )

② 상대방과 다툰 때

(남1 : 7.7%, 남2 : 25%, 남3 : 0%, 여1 : 10%, 여2 : 5.9%, 여3 : 0%)

③ 그냥(평상시 아무 때나)

(남1 : 53.8%, 남2 : 50%, 남3 : 100%, 여1 : 20%, 여2 : 52.9%, 여3 : 14.3%)

④ 기타(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주세요 : )

(남1 : 15.4%, 남2 : 0%, 남3 : 0%, 여1 : 10%, 여2 : 17.6%, 여3 : 28.6%)

5. 자신이 쓰는 욕, 비속어, 은어들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① 매우 잘 알고 있어요

(남1 : 15.4%, 남2 : 25%, 남3 : 25%, 여1 : 10%, 여2 : 17.6%, 여3 : 0%)

② 잘 알고 있어요

(남1 : 7.7%, 남2 : 50%, 남3 : 25%, 여1 : 10%, 여2 : 11.8%, 여3 : 28.6%)

③ 적당히 알고 있어요

(남1 : 61.5%, 남2 : 0%, 남3 : 50%, 여1 : 40%, 여2 : 58.8%, 여3 : 57.1%

④ 조금밖에 몰라요

(남1 : 7.7%, 남2 : 25% 3 : 0%, 여1 : 40%, 여2 : 11.8%, 여3 : 0%)

⑤ 전혀 몰라요

(남1 : 0%, 남2: 0%, 남3 : 0%, 여1 : 0%, 여2 : 0%, 여3 : 0%)

⑥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대요(이유는요?: )

(남1 : 7.7%, 남2 : 0%, 남3 : 0%, 여1 : 0%, 여2 : 0%, 여3 : 14.3%)

6. 자주 쓰는 욕, 은어, 비속어들이 있다면 주로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나요?

① 인터넷

(남1 : 15.4%, 남2 : 0%, 남3 : 25%, 여1 : 20%, 여2 : 29.4%, 여3 : 0%)

② 만화책 혹은 기타 책들

(남1 : 0%, 남2 : 0%, 남3 : 0%, 여1 : 40%, 여2 : 0%, 여3 : 0%)

③ 친구들

(남1 : 38.5%, 남2 : 23%, 남3 : 50%, 여1 : 0%, 여2 :41.1%, 여3 : 71.4%)

④ 선배들이나 주변 어른 분들

(남1 : 38.5%, 남2 : 50%, 여1 : 0%, 여2 :17.6%, 여3 : 0%)

⑤ 기타

(남1 : 7.7%, 남2 : 23%, 남3 : 0%, 여1 : 40%, 여2 : 11.8%, 여3 : 28.6%)

7. 욕이나 비속어, 은어를 들어봤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①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남1 : 15.4%, 남2 : 0%, 남3 : 25%, 여1 : 20%, 여2 : 5.9%, 여3 : 14.3%)

② 나빴어요

(남1 : 23.1%, 남2 : 50%, 남3 : 25%, 여1 : 30%, 여2 : 41.2%, 여3 : 14.3%)

③ 그냥 그랬어요

(남1 : 0%, 남2 : 0%, 남3 : 50%, 여1 : 20%, 여2 : 17.6%, 여3 : 42.9%)

④ 별 느낌 없었어요

(남1 : 7.7%, 남2 : 25%, 남3 : 0%, 여1 : 10%, 여2 : 29.4%, 여3 : 0%)

⑤ 배워서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남1 : 15.4%, 남2 : 25%, 남3 : 0%, 여1 : 0%, 여2 : 0%, 여3 : 0%)

⑥ 기타( )

(남1 : 0%, 남2 : 0%, 남3 : 0%, 여1 : 20%, 여2 : 5.9%, 여3 : 28.6%)

8. 욕, 비속어, 은어들을 쓰신다면 왜 쓰시나요?

① 멋있어 보이려고

(남1 : 0%, 남2 : 0%, 남3 : 0%, 여1 : 0%, 여2 : 0%, 여3 : 0%)

②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어서

(남1 : 0%, 남2 : 0%, 남3 : 0%, 여1 : 20%, 여2 : 0%, 여3 : 0%)

③ 유행, 분위기에 휩쓸려서

(남1 : 30.8%, 남2 : 25%, 남3 : 0%, 여1 : 40%, 여2 : 17.6%, 여3 : 0%)

④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남1 : 30.8%, 남2 : 50%, 남3 : 75%, 여1 : 20%, 여2 : 35.2%, 여3 : 28.6%)

⑤ 기타( )

(남1 : 30.8%, 남2 : 25%, 남3 : 25%, 여1 : 20%, 여2 : 47.2%, 여3 : 71.4%)

9. 자신이 욕, 비속어, 은어들을 사용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

(남1 : 46.2%, 남2 : 25%, 남3 : 0%, 여1 : 40%, 여2 : 23.5%, 여3 : 57.1%)

② 무의식중에 나와서 잘 모르겠네요

(남1 : 46.2%, 남2 : 75%, 남3 : 25%, 여1 : 20%, 여2 : 29.4%, 여3 : 14.3%)

③ 욕을 꼭 써야 되겠다고

(남1 : 7.7%, 남2 : 0%, 남3 : 0%, 여1 : 0%, 여2 : 0%, 여3 : 0%)

④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만 상황이 따라주지 않네요

(남1 : 0%, 남2 : 0%, 남3 : 75%, 여1 : 40%, 여2 : 35.3%, 여3 : 14.3%)

⑤ 기타( )

(남1 : 0%, 남2 : 0%, 남3 : 0%, 여1 : 0%, 여2 : 11.8%, 여3 : 14.3%)

10. 다른 사람들이 욕, 비속어, 은어들을 쓰고 있는 걸 보았을 때는요?

① 옆에서 응원해 주고 싶어요

(남1 : 7.7%, 남2 : 25%, 남3 : 0%, 여1 : 0%, 여2 : 17.6%, 여3 : 14.3%)

②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남1 : 46.2%, 남2 : 25%, 남3 : 50%, 여1 : 60%, 여2 : 47.1%, 여3 : 57.2%)

③ 적극적으로 말려요

(남1 : 0%, 남2 : 0%, 남3 : 25%, 여1 : 0%, 여2 : 0%, 여3 : 0%)

④ 아무런 생각 없어요

(남1 : 38.5%, 남2 : 50%, 남3 : 25%, 여1 : 10%, 여2 : 35.2%, 여3 : 28.2%)

⑤ 기타( )

(남1 : 7.7%, 남2 : 0%, 남3 : 0%, 여1 : 30%, 여2 : 0%, 여3 : 0%)

11. 지금 욕을 쓰고 계신가요? 욕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좋은 점 :

◎ 나쁜 점 :

12. 자주 쓰는 욕, 비속어, 은어가 있다면?(아는 대로 써 주세요)

13. 욕, 비속어, 은어를 쓰는 걸 줄이고 싶다면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적어 주세요.

14. 만약 욕 대회가 열린다면 참가할 의향이 있으세요?

① 네, 참가할래요

(남1 : 23.1%, 남2 : 0%, 남3 : 25% , 여1 : 0%, 여2 : 17.6%, 여3 : 71.4%)

② 싫어요, 저 바빠요

(남1 : 46.2%, 남2 : 75%, 남3 : 25%, 여1 : 60%, 여2 : 58.8%, 여3 : 28.6%)

③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남1 : 30.8%, 남2 : 25%, 남3 : 50%, 여1 : 30%, 여2 : 23.5%, 여3 : 0%)

④ 기타( )

(남1 : 0%, 남2 : 0%, 남3 : 0%, 여1 : 10%, 여2 : 0%, 여3 : 0%)

15.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4) - 1 간디인들의 언어생활(설문지 결과를 토대로)

간디인들의 언어생활에 관한 논문이기 때문에 나는 직접 설문지를 돌려 간디인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전체 75명 중 총 54명이 설문지에 응해 주었다.

1번 문항에서 올바른 언어생활을 하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1학년 남학생의 경우, '아니오' 라는 대답이 84.6%로 예라는 대답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2학년 남학생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75%로 1학년보다는 낮은 결과가 나왔다.

중3 남학생의 경우 75%, 1학년 여학생은 올바른 언어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이 90%, 2학년 여학생의 경우엔 '예' 라는 대답이 52.9%로 '아니오' 라는 대답보다 높게 나왔다. 중3의 경우 '아니오' 라는 대답이 85.7%로 '예' 라는 대답보다 높게 나왔다.

거의 모든 학년에서 '아니오' 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현재 간디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욕이나 비속어, 은어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올바르지 못한 언어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남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올바른 언어생활을 한다는 말이 높게 나왔는데, 이것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언어에 대해 스스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높아짐은 물론 바른 언어생활을 지향할 줄 알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간디학교 1,3학년 여학생 경우와는 달리 2학년 여학생들은 올바른 언어생활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은 특이한 결과이다.

2번 문항에서 올바른 언어생활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 보았을 때 남학생의 경우 때와 장소에 맞게 말하는 것이 5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욕을 사용하지 않고 고운 말을 쓰는 것이 33.3%로 두 번째로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엔 1학년은 때와 장소에 맞게 말하는 것이 40%로 가장 높았고, 2학년의 경우도 역시 1학년과 같이 35.2%로 가장 높았다. 중3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85.7%로 가장 높았다.

이 결과는 간디인들이 스스로 때와 장소에 맞는 언어를 써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현실 속에서 격에 맞는 언어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결과이다. 올바르지 못한 언어생활에 대해 스스로들 어느 정도 정의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언어생활을 실천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은 결국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않는 좋지 못한 면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3번 문항 간디인들에게 욕, 비속어, 은어를 어느 정도 쓰는지를 물었을 때, 1학년 남학생들의 경우 38.5%로 많이 사용한다는 말이 가장 많았고, 2학년 남학생의 경우엔 매우 많이 사용한다는 번호가 50%로 가장 많이 나왔다. 중3 남학생의 경우 역시 많이

사용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로 58.8%로 많이 사용한다는 번호를 선택했다.

4번 문항으로 욕, 비속어, 은어를 어떤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를 물었을 때에는 중1 남학생의 경우 53.8%로 ‘아무 때나 그냥 쓴다’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중2와 중3의 경우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여학생들의 경우, 중2를 제외한 중1, 3 여학생들은 60%, 57.1%로 기분이 나쁠 때만 쓴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중2의 경우 남학생들과 같은 52.9%로 아무 때나 쓴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무 때나 거리낌 없이 욕과 비속어, 은어를 쓰는 학생들이 반수를 넘긴다는 것은 결국 일상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어떤 절제나 조율을 거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5번 문항에서는 자주 쓰는 욕, 비속어, 은어들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61.5%로 중1 남학생들은 적당히 알고 있다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였고, 중2 남학생의 경우엔 50%로 쓰고 있는 욕, 비속어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3의 경우 적당히 안다는 사람이 50%로 나왔다. 다음 여학생들의 경우 1학년은 적당히 안다는 학생 수와 조금 밖에 모른다가 40%로 똑같이 나왔고, 중2 여학생들의 경우 적당히 안다는 학생수가 58.8%로 가장 많았다. 중3 여학생들은 57.1%로 적당히 안다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많은 간디인들이 거의 욕의 뜻을 알면서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적절한 조절 능력이 뒤따라야만 건전한 언어문화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6번 문항에선 자주 쓰고 있는 욕, 비속어들이 있다면 주로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지를 물었는데, 중1 남학생의 경우 친구들과 선배들, 주변 어른 분들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가 38.5%로 두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 중2의 경우도 50%로 가장 많이 나왔다. 중3 남학생들의 경우는 50%로 친구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고, 여학생들의 경우 1학년은 40%로 중2 여학생도 41.1%로 친구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 가장 많았다. 중3의 경우도 71.4%로 가장 많았다.

친근한 관계 사이에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결과를 보면서 욕을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과 선배들, 주변 어른들이 늘 욕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생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7번 문항에서 욕이나 비속어, 은어를 들었을 때의 기분을 물어 보았을 때 1학년 남학생들은 38.5%로 그냥 그랬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고, 중2의 경우는 나빴다는 이야기가 50%로 가장 많았다. 중3의 경우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 나빴다와 그냥 그랬다는 학생수가 모두 똑같았다. 1학년 여학생은 ‘기분이 나빴다’는 의견이 30%로 가장 많았고 2학년 여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기분이 나빴다’가 41.2%로 가장 높게 나왔다.

3학년 여학생의 경우 ‘그냥 그랬다’가 42.9%로 가장 많이 나왔다.

욕을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욱 큰 상처를 받거나 기분이 상하게 되므로, 욕이나 기타 건강하지 못한 언어생활을 가까운 사이에서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욕, 비속어를 쓰는 이유를 물었을 때 중1 남학생의 경우 유행, 분위기에 휩쓸려서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타 각각 30.8%로 똑같았다. 기타 이야기에는 화가 나서, 선배들에게 배워서 버릇이 되어서 등등이 있었다. 중2의 경우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라는 이야기가 50%로 가장 많이 나왔다. 중3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1 여학생의 경우 유행, 분위기에 휩쓸려서가 40%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의 경우 기타 의견이 47.1%로 가장 많았다. 기타 의견에는 다른 사람들이 써서 욕을 쓴다, 저절로 쓰게 됨, 내 기분 혹은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짜증나서, 장난으로 쓰게 된다 등등이 나왔다.

9번 문항에서는 욕, 비속어, 은어를 사용할 때의 기분을 물어보았다. 중1의 경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과 무의식중에 나와서 모르겠다는 대답이 46.2%로 각각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중2의 경우 무의식중에 나와서 모르겠다가 75%로 가장 높았다. 중3 남학생들은 욕, 비속어, 은어를 사용할 때 나쁘다고는 생각하는데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말이 75%로 가장 많이 나왔다. 여학생의 경우 1학년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만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다가 각각 40%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의 경우 상황이 따라 주지 않는다가 35.3%로 가장 많았다. 중3 여학생들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57.1%로 가장 많았다.

욕을 쓸 때는 자신의 기분도 작용 요건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분이 우선 되는 경우가 많으며,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욕이나 비속어, 은어를 사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 준다.

다른 사람들이 욕, 비속어, 은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의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1학년 남학생들의 경우 별로 좋지 않다가 46.2%로 가장 많았다. 중2의 경우 아무런 생각 없다가 50%로 가장 높았다. 중3 남학생의 경우엔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가 50%로 가장 많았다. 중1 여학생의 경우 마찬가지로 60%로 가장 많았고, 중2의 경우와 중3의 경우도 각각 47.1%와 57.1%로 가장 많았다.

욕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찬성하지 않는 편이며,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은 주변에서도 흔하게 접할 수 있다.

#### (4)- 2 간디인은 어떤 종류의 욕들을 많이 하나?

##### ○ 간디인들이 사용하는 욕, 비속어, 은어

간디인들이 사용하는 욕, 비속어, 은어를 설문지 조사를 통해 조사해 보았다. 다음 보는 것은 그 결과 자료이다.

즐(필자 주 : 꺼져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음) 썩 혈 재수없어 젠장할 좇갈네 이 러구 애자 그지 씨발 미친년 지랄 병신 쓰벌 FUCK YOU 젠장 불알도 없는 것들이 불알 불알거리 개떡갈네 귀여니빠빠빠(빠순이, 일명 오빠부대와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음) 개새끼 미친새끼 좇같은새끼 즐라 덴나 병신 꺼져 쌍 등신 닥쳐 씨뎡 씨발년 좇같은 년 지랄이야 씨발 존나 그지갈아 개 같은년 똥꼬에 감자튀김을 박아 버린다 오이새개 처먹은 무뇌총새끼 귀여니 꺾꺾꺾(위에 빠빠빠와 같은 뜻) 짓이나 하렴 골빈놈 초딩 새끼 님아 즐드셈 썩을년 FUCK 고자 씨델롤라 싸갈년 소새끼 말새끼 씨발새끼 입 찢 어서 귀에 걸어줄까? 허파를 뚫어버릴까? 스티봉유 새끼야 USA ARMY나가렴 된장 우라 질레이션(우라질과 비슷한 뜻) 뷁(일종의 은어, 즐과 비슷한 뜻) 즐라 좇치안타 병신 미친놈 미친년 개똥 똥같은개 스벌 씨델롤라 씨방새 씨뎡 씨뎡할 씨발새끼 씨팔 씨글 랄지 눈알 뽑아서 갈아버려 씹새끼 니똥굼다 또라이 이런 뇌총이 바이브레이터(바이 브레이션, 나쁜 뜻으로 쓰임) 양갱 빠큐 허접 나부랭이 미친게 미친년 빙시 봉구새끼 (병신과 같은 뜻) 염병 엇먹어라 개지랄 무뇌총아 뇌수를 하구에 흘려버릴새끼 니기 미 호로자속 초딩새끼 DAME IT 개야 지랄떨고있네 사이코 쉽새끼 스벌 좇도 좇나 좇 이나 처먹으라구 좇갈다 좇까고 있네쉬바새끼 쉬방쉐야 그지야 좇도 또라이 짐승 대 갈빡 아가리 주둥이 개년 개놈 개똥 개쌍 개갈네 개쉐 개좇같은 돼지새끼 씨방새 씹 새끼 등이 있다.

욕의 대부분은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을 모욕하거나 비하시키는 내용이 많다. 어떤 것들은 인터넷이나 대충매체에 영향을 받은 욕, 비속어, 은어들을 쓰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위에 있는 무뇌총, 스티봉유 등이 있다. 무뇌총이란 없을무(無) 뇌뇌(腦) 벌레총(蟲) 머리가 없는 벌레라는 말로 문희준을 네티즌들이 비꼬는 말이다. 스티봉유는 군 입대를 하기 싫어하는 유승준을 네티즌 상에서 부르는 은어의 일종이다.

먼저 귀여니란 사람은 인터넷 소설 작가인데 맞춤법도 틀리고 이모티콘(^-^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귀여니의 소설이 책으로 나왔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인터넷소설 작가 중 한 명이다. 그런 귀여니를 네티즌들이 욕하면서 여러 가지 은어들이 생기게 되었다.

#### (4)- 3 간디인들이 생각하는 욕의 양면성

### ○ 간디인들이 생각하는 욕, 비속어의 좋은 점들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그때그때 상황의 감정 표현이 자유롭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자면 강조 형식으로 욕을 앞에 붙여 말하면 감정 표현이 훨씬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그 밖에는 스트레스해소가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욕을 함으로써 오랫동안 쌓였던 좋지 않은 일들이 욕을 함으로써 해소가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 덧붙이는 의견으로 남을 욕할 때 간단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다.

또 욕을 함으로써 친근감 조성이 된다고 하였다. 딱딱한 표준어보다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욕으로 친근감이 더 쉽게 조성된다.

### ● 간디인들이 생각하는 욕, 비속어의 나쁜 점들

욕을 했을 경우, 먼저 욕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자꾸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심하면 상처를 주고, 불쾌감을 조성 한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미안해진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욕을 하는 모습이 상대방에게는 좋지 않게 비춰진다는 말도 많이 나왔다. 또 욕을 사용했을 경우, 짜증난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또 욕을 들었을 때에는, 가장 먼저 기분이 나쁘다고 하였다.

그 밖에는 욕의 뜻 자체가 하기 민망하고 욕을 많이 하게 되면 문화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 (4) -4 올바른 언어생활을 하기 위한 간디인들의 생각

다음 보는 것은 설문지 조사를 통해 얻은 올바른 언어생활을 하기 위한 간디인들의 생각이다 .

- 학교에서 캠페인을 연다.
- 국어를 잘한다.
- 자기반성을 한다.
- 욕을 할 때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욕을 해준다.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욕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 좋은 말만 사용한다.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 의도는 좋았지만 좋은 말이란 것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 우리말을 제대로 알고 쓴다.

- 욕을 쓰지 않는다.
- 유행처럼 돌지 않게 한다.
- 욕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본다.
-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는다.
- 욕을 하면 다른 친구들이 욕을 한 사람머리를 때린다.
- 시비를 안 건다.
- 통신어체와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는다.
- 서로를 존중한다.
- 친구들과 친해져라.
- 항상 웃으며 다니기.

### 3. 결 론

#### (1) 욕을 제대로 쓰는 것에 대해

욕을 제대로 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실 그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어떤 욕과 비속어, 은어 들은 허용하고, 어떤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기에는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으므로 그 기준을 딱히 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제대로’ 라는 것의 기준은 우선 무작정 욕, 비속어를 쓰기 보다는 상대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써야 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에게나 욕을 쓰지는 않는다. 욕을 들은 한 친구가 충격을 받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이렇듯이 어느 정도 상대방을 파악하고 쓰면 그 사람도 상처를 덜 받게 된다. 그 다음 내가 생각하는 욕을 제대로 쓰는 것이란, 설문지에도 나와 있듯이 욕을 아무 때나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맞게 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무작정 욕이나 비속어, 은어를 남발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풀어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라도 그렇게 볼 것 같다.

그 다음으로는 욕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욕을 많이 쓰는 것을 제대로 쓴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일단 욕이나 비속어, 은어 등은 생활 속에서 우선 자제해야 하며,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욕, 비속어를 쓰기 전에 생각해 보고 써야 할 것이다. 물론 욕을 써야 하는 상황이 화가 났거나 기분이 몹시 상한 상태이

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하고 난 뒤 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욕이란 자체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쓰고 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욕이 어떻다고는 말할 수 있다고 본다.

## (2) 욕의 양면성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이고 이게 욕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욕의 좋은 점을 들라면 먼저 감정 표현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에 기분이 좋지 않다거나 속이 상할 때 표준어를 쓰면 뭔가 기분이 거북하고 찝찝하거나 더욱 짜증이 날 때가 많다. 그럴 때에는 표준어보다는 욕, 비속어, 은어를 쓰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 경험을 한다. 이것 또한 어디까지나 때와 장소를 고려해서 욕을 했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욕이나 기타 비속어, 은어를 사용하면 나름의 감정 표현이 자유로워짐과 동시에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점을 다소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욕이 지닌 양면성 가운데 좋은 점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욕의 나쁜 점이라면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상대방의 기분과 그 사람의 이미지에 관한 것이 있을 것이다. 먼저 상대방의 기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욕, 비속어, 은어를 들었을 때에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기정사실이다. 욕을 한 사람이 누구든 일단 욕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보편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이나 비속어, 은어를 듣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고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조건 욕이나 비속어, 은어가 나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가진 양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욕, 비속어, 은어도 자유로운 언어 생활 속에서 나타난 또 다른 소통 방법이고 언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재 접하고 있는 언어와 문화 환경 속에서 마치 생활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는 욕이나 비속어, 은어 들을 지나친 편견이나 똑같은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 3)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나의 제안(결론)

이 논문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이다. 우선 우리 같은 청소년들이 알아야 하는 바람직한 언어생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욕, 비속어, 은어 같은 언어들이 지닌 양면성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하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되새기자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좋고 나쁨, 밝음과 어둠 등 양면성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들에도 분명 양면성은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간디인들이 그런 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갖가지 언어습관을 되돌아보는 일도 중요한 것이며, 과연 지금 그대로 언어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간디인들의 언어생활을 살펴본 결과, 비록 욕이나 은어, 속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올바른 언어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며, 스스로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간디인들이 올바른 언어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욕, 속어, 은어에 대해 문제의식을 먼저 느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의 사용이나 일상 속에서 얻어지는 올바르지 못한 말이나 언어습관의 폐해를 제대로 알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주변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충고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건이 주어진다면 학생회와 학교에 부탁을 해 학교에서 욕이나 비속어를 줄여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느 하루를 정하여 표준어와 고운 말만 사용하기를 시행하거나 곱고 바른 말을 쓰는 간디인에게는 칭찬과 장려하는 상품을 주기도 하고, 늘 간디인들이 인상 찌푸리지 않고 밝게 웃기를 권하는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본다.

간디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와 기숙사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지낸다.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친구들과 사소하게 의견 충돌을 일으키거나 하찮은 일로 감정 대립을 갖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간디인들이 서로의 성격과 감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데는 다소 성숙하지 못한 점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올바르지 못한 언어 습관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좋지 않은 감정과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욕과 비속어가 지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비중을 일일이 따져서 어느 쪽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설문지의 내용 가운데 욕을 너무 자주 쓰다 보면 스스로 문화적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을 한다.

또한 욕이 생기게 된 사회적 배경이나 쓰이게 된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극단적인 욕을 쓰거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심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피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간디인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경우, 서로간의 친밀감을 형성시킬 수도 있는 욕이 지닌 양면성을 제대로 알고 써야만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지속적

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출처 : 네이버 지식인

### 논문을 마치며 ^-^[Special Thanks To...]

먼저 항상 위에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가족 정말 고마워요. 제 논문인지 감쌌 논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도와주신 감쌌을 비롯한 쌤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막강 1호방- 논문 쓴다 뭐한다 해서 청소도 못하고 맨날 밤에 늦게 들어오고, 1호방 방장인데 미운 짓만 골라 해도 아무 말 없이 이불 깔아 주고 청소도 내 뒀까지 다 해 준 거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랑해, 애들아♡

그리고 저의 논문에 많은 자료를 주고 힘이 되어 준 간디인들...

비록 좋지 않은 내용의 설문지도 몇몇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아-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스런 후배 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논문 쓸 때 쉬운 주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구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논문으로 쓰세요. 그래야 나중에 정말 즐기면서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논문 쓸 때 힘들어도 나중에 끝나고 놀 생각하면서 그렇게 머리 식히면서 써내려 가세요.

마지막으로 방학 때 논문에 대해 연구 많이 하고 자료 좀 많이 조사하세요. 방학 동안 아무 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짧은 기간 동안 허겁지겁 쓰느라 제대로 쓰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논문 쓰면서 힘들기도 하고 부담도 크고 했지만 이렇게 끝내니까 그래도 마음이 조금 가볍네요.(잘 끝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논문 힘들게 쓴 만큼 나중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요.

그럼 저는 이만 전자파 때문에 썩을 것 같은 머리 좀 식히려 갈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_<♡



## 「포근함을 느낄 땐 테디베어와 함께」



- 박하은

1988년 07월 24일생

혈액형 / O형

학력 / 목포 무궁화 유치원 - 임자유치원 - 임자초등학교

- 간디청소년학교 재학 중. (간디고 입학 예정)

별명 / 박하 Ice girl

취미 / 테디베어 만들기, 책읽기

특기 / 방학 때 집에서 컴퓨터만 붙잡고 살기, 폐인생활하기,

잠자기, 빨짓 하기, 폰고도리하기.

소속 / 연가(도중 탈퇴), GBS(도중 탈퇴), 슈팅스타.

좌우명 / 웃으며 삽시다~♥

## - 목 차 -

- ① 테디베어 졸업 작품으로 왜 낼까요?
  
- ② 테디베어의 유래
  - 1) 테디베어의 탄생
  - 2) 테디베어의 이름
  
- ③ 테디베어의 종류들
  - 1) 테디베어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 ① 테디베어 자체를 중심으로 볼 때
    - ② 인간 즉 우리를 중심으로 볼 때
  
- ④ 생활 속의 테디베어
  - 1) 생활 속의 테디베어 어떻게 사용되는가?
  
- ⑤ 내가 만든 테디베어
  - 1) 테디베어 제작 과정
    - ① 테디베어를 만드는 데는 무엇이 필요 할까?(재료 설명)
    - ② 테디베어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만드는 방법 설명)
  
  - 2) 만들어진 인형 소개
    - ① 내가 만든 테디베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느낀 점 및 소개)
  
- ⑥ 논문을 마치면서……

## ① 테디베어 졸업 작품으로 왜 낼까요?

내가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는 취미로서 테디베어를 만드는 도중 테디베어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테디베어가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 그 이후부터 테디베어를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걸 논문 주제로 택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첫째, 테디베어를 그냥 곰 인형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며 이해하고 더 깊게 나아가서 테디베어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현재 생활 속에 테디베어를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로는 나 스스로가 기존의 테디베어와는 달리 우리 가족만의 개성을 살린 특별한 테디베어를 만들어보는 것이다. 또한 만든 테디베어를 토대로 테디베어를 만드는 재료와 방법 등을 알아보고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완성되기까지의 내가 느낀 점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논문 발표를 통하여 현재로서는 취미로서 유명하지도 않고 한자리에 크게 자리잡고 있지 않은 테디베어 만들기가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많은 관심을 보여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 ② 테디베어의 유래

테디베어를 알려면 우선 테디베어의 유래부터 차근차근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테디베어를 만든 최초의 어머니는 마가릿 슈타이프 여사다. 이 여사는 독일 Giengen 태어나 1살 반경에 소아마비로 신체장애자가 되었는데, 신체적 결함을 뛰어난 손재주로 극복하며 열심히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녀가 처음으로 만든 인형은 코끼리인형이었다. 이 인형이 주위 이웃들로부터 사랑을 흠뻑 받게 되자 다른 동물 인형들도 만들게 되었고 그 속에 곰 인형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인기가 너무 좋아 그녀의 오빠가 판매를 맡으면서 곰 인형의 탄생 및 테디베어로 유명하게 알려진 Steiff 회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곰 인형의 시초는 이렇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테디베어가 아니다. 테디베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03년인데 마가릿 슈타이프 여사의 사촌인 리처드 슈타이프가 최초로 모헤어 원단을 사용한 곰 인형을 전시회에 출품하게 되는데, 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애칭인 테디를 인형 이름으로 붙이게 되면서 테디베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테디베어라는 이름을 가진 곰은 그해 12,000개가 팔리고도 제품이 부족하여 못

팔 정도로 인기를 얻었으며, 이로써 테디베어가 공식적으로 탄생된 것이다.

그리하여 테디베어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곰 인형의 보통 명사가 되었다.

1903년이라 하면은 콘 아이스크림이 발명되었을 때와 시기가 같고 백야 김 좌진 장군이 활동한 때이기도 하며, 또 쿨리 부인이 남편 피에르 쿨리와 함께 노벨 물리학 상을 받았을 때이다. 이때 테디베어도 함께 탄생한 것이라면 오래된 전통을 테디베어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쉬운 일이다.

### ③ 테디베어의 종류

테디베어를 나누는 종류와 그 기준은 무언인가를 살펴보겠다. 지금 말하는 테디베어를 나누는 종류와 그 기준은 백과사전에 정확하게 나올 만큼의 자료가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논문을 하면서 나누어 본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은 것을 알아두시길 바란다.

테디베어의 종류를 나누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테디베어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테디베어의 종류가 다르게 나누어지고 또한 테디베어의 이름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가 알아본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테디베어라는 것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 테디베어를 중심으로 뺀어 나가 종류를 나누었을 때이며, 또 하나는 인간 즉 우리를 중심으로 뺀어 나가 종류를 나누었을 때다.

#### 1) 테디베어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할 때.

테디베어를 중심으로 잡으면 종류가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조인트를 연결한 조인트 베어인 것인가 아닌가. 또 하나는 곰 인형이 테마나 컬렉션을 가지고 전시용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닌가. 또 하나는 곰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느냐, 마지막으로는 곰의 크기가 어떤가 인데 여기서 조인트베어란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곰 인형을 말하며 팔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유는 조인트 때문이다. 이 조인트에 대한 설명은 테디베어 제작 과정에서 말을 하겠다.

그럼 이 4가지로 나눈 종류를 잠시 알아보자 우선 조인트를 연결한 베어인가 아니가를 볼 때의 테디베어 인형을 살펴보면 대체로 곰을 구별하기가 쉽다. 방법은 팔과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느냐 아니냐를 보면 되고 자유롭게 움직인다면 그건 조인트 베어인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조인트베어가 아닌 것이다.

테디베어가 테마나 컬렉션을 가지고 전시용으로 만들어진 베어인지 아닌지를 보자. 이 곰도 구별하기 쉬운데 전시용으로 제주도에 위치한 테디베어 뮤지엄 같은 곳에 전시되거나 테디베어 협회에서 이벤트로 전시회를 열었을 때 등장하는 모든 테디베어들이 이 전시베어에 속한다.

그 예로는 웨딩마치를 테마로 한 웨딩베어 사계절시리즈를 테마로 한 시즌베어, 우리 조상들의 얼과 옛날 모습을 표현하는 테마로 만들어진 민속베어, 마이클 조던이나 마릴리 몬러 등 유명인사를 표현한 테디베어, 타이타닉호의 침몰,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 최초의 달 착륙등 역사적인 순간을 표현한 테디베어, 또 백설 공주나 피터 팬 후크선장등 동화 속 주인공을 표현한 동화베어가 그 예이며 이 테디베어들 모두가 전시베어라는 곰으로 통합될 수 있다.

세 번째로 곰의 생김새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른 것인데, 이것은 크게 폴라 베어와 그냥 보통 베어로 나뉘어진다. 대개 테디베어들은 전부 미국 곰이나 불곰 등을 비롯하여 모양을 만든 것이고 그 모양에서 코가 약간 길다거나 팔이 길다거나 다리가 길다는 것 등을 변형시킨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테디베어는 폴라 베어다. 다른 베어들은 그냥 보통 곰을 딴 것이라 생각 하면 되며 폴라 베어는 북극곰을 딴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폴라 베어는 북극곰의 가장 큰 특징인 하얀 털과 긴 목을 가진 게 특징이다. 이처럼 곰의 생김새를 따서 종류를 나누는 기준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곰의 크기가 어떤가인데, 보통 베어와 미니어처 베어로 나뉘어진다. 미니어처 베어는 대개 몸 전체 길이가 100원짜리 동전을 보통은 두 개 크면 세 개 세워 놓은 길이의 베어를 말하며, 이 곰을 미니어처라고 하는 분류로 나눌 수 있다.

## 2) 인간 중심으로 테디베어 종류를 나눌 때

지금까지 곰 인형 테디베어를 중심으로 기준을 잡아 보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인간들을 중심으로 하여 테디베어의 종류를 나누어 보겠다.

이 기준은 세 가지의 종류로 나뉘는데, 인형소비자 중 가장 많은 어린이들의 테디베어와, 테디베어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모으는 매니아들의 테디베어 또 마지막으로 상업용으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테디베어들이다.

우선 어린이들의 테디베어는 칠드런 베어라고 하는데, 곰 인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가 어린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고 매니아베어는 말 그대로 매니아 층에 있는 테디베어를 말한다.

매니아 베어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Antique bear(앤티큐베어)와 Artist

bear(아티스트베어)다 앤티큐베어는 골동베어라고 풀이할 수가 있다.

아주 오래전 테디베어가 탄생한 1903년부터 생겨난 옛 시대의 곰 인형들을 모두 앤티큐 베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면 **골동품**이니까. 또 아티스트베어는 개성이 강한 그림적인 요소가 많은 곰이라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그림이 그려진 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테디베어들은 모두 매뉴팩처 베어다. 이 곰은 마트나 상점에 똑같이 생긴 인형들. 즉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테디베어들 모두를 포함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매뉴팩처인데 매뉴팩처란 대규모에 제조를 일컫는 말이다.

여기까지 테디베어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과 그에 따른 알맞은 테디베어의 이름들을 알아보았다. 크게 7가지로 알아보았는데. 이 기준을 무시하고 또 다른 기준을 새롭게 창조한다면 또 그 기준에 맞는 테디베어의 종류와 이름이 분류될 것이다. 이 결과를 보아 알아낸 것은 테디베어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확실하게 정의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 **4] 생활 속의 테디베어**

생활 속의 테디베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또한 대중들은 테디베어를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현재 생활 속의 테디베어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은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이 정서함양에 좋은 것 같고, 친구 같은 친근감을 느껴서 좋고 보면 볼수록 마음을 포근하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좋다고 말을 한다. 또한 선물용 관상용 전시용 장난감등의 용도로도 아주 잘 쓰여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으며 테디베어 만들기를 취미로 하는 대중들은 모두 곰을 만들면서 마음이 편한해지며 완성된 곰을 보며 뿌듯함을 느껴서 좋다고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테디베어를 대중들이 아주 긍정적이게 생각하여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매우 찾아보기가 쉬운 것 같다. 생활 속의 테디베어를 알아보자면,

유명한 푸 캐릭터 같이 테디베어를 상품화 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기업이나 회사에서 광고나 이벤트로 테디베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아 볼 수도 있고, 각 매장 어느 곳에서나 진열대에 테디베어가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또한 제주도에 테디베어 뮤지엄이라는 박물관이 위치하여 그 곳에서 테디베어가 많이 보여지기도 한다.

이것들을 보아 테디베어가 생활 속 많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내가 만든 작품 역시 이와 같은 테디베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기존의 매장에 있는 똑같은 매뉴팩처 테디베어들 , 또 전시베어가 되어 전시 목적으로 만들어

진 테마를 가진 베어들과는 달리 나는 우리 가족의 특징을 살려서 나만의 테디베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전시베어 같이 가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전시베어로 보여 질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든 목적은 전시가 아니고 논문 발표와 테디베어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전시베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테디베어의 제작 과정과 테디베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 등의 설명을 끝내고 나서 내가 만든 테디베어를 소개해 보겠다.

## 5] 내가 만든 테디베어

### 1) 테디베어 제작 과정

#### ① 테디베어를 만드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

##### 원단

원단은 정말 중요한 재료예요. 테디베어를 만들려면 원단이 필요한건 당연한일!! 원단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벨보아 원단과 아스토라 원단 그리고 가장 유명한 모헤어 원단입니다. 그 밖에도 모글 원단, 하이파일 원단, 본넬원단, 덤블링원단, D. D. F원단, 타월지, 트림지가 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원단 하면 꼭 알아야할 벨보아 원단 아스토라원단 모헤어 원단 트림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대중들이 저렴하게 예쁜 공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원단 벨보아 원단에 대해 알아보게요.

벨보아 원단은 공 만들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원단인데요. 털이 아주 짧고 매우 부드러워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원단입니다. 또 이 원단은 가격도 저렴하고 털이 잘 안 빠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원단은 아스토라 원단입니다. 아스토라 원단은 귀여운 이미지의 인형을 만들 때 주로 쓰는 원단인데요. 털이 몽실몽실한 느낌을 주면서 둥글둥글하게 뭉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원단은 모헤어 원단인데요. 테디베어를 만드는데 쓰는 최고급 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헤어 원단은 인조 모헤어와 그냥 모헤어원단 두 가지

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모헤어 원단이 훨씬 고급스럽겠죠?

모헤어원단은 동물들의 털을 직접 뽑아 가져다가 만든 원단이어서 가격도 매우 비싸서 이 원단은 테디베어 만들기 분야로 전문적으로 나가실 분에게만 추천하는 원단입니다. 인조 모헤어 원단은 동물들의 털 대신에 화학 적으로 만들어낸 털을 모헤어 처럼 만든 게 인조 모헤어원단이에요. 가격은 모헤어보단 싸지만, 다른 원단에 비해서는 이것도 매우 비싼 편입니다.

그 다음 트림지! 벨보아 원단하고 약간 비슷한 원단이지만, 이 원단의 역할은 테디베어의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매꾸는 데 있습니다. 여러 원단들이 몸뚱이와 팔과 다리 얼굴 귀 등에 쓰인다면 손바닥과 발바닥은 트림지에 역할 인 것입니다.

원단의 가격은 각각 다른 데요 보통 8천원에서 시작하여 5만원 6만원 등 고가로 넘어가기도 하며 대개 1~3만원 사이에서 예쁜 공들을 많이 만듭니다. 트림지는 1500백원 정도 합니다.

## 바늘

테디베어를 만드는 데 필수품 재료입니다. 보통 바늘로도 테디베어를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는 재료입니다.

## 퀼트실

바늘 가는 데 실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실 역시 테디베어를 만들려면 필수품인 재료입니다. 퀼트실은 보통 실보다 굵고 튼튼하기 때문에 바느질할 때 두 줄로 하시지 마시고 한 줄로 하세요.

## 쪽가위

쪽가위는 그냥 보통 가위로 사용해도 되지만 쪽가위는 크기가 작아서 이동하는데도 힘들지 않아서 더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 눈

테디베어에서 눈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눈으로 인형의 표정과 개성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눈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같은 테디베어의 얼굴이 전혀 달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그러니 예쁜 공을 만드시려면 공 눈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눈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눈에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유리눈, 갈색눈, 착색눈, 검정눈, 투명눈, 단추눈, 구슬 눈으로 나뉘어집니다. 유리눈은 말 그대로 유리로 된 눈이고 갈색눈, 착색눈, 검정눈, 투명눈은 눈의 색깔을 따서 말한 눈 들이고, 단추

눈은 단추로 된 것 구슬눈은 구슬로 된 눈입니다. 구슬눈은 손바닥만한 곰 인형 미니 어처를 만들 때 쓰는 눈으로 보통 크기가 2mm에서 3mm 정도 하고, 다른 눈들은 보통 5mm에서 20mm까지 가지각색으로 있는데요. 가격으로는 유리 눈이 제일 비싸고 대개 모두가 날개로 300원에서 1700원까지 합니다.

## 코

보통 전문가들은 코를 코수실이라고 하는 실로 곰 코를 하지만, 저 같은 초보자는 플라스틱코를 사용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각코이며 색깔은 가지각색으로 10mm에서 35mm까지의 크기가 있으며, 가격은 300원에서 1000원까지 합니다. 또 다른 코가 있다면 빨간 코인데요. 빨간색에 하트 모양으로 된 아주 귀여운 코가 있습니다.

## 조인트

조인트는 테디베어의 골격 또는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테디베어의 팔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랍니다. 몸체와 팔다리를 연결하는 부품인 이 조인트는 플라스틱 조인트와 디스크 조인트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가장 많이 쓰는 조인트는 플라스틱 조인트입니다. 플라스틱 조인트는 조립하는 것도 간단하고 구입하기도 쉬우며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반면 디스크 조인트는 가격도 비싸고 조인트 드라이버라는 도구가 있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인트는 전문가나 매니아 층에서 많이 쓰는 조인트입니다.

더 깊게! 심화!

디스크 조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크 조인트는 디스크 두장과 금속와셔 두 개 코터핀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터핀을 조인트 드라이버로 조여서 원단의 두께에 따라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좋다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코터핀을 조절할 수 있는 조인트 드라이버를 갖추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 와셔

눈과 코를 고정시키는 도구입니다.

## 집게가위

인형 바느질을 다 끝낸 다음 뒤집을 때 집게가위를 사용하시면 편리 합니다. 손실이 더욱 적고 특히 손바닥만한 곰 인형을 만들어 뒤집기가 힘든 경우에도 집게가위를

사용하시면 매우 효과적으로 뒤집을 수 가 있습니다.

### **표정 뜨기 실**

테디베어의 얼굴의 표정을 살릴 때 쓰는 실입니다.

### **코수실**

코를 할 때와 입수를 놓을 때 쓰는 재료로 인형의 색깔에 잘 맞추어서 사용해야 하며 공의 크기에 따라 굵기를 잘 선택하셔야 예쁜 공이 만들어집니다.

### **송곳**

눈이나 코 조인트를 끼울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 **펜**

보통 펜이에요. 패턴들을 원단에 그려 넣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주의!: 공을 세탁하거나 빨 때 수성펜으로 그렸다면,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꼭 유성이나 볼펜을 사용하세요.

### **털 빗**

테디베어를 완성한 다음 털을 정리하고 빗어주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 **솜 넣기 송곳**

몸통에 솜을 넣을 때 쓰는 도구로 크고 긴 팔다리나 몸통 등에 솜을 구석구석 채울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 **솜**

솜이야말로 가장 절대적 필수품이 아닐까 싶은 재료입니다. 솜을 채워 넣지 않은 공은 살 안 붙은 공이라고 해야 맞을 정도인데요. 솜은 정말 중요한 재료예요.

### **스터핑**

플라스틱으로 된 작은 알갱이인데요, 솜 대신에 넣을 수 있는 내용물입니다. pp알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악세사리**

공을 꾸미는 데 필요한 도구예요. 보통 안경이나 스웨터나 미니의자 등이 있습니다.

## ② 테디베어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

지금부터 하은이의 테디베어 만들기 강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 그냥 보고 잘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

우선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테디베어를 만들고 싶어도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모두 보십시오!

### 1. 패턴 이해하기

패턴을 보면 알파벳으로 A, B, C, D 등으로 써져 있는데요, 이것은 같은 기호끼리 서로 만나도록 맞대고 바느질 하라는 소리입니다.

또 잘 보시면 패턴들 가운데에 전부 ↓이런 화살표 방향이 있는데요, 그건 원단의 털 방향과 그 화살표 방향을 같이 하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야 공이 예쁘게 결대로 되겠지요?

옷 만들기에서 결대로 천을 놓아 제도한 것을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패턴 안, 동그라미 안에 숫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②, ④, ① 이런 식으로. 그건 개수를 말하는 건데요, 동그라미 안에 2라고 써져 있으면 두 개를 그리라는 소리고 4라고 써지면 4개를 그리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개는 상관없지만 두 개나 네 개는 각각의 패턴을 한 번, 그리고 또 뒤집어서 그리는 걸 두 번 또는 네 번 그러니깐 쌍으로 하라는 소리이니깐 주의하세요.

패턴 가장자리에 삐죽 삐죽 솟은 산모양의 것은요, 바느질할 때 잘 맞추어서 꺾매라고 그렇게 표시해 둔 거예요. 그 부분을 시침핀으로 고정시키고 하면 더욱더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이걸로 패턴 이해하기는 끝나고요, 다음 패턴 그리기로 넘어갑니다.

### 2. 패턴 그리기

패턴 그리기는 말 그대로 패턴을 그려 주면 돼요. 주의할 점은 개수 확인을 잘 해야 하고 한개는 그냥 그리며 두 개 이상 그릴 시에는 두 개일 때는 패턴을 정면으로 하나 그리고 또 그 그린 패턴을 뒤집어서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 패턴은 시접을 전부 생각해서 만들어진 패턴이기 때문에 시접을 그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시접을 주시면 공의 크기가 커지거나 쭈글쭈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3. 원단 재단하기

이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말대로 자~알 오리시면 됩니다.

### 4. 바느질 방법

테디베어를 만들 때 쓰는 바느질 방법은 반박음질로 박음질할 때 반만 넘기시면 그게 반박음질입니다. 또 다른 바느질은 공 구르기인데요, 나중에 테디베어의 몸 속에 솜을 채워 넣고 그 솜을 넣느라 벌어진 구멍을 막을 때 쓰는 방법으로서 모든 인형들이 이 공구르기를 꼭 거쳐 갑니다.

### 5. 눈 달기, 코 달기

바느질이 다 된 얼굴에 솜을 약간 채워 넣고 얼굴의 모양이 어느 정도 잡히는 지점에서 눈달 곳과 코달 곳을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눈과 코를 끼운 후에 뒤쪽에서 와셔를 연결하면 끝~♡

### 6. 조인트 연결하기

저는 공을 만들 때 플라스틱 조인트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플라스틱 조인트를 끼우는 것만 설명할게요. 우선 조인트를 연결할 위치를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조인트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듭니다. 처음에 조인트를 끼워 넣고 그 다음 원단을 집어넣고 그 다음 링을 끼우고 와셔를 끼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 7. 솜 채워 넣기

솜은 그냥 구석구석 알맞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간혹 중심을 맞춰 주기 위해 엉덩이 부분이나 다리 끝부분에 p.p알갱이를 넣기도 합니다.

### 8. 공 구르기

솜을 다 채워 넣고 난 후에 공 구르기 바느질 기법으로 마무리를 하면 완성 ~

### 9. 털 다듬기

테디베어를 완성한 후에 전체적으로 털 빗을 이용하여 털을 빗어주면 좀더 깔끔한

테디베어가 됩니다. 그리고 털로 눈과 코를 가린다면 가위로 살짝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림과 함께 알고 싶다면 포트폴리오를 보세요. ^^)

그러면 곰 한 마리 완성!!

## 2) 만들어진 인형 소개

### ① 내가 만든 테디베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단은 모글 원단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저만 빼고요. 도중에 원단이 모자라서 저는 본넬 원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꼬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곰 꼬리가 없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눈이 크고 코가 길어요. 이유는 우리가족이 눈이 크고 코가 높기 때문이죠. 자량이 아니고 특징을 살린다고 그렇게 만든 것이니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 아빠베어

아빠 곰은 제일 처음에 만들어서 실수를 많이 한 인형인데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아빠의 특징을 살려서 낚싯대를 들게 했고 옷도 시원스러운 티로 입혔는데 천이 모자라서 작은 옷이 돼 버렸습니다. 항상 웃으시는 모습 때문에 빙그레 유자 모양으로 했고 아빠 등치가 제일 커요. 또 아빠가 안경을 쓰시기 때문에 안경을 씌었습니다.

#### 엄마베어

엄마 곰은 아빠 곰보다 약간 작고 웃은 즐겨 입으시는 치마로 했습니다. 표정은 거꾸로 Y이자를 했는데요. 우리가족 특유의 입 모양입니다. 저랑 엄마랑 하영이랑 동혁이랑 동찬이랑 할머니 즉, 아빠 빼고 입 모양이 다 이렇습니다. 항상 책만 읽으시는 엄마께는 책을 들려 주었습니다.

#### 하영베어

하영이는 삐쩍 마른 게 특징이어서 솜을 쫼 덜 넣고 하얀 원피스를 입혔어요. 그런데 솜 덜 넣은 게 차이가 안 나네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연필을 집어 주었습니다.

### 동찬 베어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많이 튀는 동찬이는 몸 색깔도 분홍색으로 튀게 하였고 옷도 가장 특이한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찬이 역시 아빠랑 낚시 가는 것을 좋아해서 낚시대를 집어 줬어요.

### 동혁베어

동혁이는 초등학교 일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먹어서 엄청 마르고 키도 작고 몸집도 작아서 인형 중에서 가장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혁이가 즐겨 입는 옷은 빨간 민소매 티셔츠만 달랑이기 때문에 옷도 빨간 민소매 티셔츠로 했고요, 눈이 크기 때문에 곰 눈을 약간 큰 크기로 했으며, 이 녀석이 좋아하는 게 컴퓨터여서 컴퓨터를 품에 안겨 주고 싶지만, 저의 능력 부족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 할머니베어

모든 할머니들이 가장 즐겨 입는 옷! 전형적인 몸빼바지를 우리 할머니께도 입혀 보았고요. 할머니는 힘이 없으시니까 할머니도 솜을 적게 넣었습니다.

### 하은베어

마지막으로 저인데요, 도중에 모글 원단이 모자라서 본넬 원단을 사용 하였습니다. 본넬 원단하고 모글 원단은 완성된 곰의 느낌이 굉장히 다른데요, 본넬 원단이 더 차분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저는 대개 하얀 색 옷을 많이 입어서 하얀 티에 바지를 입고 거꾸로 Y자의 입을 하고 있지요. 저도 안경을 썼고요. 저는 여지까지 손에 불이 나도록 바느질을 해서 양쪽 손에 불을 붙이고 바늘과 실을 집혀 주었습니다.

### ☆ 테디베어를 만들면서의 나의 느낌.

처음에 테디베어 재료가 왔을 때는 정말 기쁜 마음에 열심히 곰을 만들었지만, 갈수록 많은 양의 곰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에 정말 많이 힘들고 고생했었다.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는 가운데 열심히 곰을 만든 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도 했고, 논문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인형을 만드는 데만 신경 써서 미처 다른 일에는 신경을 못 쓴 것이 정말 아쉬운 일인 것 같다. 또 도중에 코가 정말 안 와서 화가 많이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곳곳이 곰을 만든 것이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곰을 만들 때 얼굴 부분에서 표정 뜨기를 안하여 인형들 표정

이 전부 약간 멍해 보이는 것과 옷 천을 넉넉히 안하여서 옷이 작은 게 정말 아쉬운 것 같다.

## ⑥ 논문을 마치면서

나의 논문을 듣고 본 많은 이들이 이번 논문을 통하여 테디베어에 대해 좀더 잘 알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논문을 통하여 테디베어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테디베어란 졸업 작품 주제는 얼핏 보면 쉬운 주제인 것 같기도 한데 막상 해 보니깐 이것 역시 만만치 않게 힘든 점이 많았던 것 같다. 특히 내가 직접 테디베어를 만들 때는 정말 어렵고 하기 힘들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논문을 발표했다는 사실은 모든 걸 잊을 정도로 뿌듯한 것 같다.

그 동안 논문 한다고 많이 도와주신 분들도 고맙고 이제 논문이 끝났다는 것에 정말로 기쁘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당분간은 테디베어에 신경을 끄고 세상을 즐기며 살다가 졸업하기 전에 소은이와 같이 테디베어 가방을 만들 생각이다. 앞으로 테디베어가 현대 생활에 많은 곳에 자리잡으며 활성화하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글을 쓰겠다.

### ☆Thanks to & 출처☆

논문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다. 우선 논문을 쓰면서 가장 많이 조언해 주시고 가장 많이 다듬어 주신 재화네 아버님께 감사하고 만나서 같이 조언을 구하고 상담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힘이 되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영란 쌤께도 감사하고 테디베어 옷을 만들 때 가르쳐 주신 현숙 쌤도 감사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힘이 되어주고 조언을 많이 해준 엄마께도 감사하고 작업하는 데 도움을 준 예인이도 또 인형을 만들 때마다 털이 많이 날렸는데 아무 말 않고 묵묵히 있어 준 옆자리 소은이에게도, 또 털 날리지 말라고 앞치마를 선물해 준 인혜와 김수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내 주위 어느 곳에서나 끝까지 지켜봐준 주위의 모든 쌤들과 친구들, 후배들에게도 감사함을 표한다.

출처: [www.teddyplaza.co.kr](http://www.teddyplaza.co.kr)

[www.teddybear.co.kr](http://www.teddybear.co.kr)

[www.naver.com](http://www.naver.com)

## 「동서양의 타악기 비교와 접목 연구」



- 김재화

1988년 06월 07일생

별자리 / 쌍둥이좌

혈액형 / B형

학력 / 성체유치원 - 서울백운국민학교 - 서울백운초등학교 -  
간디청소년학교(간디고등학교 입학 예정) - 송실대나 홍대 갈까 말까  
별명 / Jeter(수학시간에 집합에 통달해야 태쌌께서 수학자 '칸토어'의 이름을  
빌려 '재토어'라 명명), 거북이, 재화리, 재화리우스, ShyGuy.

취미 / 피아노 연주, 책 읽기, 드럼 연주, 노래 듣기, 노래 따기, 탁구, 배구,  
옷 구경하기, 악기 구경하기, 컴퓨터게임하기, 영화감상, 밴드합주, 공연 보러 가기.

특기 / 특별하게 모르겠다.

소속 / 간략연(간디 락스타 연합)에서 드럼, 슬피바람(풍물부)에서  
악기관리위원회(혼자;;), P.P.P(핑퐁폴리스)탁구관리위원회)간부,  
역사사랑에서 교육부장관으로 활동!, B.P(바이크폴리스) 간부,  
스크린 속의 우상(영화감상부) 돈관리...ㅋ, H.H(학급회장),  
G.D(간식당번), 간디대표주집 4인방 중 한 명.

좌우명 / 뭐든지 열심히 하자.

# 논문의 목차

## [1]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표와 제한점

## [2] 드럼과 사물놀이의 기원과 역사

1. 타악기
2. 드럼
3. 사물놀이

## [3] 악기의 기본 구성, 역할 및 원리

1. 드럼SET
2. 사물놀이
3. 드럼과 사물에 사용되는 채(스틱)

## [4] 드럼과 사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 [5] 사례를 통해 본 접목 가능성과 한계

1. 사물놀이와 서양 음악과의 접목사례
2. Jazz와 기타 타악기의 접목사례
3. 내가 직접 감상한 음악에 대한 분석

## [6] 결론: 전망과 앞으로의 과제

## [1] 서론 (논문을 시작하면서)

### 1. 논문의 동기

드럼은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접해보고 가장 깊이 있게 배운 악기이다. 드럼에 관심이 있다보니 드럼과 타악기에 대한 접목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풍물을 하려니 태평소나 대금 등 타악기가 아닌 다른 악기가 있어서 순수한 타악기만의 접목을 위해 사물놀이를 그 접목 대상으로 택했다.

우리 학교에서는 축제 등의 행사가 있을 때 사물놀이와 락 밴드의 공연을 따로 한다. 그래서 드럼과 사물놀이를 함께 접목해서 연주해 보고 그것을 논문의 주제로 한다면 흥미를 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다. 드럼과 사물놀이는 나아가서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타악기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두 악기를 접목해 본다면 서로의 특색이 발현되어 좋은 음악이 될 것 같다는 것이 나의 논문의 동기이다.

### 2. 논문의 목표와 제한점

먼저 사물놀이와 드럼을 접목한다고 하면 새로운 시도라는 생각이 든다. 동서양의 접목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인디 그룹 중 ‘크라잉넛’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앨범이 4집까지 있다. 그중 풍물과 락의 접목을 시도한 곡이 한 곡 있다.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곡은 내가 보기엔 동서양 악기 접목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접목을 시도로 보지 않고 일상적으로 서로 어울려서 즐길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간디학교 안에서 만이라도 사물놀이패가 드럼과 함께 연주를 해서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

이 논문은 직접 시연을 통한 연구 결과가 아니고 시연을 위한 연구자료이다. 논문 구성을 보면 먼저 사물놀이와의 합연을 위해서 악기의 기본구성부터 공통점차이점등을 비교해 본다. 또한 앞에서 얻은 자료와 접목사례를 통해 동서양 두 타악기의 접목 가능성을 알아보고 직접 시연해 볼 계획이다.

## [2] 드럼과 사물놀이의 기원과 역사

드럼과 사물놀이를 알아보기 전에 두 악기의 공통된 기원인 타악기의 기원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한다.

## 1. 타악기

타악기의 역사는 오래 과거로부터 시작된다. 인류의 모든 문명은 종교의식이나 전쟁 등에 북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두드림’ 또는 ‘리듬’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며, 별다른 재료 없이도 손쉽게 악기(나무통만으로도 충분한)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2. 드럼

원시의 드럼은 빈 통나무를 막대기로 때리며 연주했다. 그 후 동물의 가죽을 씌워 포도나무 넝쿨과 줄감개로 고정시킴으로써 보다 큰 공명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시기에는 드럼을 통해 먼 곳으로 신호를 보낼 때 사용했고 나중에는 부족의 예식에 많이 사용했다.

현대의 드럼은 미국 남부 흑인의 장례 밴드로부터 발전하였다. 작은 규모의 걸으며 연주하는 이 “밴드(뉴올리언스 지방에서는 아직도 존재)”는 전통적인 장례식에서 장송곡을 연주했었고, 악기 편성은 몇 명의 혼 주자와 스네어 드럼, 베이스 드러머로 구성되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이러한 밴드는 다시 모여 향후 행사를 위한 연주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 후 그들은 탐탐과 베이스를 이용한 세트 드럼을 개발하였다.

실제 연주가 가능해지면서, 여기에 다양한 심벌과 탐탐, 그리고 또 다른 음향 효과를 내는 몇몇 악기들(베이스드럼 위에 설치하는 우드블럭, 카우벨, 템플 블럭 같은 것)이 추가되었고, 이를 통하여 20세기 초엽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음악은 래그타임(ragtime) 폭스트롯트(fox-trots) 디시랜드(Dixieland) 등을 포괄하는 음악이었으며, 희극을 상영하는 극장과 영화관객뿐 아니라 라디오의 청중을 위한 음악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악기들을 모은 하나의 표준 세트가 만들어지게 된다(스네어, 심벌, 하이햇, 스몰탐, 미들탐, 페달비터, 베이스드럼).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에 이르는 스윙시대동안, 빅 밴드의 드러머들은 좋은 음향 효과를 얻으려 부단히 애를 썼다. 드럼 세트가 두드러지게 변형된 때는 60년대 록 음악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록 드러머는 더 많은 심벌과 탐탐을 사용했고, 때론 베이스드럼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후 80년대에는 고무패드만으로 이루어진 드럼세트 출시, 이 드럼세트는 두드리면 전기장치가 작동하여 스피커를 통해 소리 나게 되었다.

## 3. 사물놀이

사물놀이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사물놀이의 사물四物의 기원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사물四物은 불교에서 법고, 운판, 목어, 대롱 네 가지를 뜻했던 악

기의 이름이었다. 그것이 썩과리, 북, 장구, 징 등 풍물에서 쓰는 네 가지 연장을 일컫게 됨으로써 의미의 변용이 생겼다. 여기에 다시 놀이라는 단어가 결합됨으로써 본래의 불교적 의미에서 한층 멀어져 각 지방 풍물의 가락을 다시 구성하여 썩과리, 북, 장구, 징의 놀이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사물놀이는 이에 따라서 독특한 갈래로 정착하게 되었다.

사물놀이란 원래 1978년 2월 공간사랑 소극장에서 창단을 한 놀이패의 명칭이다. 이제는 놀이 패에 그치지 않고, 네 개의 타악기인 썩과리, 장구, 북, 징 등의 타악기만으로 연주하는 풍물 굿을 가리켜 사물놀이라고 일컬음으로써 한 예술의 갈래를 지칭하는 말로 변모되었다.

사물놀이 이전에는 모두 풍물굿이라는 갈래 안에서 통용되었다. 사물놀이와 풍물굿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면 사물놀이에 대해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설명하고자 한다. 풍물 굿은 여러 사람이 춤사위와 발림을 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규모도 크고 볼품도 있어서 사뭇 흥겨움과 신명을 안겨 준다. 타악기만이 아닌 갖가지 진 풀이와 다채로운 가락을 연주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물놀이는 네 사람이 앉아서 일정하게 짜여진 틀에다 가락을 얹어 연주하는 형태이다.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춤사위와 발림이 없어서 정교하게 짜여진 가락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이자 장점이 있는 셈이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물놀이는 풍물 굿과는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발림, 춤사위 등이 없지만 느린 가락에서 빠른 가락으로 이행되는 점층적 가속의 틀로 인해 풍물 굿과는 다른 느낌의 감흥을 준다.

연주시간도 풍물굿이 한정이 없이 긴 것에 비해 사물놀이는 대략 한 곡당 10-15분 가량 된다는 풍물굿과는 다른 사물놀이만의 특징이 있다.

### [3] 악기의 기본 구성, 역할 및 원리

#### 1. 드럼 세트set



드럼 세트set를 구성하는 악기는 드럼과 심벌로 구성되어 있다.

드럼 세트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드럼과 심벌 등이 어우러져 구성된 악기이다.

## ① 가죽악기(드럼)

### - 스네어 드럼(Snare Drum)



드럼 세트 가운데 가장 사용 빈도가 많은 드럼이다. 드러머의 개성을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 - 탐(Tom)



주로 필인 등에 사용되는, 흔히 말하는 북이다. 특별히 저음을내는 큰 탐은 베이스 탐(Bass Tom), 혹은 다리를 달아 바닥에 올려놓는다 하여 플로어탐(Floor Tom)이라고 한다.

### - 베이스 드럼(Bass Drum)

set drum가운데서 가장 낮은 음을 낸다. 베이스 드럼 사이즈는 인치(inch)로 표시되는데, 지름이 18 “~26 “, 깊이는 14 “~18 “ 정도가 일반적이다.

## ② 금속악기(심벌)

### - 크래시(Crash Cymbal)



주로 악센트를 주고자 할 때 쓰이는 심벌로서, 사이드심벌이라고도 불린다. 라이드 심벌에 비해 면적이 좁고 두께가 얇으며, 15 “~18 “ 정도의 사이즈가 표준이다.

세팅 시에는 서스테인을 살리기 위해 바닥과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2개 이상을 놓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 인이 플로어 탐에서 끝난 후 곧바로 크래시 심벌을 칠 경우가 많으므로, 플로어 탐 근처에 놓는 것이 좋다.

### - 라이드(Ride Cymbal)

주로 리듬을 쪼개는 데 쓰이는 심벌로서 탐 심벌이라고도 불린다. 사이즈는 18 “가 표준이다. 일반적으로 오른손으로 치기 때문에 우측에 세팅하는 경우가 많다. 바닥에 대한 각도를 기울일수록 서스테인(Sustain)이 줄어들고 소리가 또렷해지는 특성이 있어 락밴드나 재즈 빅 밴드 등의 서스테인을 중시하는 드러머는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세팅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중에는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세팅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여러 각도로 시험해 보는 것이 좋다.

#### - 하이햇(Hi-Hat Cym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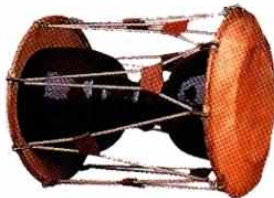
2장의 심벌을 스탠드에 세팅한 상태에서 왼발로 밟아서 소리를 내거나, 스틱으로 쳐서 소리를 내는 등의 여러 주법이 가능한 심벌로, 드럼 세트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의사대로 소리의 길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드럼의 구성으로는 이렇게 쓰이고 그 외에 이펙트심벌(Effect Cymbal)(차이나나 심벌(China Cymbal), 스플래시 심벌(Splash Cymbal), 벨, 컵 차임(Bell, Cup Chime)) 등이 있다.

## 2. 사물놀이

### ① 가죽악기

#### - 장구(장고)



사물악기 가운데서 유일하게 음양 성을 낼 수 있는 악기이다. 사물놀이에서 쓰는 장구는 개가죽으로 만드는데, 궁편 쪽에 암캐 가죽을 대고, 채편 쪽에 수캐 가죽을 댄다. 이렇게 해서 음양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훌륭한 소리를 내는 사물놀이의 장구가 된다고 실기인들은 믿는다.

사물놀이 장구의 통은 주로 오동나무를 쓴다. 그 까닭은 소리의 조율을 오동나무가 잘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 - 북



북은 가장 원초적인 형태를 갖춘 악기라 할 수 있다. 북이 단순한 쓰임새에 머무르지 않고 사물의 악기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 ② 금속악기

#### - 팽과리



뽕과리는 소, 소금(小金), 매구 등으로 달리 불리기도 한다. 뽕과리는 사물에서 리더 구실을 하는 악기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쇠잡이는 왼손에 뽕과리를 들고, 오른손에 뽕과리채를 들고 친다. 왼손가락을 뽕과리 안에 넣어서 음색을 조절한다.



#### - 징

징은 그리 중요한 악기가 아닌 것처럼 간주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물악기에 가락의 기둥을 세우고, 장단을 감싸 안는 구실을 하니 징이 없으면 사물의 신명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징잡이는 왼손에 징을 들고, 오른손에 징채를 들고 친다.

### 3. 드럼과 사물에 사용되는 채(스틱)

#### ① 드럼스틱



#### - 길이/두께

길이는 400mm 전후가 표준, 두께는 13~16mm 정도의 굵은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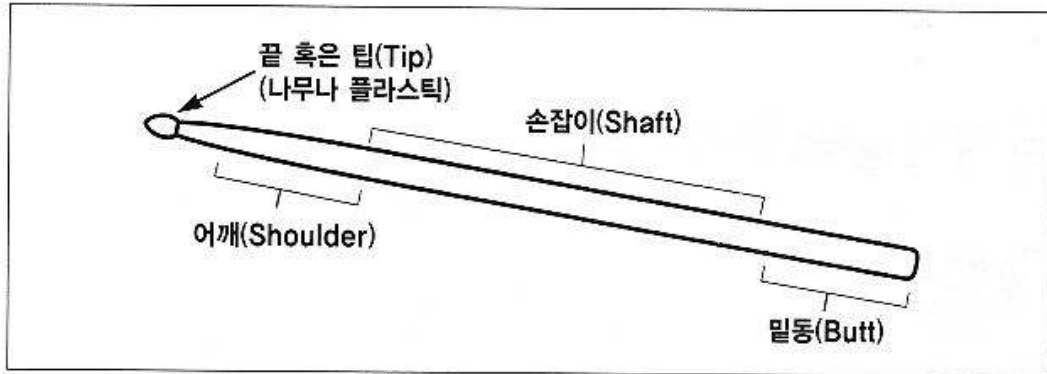
#### - 재질

\* 히코리(Hickory):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부드럽고 탄성이 있는 목재로서, 스틱의 리바운드를 컨트롤하기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 오크(Oak): 딱딱하고 무거운 특징을 지니고 있고 내구성이 강하고 음색이 파워풀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 메이플(Maple): 딱딱하면서도 가벼운 재질이다.

위의 스틱 재질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히코리를 중심으로 비교하겠다.



팁은 크게 원형, 각형, 타원형, 삼각형의 4종류로 나뉜다. 각형, 타원형, 삼각형의 팁들은 때리는 각도에 따라 음색에 변화를 줄 수 있어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일론 팁도 있는데, 이것은 라이드 심벌의 소리를 깨끗하게 내준다는 특징이 있으며, 팁이 떨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 ② 사물의 채

사물을 할 때 쓰이는 채 중에서 유일하게 두개의 채를 가지고 치는 장구채를 드럼과 비교하도록 하겠다.

- 장구를 칠 때 쓰는 채

\* 궁글채 : 장구의 궁글채는 30~35cm 정도 길이의 대나무 뿌리 한쪽 끝에 박달나무를 깎아 만든 방울을 끼우고, 반대 끝으로부터 안쪽으로 15~20cm 정도를 끝은 굵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가늘어지게 천을 감아 손잡이를 만들어 가죽으로 감싼다.

\* 열채 : 장구의 열채는 대나무를 40~45cm 정도의 길이로 깎아 만든다. 열채의 넓은 부분이 손잡이며, 손잡이 부분의 대나무 껍질 면이 손바닥에 닿아야 한다.

\* 팽과리채

채를 잡을 때 손을 곧게 편 채로 손잡이 끝부분을 식지가 시작되는 위치에 올려놓고 살며시 주먹을 쥐어 잡는다.

\* 북채

북채는 손잡이 끝 부분이 약지가 시작되는 부분에 닿을 수 있게 손바닥 위에 올려

놓고 주먹을 살짝 쥐어 잡는다.

\* 징채

징채는 채의 손잡이 중간 부분을 살포시 주먹을 쥐듯 잡고 손(팔)의 움직임과 꺾임을 이용하여 울림 판의 정 가운데를 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 [4] 드럼과 사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 1. 공통점

첫째, 드럼과 사물의 이용계층의 공통점은 민중의 음악이라는 것이다.

먼저 드럼은 본디 흑인의 장례 밴드로부터 발전하였다. 30~40년대를 거쳐 60년대부터 본격적인 Rock and roll 음악이 시작되었다. Rock음악은 상류층이 관심을 가질 만큼 고급스러운 음악은 아니었다. rock'n roll이란 흔들고 뒹굴고 즐기는 문화에서 발전하여 하나의 음악장르가 되었고 **민중음악으로** 즐기게 되었다.

반면에 사물은 본래 불가에서 사용하는 법고, 운판, 목어, 대중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불가에서의 사물은 우리가 아는 악기라기보다는 다소 신앙심 어린 정성스러운 도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물이 속가에서는 정성스러운 악기로 또는 신명나는 악기인 팽과리, 장구, 북, 징의 네 악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변모된다.

이처럼 사물은 종교 의식에 쓰였던 음악이었으나 점차 **민중들의 흥을 돋우는 음악**으로 바뀌었다.

둘째, 쓰임새와 역할측면에서 드럼과 사물을 보면, 특별 계층 내에서 한정되어 있다가 대중으로 확대되어 졌다는 점이 비슷하다.

앞에서 드럼과 사물의 기원과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비교를 위해서 간략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원시의 드럼은 빈 통나무를 막대기로 때리며 연주했다. 이 시기에는 드럼을 통해 먼 곳으로 신호를 보낼 때 사용했고 나중에는 부족의 예식에 많이 사용했다. 현대의 드럼은 미국 남부의 흑인 장례 밴드로부터 발전했다. 작은 규모의 걸으며 연주하는 이 밴드는 전통적인 장례식에서 장송곡을 연주했었고, 악기 편성은 몇 명의 혼 주자

와 스네어 드럼, 베이스 드러머로 구성되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이러한 밴드는 다시 모여 향후 행사를 위한 연주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 후 그들은 다양한 탐과 베이스를 이용한 세트 드럼을 개발하여 60년대 본격적인 락 음악이 도입되면서 현대의 드럼에 이르렀다.

사물놀이란 원래 1978년 2월 공간사랑 소극장에서 창단을 한 놀이패의 명칭이다. 이제는 놀이 패에 그치지 않고, 네 개의 타악기인 쟁과리, 장구, 북, 징 등의 사물만으로 연주하는 풍물 굿을 가리켜 사물놀이라고 일컬음으로써 한 예술의 갈래를 지칭하는 말로 변모되었다.

여기서 드럼과 사물은 모두 쓰임새와 역할이 처음에는 특별계층에 한정되어 있다가 민중의 음악으로 변모되었다는 공통점을 볼 수 있다.

## 2. 차이점

첫째, 악기의 재질이 다르다.

악기의 재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드럼을 구성하는 재질은 우드(Wood), 메탈(Metal)로 나뉘는데 드럼을 이루는 피는 원래 민속적인 북과 같이 가죽으로 되어 있었으나 습기와 내구성도 낮아 50년대 후반부터는 현재와 같은 플라스틱 피(헤드)로 되어있다. 심벌은 금속 물질로서 드럼과 함께 드럼set을 구성한다.

드럼은 초기에 간단한 드럼set에서 시간이 지나며 더욱 좋은 음향효과를 기대해서 더 과학적인 드럼세트로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심벌은 탐(Top)의 높이, 기울기, 너비, 두께 등의 세팅 방식에 따라 각각 크레시, 라이드, 스플래시 등으로 음색이 다른 독특한 방식의 심벌을 구성 하게 된다. 드럼은 통의 너비, 깊이, 하드웨어 등의 영향을 받아 각각 스네어, 탐탐, 플로어탐, 베이스 탐 등으로 나뉘어 각각 드럼set의 다양한 음색을 내는 드럼들이 된다.

사물놀이의 경우는 가죽과 금속의 원리로 구성 되어있다. 가죽과 금속의 원리란 사물놀이는 쟁과리, 징인 금속악기와 장구, 북인 가죽악기로 이루어진다. 금속악기는 센소리가 나며 울림이 적고, 가죽악기는 부드러운 소리가 나며 울림이 크다. 금속으로 만든 악기는 하늘의 소리로 비유되며 가죽으로 만든 악기는 땅의 소리로 비유된다.

드럼이 과학적인 발전을 추구한 것에 비해 사물놀이는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신앙심이 결집어진 정성이 들어간 악기이자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장구는 사물악기 가운데서 유일하게 음양 성을 낼 수 있는 악기이다. 사물놀이에서 쓰는 장구는 개가죽으로

만드는데, 궁편 쪽에 암캐 가죽을 대고, 채편 쪽에 수캐 가죽을 댈다. 이렇게 해서 음양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훌륭한 소리를 내는 사물놀이의 장구가 된다고 실기인들은 믿는다. 사물놀이 장구의 통은 주로 오동나무를 쓴다. 그 까닭은 소리의 조율을 오동나무가 잘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구성은 가죽과 금속악기의 조화라는 공통된 틀 안에 있지만 서로의 생각관이 과학적인 발전과 신앙적인 믿음으로 나뉘기 때문에 재질면으로부터 음악스타일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

둘째, 연주 면에서 보면 드럼과 사물은 연주자의 수와 다른 연주자간에 합연이 차이가 난다.

드럼은 한 사람이 드럼 세트 전체를 연주하게 된다. 그래서 손뿐만 아니라 발까지 사용하여 연주하는 동안은 온몸으로 악기에 다가가게 된다. 사물놀이가 네 명에서 각자의 악기를 다루어 조화를 이루는 것과는 대조가 되는 것이다. 드러머는 락 밴드의 다른 연주자와 호흡을 함께 하면서 음악을 이끌어 가는 데 비해, 사물놀이의 연주자는 자기 악기에 몰입하면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호흡을 맞춘다.

셋째, 이동이 가능한가?

현대의 드럼 세트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사물은 각각의 악기를 메고 이동하면서 연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드럼은 설치를 하고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사물은, 악기를 메고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며 각각 악기별 특성을 살린 개인 놀음이 있다. 예를 들면 팽과리의 부포놀이, 장구의 설장구놀이, 북의 북놀이, 징의 징놀이 등이 있다.

넷째, 드럼과 사물의 다른 악기와의 관계 속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는 락 밴드와 풍물굿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 - 락 밴드

락 밴드에서 드럼은 타악기로 박자를 이끌어 락 연주를 주도한다. 드럼은 락 밴드의 다른 악기와 소리로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리듬을 주도하고 락 음악의 다이내믹한 소리 효과를 낸다. 얼핏 듣기에는 시끄러운 음악이지만, 강약과 속도를 나름대로 조절하여 밴드 전체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풍물굿

사물은 풍물굿에서 멜로디나 가락을 중시하기보다는 두들기기를 통하여 타악기만이 줄 수 있는 신명을 불러일으킨다.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하여 점차 속도를 빨리하고, 소리도 낮은 음에서 시작하여 점차 높고 빠른 음으로 고조되는 점층 가속의 틀을 지킨다.

다섯째, 드럼과 사물은 악보표기 자체가 다르다.

락 밴드의 악곡은 악보에 표기된 대로, 즉 오선지에 이미 작곡된 대로 충실하게 연주해야 한다. 그러나 사물놀이는 정간보라는 악보가 있지만 악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소리와 흥에 맞추어 같은 곡이라도 연주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다. 드럼이 악곡에 종속되어 있다면, 사물놀이의 타악은 연주의 심리나 공연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변화의 폭이 넓은 편이다.

여섯째, 드럼과 사물을 연주하는 채(스틱)이 다르다.

앞에서 기술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드럼스틱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두 스틱의 모양이 모두 똑같다. 그에 비해 장구채는 궁글채와 열채가 각각 다르게 생겼다. 또 금속악기를 치는 채나 가죽악기를 치는 채가 사물은 각각 다르다는 것에 비해 드럼의 경우는 모두 스틱 한 종류로만 (브러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를 서술함) 연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 [5] 사례를 통해 본 접목 가능성과 한계

1980년 이후 접목 사례가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지면상 모두 소개하지 못한다. 여기서는 ‘김현선의 사물놀이 이야기’, ‘김현선의 四物놀이란 무엇인가’ 책의 내용 중심으로 소개한다. 참고로 내가 직접 감상을 하지는 못한 곡이 다수 있다.

그리고 접목 사례 중 내가 감상한 것은 나름대로 분석을 시도한다.

### 1. 사물놀이와 서양 음악과의 접목 사례

### ① 교향악

사물놀이와 교향악의 만남은 크게 기대될 수 없었다. 서로의 어법을 양보하지 않은 채 걸돌고 있을 따름이다. 부분적으로 서로가 리듬을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제대로 용해되지 않은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다. 사물놀이의 어법을 추종하자면 교향악의 어법이 버그러지고, 교향곡의 어법을 따르자니 사물놀이의 특징인 변화가 사라진다.

### ② 피아노

강준일이 작곡한 ‘열두거리’, ‘푸리’가 곧 피아노의 만남을 시도한 작품이다. ‘열두거리’는 무속음악, 특히 경기도 도당 곳의 장단과 어법에 기초하여 소재의 특이성이 두드러졌다. 피아노는 건반악기이기에 타악기와 선율악기의 특성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사물놀이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된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짜임새가 없었으며 사물과 피아노의 만남이 자의적이어서 맞물고 들어가지 못했다.

피아노 어법에 맞지 않고, 사물놀이의 본디 원리가 제대로 살지 않았다. 설령 사물놀이의 독자적 특징이 드러난 부분도 없지 않은데, 그런 경우에는 피아노와 따로 놓고 있을 을 확인하게 된다. 소재는 특이했을지라도 일시적 만남이 있을 뿐, 사물과 피아노는 어긋났다는 평가도 있지만 서양 음악과의 접목을 전반적으로 보면, 사물놀이와 교향악단 및 피아노와의 만남은 어차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물놀이는 리듬을 모티브로 해서 장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변주를 시도하는 것에 비해서, 서양 음악은 조성에 기초해서 화음을 내야하니 전혀 진행의 절차가 다르다. 그러니 서로가 화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양보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2. 재즈Jazz와 기타 타악기의 접목 사례

### ① 재즈 - 강태환, 김대환

사물놀이와 재즈와의 만남도 탐탁치 않았다. 재즈의 어법에 맞추기 위해서 사물은 계속 동일한 장단만을 구사하였으니 리듬의 변화를 생명으로 하는 사물놀이는 병어리 노릇을 계속한 셈이다. 그러나 강태환, 김대환 등이 재즈와 사물놀이의 공통점을 향해서 치밀한 작업을 해온 결과 서로의 장단 속을 완전히 이해하고 끊임없이 가락을 변주하는 방식을 통해 사물놀이의 안내에 따라 재즈가 이끌리기도 하고 재즈의 인도

에 따라 사물놀이가 따라가기도 하고, 각자 길을 가기도 하고 나란히 가기도 하면서 성공적인 공연을 이끌었다.

## ② 대중가요 - SXL

SXL은 세계적인 팝 스타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다. 사물놀이의 진가를 외국의 슈퍼스타들이 발견하고는 사물놀이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예컨대 허비 행콕(Herbie Hancock)과 스티브 갓(Steve Gadd) 등이 사물놀이와 함께 연주에 참여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의 잦은 만남은 뜻 깊은 인연을 이루는데, 그것은 SXL 밴드를 결성한 것이다.

사물놀이의 변화무쌍하고 폭발적인 리듬이 세계적 팝 뮤지션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바야흐로 결성한 그룹이 SXL 밴드이다. 여기에 참가한 이들로는 사물놀이, 허비 행콕, 샤논 잭슨, 샹카, 아이브 덩, 빌 라스웰이다. 이 가운데 빌 라스웰은 롤링 스톤즈의 프로듀서이기도 하다. SXL 밴드는 1987년 8월 1일~2일에 '라이브 언더 더 스카이 페스티벌(Live under the Sky Festival)'을 개최해서 3만여 명의 관객을 모은다. 이 공연 실황은 CBS-Sony사에서 콤팩트디스크로 제작한 바 있다. 실로 경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연주는 일회적인 성격에 그쳤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준다.

## ③ 재즈 그룹

SXL과의 아쉬움을 레드 썬(Red Sun)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된다. Red Sun은 국내에서도 두 번에 걸쳐 연주회를 개최한 세계적 재즈 그룹이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물놀이는 팝 뮤지션으로 평가된 대단한 것이기도 한다. 사물놀이는 1987년 유럽의 국제 민속악기 페스티벌(Mega Drums Festival)에서 레드 선을 만나게 된다. 볼프강 푸쉬닉이 사물놀이의 환상적이고 신비한 음악에 깊이 빠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 거듭 모색하고 다듬어서 1988년 오스트리아의 '다양한 재즈 페스티벌(Mores Jazz Festival)'에 초청받아 사물놀이와 레드 선은 감동적인 무대를 꾸민다. 이 날의 공연에 대해서 비평가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동서양의 만남을 아주 소중한 채 취급하였다. 그 뒤에도 <토네 운트 게겐톤(Tone und Gegenton)> <뵤너 페스트 보켄(Wiener Fest Wochen)> 등의 재즈 페스티벌에 초청받았다.

1989년에는 폴리그램의 제안으로 '레드 썬/사물놀이' 라는 음반을 제작하였다. 1991년에 윌리소 재즈 페스티벌(Willisau Jazz Festival)에 참여하여 협연하고, 1992년에 잘펠덴 페스티벌(Saalfelden Festival)에도 참여하였다.

국내에서도 사물놀이는 레드 썬과 두 번의 공연을 가진 바 있다. 첫 번째는(1988년

12월 4일에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물놀이와 무[(SAMULNORI VS MU(Shaman))]" 이다. 이 연주에는 다국적인 아티스트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볼프강 푸쉬닉, 린다 샤록, 두두 투치, 야마시다 요스케 등이 그들이다.

볼프강 푸쉬닉은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알토 색소폰을 연주하고, 린다 샤록은 미국 뉴욕 출신으로 소리를 담당하고, 두두 투치는 브라질 출신으로 퍼커션(Percussion)을 연주하고, 야마시다 요스케는 일본인으로 피아노를 연주하였다.

사물놀이와 레드 썬의 만남은 동서양의 샤먼들이 만나는 것이라 보아도 그리지 않다. 김덕수와 푸쉬닉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는 이들과 언어 없이도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치와 견해를 존중하며 소중히 여긴다. 때로는 우리 모두가 무속(Shaman)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흑, 백, 황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 음악가들과의 만남에서는 가능한 그 무엇이 느껴진다.

그것은 배경, 인종,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무한한 도전이며, 한계라고 느껴진 것은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

- 김덕수 -

“13세 때 인도의 음악을 접한 후 이 신비로운 동양 음악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완전함과 통일성을 갖춘 사물놀이의 음악을 들었을 때 클래식만이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유럽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틀린 것인가를 느꼈다.

아시아의 음악은 형식과 전통을 뛰어넘어 나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준다.”

- 볼프강 푸쉬닉 -

이들은 계속 만나면서 음반을 내고, 소리 여행을 끊임없이 행한다. 이제 이들의 연주를 지켜볼 차례이다. 그것이 이 시대의 음악으로 동시 화합을 꾀하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 3. 내가 직접 감상한 음악에 대한 분석

① Traveling Drum(Red sun) - 김덕수, 레드썬

이 노래는 여자 보컬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쉽게도 가사 해석본을 구하지 못했다. 사물놀이의 장구는 바닥의 장단을 계속 동일한 장단으로 깔아주고 위에 노래와 플루트의 연주로 이루어져 있다. 노래 자체에 대해 어색한 점은 없지만 사물놀이가 개성을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동일한 장단만을 연주했다는 점이 아쉽다.

## ② 금환식 - 크라이닝

### - 금환식 단어의 설명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지구와 달의 거리가 먼 경우는 달의 겉보기 크기가 태양의 겉보기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달이 완전히 태양을 가리지 못해 링 모양으로 태양 빛이 보이는 현상.

### - 가사

어디선가 들려오는 허공의 비명소리 들리지가 않잖아  
도둑맞은 우리들의 꿈은 어디 있나요  
보물선이 침몰한다  
어두운 하늘을 찢고 비추어  
강 건너 저편 나의 미래를 보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떠나리  
가라앉는 전설 속으로  
그대 가슴 한 줄기 흐르는 피는 무엇인가요, 우린 알고 있잖아  
누군가 나의 영혼을 구속하려 하는가  
의미 없는 무덤의  
어두운 하늘 위엔 눈물이 흐르고  
당신의 손길 아침을 깨워주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떠나리  
떠오르는 전설 속으로  
길고 긴 날을 헤매어 찾아와 당신 앞에  
꽃 한 송이 던지리  
저 멀리 어디선가 손짓하는 나그네와  
시간의 숲 속으로...

금환식의 가사를 보면 금환식을 통해 가라앉은 전설이 떠오르는 전설로 되는 것을

표현한다. 내가 생각하는 전설이란, 미래가 공상의 꿈의 세계라면 전설은 과거의 꿈의 세계다.

- 노래의 구성 및 의미 해석

\* 금환식의 시작- 기타로 작게 시작됨.

\* 금환식의 절정- 드럼의 4bit로 표현됨. 단순하지만 강한 느낌을 준다.

\* 과거로의 여행- 몽환적인 느낌의 기타의 애드리브가 낮게 깔리면서 -> 사물놀이와 태평소의 연주가 시작된다. 원초적인 과거로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 음악인 사물놀이를 접목시켰다.

\* 현실과 과거가 공존하는 세계 - 꽃 한 송이. 과거와 현실이 공존되었다는 것을 암시. 태평소의 연주가 절정에 달하면 드럼이 다시 필 인을 넣으면서 현실세계로 돌아감을 알린다. 마지막에는 후렴을 반복하면서 여운을 남긴다.

이외에도 동서양의 접목시도에 서태지의 ‘하여가’가 있지만,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사물과 드럼의 접목은 시도되지 않고 태평소만 등장하였으므로 다루지 않겠다.

## [6] 결론: 전망과 앞으로의 과제

앞에서 얻은 자료와 접목 사례를 통해 내가 시도해 볼 만한 접목은 악보를 통한 것이다. 악보를 접목시키기 위해 우선 드럼의 금속 악기와 가죽악기를 사물의 금속악기와 가죽악기에 접목시켜 보았다.

악센트를 위주로 하는 크레시는 사물에서 장단을 감싸는 역할을 하는 징과 연결시키고, 리듬을 주도하는 하이햇과 라이 드는 각각 썰과리의 상쇠와 부쇠에 연결시켰다. 가장 낮은 음을 내고 박자를 지키는 베이스드럼은 사물의 북과 접목시켰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두 악기를 연결시키고 드럼과 사물의 악보를 각각 연주하는 것이다. 각각 악보로 이적하는 데서의 문제점은 먼저 서술하였듯이 드럼은 오선지에 표기하고 사물은 정간 보에 표기를 하는데 자세한 부분, 예를 들면 하이햇의 오픈, 라이드의 탐과 장구의 양편을 치는 악보 등을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물의 악기와 드럼의 악기를 정확하게 접목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이햇의 오픈은 썰과리를 잡고 치거나 열고 치는 것으로 접목 하였고, 장구의 양편에 대해서

는 8bit의 정박자를 치는 형식으로 보완해 보았다. 아직 직접 연주를 연습해 보지는 못해서 실제로 연주해 보면 많이 미숙한 점이 생기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앞으로 더 구체적인 접목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번 축제기간을 통해 시도해 볼 계획이다.

## - 논문을 마치면서

원래 이 논문은 내가 흥미를 가지고 즐겨 연주하는 드럼에 관하여 공부해볼 거리가 없을까 하는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드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소개에 그칠 것 같고, 우리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전통풍물 공부와 비교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서양의 대중음악인 락 밴드의 드럼과 우리의 풍물놀이 가운데 사물놀이는 타악기로써 신명을 나게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연주의 방법이나 형식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서로 다른 음악인데도 요즘 동양과 서양 음악의 접목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학교 친구들은 풍물놀이 못지않게 락 밴드에 관한 관심도 많다. 나도 두 가지 다 해보았지만, 지금은 드럼에 더 빠져 있다.

앞으로 드럼을 계속하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할 텐데, 우리 전통음악을 접목시켜 나중에 색다른 락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든다. 우리 락 밴드 그룹이 좋아하는 '크라잉 넛'도 우리 전통악기를 자기들 음악에 수용하여 독특한 곡을 만들기 했다.

아직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 음악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 같아 의미 있어 보인다.

나도 이런 욕심으로 논문을 시작했는데, 솔직히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준비한 기간이 짧았고,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했다. 접목부분에서 다루어진 것들은 전문성을 띤 것이 많아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인용한 부분도 많다. 특히 우리 풍물은 다루어보기만 하고, 그 음악의 원리나 깊은 공부는 하지 않아서 서양 타악기와 비교해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서양음악과 동양음악의 접목에 대해 많이 미흡하지만 이 논문을 쓰면서 조금이나마 알아보게 되었고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쓰는 데 도움을 주신 부모님, 선생님, 손진근 선생님, 도움을 주고 같이 수고한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참고 도서>

한국전통예술연구보존회 지음, [장고의 기본], 삼호출판사  
김헌선 지음, [사물놀이란 무엇인가],  
김헌선 지음, [김헌선의 사물놀이 이야기], 풀빛  
김헌선 지음, [풍물굿에서 사물놀이까지], 귀인사  
최병삼 지음, [사물놀이 배우기], 학민사

주강현 지음, [우리문화의 수수께끼2], 한겨레신문사  
김준호, 손심심 지음, [우리소리 우습게 보지 말라], 이론과 실천  
봉천놀이마당 지음, [민속 교육 자료집], 우리교육

# 「간디학교자율의 긍정적인 면과

# 부정적인 면」



- 임환

1989년 02월 04일 오후 9시 20분생

별자리 / 물병자리

혈액형 / A형 (생각이 깊으나 우유부단하다. 그러나 속마음은 착하다.)

학력 / ??유치원 - 대구효명초등학교 - 산청간디중학교 - 제천청소년학교

(산청간디고등학교입학예정)

별명 / 매너쟁이 아저씨(할아버지), 진지환, 흥장군, 임흥, 임풍, 삼촌.

취미 / 10시간 이상 자기, 라디오방송 청취, 독서,

음악 듣기, 베이스 연주, 연극, 컴퓨터게임.

특기 / 잠자기, 음악 듣기, 돈 쓰기.

소속 / 여우하품(연극부) 부회장 했었다, 간락연(밴드부), 에찌(탁구부).

좌우명 / 삶이 즐겁지 않으면 살아 있다고 할 수 없다.

음악과 잠은 삶의 원동력이다.

수상경력 / 우수졸업논문, 5.18삼행시 2회 수상,

한글날 기념 삼행시 수상, 수학상 여러 번 수상 등~

## 서론

### 1. 논문의 목적 및 동기

나는 간디학교의 자율에 대해서 논문을 쓰게 되었다.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이제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학교 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느낀 점이 있어서였다. 학교에서 생활 하면서 학교가 추구하는 자율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자주 생기고 학생들이 자율을 잘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 같기도 해서 이 논문을 쓰게 되었다.

몇몇 간디인들이 자율에 대해서 오해하고 방종으로 풀어나가는 일을 줄이고 자율을 올바르게 알고 누릴 수 있는 방안과 개선 방향을 생각해보고 싶다. 이 논문이 내가 졸업하기 전에 나와 간디학교의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 2. 논문 방법

이 논문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자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둘째는 간디학교 학생들의 생활을 알아보고

셋째는 간디학교 자율의 긍정적인 면과 올바른 활용에 대해 알아보고

넷째는 간디학교 자율의 부정적인 면과 개선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다섯째는 간디학교의 미래 모습을 생각해본다.

이 논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조사와 설문지를 돌려 학생들의 생활을 알아본다.

아직 간디학교에서의 자율은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발전 중인 자율의 생활화가 여기서 멈추게 되면 간디학교에서 추구하는 자율적인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논문을 통해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자율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도움이 되길 기대 한다.

## 본 론

### 1. 자율이란??

자율의 사전적인 의미는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고, 반대적인 의미로 타율이 있다. 칸트(독일의 철학자로서 주요저서로 순수이성비판이 있다)의 윤리관에서 보면 [자율은 어떤 권위나 욕망에도 구애됨이 없이 실천 이성<sup>1</sup>에 의하여 스스로 세운 도덕률에 따르는 일]이라고도 한다. <실천이성이란?? : 칸트철학의 기본 개념으로, 도덕적 법칙을 정리하여 의지행위를 규정하는 이성이라고 한다. 또 한 이론이성에 실천이성은 의지를 규정하는 이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순수의지는 곧 실천이성이다.>

#### (표1) 자율과 타율을 여러 가지 사례와 간디학교 생활을 통해서 비교하기

구분	자율	타율
장점	1. 스스로 정할 수 있다. 2. 자신이 결정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1. 틀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일이 빨리 진행된다. 2.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다.
단점	1. 서로의 의견 조율을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2. 자율을 잘못 인식해서 남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1. 억압적이고 규칙적이어서 힘들고 피곤해진다. 2. 타율을 남용하면 폭력이 될 수 있다.

자율과 타율은 비교할 것이 많지만 간디학교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자율이기 때문에 자율을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은 간디학교 학생 75명을 대상으로 이 논문의 주제와 내용을 쓰기 위해 조사한 설문 결과를 통계화한 것입니다.

일시 : 2003년 10월 6일 화요일부터, 2003년 10월 7일 수요일까지

## 2003년도 졸업논문 관련 설문지(63명 답변)

안녕하세요. 3학년 임환입니다. 저의 졸업논문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자합니다. 바쁘신데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었네요.

부디 진지한 답변으로 간디학교의 발전에 저의 논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1. 일반학교와 비교해서 누리고 있는 자유의 부분

(1) 일반학교와 비교해서 간디학교에서는 자유가 많이 주어지는가??(경험 못한 사람도 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통해서...)

① 아주 많이 주어진다(6명) ② 많이 주어진다(39명) ③ 그저 그렇다(15명) ④ 적게 주어진다(3명) ⑤ 전혀 없다(0명)

(2) 간디학교 생활에서 내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가??

① 아주 많이 자유롭다(3명) ② 많이 자유롭다(28명) ③ 그저 그렇다(24명) ④ 별로 자유롭지 않다(7명) ⑤ 자유롭지 않다(1명)

(3) (2)번 문항에서 ①, ②번을 선택한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① 학교에서 자유를 많이 준다(9명) ② 내 스스로 자유롭게 생활한다(22명)

③ 기타<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내가 하고픈 일들을 할 때에 내 스스로 한다는 것에서 그렇게 느낀다. 자유롭다고 생각함. 자유로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자유롭다. 나름대로 자유롭다. 일반학교에서보다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니까. 학교에서 주어지는 자유에서 내가 책임을 알기 때문에, 자유를 얻으므로 써 주어지는 규율을 나름대로 잘 따라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내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자유를 만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유를 많이 주긴 하지만 내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 학교에서도 많이 주고 내 스스로도 자유롭다.>(5명)

(4) (2)번 문항에서 ④, ⑤번을 선택한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① 학교에서 자유를 별로 주지 않는다(8명) ② 내 스스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4명) ③ 기타<간섭이 심하다. 일반 학교와 다른 게 있다면 기숙사, 염색, 교복 등인 것 같다.>(2명)

### 〈총평〉

설문지 응답 결과를 보면 간디학교의 학생들은 간디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어느 정도의 자유가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45명) 그리고 응답자들은 대부분 자신들도 자유롭게 생활한다고 했다(31명) 그러나 소수의 응답자들은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8명)

이 중 학교에서 자유를 주지 않아 자유롭지 않다고 한 사람이 8명에 달해 이들이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또한 자유롭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간디학교는 일반학교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몇몇 있었다. (2명)

자유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얘기하고 조율하면 간디학교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 2. 기숙사에서 자율의 실태

### (1) 나는 취침시간을 잘 지키는가??

① 잘 지킨다(22명) ② 그저 그렇다(25명) ③ 안 지킨다(16명)

### (2) 간디인들은 취침시간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가??

① 잘 지킨다(2명) ② 그저 그렇다(29명) ③ 안 지킨다(32명)

### (3) 나는 기상시간을 잘 지키는가??

① 잘 지킨다(25명) ② 그저 그렇다(25명) ③ 안 지킨다(12명)

### (4) 간디인들은 기상시간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가??

① 잘 지킨다(2명) ② 그저 그렇다(38명) ③ 안 지킨다(25명)

### (5) 나는 묵학 규칙을 잘 지키는가??

① 잘 지킨다(13명) ② 그저 그렇다(42명) ③ 안 지킨다(7명)

### (6) 간디인들은 묵학 규칙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가??

① 잘 지킨다(2명) ② 그저 그렇다(40명) ③ 안 지킨다(20명)

### (7) 나는 청소시간 때에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① 잘 한다(16명) ② 그저 그렇다(36명) ③ 안 한다(9명)

(8) 간디인들은 청소시간 때에 잘한다고 생각하는가??

① 잘 한다(6명) ② 그저 그렇다(42명) ③ 안 한다(13명)

(9) 나는 화장실 청소를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① 잘 한다(11명) ② 그저 그렇다(21명) ③ 안 한다(27명)

(10) 간디인들은 화장실 청소를 잘하는가??

① 잘 한다(7명) ② 그저 그렇다(28명) ③ 안 한다(27명)

### <총평>

설문지 응답 결과 기숙사 생활에 대한 전체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적으로 잘 지킨다고 나왔지만 간디인들 타인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서는 거의 다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이 응답으로 느낀 것은 간디인들은 자신의 행동은 조금만한 실수나 가끔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실수나 안 지키는 모습은 관대하게 보지 못한다고 본다. 남을 평가하는 시선으로 자신의 생활도 돌아보면 더욱 바라직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3. 수업, 회의시간에서 자율의 실태

(1) 당신은 수업에 적극 참여하는가??

① 적극 참여한다(21명) ② 그저 그렇다(39명) ③ 참여하지 않는다(2명)

(2) 당신은 단체모임(수업, 식구총회, 주를 여는 시간 등...)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청취하는가??

① 열심히 청취한다(32명) ② 관심 없다(20명) ③ 잘 안 듣는다(9명)

(3) 간디인들은 단체모임(수업, 식구총회, 주를 여는 시간 등...)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청취하는가??

① 열심히 청취한다(20명) ② 관심 없다(23명) ③ 잘 안 듣는다(18명)

(4) 회의 때 나의 태도는 올바른가??(예: 누워 있다, 책을 읽는다, 잡담한다 등...)

① 올바르다(12명) ② 그저 그렇다(38명) ③ 올바르지 않다(11명)

(5) 간디인들은 회의 때 태도는 올바른가??(예: 누워 있다, 책을 읽는다, 잡담한다 등...)

① 올바르다(4명) ② 그저 그렇다(33명) ③ 올바르지 않다(25명)

(6) 회의 때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는??

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17명) ② 그저 그렇다(41명) ③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3명)

(7) 간디인들은 회의 때 타인을 배려하는가??

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9명) ② 그저 그렇다(44명) ③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8명)

### <총평>

설문지 응답 결과 간디인들은 대체적으로 수업이나 회의 때 자신에 대한 질문에서는 좋게 답변했지만 간디인들 타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

이 설문으로 알 수 있는 점은 기숙사에서 총평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행동에는 관대하지만 남의 행동에는 관대하지 않다고 본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 '내가 늦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남이 늦으면 게으르거나 시간 관념이 없어서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남을 보는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반성한다면 좋은 모습으로 회의나 수업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사생활, 이성교제에서 자율의 실태

(1) 자유롭게 이성교제를 하는가??

① 자유롭다(29명) ② 그저 그렇다(18명) ③ 자유롭지 않다(13명) ④ 기타(2명)<안할 겁니다. 이성이 없다.>

(2) 간디학교에서의 이성교제에 대하여 항상 동의를 하는가??

① 항상 동의한다(15명) ② 동의한다(26명) ③ 그저 그렇다(11명) ④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다(11명) ⑤ 항상 동의하지 않는다(0명)

(3) 동의하지 않을 경우

① 교제 자체가 안 된다(3명) ② 우리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2명) ③ 애정표현에 있어서 걱정스런 생각이 든다(10명) ④ 기타(7명)〈선생님들의 반대, 이상한 느낌이 심하게 난다. 그저 그렇다. 친구와의 관계, 잘 모르겠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 〈총평〉

설문지 응답 결과 간디인들은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자유롭다고 했다. (29명) 또 이성교제를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41명) 반대하거나 그저 그렇다는 학생이 22명이나 되었다. 반대하거나 그저 그렇다는 응답을 한 절반의 간디인들은 애정표현이 걱정된다고 했다. (10명) 그리고 몇몇 소수의 학생들은 이성교제 자체가 안 된다고 했다. (3명) 이성교제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지나친 애정표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결국 여러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속에서는 건강하고 절제된, 또한 현재의 처지에 알맞은 이성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 5. 교칙, 기숙사규칙에서 자율의 실태

### (1) 규칙을 잘 지키는가??

① 잘 지킨다(6명) ② 지킨다(9명) ③ 가끔 실수한다(35명) ④ 안 지킨다(13명) ⑤ 전혀 안 지킨다(1명)

### (2) ④, ⑤번을 선택한 경우 왜 그런가??

①규칙이 엄격하다(2명) ②규칙이 많다(8명) ③규칙에 관심 없다(8명) ④규칙 만들 때 동의하지 않았다(3명) ⑤기타(3명)〈규칙이 정해진 것이 제천으로 오면서 선생님 임의로 바꿔 버리기도 했다. 모르겠다. 귀찮다.〉

### (3) 간디인들은 기숙사규칙 등, 교칙을 잘 지키는가??

① 잘 지킨다(1명) ② 지킨다(13명) ③ 가끔 실수한다(28명) ④ 안 지킨다(23명) ⑤ 전혀 안 지킨다(1명)

### 〈총평〉

설문지 응답 결과 간디인들은 15명의 응답자만이 규칙을 잘 지킨다고 했다. 그리고 35명의 사람들이 가끔 실수한다고 했다. 또한 나머지 13명의 응답자들은 안 지킨다고 했다. 그리고 응답자 중 소수지만 전혀 안 지킨다는 사람도 있었다. (1명)

안 지킨다는 응답을 한 간디인들 중에 10명 정도의 응답자가 규칙이 많고 엄격하다고 선택했다. 그리고 규칙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 또한 8명이나 되었다. 나머지 응답자 6명 중에는 규칙을 만들 때 동의하지 않고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요즘 규칙들이 개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간디학교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몸소 체험하며 느낀 의견을 자발적으로 많이 제시하고 공동으로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서로 필요성에 대해 인식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천을 위해 자발성을 발휘하고 자기관리를 해나가는 모습이 간디인 다운 모습이라고 보여 지고, 규칙을 위한 규칙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할 사항은 적은 규칙으로 가능한 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길러나가는 길이 아닌가한다.

## 6. 가정(가정학습, 방학)에서 나는 자유를 유익하게(바람직하게) 누리고 있는가??

①유익하게(바람직하게) 사용한다(15명) ②유익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한다(33명) ③그저 그렇다(5명) ④유익하게(바람직하게) 사용하지 않는다(3명) ⑤생각해 본 적 없다(7명)

### <총평>

설문지 응답 결과 간디인들은 48명의 응답자들이 방학 때나 가정학습 때 자유를 유익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나머지 15명은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응답했다. 간디인들이 학교생활 외에 주어진 시간을 나름대로 유익하고 자율적으로 쓰려고 한다는 대답을 통해 자율을 스스로 키워가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그밖에 간디학교 자율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써주세요.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에게 자유를 많이 줘야하고, 학생들도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잘 활용해야 된다. 자유롭긴 한데, 뭔가 허전하고 쌤들과 우리사이에 갈등이 심하다. 조금만 더 우리를 믿어 주세요. 아직은 자율이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다. 관심 없다. 생각 했던 것만큼 자유는 없지만 생활하는데 별 지장은 없다. 규칙을 잘 지켰으면. 항상 마음만 앞선다. 학교청소 쌤들도 같이. 일반학교보다 많지만 규칙이 많아서 지키면서 살려면 자율이 없다. 학생 스스로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 좋다. 일반학교에 비교하면 많이 자유스럽다. 공동체적으로 하자. 여러 체험과 일반학교에서 못하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나름대로 만족한다. 지금현재는 자율이라기보다는

혼란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사실 방종일 때가 많고 선생님들의 개입 또한 심하다. 자유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새로이 가져야 한다. 간디학교는 나름대로 자율적이다. 학생들이 자율이란 자유를 나쁘게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끔씩 타율로 느껴진다. 간디인들은 자유를 달라고 말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주어진 틀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많은 자유를 주며 책임질 수 있는 간디인이 되자.

3학년 남자 9명, 3학년 여자 7명,  
2학년 남자 7명, 2학년 여자 15명,  
1학년 남자 12명, 1학년 여자 11명,  
미확인 2명.

### 설문지를 마치며...

설문지를 마치며 간디인들의 생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학교의 교육철학인 자율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자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간디인들은 진정한 자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어진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고 누린다고 해도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논문을 통해 간디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자유와 간디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철학 속 자율의 차이를 좁혀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가 바라는 자율은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돌아볼 일이다.

## 2. 간디학교의 자율적인 생활 실태

다음은 간디학교 홈페이지에서 옮겨온 자율에 대한 내용이다.

간디학교의 철학에서 말하는 자율이란 강제적으로나 타의에 의해 마지못해 이루어지는 가르침이나 배움이 아니다. 그런 경우를 통해 얻게 된 자율은 결코 기쁨을 낳지 못하며 오히려 불행과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순수한 자발성은 진정한 자아의 표현이며 곧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랑과 자발성은 서로 의존적이다. 사랑에 기초한 교육은 결코 강요되거나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발성을 전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발성에 기초한

교육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배움과 가르침이 순수한 자발성 위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비로소 참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못한 학교와 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학교와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 철학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신뢰도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간디인들이 아직은 방종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간디인들은 주어지는 자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바른 활용 방법을 몰라 스스로 어려워한다.

### 3. 간디학교 자율의 긍정적인 면(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 긍정적인 면

자율은 자유가 주어지는 만큼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정해 실천하여 좀더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규칙이나 모든 것들을 자율적으로 남이 말하기 전에 스스로 실행하면서 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는 학교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학생들이 이끌어가는 교육으로서 교사가 무조건적으로 주입하는 방법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배우려는 의지로 알아가는 교육을 한다.

#### -긍정적인 면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간디학교에서 말하는 자율에 대해 알아가면서 몸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학년이 화장실청소를 자원 한다면 잘못 했을 때 양심고백, 운동장에 실내화를 신고 나가지 않는 다던가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장소(식구총회, 학생총회, 주를 여는 시간, 학급회의, 기숙사회의 등...)에서는 올바른 태도와 열심히 청취하는 모습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행동들이 곧 자신의 자유를 얻고 활용하기 위한 책임적인 참된 자율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올바른 태도와 열심히 청취하는 모습 적극적인 참여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또한 학생의 생활에서 규칙이 많거나 지키기 어려우면 그것을 무작정어기거나 반항하지 말고 식구총회나 학생총회 때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의

견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학생회나 생개위 사람들도 소수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 소수의 의견이 무시당하면 적극적인 학생의 참여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런 과정을 중에 학생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책임감을 지고 잘 지켜나간다면 자율을 긍정적이고 올바르게 사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 4. 간디학교 자율의 부정적인 면(설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 - 부정적인 면

서로의 생활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의견을 조율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그리고 자율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행동하면 자율적인 행동이 아니라 방종이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하고 잘못을 해도 남들도 한다는 말로 얼버무리려 한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내가 당번이 아니라는 식으로 마구 버린다. 이러다보니 남의 상처나 눈물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

##### - 부정적인 면 개선 방법

간디학교의 모든 일을 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말고 나에게 일어난 일처럼 생각하고 느끼면서 공동체적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학칙이나 기숙사 규칙을 지키면서 식구총회를 통해서 잘 지켜지는 규칙을 하나 둘씩 줄여 가면 규칙 때문에 억압적인 면을 조금씩 줄여 갈 수 있다. 그러면 생활하면서 좀더 자유로운 학교가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행동으로 모든 간디인들이 간디학교 학생, 선생님들의 신뢰를 쌓아 간다면 서로를 믿고 규칙을 꼭 정하지 않아도 방종 하는 간디인이 아닌 자율적인 간디인이 될 것으로 본다.

#### 5. 미래의 간디학교 미래의 모습

지금 이렇게 많은 규칙들을 하나씩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잘 지켜나간다. 그리고 잘 지켜나가게 된 규칙들은 하나씩 줄여나가서 이제는 더 이상 규칙들이 없어도 되는 생활을 하게 된다. 또 선생님들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되어 나가는 생활이 되고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 주신다. 또한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기상시간, 취침시간, 묵학시간(규칙), 청소시간을 선생님의 아무런 간섭이나 간여 없이 그리고 담당이 필요 없고 자율적으로 지켜나가서 검사하는 사람이나 시키는 사람이 필요 없어진다. 그러므로 간디인들은 이 논문을 통해 좀더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면 서서히 간디학교는 발전될 것으로 본다.

### 논문을 마치며

나는 이 논문을 쓰면서 크게 반성을 했다. 정작 논문을 쓰는 내 자신이 자율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논문을 쓰면서 내 자신도 자율에 대해 생각해 보고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지만 간디학교의 자율이 조금이라도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논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병삼쌤, 혜상쌤, 인섭쌤, 매일 우리에게 먹을 것과 걱정해 주신 손쌤과 미리쌤. 그리고 어머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설문에 도움을 주신 모든 간디인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진심으로 간디인들의 자율적인 삶과 생활 태도를 기대하는 마음을 전하며 이 글을 맺는다.

## 「비주얼락에 대한 편견 바로잡기」



—김성근

1988년 06월 04일생

혈액형 / A형

학력 / 1995년 부산 광남초등학교 - 2000년 양산평산초등학교로 전학 -  
2001년 간디학교 입학 - 2003년 4월 검정고시 합격.

별명 / 기타리스트, 성근

취미&특기 / 기타 치기, 베이스치기, 방구석 뒹굴기, 낙서하기, 숙제 안 하기,  
음악 듣기, 게임에 미치기, 독서를 가장한 잠생각 하기, 청소 안 하기.

소속 / 간디 락스타 연합(2003년도 1학기 회장 -이제안해.),  
밴드 '박하사탕'리드기타, 중3밴드 베이스스트, 지구특공대(그냥자리만)

좌우명 / 없어. 이런 게 있으면 생각이 틀에 박혀 버릴 것 같아.

## 비주얼락에 대한 편견 바르장끼

서 론

일반적으로 비주얼락(Visual Rock)이라 함은 음악적 요소와 함께 시각적인 이미지를 더한 것을 말한다. 최근 거의 모든 뮤지션들이 다들 시각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추세지만, 비주얼 락은 대개 시각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몽환적이고 퇴폐적인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들에게 ‘음악이란 들려주기 위한 것이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쪼대가 없는 음악이다’ ‘그런 분장으로 시선을 끌어 음악의 부족함을 메우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평소 비주얼락을 즐기는 나이기에 관심이 생겨 비주얼락의 분장과 음악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비주얼락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논문을 계획하게 되었다.

### 1. 비주얼락은 무엇인가

#### 1) 비주얼락의 탄생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는 락’이라는 뜻을 지닌 비주얼락은 글램락과 LA메탈(7~80년대 왕성하게 상업적 음악을 하던 메탈밴드들이 하던 음악을 일컫는데, 곡들이 듣기 쉽고 밴드 구성원들의 외모가 뛰어난 것이 특징) 시어터락(무대의상, 무대매너 등으로 관객을 놀라게 혹은 즐겁게 하는 것. 키스(Kiss),핑크 플로이드(Pink Floyd)등이 대표적 밴드이다) 등과 관계가 깊다. 비주얼락은 일본에서 생겨나 발전해온 음악 장르로, 국내에서도 한 장르로 발전해 많은 청소년층과 마니아층의 인기를 누리는 장르이다.

비주얼락의 탄생에 관해서는 글램, 시어터락(이하 글램이라 표기) 마니아들과 비주얼락 마니아들 사이의 논란이 대단하다. 글램락 마니아들은 단지 글램의 성향을 가진 음악을 그냥 일본에서 도입하려고 했으나 글램을 따라가지 못하자 비주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음악을 타당화시킨다는 주장을 하고 비주얼락 마니아들은 단지 시각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글램락의 아류로 보는 것이 안 되고 비주얼락은 일본 내에서 발전한 다른 장르라고 주장한다. 이 두 의견들이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있어 사실상 명확한 답을 얻기는 힘들다. 고로 비주얼락의 시작을 알아보려면 이 두 입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비주얼락은 보위(BOOWY:일본 글램락 밴드로서 글램락의 대가라 불리는 데이빗 보위의 이름에서 영감을 얻어 이름을 보위라 지었다. - BOOWY이지만 읽을 때는 보위라 읽는다)에서 시작되었다. 그 말은 글램락에서부터 비주얼락이 발전해 온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 흔히들 비주얼락의 시초를 엑스재팬이라고들 하는데, 비주얼락의 시초라 불리는 엑스재팬 역시나 한때 미국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락그룹 키스(KISS)의 쇼킹한 비주얼에 영향을 받았다. 결국 비주얼락은 그저 글램락을 일본에서 도입해서 비주얼락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인 것이 아닌가.

2) 비주얼 락커들이 짙은 분장을 하는 것은 단지 글램의 영향 때문만은 아니다. 거리공연을 하는 젊은 층들의 밴드들은 나이가 나이만큼 실력도 비슷할 수밖에 없었고,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음악을 제대로 들려주기 위해서는 무언가 튀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다른 밴드들과는 다른, 특이한 모습으로 공연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음악적 스타일과도 잘 맞아떨어져 지금까지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아 버린 것이다(초기 TV등 방송매체에 출연하기 힘들었던 밴드들이 튀는 것을 찾아 화려한 분장을 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기괴하진 않았고, 결국 80년대 엑스재팬이 기괴하고 여성적인 분장으로 등장함으로써 일본 비주얼의 토대를 닦아낸 것이다. 음악적인 면에서도, 글램이 락큰롤과 펑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비주얼은 좀더 헤비한 음악과 일본 특유의 색채가 섞여 있는 장르인 것이다.

위의 두 글은 각 입장을 글들을 최대한 요약한 것이다. 사실 비주얼락이 글램락이나 시어터락 등의 '표현'이라는 코드에서는 일치하며, 글램의 트랜스섹슈얼한 면, 짙은 화장 등을 닮았고, 또한 엑스재팬이나 디르의 '쇼킹'한 분장은 키스(KISS)의 특징과 통하는 면이 있다. 사실은 이 두 장르의 혼합적 스타일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비주얼락 스타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외관상의 공통점일 뿐 비주얼락은 분명 일본적인 색채를 띤다. 이렇듯 비주얼락의 탄생에 관해 한 마디로 이렇다 하고 정의내리기는 힘들다. 비주얼락은 음악의 한 장르를 나타내는 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음악 문화에 가깝다는 점에서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JAPAN VISUAL ROCK(<http://myhome.hanafos.com/~maruyaho/frame.htm>)의 계

시물의 일부를 살펴보자.

### [비주얼락의 탄생]

일본 문화를 설명하려면 일본의 가장 전통적인 가부키 문화와 카피 문화를 들 수 있다. 무엇인가를 가부키에는 노래, 춤, 유란한 치장, 성(性)을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함, 신비롭고 해학적인 줄거리가 있는데, 이 가부키 문화의 뿌리에는 일본인의 내재된 특성인 남성 우월론과 개방적인 성(性) 문화가 담겨 있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이든 받아들여서 자기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특징이 비주얼락을 만들게 한 정신이다. (중략) 비주얼락은 점점 남성적인 분위기에서 여성적인 분위기로 바뀌면서 비주얼 락다운 스타일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80년대 초반, 엑스재팬과 벅틱이라는 그룹에 의해서 비주얼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지금의 비주얼락의 스타일을 구축하게 되었다. 결국 엑스재팬의 등장으로 일본 락(J-Rock)의 판도는 크게 바뀌게 된다. 비주얼 락의 상업성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쿼트적이고 인디적인 분위기에 머물던 비주얼락을 메이저 한시켰고, 근대 일본 락의 계보를 형성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게시물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무엇이든 받아들여서 자기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특징이 비주얼락을 만들게 한 정신이다.’ 이 구절이야말로 비주얼락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주얼락과 글램락 모두 시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일본 문화의 특징이 글램락과 비주얼락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2) 비주얼락 스타일

사실상 비주얼락은 음악스타일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시각적인 부분이 강조된 음악을 쉽게 구분해 놓은 구분기호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비주얼락은 음악의 장르 중 하나라기보다는 하나의 음악 문화라는 것이다. 비주얼락의 분장 스타일은 시대에 따라 점점 변해 왔는데, 비주얼락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무렵이 엑스가 알려지는 시기(동



시대 벅틱이라는 그룹이 있었으나 엑스가 메이저 데뷔와 각종 매스컴의 주목을 받는 사이 벅틱은 드러나지 않는 아래쪽에서 활동했다. 시기상 80년대 초중반, 엑스 첫 앨범이 나오는 시기는 88년도이다).인데, 이 무렵 비주얼락의 스타일은 ‘쇼킹’과 섹슈얼리티를 내세운 분장과 의상이었다. 엑스, 샤벨 타이

거 등의 모습을 보면 이때의 분장에 대해 엿볼 수 있는데, 몸에 꼭 맞는 의상과 독특하고 진한 화장, 폭력적이고 과격한 퍼포먼스를 들 수 있다. 이는 이들이 초기에 추구했던 멜로딕 스피드 메탈(주로 기타리스트 등의 기교를 내세워 멜로디와 스피드가 중심이 되는 장르)의 과격함을 더욱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초창기 이들의 모습은 과격한 퍼포먼스에 연관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몸에 꼭 맞는 가죽 의상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눈알받지 등 여러 독특한 소품들도 사용되었는데, 이는 과격한 메탈을 추구하던 이들의 음악적 스타일에도 부합한다.



초기 비주얼락(뿐만 아니라 지금의 비주얼 락커들도 마찬가지지만)의 분장에는 짙은 아이라이나나 요란한 헤어스타일 등도 들어가지만, 소품들도 빠질 수 없다. 이들은 악기에서까지 자신들만의 개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흔히 찾아 볼 수 없는 기타 모양과 페인팅, 눈알이나 전갈 모양의 액세서리들. 엑스의 보컬이었던 토시는 건담패션이라 불리우는 금속판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기도 했다.



이런 모습들에는 미국의 키스(KISS)의 성향이 많이 보이지만, 키스는 단지 관객들

을 놀라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식의 분장이었으나 엑스를 위시한 초기 비주얼락의 경우는 추구하는 음악적 분위기와 어느 정도 부합되는 분장을 했다는 평이 많다.

이들의 이런 스타일은 당시 엄청난 충격이었다. 물론 젊은이들의 거리 하라주쿠에서는 심심찮게 이런 밴드들을 볼 수 있었지만 아직은 사람들에게 비주얼락이란 생소한 장르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독특한 분장과 함께 과격하고 폭력적인 퍼포먼스 등으로 사람들에게 강한 인식을 남겨 비주얼락의 존재를 급속도로 알려나갔다. 이들의 분장은 일본의 전통예술 가부키와도 연관이 있는데, 가부키의 특징인 모호한 성, 요란함 등의 특징이 이들의 분장 속에 녹아들어가 있음으로 인해 이들 특유의 서구적인 듯하면서도 묘하게 일본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낸다. 엑스의 상업적 성공으로 인해 비주얼락이 널리 알려지면서 비주얼 밴드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한다. 90년대로 넘어가면서 비주얼락은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들의 공연문화는 입에서 불을 뿜어낸다던지 마네킹을 부순다던지 하던 과격한 퍼포먼스가 아닌 자연적인 무대매너와 ‘괴물’의 컨셉이 아닌 요염함에 좀 더 비중을 두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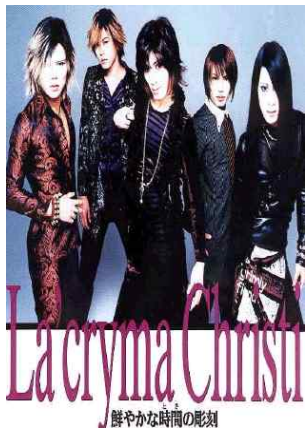
-90년대로 접어들면서 비주얼락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된다. 초기의 과격한 분장과 퍼포먼스와는 달리 자연스런 무대매너 혹은 거의 연극에 가까운 짜임새 있는 퍼포먼스를 구사하게 된 것이다. 이는 초기 강렬한 이미지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던 것에서 좀더 한 가지 분야로(음악 혹은 비주얼)전문성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분장도 초기의 난폭함을 죽이고 요염한 컨셉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쇼킹이라는 요소에 질려 버린 대중들에게 새로운 장르를 선보인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초기의 과격함은 많이 줄어들었고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조되기 시작하는데 분장 스타일

이 변하는 것 못지않게 퍼포먼스나 음악적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말리스 미제르의 경우는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잘 짜여진 퍼포먼스와 춤, 고딕풍의 음악으로 새로운 공연문화를 선보였고, 사운드도 과격한 스피드메탈에서 좀더 고전적인 사운드로 변하게 되었다.

90년대 중후반, 비주얼락계의 거장들이 하나둘씩 비주얼 계를 떠나면서 비주얼락은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하게 된다. 디르앙그레이(Dir en grey), 플라스틱 트리(Plastic Tree), 글레이(Glay) 등의 신인 그룹들에게서는 과거의 비주얼락 뮤지션들의 분위기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과거의 흐릿한 색채가 아닌 화려하고 원색적인 색채로 기존의 오염함을 넘어서, 도발적인 퍼포먼스와 기발한 의상으로 초기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이루어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스타일은 많이 캐주얼해지고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바뀌었다.



- 비주얼락의 분장스타일은 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좀더 캐주얼한 스타일로 변했다. 상당수의 정통 비주얼락을 계승하던 밴드들이 하나둘씩 해체되거나 탈 비주얼화하면서 비주얼락의 인기는 사그라지기 시작한다. 실제로 현재 정통 비주얼락을 유지하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언더의 밴드들이다.

이들의 독특한 개성들은 음악에도 적용되어, 대체적으로는 듣기 무난하고 감각적인 멜로디라인을 중심으로 한, 밴드마다의 개성을 가진 음악이 주류가 된다. 자세히 보면 비주얼락의 분장이 변해올수록 이들의 음악도 따라 변해왔음을 알 수 있다.

## 2. 비주얼락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비주얼락

### 1) 비주얼락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

비주얼락은 귀로만 즐기는 것이 아닌 눈과 귀를 동시에 자극하는 새로운 음악문화다. 시각적인 것이 음악에 추가됨으로서 음악에 몰입하기 쉬워지며, 음악으로 전하기 힘든 메시지들을 감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게다가 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렉기타의 디스트는 소음으로 들리기 쉬운데 비주얼락의 외모에 의해 락음악에 빠졌다가 결국은 음악 자체에 매혹되는 사람도 있다. 쉽게 접하지 못할 락음악의 다리를 놓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들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음악 자체를 즐기기도는 밴드 구성원들의 외모에 중점을 둔다거나, 밴드 구성원들의 분장과 퍼포먼스 등이 음악의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대변함으로써 음악의 깊이에 빠져들지 못할 경우도 있다 (소셜과 영화의 차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듯). 게다가 공연에서의 퍼포먼스라 해도 극히 일부의 밴드들을 제외하고는 기타나 베이스 등을 메고 연주하다가 잠깐 연출하는 것이 한계이다. 결국 비주얼락의 시각적 이미지는 멤버 하나하나의 캐릭터성에서 강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음악성이 결여된 공연에서의 퍼포먼스 연출은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이 아닌 ‘여러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쇼’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못할 위험이 크다.

결국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경우 생기는 부작용은 연극적인 부분이나 음악적인 부분들의 전문성이 사라져가는 것. 두 가지 모두를 잡으려다 이도 저도 아닌, ‘연극적인 요소가 뛰어나지도 않고 음악의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과거 비주얼락을 했었거나 현재 비주얼락을 하고 있는 밴드들 중 꾸준히 인기를 얻는 밴드들이 몇몇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현상은 이미 비주얼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며, 비주얼락 뮤지션들이 ‘음악성으로 승부하겠다.’는 말과 함께 탈비주얼화 해버리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비주얼락은 복합문화다. 서로 다른 두 분야가 서로 융합된 것이니만큼 전혀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새로운 것을 표현하더라도 음악인으로서의 역할을 잇는 것은 비주얼락계의 무덤을 파는 길이라고 말하고 싶다.

### 2) 내가 생각하는 비주얼락의 전망은?

내가 비주얼락을 처음 접하게 된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이제 4년이 흐른 지금까지 좁은 범위에서나마 비주얼락을 봐온 나로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글램락의 경우 60년대 후반에 등장하여 75년대에 실질적인 끝을 맞이하게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지만 비주얼락의 경우에는 80년대 후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같은 장르 안에서도 수많은 밴드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왔다. 이런 모습들이 비주얼락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온 것이고, 지금의 비주얼락이 있게 한 것이다.

물론 지금 현재 비주얼락은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름 있던 비주얼 그룹들이 모두 해체하거나 탈비주얼화함으로써 비주얼락의 계보를 잇는 그룹은 얼마 되지 않고, 그것마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언더의 밴드들이 대부분이다. 혹자는 지금 비주얼락은 가망이 없다고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버텨온 비주얼락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엑스의 화려한 출발은 뒤로 갈수록 '창의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실험적인 뮤지션들은 결코 그들의 걸음을 제자리에 놓지 않았다. 특히 말리스 미제르의 독특한 공연방식은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엮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뒤를 이어 디르양그레이와 플라스틱 트리 등의 새로운 밴드들이 출현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엑스보다는 이 두 밴드가 더욱 마음에 든다. 플라스틱 트리의 음악은 일본어가 아니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독특한, 일본 특유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디르의



분장은 다른 어느 그룹들을 봐도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이들의 음악에는 이미 일본 고유의 색채가 깃들여 있는 것이다. 디르는 비주얼 계를 떠났지만 새로운 밴드가 디르의 공백을 메워 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비주얼락 그룹들이 자신들 고유의 색을 잊지만 않는다면 비주얼락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 3. 결 론

#### 1) 말하고자 하는 것

사실 처음에 이런 장르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단

지 비주얼락이라고 해서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달라는 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점이다. 비주얼락 하는 애들은 남자 녀석이 얼굴에 화장 떡칠이나 하고 괜히 모자라는 음악성을 감추려고 과장되게 몸을 움직인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들의 비주얼은 당당하다. 타인의 눈길을 끌기 위해 비주얼락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들의 음악의 허점을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대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음악에 맞도록 컨셉을 맞춰 왔다. 지금 우리가 비주얼락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많이 굳어 있다. 엑스나 디르 같은 밴드를 보면 ‘저 사람들 이상해’라는 반응이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입으로는 세대 차이를 외치면서도 그 혼한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얼마나 멋진 발상인가. 음악을 자신의 몸 전체로 표현한다는 것이. 비주얼은 이들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이므로, 이 논문을 통해 비주얼락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면 한다.

## 2) 논문을 쓰고 나서

사실 이 분야는 관심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었다. 그런데 3학년, 검정고시를 치고 나서 논문을 까맣게 잊어버려서 결국 머릿속이 백지화된 상태에서 논문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자주 찾던 사이트 2곳이 문을 닫아 버린 데다가 비주얼락에 대한 책자도 흔하지 않아서 결국 모든 자료를 각 밴드 팬 페이지들과 네이버 지식검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큰 그룹들 위주로만 조사가 가능했다. 논문을 써 놓고 보니 이건 무슨 논문인지 설명문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게으른 탓도 있겠지만 마지막 3~4일간 정말 힘들었다. 졸업을 하더라도 이런 경험들은 꼭 잊지 못할 것 같다.

바쁘실 텐데도 제천까지 내려오셔서 지도해주시던 인섭쌤, 항상 옆에서 논문 진행상황을 물어봐 주시고 챙겨 주시던 태쌤, 우리 학년 담임으로서 많이 걱정하시셨을 텐데 매일 밤 야간작업하는 우리들에게 먹을 거 가져다주시며 격려해주시던 손쌤과 미리쌤. 그 외에 우리학교 모든 선생님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반 친구들에게 모두 수고했다는 한 마디 하고 싶다.

# 「내가 만드는, 우리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



— 장인혜

1988년 11월 27일생

별자리 / 사수자리

혈액형 / RH+AB형

종교 / 천주교

가족관계 / 부모님, 나, 남동생

학력 / 새마을유치원 - 성화유치원 - 병설유치원

- 산청초등학교 - 간디청소년학교

별명 / 인짱, 짱이네, 인봉, 장봉, 장인봉, 다모, 꽃분

취미&특기 / 책 제목 보기, 샤워 빨리하기, 말 빨리하기, 컴퓨터 깨작대기,

사부님 담배 못 피시게 하기, 알 수 없는 말하기,

캐쉬백 모으기, 인터넷쇼핑몰 들락날락거리기.

소속 / 안티프라민, 역사사랑, 옷 만들기, 슈팅스타, 2003년 2학기학생회,

C.C(Couple cutter), 3학년 곰반, 양궁싸부 제자모임.

좌우명 / 이웃을 사랑하라(;).

# 목차

- 0. 이 졸업 작품을 하게 된 계기
- 1. 졸업사진첩이란?
  - 1) 사진첩과 졸업사진첩의 유래, 역사
  - 2) 졸업사진첩의 중요성
- 2. 간디학교의 특성을 살린 졸업사진첩의 편집방향
  - 1) 기존사진첩과의 차별성
  - 2) 편집의 원칙과 방향
- 3. 졸업사진첩을 만들자
  - 1) 졸업사진첩 디자인, 제작과정
    - ㄱ) CD사진첩 디자인과 제작과정
    - ㄴ) 책자사진첩 디자인과 제작과정
- 4. 결론
  - 1) 졸업사진첩을 만든 느낀 점
  - 2) 앞으로 제작상의 과제

## 0. 이 졸업 작품을 하게 된 계기

졸업사진첩,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것이다. 이 졸업사진첩을 보며, 옛날 한 추억들을 고스란히 떠올리게 하고, 친구들과 사진을 보며 얼마나 변했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누곤 한다.

하지만, 우리학교에서는 졸업사진첩이 없다. 3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잊지 못할 추억이 많지만, 정작 그런 추억들을 간직할 수 있는 사진첩이 없어서 이런 추억들을 간직 하려면 벽에 붙여진 대자보에 이름을 쓰고 사진을 사서 간직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일부 추억들만 간직 하게 돼 버렸다. 졸업을 하고도 학교에 자주 찾아오는 편이지만, 졸업 후 가진 추억이라고는 사진 몇 장과 가슴속에 간직한 기억들에 불과했다. 졸업을 앞둔 나로서는 사진 많이 사들걸 이라는 아쉬움과 우리학년의 졸업사진첩은 뭔가 다르길 바랐다.

기존의 졸업사진첩은 다 같았다. 얼굴만 크게 박아놓은 증명사진과 여러 행사 때의 단체사진 몇 장 실린 것 외에는 실린 게 없었다.

요즘은 CD로 제작하기도 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편집이나 내용 구성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차츰 나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반복되는 졸업사진첩이 아닌, 간디학교 특성을 살린 우리만의 새로운 사진첩을 만들어 볼 것이다. 간디학교에 다니면서 입학식부터 오리엔테이션, 기숙사 생활, 수업이야기, 단합대회, 체험학습, 물놀이 까지 여러 가지의 추억거리들을 실어,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색다른 사진첩을 만드는 것이 이 졸업 작품의 목적이다.

## 1. 졸업사진첩이란?

### 1) 사진첩과 졸업사진첩의 유래, 역사

사진첩의 기원은 고대 로마의 집정관(執政官)의 이름이나 의사록(議事錄)을 기록하는 흰색 석판에서 유래하며, 어원은 흰색을 의미하는 라틴어 ‘albus’ 이다. 모양이나 크기는 용도나 기호에 따라 다양하지만, 4절판 · 6절판 · 8절판 · 캐비닛판 따위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지는 종이 · 천 · 가죽 등 간단한 것으로부터 호화로운 것까지 있고, 장정(裝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금박 · 은박까지 한 고급품도 있다. 대지(臺地)는 흑 · 백색 이외에 연한 색에서 짙은 색에 이르기까지 취미와 용도에 따라 다양하다.

졸업사진첩은 정확히 언제라고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광복 후 전쟁이 끝나고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광복이 되기 전에는 그냥 학급사진으로만 실었지만 과학과 문명이 발전해 나가면서 광복이 되고 정부를 잡은 뒤 전쟁이 끝나고 그다음 학교가 생기고 학생수도 늘면서 1960년경에 생긴 것이다.

사진첩은 당초에는 사진을 정리해 붙여서 파손과 분실을 방지하여 오래 보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특수 접착제를 바른 대지에 투명한 비닐을 덮고 그 사이에 사진을 끼워 넣어, 사진의 넣고 빼거나 배치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편리한 사진첩이 많이 사용된다.

일반 사진첩도 변해 가면서 졸업사진첩도 CD로 제작하기도 하고, 인터넷상에서 졸업사진첩을 보여주는 무료 ‘온라인 졸업앨범’ 서비스가 있기도 하고 동창 끼리 연락할 수 있는 졸업사진첩 주소록의 전화번호를 평생 번호로 만들기도 한다.

## 2) 졸업사진첩의 중요성

언제 어디서나 보고 싶은 동창,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졸업사진첩이다. 일상생활에 지루함을 느낄 때면 먼지 가득한 책장 속을 뒤져서 옛 시절의 아련한 기억을 살려보곤 한다.

“이때 이 아이가 이랬었는데” 이런 옛 시절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 잃어버렸던 졸업사진첩을 다시 찾는 사람도 많다.

졸업사진첩을 보며 추억을 다시 그리는 일, 그것이 졸업사진첩이 가진 특징인 것 같다. 다른 사진첩에서도 그런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학창시절의 추억만큼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또 있을까?

## 2. 간디학교의 특성을 살린 졸업사진첩의 편집방향

### 1) 기존사진첩과의 차별성

간디학교하면 떠오르는 단어, 자유. 내가 만든 졸업사진첩은 바로 이 자유로움을 표현할 것이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나만의 방법으로 우리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행사 사진과 증명사진만이 압도적인 기존의 졸업사진첩이 딱딱함을 준다면 내가 만드는 간디학교의 졸업사진첩은 정리되어 있는 사진들이 아니라, 수업 때의 모습, 노는 모습, 단합대회·소풍 때의 평소 모습들과 자연스러운 모습들로 보는 사람의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2) 편집의 원칙과 방향

졸업사진첩은 구성부터 다르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책자사진첩과 CD사진첩의 각각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같이 사진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사진정렬 방법은 기존의 독사진 학급사진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준비를 했다. 정렬 방법으로는,

① 사람별	② 주제별	③ 시간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사진</li> <li>- 중간 정도 사진</li> <li>- 개인사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li> <li>- 단합대회, 소풍</li> <li>- 행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년별</li> <li>- 학기별</li> </ul>

이렇게 분류를 나누어봤다.

첫 번째 분류는 사람 수에 따라 분류를 해 놓은 것이다. 단체보고 싶으면 단체만 보면 되고, 개인사진을 보고 싶다면 보면 되는 게 이 분류의 장점이다. 두 번째 분류를 보면 주제별로 인데, 무엇을 했을 때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세 번째 분류는 시간별이다.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이때 무엇을 했는지 순서대로 차례차례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 세 분류 중에서 정한 분류는 ②번 주제별로 하되, ③번 시간별 순으로 한다는 것이다. 시간별로 하게 된다면, 사진첩은 시간별대로 하게 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주제별로 해서 짝 짜인 느낌이 아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생각이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접 그 추억을 느낀 사람이 보며 느낄 수 있는 사진첩, 그런 사진첩을 만들기 위함이다.

## 3. 졸업사진첩 디자인

졸업사진첩 구성은 일반형식과 다르지 않게 책자사진첩으로 하려다, 뭔가 색다른 점을 줘야겠다고 해서 CD사진첩을 하려는데 CD사진첩을 할 경우 사진첩을 볼 때마다 컴퓨터를 켜야 한다는 번거로움을 생각해서,



이렇게 구성해봤다. 언젠가 펼쳐 볼 수 있는 기존의 졸업사진첩과 동영상등 컴퓨터에서 실행시켜 볼 수 있는 CD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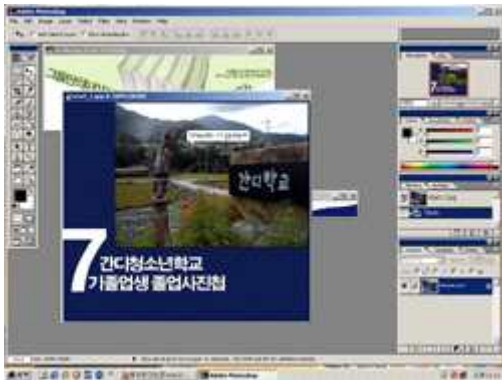
졸업사진첩의 정석을 밟고 있는 책자사진첩을 바꿔 줄 CD로 제작된 사진첩, 컴퓨터로 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 CD를 보완할 책자사진첩. 이 두 개를 통합하여 만들기로 했다. 사진첩 크기는 너무 커서 부담스러웠던 사진첩을 부담 없게 일반 책 크기와 비슷하게 할 계획이다.

#### ㄱ) CD사진첩 디자인과 제작 과정

자료 수집은 내가 보관한 사진들과 친구들의 사진들, 학교, 여러 곳들에서 모았다. 친구들이 찍어둔 것, 그때그때를 추억하기 위해 찍어둔 것들 등 여러 가지 곳에서 사진들을 모으게 되었다.

사진정렬은 그때 상황에 따라 분류를 나누어 편집·수정했다. 사진정렬은 앞에서 이야기 했던 대로 정렬방법이다.

CD사진첩은 링크를 해서 원하는 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처음 CD사진첩에 필요한 사진들은 포토샵 작업했다.



② 나모에서 전에 작업했던 사진들을 넣고, 틀에 맞게 짜 넣었다. 그리고 링크를 연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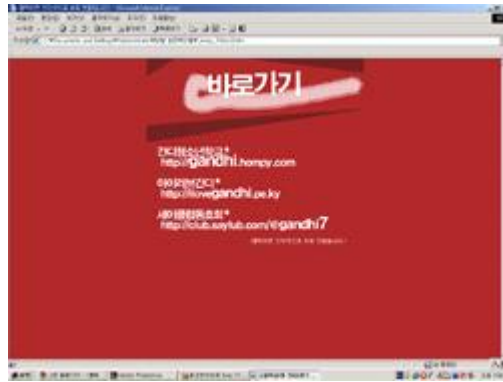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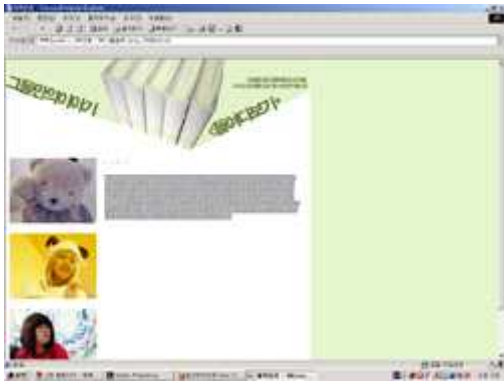
- CD사진첩



(메인)



(사진)



(소개)

## ㄴ) 책자사진첩의 디자인과 제작과정

책자사진첩의 크기는 보통 문제집 크기 정도인 539X737 pixel. 책자디자인은 처음이라 다른 책들을 많이 보고해서 디자인을 정했다. CD사진첩에서 넣었던 사진보다 수가 적고, 많이 볼 수 있었던 사진들을 중심으로 한다. 기존에 있던 책자사진첩처럼 증명사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찍힌 사진, 개인사진들을 넣을 계획이다.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CD사진첩과 같이 포토샵 디자인을 토대로 작업을 했다.



② 옆에 그림과 같이, 주제를 붙이고 주제에 맞는 사진들을 집어넣었다.

아직 완성되지 못했지만, 구체적인 구성까지 거의 다 정해놓은 상태이다.

#### 4. 결론

##### 1) 졸업사진첩을 만든 느낀 점

작년 졸업생들 논문집을 만들면서 태 썸과 함께 이야기 했을 때 졸업사진첩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받았다. 그때 언니들과 함께 졸업사진첩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만들지 못했다. 너무 아쉬워서 이번 우리학년 졸업사진첩을 만들 생각으로 이 졸업 작품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다. 어떤 디자인이 좋을까 계속 생각해 보고 고민도 많이 했다. 세상에 몇 개 밖에 없는 졸업사진첩을 만든다는 생각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잘못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했다.

평소에 이런 것을 좋아하고 했는데 이번 작업을 통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이번 졸업 작품을 통해 졸업사진첩을 만들게 되어서 보람 있었다.

##### 2) 앞으로 제작상의 과제

뭔가 색다른 사진첩을 만든다고 했는데 구성부터 색다르지 못했던 것 같다. 학교만의 특색이 있어야 그 학교만의 색깔이 담긴 사진첩이 나올 것 같다. 이번 사진첩은 너무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사진첩이 그게 그거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사진첩을 그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도 몇 되지 않는다. 그냥 단지 같이 졸업한 동창들을 추억할 수 있는 책자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다. 졸업사진첩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좀더 개성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사진첩이 될 것이다.

<Special thanks to>

낳아주신 부모님, 도와주신 사부님, 이 주제를 하게 해주신 태쌤, 조언해주신 손쌤  
과 여러 쌤들, 사진 제공해주고 도와준 친구들,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준 후배·선배님  
들, 달밤에 기다려준 5호방과 친구들, 지식인 답변해주신 ert236님 모두들 감사해  
요!!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108602&cid=AD1033036743044&adflag=1>

○ 네이버 지식인 (ert236님 답변)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60101&docid=162202](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60101&docid=162202)

# 「간디학교 내 집단 따돌림 실태 및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



—김도솔

1988년 08월 15일생

혈액형 / A형

학력 / 호원초등학교(전학) - 개산초등학교(전학) - 덕현초등학교(전학) -  
개산초등학교(전학) - 방현초등학교 졸업 - 간디청소년 학교 재학 중(중3)

별명 / 토솔이

취미 / 탁구, 학교규칙어기기, 게임, 기타, 놀기

특기 / 잘 모르겠는데...

소속 / 야구동아리, 활빈당

좌우명 / 꼭 있어야 하나? 이런 거.

## 목차

### I 연구 동기

#### II 일반 학교와 간디학교의 왕따 차이점 및 심각성

- 1) 왕따에 대한 정의
- 2) 왜 이런 집단 따돌림 문제가 이 사회의 문제가 되었을까?
- 3) 일반학교와 간디학교의 왕따 문화의 차이 및 심각성

#### III 설문지를 통한 자료 분석

##### - 간디학교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 발생원인 분석 및 유형

1. 설문조사 결과 및 나의 생각
2. 일반적인 집단 따돌림의 유형
  - 1)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아이 (가해자)
  - 2)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 (피해자)
    - 1- 혼자 잘난 아이 유형
    - 2- 힘이 센 아이 유형
    - 3- 장애를 가진 아이 유형
    - 4- 분위기를 모르는 아이 유형
    - 5- 한번 큰 실수를 해서 이미지가 나빠지는 아이 유형
3. 간디학교의 집단 따돌림 발생원인 및 유형
4. 집단 따돌림 경험자들의 느낌들
  - 1) 가해자들의 느낌
  - 2) 피해자들의 느낌
  - 3) 제 3자들의 느낌
  - 4) 연구자의 느낌

#### V 모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및 나의 제안

#### VI 마치는 글

- 1) 이 논문을 끝마치며...
- 2)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 I. 연구 동기

이 논문 주제를 정해준 것은 작년 졸업생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3년간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전혀 논문 주제로 이런 걸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졸업생 형이 한번 말해주면서 논문을 통해서 우리학교에 심각성을 우리학교 쌤들과 학생들에게 한번 알려주면 어떻겠냐고 그러기에 아주 좋아서 이 논문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간디학교에서 3년간 생활해 오며 적잖은 집단따돌림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었고 무언가 구심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우리 간디학교에서도 일반 학교에서도 존재하는 왕따가 있으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왕따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학교 철학이 사랑과 자발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나에겐 충격으로 다가왔고, 졸업하기 전에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은 알겠지만 가해자는 자기가 왕따를 시키는 건지 그냥 자기만족 장난인지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한 점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에 대해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현대사회에 독자들이 많아서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이 익숙 칠 않은 것 같다. 혼자만 살다보니 자신만을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 공동체 생활이 힘들어지고, 자신만을 알고 남과 어울리는 것에 익숙치 않다 보니 왕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디학교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태도를 가르쳐주고 피해자의 아픔을 모두가 인식하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교우관계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 지금보다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학교발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 II. 일반 학교와 간디학교의 왕따 차이점 및 심각성

여기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왕따의 인식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왕따의 정의

를 말하여 주려고 합니다. 또 이 왕따 문제가 왜 이렇게 사회의 문제가 되었는지와 일반학교와 우리 간디학교의 집단 따돌림(왕따)의 차이점을 알아보려 합니다.

일반학교들의 자료는 인터넷이나 책에 적혀 있는 일반학교 학생들의 사례를 제가 보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설문조사지 결과를 보면서 차이점을 냈습니다. 제가 직접 가 봐서 설문조사도 못하고 직접 보지도 못해서 그렇게 심각한 게 실감이 나질 않은군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간디학교의 집단 따돌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져 있는지 자세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왕따에 대한 정의

집단 따돌림의 정의: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나 소수를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보고 하는 말이다.

왕따라는 말은 학생들이 쓰는 은어로 이런 집단 따돌림을 심하게 당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 2) 왜 이런 집단 따돌림 문제가 이 사회의 문제가 되었을까?

그것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이에요.

왕따를 심하게 당해서 정신분열로 인한 자살행위, 정신병자가 되어서 한 인간을 망쳐놓기 때문이죠. 이런 일은 학교뿐만 아니라 군대, 직장 등 사회에 다양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왕따는 위협형, 강제형, 조롱형, 소외형 등 여러 가지 상태로 나타내며 정신적·신체적·물질적 피해와 폭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는 이것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왕따 문제가 사회 구성원 모두 이 일을 인권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간디학교 학생들 또한, 왕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논문의 필요성과 목적은 이곳에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알도록 아는 사람은 더 잘 알도록 해야 됩니다.

### 3) 일반학교와 간디학교의 왕따 문화의 차이 및 심각성

일반학교에서는 은따나 왕따인 학생들이 따돌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공동체 학교이자 기숙사 학교여서 은따나 왕따인 학생들이 따돌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없습니다.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괴롭히는 학생들,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학생들과 같이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어디를 가나 은따나 왕따인 학생은 우리학교에서 따돌림을 피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간디학교는 일반학교에서 많이 존재하는 그런 왕따가 아니라 은따인 것 같아요. 은따는 왕따같이 특정한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이고 무관심하게 그 학생을 신경 안 쓰고 은근히 그 학생을 따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일반학교와는 달리 신체 폭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학교에서도 신체적 폭력이 약간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가해자들은 그냥 장난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 3자들이나 피해자들은 정말 심각하다고 보죠.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장난인줄 알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일은 그냥 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 즐기는 사람도 꽤나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식구총회 안건으로 올리기도 하죠.

물리적 폭력은 제가 이번 년에서는 본 적이 없군요. 하지만 작년에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 중3 형 한명이 문제가 되었지만 단순히 기숙사 안에서 그냥 이려고 저러다가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식구총회까지 심각하게 올라간 일이 없었죠.

간디인들도 신고정신을 가져야겠습니다. 항상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심한 장난이다, 피해자에게 마음에 상처를 내겠다, 피해자가 굉장히 괴롭겠다, 등 이런 생각이 들면 한번 올려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폭력만 폭력인가요? 확실히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은 언어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언어적 폭력도 금지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간디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욕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어폭력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일반학교에서 쓰는 신체 폭력을 쓰지 못하고 언어폭력만을 쓰다 보니 오히려 안 좋게도 그 쪽으로 폭력이 발달한거 같네요. 또 하나 우리학교 학생들은 일반학교 학생들의 비해서 뒷담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항상 학생들은 육체적 폭력보다 정신적 폭력으로 마음에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따돌림의 대상이 된 학생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은 거의 다 언어폭력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생활해야 하는 만큼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항상 같이 생활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 학교의 집단 따돌림을 보다 일단 은따나 왕따 이 두 개 중 어느 것도 우리 학교의 철학과는 맞질 않습니다.

우리 학교의 철학은 사랑과 자발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서로 믿음이 없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서로

를 식구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하는데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감싸주기는커녕 같이 따돌리고 뒤에서 욕한다는 것은 없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학교는 자율성과 기숙사의 협동을 중시하는데 집단 따돌림이 됩니까? 간디학교 철학과는 거리가 멀고 집단 따돌림은 당하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대안교육의 터전에서 배우고 있지만 집단 따돌림 같은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대안적 교육이 아닌 학생들을 풀어놓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안 교육의 참된 의미는 지식적인 것 보다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조사지의 결과를 보면 우리 학교에서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다가 학교를 나가 버린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우리 학교 내에 따돌림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한 개인이지만 그 개인의 의사와 감정 인격 등 무시당하는 자체가 너무나 괴롭고 슬픈 것 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학생에게 계속해서 의사와 감정 인격 등이 무시당하다 보면 아이는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따돌림으로 남은 후유증 등이 남아서 사람을 계속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사람을 망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학교에서는 꽤거리와 꽤거리 사이의 갈등 그리고 아니면 꽤거리와 한 개인에 갈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학교에선 개인과 개인의 갈등은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꽤거리에 끼려고 하는데 그 꽤거리에서는 그 아무개를 마음에 안 들어서 끼워주는 척 하면서 따돌린다든지 장난을 친다든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꽤거리와 꽤거리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이 꽤거리가 갈리는 문제는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맞는 아이들과 놀려고 하기 때문에 꽤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거리와 꽤거리끼리는 웬만한 성격들은 맞지만 서로의 장점이나 단점은 모르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성격이 조금은 맞지만 많이는 안 맞기 때문에 서로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서로의 트러블이나 서로 짜증나는 점이 살다보면 몇 번은 일어날 겁니다. 이때의 문제인데 이때 서로의 갈등을 안 좋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따돌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단이 한 개인을 괴롭히는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서로 뒷담을 깐다든지 심한 집단의 말싸움을 한다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자신들이 속해있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는 집단에서 버림받더라도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과 주로 놀기 때문에 다른 집단의 일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학교에서는 은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아는 때는 피해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보통 친구관계에 민감한 아이들은 자신의 말이 몇 번 흔히들 씹힌다고 하죠? 그렇게 몇 번 씹히거나 그러면 자신이 따 당하거나 그 친구에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착각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따를 당하면 재빨리 알아차리고 자신이 애들에게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을 받아들일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잠시 동안의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면은 자신이 따 당하는 건지도 모르고 계속 그 아이들과 어울리며 다니며 계속해서 무시당합니다. 이러다 어찌다가 아는 아이도 있고 또는 따돌리는 집단에 아이가 계속 따라다니면 귀찮으니까 직접적으로 그 애에게 따돌려진다는 걸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아이와 유일하게 친한 단짝 친구가 있다면 먼저 눈치 채 다음 따돌려진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도와줄 때도 있을 겁니다.

### III. 설문지를 통한 자료 분석

#### - 간디학교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 발생원인 분석 및 유형

여기서는 설문조사지의 결과 및 나의 생각이나 느낀 점들을 이야기 해보고, 일반적인 집단 따돌림의 유형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에 관련되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통해서 간디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집단 따돌림 발생 원인과 유형들을 알아보고, 간디학교 학생들은 살아오면서 어떤 집단 따돌림을 경험해 봤는지, 그리고 그 입장에서 느낌이 어떠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설문조사 결과 및 나의 생각

설문조사지는 간디학교 학생들 전체의 78%가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 중에 설문지 제 1문항 집단 따돌림 경험자에서 간디학교 학생들 중에 왕따를 시키는 가해자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34%가 나왔고, 집단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는 34%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수가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피해자나 가해자들이 적은 느낌은 나에게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에서 제 3의 인물이었던 사람들이 42%가 나왔습니다. 즉, 설문 조사지를 작성한 우리학교 학생들 전체의 78% 전부가 집단 따돌림 경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지 문항 제 2번 “간디학교에도 집단 따돌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집단 따돌림이 존재한다고 작성한 학생들이 70%나 나왔습니다.

또 집단 따돌림 같은 건 없다고 작성해준 학생들은 5%밖에 안 나왔고, 모르겠다고 응답해 준 학생들이 25%였습니다.

또 설문조사지 제 3문항 “간디학교에 존재하는 간디학교 왕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서는 매우 심각하다가 20%, 심각하다가 55%, 그리고 그저 그렇다가 8%, 그럴 수도 있다가 7%가 나왔고, 때로는 필요하다가 10%가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 집단 따돌림은 심각한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단 따돌림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의견 중에 “피해자가 너무 싫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잘못을 알았으면 좋겠다” 등... 피해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충격적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지 문항 제 3번 “간디학교와 일반학교의 왕따 문화의 차이점이 있다?”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작성한 학생들이 63%, 그리고 일반학교와 똑같다고 응답한 학생이 20%, 모르겠다고 17%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지 문항 제 4번 “간디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없애기 캠페인 같은 것을 한다면 하시겠습니까?”에서는 ‘당연히 하자’라고 응답한 학생은 66%, 하든 말든 나랑은 관계 없다(모르겠다)에서는 2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자고 작성해준 학생은 8%로 하자고 작성해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자고 응답한 학생들 의견 중에는 해봤자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불에 기름을 뿌리는 짓이다 등 별로 안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 2. 일반적인 집단 따돌림의 유형

왕따라는 것이 생기려면 이 두 유형이 있어야지만 발생할 수 있다. 즉,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따돌림을 시키는 학생이 그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집단 내에서 어떠한 유형들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1)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학생 (가해자)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학생들을 보면 옛과 비슷하다. 반에서 힘이 세고 세력 있는 학생들이 맘에 들지 않는 학생을 자신의 힘을 과시하듯이 다른 학생들을 따돌린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단 따돌림을 시키면서 어떤 쾌감을 느낀다고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말에 따라 한 학생을 따돌리는 것이 그들에게겐 뭔지 모를 쾌감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몇몇의 학생일 뿐이지 왕따를 시키는 학생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왕따를 시키면서도 그 학생을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다. 하지만 왕따 당하는 학생을 도와주면 자기도 왕따가 될까 봐 따돌림시키는

것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은 따돌림 당하는 학생이 정해져 있긴 있지만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자기방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걸 예전부터 내려오는 일반적인 전통식이다. 요즘 들어 차이가 있다면 자기가 왕따를 경험해봤던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왕따를 경험한 아이들은 복수심에서 왕따를 시킨다고 한다.

## 2)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피해자)

내가 생각하기에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을 크게 다섯 분류될 수 있다.

### -1- 혼자 잘난 학생 유형

학생들 간의 대화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이른바 '재수', '싸가지'라 일컫는 학생들이다. 혼자 잘난 척하는 학생, 남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학생,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잘난 학생, 남을 무시하는 등 이러한 학생들이 주로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

이 같은 학생들은 과거에서부터 꼭 왕따의 첫 번째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런 학생들은 항상 자기 자신만이 잘난 줄 아는 그런 아이이다.

이 아이는 자신이 왕따를 당해도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자신만 잘되면 되는 줄 학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것이다. 나중에 자신이 왕따가 되었음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친구들이 자신을 떠난 상태일 것이다. 항상 자신만을 높이고 남을 낮추었기 때문이다. 이미 알고 난 뒤 남에게 잘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남들은 “아 이 녀석이 우릴 가지고 노는구나.” 하고 더욱더 따돌림이 심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거의 모두에게 고립되어 있다면 이 학생은 학교에 오기가 싫을 것이다.

### -2- 힘이 센 학생 유형

남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은 거의 힘이 센 아이들이다. 이들은 왕따를 시키기만 할 것 같으나 반대로 은연중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의 대부분이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들은 대부분 이들이 속한 작은 집단이 있고, 이 집단에서의 일만을 신경 쓰기 때문에 왕따에 대한 생각은 잘 갖지 않는 편이다. 그렇다고 힘이 센 학생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를 걱정하고

고민해서 자기의 성격을 고치려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 -3- 장애를 가진 학생 유형

몸이 불편하거나 정상적이지 못한 학생들이다. 이들이 최근에 새롭게 나타난 왕따의 한 대상이다. 요즘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인 자들이 왕따를 당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경우는 담임교사나 일부의 친구들에 의해 제지를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만일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이 지속된다면, 이 학생들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지도 모른 채 상처만 받아야 할 것이다.

#### -4- 분위기를 모르는 학생 유형

여러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그 집단의 분위기나 흐름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분위기를 모르는 학생들이다. 이런 학생들은 맨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과 사이가 좋으나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짜증나하는 학생들이다. 목소리를 아무 데서나 높인다든지 얄전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도 철이 늦게 드는 학생들이다. 문제는 분위기의 흐름을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절대로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다.

#### -5- 한번 큰 실수를 해서 이미지가 나빠지는 학생 유형

이 다섯 번째 학생들은 원래 악행 같은 건 하지 않는 학생들이다. 원래는 착하고 평범하며 다른 학생들과 사이가 좋은 학생들이었지만 한번에 큰 실수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멀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멀어지면 모르는데 학생들에서 계속 소문으로 퍼지면서 이미지가 나빠지는 아이들이다. 이 학생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되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왕따 유형이다.

### 3. 간디학교의 집단 따돌림 발생원인 및 유형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우리학교에 왕따 발생 원인은 이러했다.

외모나 목소리 등 신체적 특징 때문에 놀리고 때리고 소외시킨다. 또는 그 학생이 너무 착해서 멍청해 보이기 때문에 놀리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장애가 있거나 너무 공부를 잘하거나 너무 못하거나 등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선배들의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또는 성격이 다르다고, 잘난 척을 한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왕따라기보다는 은따인 것 같다.

피해자의 성격이 사람들이 보기에 짜증나는 성격이고 그 아이가 짜증난다고 어떻게 직접적이게 할 순 없으니까 은근히 그러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고칠 점이나 그런 걸 말해 주면 좀 듣고 고쳤으면 하는데 들은 체도 안 하고 계속 가해자들 탓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 가해자들의 더 많은 미움을 사게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성격이 안 맞거나 잘 적응 못하는 성격을 가진 아이, 자기 혼자 노는 애들 그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둘 다 너무 이기적이다(모두가 조금씩은 다 그렇지만 이들은 좀 심하다).

모두가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딪치는 부분이 많다. 한번 그런 큰 잘못을 하면 그 아이의 이미지가 크게 바뀔 때가 있다. 그리고 뒷담을 계속 하다보니 애들에게 퍼져서 그 아이의 이미지가 더 나빠진다. 그렇게 되면 은따 같은 게 생겨난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같이 항상 살다보니 서로의 단점이 더욱더 잘 보이는 건 아닐까?

그리고 우리학교의 학생들은 서로가 모두 개성이 강해서 서로를 존중해 주기 보다는 다 자기 자신을 더 존중하려고 하고 자신을 낮추진 않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개성이 아닐 수도 있다. 다 자신의 자만심? 때문일 수도…….

따 당하는 학생들은 잘 놀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무슨 정신 지체아처럼 대하는 것도 보았고 아무거나 시켜 대고 결국 나는 정상인인데 너는 비정상인이다. 라는 생각이 따를 만드다고 답한 학생도 있었다.

다른 학생들과 성격이나 표현 방식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갈등이 문제인 것 같다. 예를 들면 자기는 모르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뺨는 말이 남의 기분이나 상대에 따라 짜증을 유발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집단끼리 모여서 자신들이 싫어하는 학생들을 무시하고 따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성격 탓이 가장 큰 것 같다. 그리고 학생들이 따 시키는 패거리 분위기에 따라가게 된다.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기숙사에서 지내는 시간 등 주로 교사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시간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난다. 수업시간에도 이들의 욕구와 갈등은 내연하고 있다. 교실의 자기 자리, 그리고 쉬는 시간, 자유시간, 취침시간, 기숙사 배치 등은 꼭 자신이 소속한 집단끼리 어울리려고 한다. 우리 학교는 패가 너무 많이 갈려져 있다.

그 중에는 늘 혼자 고립되어 있거나 어떤 패거리의 주의를 빙빙 곁도는 학생들이 있다. 그리고 함께 어울리면서도 집중적으로 면박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학생도 있

다. 공놀이를 하고 싶은데 붙여 주지 않고 대화에도 끼워 주지를 않는다. 이 또한 혼자서는 신이 안 나고 서글프다. 점심을 먹을 때도 과거의 친구들을 찾아 다른 자리로 옮기는 학생들도 있다.

그리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독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맞벌이가 많아지니까 혼자 사는 게 익숙한 학생들이 많아져서 우리학교 같은 공동체나 기숙사학교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익숙할 않아 공동체 생활이 더욱 힘들어 지고 자기생각만하고 남을 배려를 안 해 주니 이러한 왕따나 은따 현상 같은 게 일어나는 것 같다.

확실히 학교를 다니다 보면 서로 싫고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취미가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성격이 다르면 집단이 갈립니다. 이 집단을 어떻게 떼어낼 수도 없고 그냥 시간이 지나길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 생각에는 학년과는 상관이 없이 1,2,3학년이 전부 섞여서 집단을 만들어 노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집단이란 곳에 학년별 차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은 그런 선후배 사이를 능가해 서로 친구처럼 지내면서 꽤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년별로 왕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올 때 항상 자신들 맘에 드는 녀석만 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학년별로 항상 한 명 정도는 따돌려지는 아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논문은 주로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기숙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셔도 좋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보아왔던 것은 바로 기숙사에서 방별로 꽤거리는 드뭅니다. 보통은 예를 들어 4호방에 있던 아이가 자신이 4호방이고 친한 아이가 6호방에 있어서 그 6호방에서 놀다가 자신이 맘에 안 드는 아이를 괴롭히러 6호방아이를 꼬집습니다. 그럼 또 따돌리는 게 재밌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럼 또 6호방 아이가 같이 따돌리러 갑니다(장난을 치러). 그러면서 이제 방끼리는 아니더라도 기숙사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와 같이 솔직히 교실이나 그런 곳에서는 교사들의 눈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실에서는 그렇게까지 아이에게 장난을 못 칩니다. 심하게까지 하면 옆에서 보는 아이들이나 그런 정의로운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말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교사들의 눈에서 벗어난 기숙사 등에서 이제 이런 따돌림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기숙사는 1, 2, 3학년 모든 학년들이 모여서 선생님들의 눈이 피해지는 곳입니다. 이렇게 세 학년이 모이면 이제 두려울 게 없죠. 1학년짜리 아이는 이제 무적의 3학년

들과 같이 한다면 죄책감이 안 들 겁니다. 선배들이고 또한 경험자이며 자신들을 지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2학년들도 이제 3학년들이 지켜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3학년들은 여태까지 자신들이 계속 따돌려보았으니 재밌게 따돌리는 법, 또는 장난을 재밌게 치는 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3이니 쌤들에게 혼나도 별로 그런 감정을 가지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단지 쌤들이 자신들에게 몇 마디 한 것처럼만 들리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3학년 친구가 같이 한다면 더욱더 무서울 것이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교 집단 따돌림 유형은 성격차이 신체적 특징, 한번에 큰 오해를 사 이미지가 나빠진 학생 앞서 말한 피해자 1, 3, 5번 유형들이 많네요. 일단 성격차이로 따돌림 당하는 학생의 원인은 자신의 가치관으로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따돌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신체적 특징이나 장애를 가진 학생인데요.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웃기게 생겼다고 또는 나는 정상인데 너는 비정상이라는 생각들이 이 유형을 따돌리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들은 이 유형의 아이들에 대해서 겉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에 큰 실수로 굉장한 오해를 사는 그런 학생 유형인데 이 오해를 푸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4. 집단 따돌림 경험자들의 느낌들

##### 1) 가해자들의 느낌

가해자들의 공통적인 면과 서로의 특별한 느낌들, 충격적인 말들도 있었다. 작성한 학생 중에선 학생들을 괴롭히니까 재밌고 많은 학생들이 단체로 하니까 죄책감이 안 든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고, 화풀이는 그 학생에게 하고 한 단체에 약자 층이 목표가 되어서 별 반항 없이 즐긴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다. 어떤 학생은 따 시키는 학생이 너무 싫어서 따 시킬 때 너무 재미있었다. 등 별로 반성 같은 것은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으나 다행이도 소수 인원이었다.

그 반면에 따돌림을 안 시키면 자신도 왕따가 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할 수 없이 시켜본 학생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재미있었으나 나중에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학생을 도와주기도 했던 학생들, 또는 초등학교 때 호기심에 시켜 봤던 학생들 등

이 있다. 그리고 가해자 중에 어떤 학생은 맨 처음 시킬 때는 왕따 당하는 피해자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었는데, 나중에 당해 보니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서 다시는 자신 같은 학생들이 안 생기도록 집단 따돌림을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도 있었다.

## 2) 피해자들의 느낌

피해자 학생들의 느낌들은 따돌림을 당할 때 괴롭고 후회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학생들이 원망스러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리고 정말 학교 가기가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또 심하면 죽고 싶을 때도 있었다는 학생들과 학교에 가면 무슨 멍청하게 눈치쟁이가 되고 죄 지은 죄수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학생도 있었다.

따돌림을 안 당해 봤으면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고통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에 그런 심각한 장난들, 그리고 보복이 두려워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를 짊어지고 졸업할 때만 기다린 학생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다시 찾은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계속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 또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육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 견디기 힘들고 자신이 망가지기 가장 쉬운 지름길 같다고 한다.

이걸 보고 좀 충격이 컸다.

## 3) 제 3자들의 느낌

제 3자들이 봤을 때의 느낌들은 따돌림 시키는 것을 볼 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장난이 너무 심하다.”, “내가 약자면 그 학생들이 나도 괴롭힐까 봐 불안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불쌍하다.”, “피해자가 나랑 친해도 건들면 나도 따 당할까 봐 도와주질 못한다.”, “옆에서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우나 옆에서 보면서 은근히 즐길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약간 내 자신에 후회된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이기적이고 심각하다.”, “나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왕따가 되진 않을까 ~ 두려웠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이 싫었고 가해자들의 눈치 때문에 도와 줄 수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도 어느 정도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보고 있으면 자살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말리고 싶었지만 말이 안 통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불쌍하게 느껴졌지만 노력을 안 한 모습이 더 보기 안 좋았다.”, “피해자가 외모나 신체적으로 왕따 당하지 않고 성격으로 왕따이었다면 좀 피해자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기 싫었고 가해자들을 말리는 입장이었다. 피해자

가 상처받는 걸 보면 내 마음도 아팠다. 하지만 피해자를 위로해 주지도 못했고, 가해자들에게도 하지 말라고 말하지 못했다.” 등 이런 느낌들이 많아서 충격적이었다.

#### 4) 연구자의 느낌

저도 집단 따돌림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물론 따돌림을 시켜 보았습니다. 우리학교에 들어와서도 시켜보았으나 초등학교 시절에는 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 3자도 해보았겠죠.

일단 가해자일 때의 느낌은 처음에는 정말 그 아이가 싫어서 정말 재미있었죠... 하지만 가면 갈수록 그 아이가 점점 불쌍해지면서 제 3자 입장으로 물러나더라구요. 제 3자 입장일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애를 따 시키는 게 바로 제 친한 친구들이었고, 또한 그 애가 저랑 친하다 해도 말해봤자 웬만해서 들을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간이 지나길 기다렸어요. 그 애들이 그만할 때까지.....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죠.....

여태까지 집단 따돌림을 시켜보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간 적잖은 집단 따돌림 실태가 일어났는데. 저는 몇 달 전까지 왕따를 시키면서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옛날에 왜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왕따 문제는 우리 학교 철학에 맞질 않고 또한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갈등을 안 좋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따돌림입니다. 만 뭔가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집단 따돌림은 나중에 가서는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가해자들도 나중에 엄청난 죄책감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믿으며 살아가야하는 우리 학교에서 오히려 남을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뜨리려 하는 건 바보 같은 것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재빨리 해결해야 사람들에게 피해가 그나마 적어질 것 같습니다.

## V 모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및 나의 제안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간디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해결방안 및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교우관계 등을 다룰 것이다.

이 왕따 문제는 쉽게 잡히질 않는다. 반에서 무엇을 했고 그런 증거들을 쉽게 잡을 수가 없다. 또한 피해자도 보복이 두려워서 알리질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잡힌다 해도 책임을 피해자에게로 떠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말 중엔 “저 녀석이 너무 자기만 잘난 것 같이 잘난 척을 했고 오만을 떨었다”라는 등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세 사람만 모여도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따돌리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지금 이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이십 명의 아직 미숙한 학생들(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다면,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며, 서로에게 싫고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현상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옛날에 내가 왕따를 당했어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왕따 문제는 선불리 개입하면 안 된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해자나 피해자 그리고 제 3자 모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좀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면 만들면 되는 것이다. 공동체 놀이라든가 아니면 마음의 대화……. 그 밖에 놀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다. 바로 간디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왕따라는 것은 사람간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아 생기는 것 같은데, 갈등을 좋지 않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건 인식 문제인거 같다. 이 해결방안은 모두가 다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것 같다. 누구 한 사람만 바뀐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바로 간디인들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모두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앞서 말한 우리 학교 유형 세 가지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성격 차이의 해결 방안은 항상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서로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어 성격을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마음의 대화).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여 봐야 합니다. 또 이 문제를 더 크게 방치 해두지 말고 빨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긍정적으로 봐줘야 합니다.

항상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보여주어야 하며 상대방도 잘 알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것을 똑바로 잡아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다면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중요합

니다. 일단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잘 말 안 하던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잘 못 되었다면.. 해결하는 시간이 매우 길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문제는 가해자들의 인식 문제입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받아줘야 하고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이쪽은 가해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보통 책들을 보면 학생들의 부모님들 즉 학부모님들이 다 해결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우리 학교는 기숙사 학교여서 부모님들이 일일이 다 신경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사람의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하기 나름이죠.

이 문제를 학교 최고 학년 3학년들이 중심으로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왜 3학년들이 중심이 되냐면 기숙사나 학생들의 생활에 선생님들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중 3은 항상 중1, 2 학년들과 같이 생활하고 서로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중 3이 중심이 되어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심리적인 것이니까 아무래도 서로의 생각을 대화로 풀이해 나가면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급하게 해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말한 마디 한 마디 신중하게 그리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믿어가며 풀어 나가야 할 것 같네요.

## Ⅶ. 마치는 글

1) 이 논문을 끝마치며...

정말 힘들었다. 웬지 후련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하다. 거의 한 학기 동안 논문을 써왔는데 겨우 하루 10분만의 발표로 끝내야 하다니.....

내가 이 논문을 완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좀 더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논문을 처음 쓸 때에는 어떻게 써야할지 감도 안 잡히고 아주 답답했는데 논문 주제를 확실히 정하고 담당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고비를 간신히 넘길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여기까지 오는데 도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 논문을 이렇게 무사히 끝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논문으로 인해 집단 따돌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우리학교 아이들 모두 좋은 교우관계를 잘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

2)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인터넷 사이트>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연합 [파란] - [www.bluenetizen.org](http://www.bluenetizen.org)

○ 학교가기 싫어!!! [다음카페] - [cafe.daum.net/smillingschool](http://cafe.daum.net/smillingschool)

그리고 성실히 대답해준 간디학교 학생들과 논문을 잘 지도해 주신 이임주 선생님,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왕따 관련 책을 빌려주신 양희창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내가 논문 주제를 못 정해서 헤메일 때 논문 주제를 주었던 경우형에게 정말 고맙다.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책>

책 제목: 『어린 왕따 민순이』

우리 교육이 펴낸 이 책들은 (주)가우디가 지난해 말 실시한 ‘왕따 해결 방안 현상 공모’가 바탕이 됐다. 공모에는 학부모, 교사, 공무원, 학생, 의사 등 각계각층에서 1884명이 응모해 피해 사례와 해결책을 다채롭게 제시했다

발행년 월일: 1995년 5월달 출시

「김진명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진실과 허구」



- 이수연

1988년 04월 05일 창원에서 출생  
가족관계 / 부모님, 언니, 남동생  
혈액형 / A형에서 B형으로 바뀜, RH+B형  
학력 / 성심유치원 - 웅남초등학교 - 간디중학교  
종교 / 카톨릭  
별명 / 국모  
취미&특기 / 책 읽기, 피아노 치기, 오카리나 불기  
소속 / 역사사랑, 학생회

# 김진명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진실과 허구

이 수 연

## 본론 목차

0. 시작하는 말
  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소설 줄거리
    2. 소설의 시대적 배경과 현실적 배경
    3. 인물의 행적과 사건(사실과 허구)
    4. 작가의 의도
  5. 소설의 허구성이 가지는 기능과 『무궁화...』의 리얼리티
    6. 소설에서의 허구성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7. 논문을 마치며
- 부록 : 작가 인터뷰 내용  
부록 가상 시나리오

## 0. 시작하는 말

한때 베스트셀러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번쯤 읽어보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를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내가 이 소설을 중1때 읽었는데 허구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화를 소재로 한 이 소설은 당시 나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오게 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어느 부분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소설로서의 허구인지 알고 싶었고, 그때부터 내가 중3이 되면 이 주제로 논문을 써 보아야겠다고 생각하여 지금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픽션이라는 조건을 단 이 책의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여 왜곡되게 이해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한다. 더 심각한 건 그걸 독자들에게 하나의 정보인 양 던져 준다는 것이다. 이에 나는 이 소설에서 진실과 허구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이렇게 역사적 사실에 허구를 덧붙인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 책을 읽는 학생들에게 소설에서의 진실과 허구를 알리고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도록 하겠다.

### 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소설의 내용 줄거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기자 권순범이 10년 전 범상치 않은 남자를 베일에 싸인 사람들의 사주로 죽였다는 강과 두목의 얘기를 듣고 배후 인물을 추적하면서 시작된다. 권순범은 그 남자가 핵물리학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왜 살해를 당해야 했는지 의구심을 품게 된다. 그러던 중 박정희 대통령이 핵물리학자를 아꼈고, 그를 통해 미국의 저지 속에서도 끝까지 핵을 개발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권순범은 사건을 추적하던 끝에 현재의 대통령에게 사건의 전모를 고하게 되고, 청와대 뒤뜰에서 코끼리상에 숨겨진 플루토늄을 발견하여 남북한 핵 합작을 이루는 데 공헌한다.

### 2. 소설의 시대적 배경과 현실적 배경

#### 1) 소설속의 시대적 배경, 1970년대

1970년대의 국제정세를 보면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과 상해공동성명

을 통한 미국의 새로운 아세아 정책 선언 발표 및 주한미군 감축과 남북한교차승인안에 따른 두 개의 한국 정책으로 동북아정세의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1974년 대통령 영부인 저격사건과 땅굴의 발견, 1975년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와 1976년 북한의 관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남북공동성명과 적십자 회담에 의한 북한과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과 남북간 민간경제교류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주변정세의 변화를 이용한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증가되어 자주국방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과 평화 정착과 안정된 정권 유지를 명목으로 유신체제가 나타났으며, 통일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다.<sup>13)</sup>

또한 국내적으로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한 조국근대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수출주도형 성장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산업화의 진행에 따른 사회변화 활동도 동시에 나타났는바 전 국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새마을 운동과 반독재 민주화 투쟁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농민운동과 노동운동도 결과적으로 강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핵과 관련하여 1970년대는 어떠했는지 알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다. 먼저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발언을 하고 거기에서 불안을 느낀 한국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

참고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독자적 핵능력 개발 발언’에 관한 기사를 다룬 신문을 살펴보자.

박 대통령이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지와 회견에서 밝힌 ‘한국의 핵능력 개발 보유’ 천명은 인도차이나 반도 공산화 사태 후 격변하는 아시아 정세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비취 지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수개월 동안 미국 유력지들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몇몇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 이란,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파키스탄, 남아공화국 등이 핵무기 개발 의향을 가진 나라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신문들은 또한 이들 핵무기 개발 의향 협의를 가진 나라들에 대한 핵연료와 핵장치를 공급하는 데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프랑스가 한국에 제공한 핵연료 재처리 기술 등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 유력지들의 핵 확산 우려 지적이 빈번해지고 있는 데 대해 박 대통령이 밝힌 ‘핵개발 능력 보유’ 천명은 기술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한

13)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대한민국 정치’

국의 자신과 성장을 과시한 것으로 일단 받아들일 수 있다. 기술적 차원에서 볼 때 핵확산 금지조약 체결(68년) 후에도 핵 기술의 보편화에 힘입어 핵 잠재국들이 늘어났으며, 그 중 수개국은 특정한 정치적 동기를 갖고 핵무기 개발 의향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박 대통령의 ‘핵개발 능력 보유’ 천명도 인도차이나 반도 공산화 사태 후 조성된 한반도의 정세 긴박이란 특정한 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유의해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인도차이나 반도 공산화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대외공약에 대한 많은 나라들의 불신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국제적 상황에서 한국의 대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한국의 강력하고 또 독자적인 정치적 입장을 선언한 것이 박 대통령의 핵개발능력 보유 천명의 입장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전후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우방동맹국들은 미국의 핵우산보호에 자국의 안보를 맡겨 왔었다. 그러나 인도차이나 반도 공산화 사태 후 그 같은 미국 핵우산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면서 독자적 안보를 서둘게 되었고, 그것이 독자적 핵개발로 발전할 가능성을 강력히 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핵개발 능력 보유 천명은 따라서 한미 관계 강화의 새로운 자극 요인이 된 것으로 전망된다.<sup>14)</sup>

소설에서의 1970년대 배경은 실제 현실의 배경과 비슷하다. 소설에서 나타나 있는 시대적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를 보자.

‘…… 이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에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이미 미군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사일부대는 이미 철수를 끝낸 단계이고, 지상군 17000명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월남에서와 같이 한국이 공산화되어도 좋다는 전제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한국에 남아 있는 핵도 철수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문제입니다. …… 언제인가는 이런 때가 오리라는 생각으로 이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독자적으로 유도탄개발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략 ….’

위의 친서를 통해 이 소설의 배경도 실제 배경과 비슷하게 미군철수가 시작되고, 박정희 정부가 핵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다.

## 2) 소설이 쓰인 현실적 배경, 1990년대

이 소설이 나온 1990년대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선언<sup>15)</sup>을 했다. 그 내

14) ‘미 핵우산 철거되면 한국 독자적 핵능력 개발’ / 경향신문, 1975. 6. 13 <김기주 기자>

15) ‘한반도의 비핵화선언’, <[www.osan.hs.kr](http://www.osan.hs.kr)>

용은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 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 공동 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 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6. 이 공동 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교환한 날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비핵화선언은 강대국들이 자신들만 힘을 누리자 해서 핵이 없는 나라나, 핵 개발의 기미가 보이는 나라에게 협박을 해서 핵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비핵화선언을 한 것은 우리나라가 평화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반핵주의여서도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 배후에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장거리 미사일만 개발해도 미국의 통제 하에 500km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은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핵을 가지면 군사력이 강해지고, 아무 나라나 핵보유국에는 함부로 하지 못한다. 핵을 가진 나라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긴 해도 핵을 서로 날리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전쟁 억제력은 가지지만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나 죽고 너 죽자라는 심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라크가 핵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이 핵에 민감한 이유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패권주의를 누리고 행패를 부리는데, 다른 나라들이 핵을 가지게 된다면 자신들에게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만약 전 세계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의 미국의 패권주의는 어느 정도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작가도 이 시점에서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의 비핵화선언에 분노

하여 있을 때, 이휘소 박사가 생각났고 이휘소의 삶과 죽음을 한반도의 국민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썼다고 한다.

### 3. 인물의 행적과 사건(사실과 허구)

#### 1) 소설 속의 주인공, 이휘소는 과연 누구인가?

인물의 행적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소설 속의 주인공 이휘소가 실제로 어떠한 인물인지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한국 과학자들 중에서 가장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물리학자인 이휘소(1935 ~ 1977)는 1935년 1월 1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경기 중·고등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재학 중 검정고시에 합격, 서울대학교 화공과에 입학하였으나, 양자 역학에 더 흥미를 느껴, 재학 중에 1954년 미국 오하이오 주의 마이애미 대학으로 유학하여 물리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졸업 후 피츠버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였으나, 피츠버그 대학원의 시드니 메시 코프(Sidney Menshikov)는 이휘소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를 펜실베이니아 대학으로 보냈으며 아브러햄 클라인(Abraham Klein)의 지도 아래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4년 이휘소와 그의 스승 클라인은 자발적 대칭 붕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서 미시 세계에서 질량의 존재를 규명하는 힉스 메커니즘의 등장에 기여했다.

전기양자역학이란 빛과 물질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여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이해하는 이론인데, 1967년 미국의 와인버그와 살람 교수는 이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방사선 동위 원소에서 방출되는  $\alpha$  및  $\beta$ 선을 이해하는 데까지 연장시키는 전약(電弱) 이론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계산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없어서 각광을 받지 못하였다. 이 때 이휘소가 '계산이 가능한 질량이 있는 벡터 중간자 이론- 힉스 현상의 섭동 이론'(1972)이라는 논문에서, 이 이론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증명을 제시하였다. 결국 와인버그와 살람은 1979년 이 전자기력과 전기약력을 통일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

또 하나의 그의 중요한 업적은 C쿼크의 질량을 계산하여 매혹 입자의 발견에 공헌을 한 것이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과 프린스턴 고등연구원에서 몇 년간 일하다가 1966년 양체닝(Chen Ning Yang)의 초청으로 스톤 부룩의 뉴욕주립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그 뒤 페르미 연구소의 이론물리부장으로 취임하여 세계 물리학자 가운데 제 1인자로 떠올랐으나, 안타깝게도 1977년 6월 16일 미국의 어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로 42세의 젊은 나이에 아깝게 사망하였다<sup>16)</sup>

## 2) 소설 속에서 사실이 허구화 된 인물의 행적 및 사건

### ① 물리학자인가, 핵물리학자인가?

소설 속에서는 그가 핵물리학자로 박정희 정권 때 핵무기 개발 비밀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하고 핵개발 프로젝트에 없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이휘소 박사의 제자 고려대 강주상 교수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보면 그는 실제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고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고 한다.

그가 맨해튼 프로젝트의 원조 \*엔리코 페르미를 기념하여 만든 페르미 입자 가속기 연구소에서 일했다는 것을 두고 핵물리학자라고 단정짓는데, 그의 전공은 ‘고에너지 소립자 이론 물리학’으로 핵물리학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핵 개발이 모두 이휘소 박사의 손에 달려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다른 나라의 핵개발 과정을 보더라도 핵을 개발한다는 것은 수백 명의 핵공학자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수백 억의 돈이 들어간 실험 기구들이 있어야지 개발을 하나마나 하는 것이다. 이론적인 것은 혼자서도 논문으로 쓰거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핵을 개발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휘소 박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혼자서 핵을 개발한다는 것이나 나라의 운명이 이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하기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작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들도 핵무기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 전문지식처럼 쓸 수 있듯, 이휘소 박사가 자신의 전공이 아니라고 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우스운 논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 \* 엔리코 페르미

1901년 9월 29일 로마에서 출생하였다. 1918년 피사의 왕립고등사범학교에 들어가 학위를 얻고, 피팅겐대학교의 M.보른, 레이덴대학교의 P.에렌페스트에게 배웠으며, 1924년 피렌체대학교 역학·수학 강사, 1926년 로마대학교 이론물리학 교수가 되었다.

처음에는 상대성이론(相對性理論)을 연구하였으나 로마대학교로 옮길 무렵부터 원자의 양자론(量子論)을 연구, 1926년 P.A.M. 디랙과는 별도로 ‘페르미통계(페르미-디랙통계)’를 제안하였고, 분광학을 연구하였다.

원자핵 연구로 옮겨 1934년 β붕괴이론을 제출, 복사이론(輻射理論)과 W.파울리의 중성미자가설을 결합시켰다. 이것은 일본의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의 핵력(核力) 연구의 선구적 업적으로 볼 수 있다.

줄리오 퀴리 등에 의해 인공방사능이 발견되자(1934), 중성자에 의한 거의 모든 원소의 핵변환(核變換) 가능성을 시사, 느린중성자[緩中性子]에 의한 핵변환을 행하여 많은 방사성동위원소를 만들어 초(超)

16) ‘이휘소’, [phys.kyungwon.ac.kr/~science](http://phys.kyungwon.ac.kr/~science)

우라늄원소 및 핵분열 연구의 길을 열었다. 1938년 중성자에 의한 인공방사능 연구의 업적으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이 무렵 무솔리니에 의한 파시즘의 압박을 의식, 노벨상 수상을 기회로 미국에 망명,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되었으며, 그 곳에서 중성자 연구에 전념하였다. O.한 등이 핵분열을 발견하자, 2차 중성자의 방사 및 연쇄반응의 가능성을 예견하였고, 1942년 시카고대학 야금연구소로 옮겨 대형 원자로를 건설, 제어된 연쇄반응을 실현시켜, 핵에너지 해방이라는 업적을 쌓았다. 그 후 맨해튼계획에 참가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시카고대학 교수로 있었다. 원자로 이론, 우주선(宇宙線) 이론, 가속기에 의한 중간자 연구 등 이론과 실험 양면에 걸친 연구를 계속하던 중 53세에 암(癌)으로 죽었다.<sup>17)</sup>

## ② 사망 장소와 국립묘지

소설에서는 이휘소가 미국의 배후에 의해 조작된 교통사고로 북악스카이웨이에서 사망했다고 나온다. 북악스카이웨이는 서울 북악산 능선을 따라 자하문(紫霞門)에서 정릉(貞陵) 아리랑고개에 이르는 관광도로로 실제로 있는 곳이다. 소설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북악스카이웨이에는 베어라는 레스토랑이 70년대부터 있었다고 하고, 팔각정과 신윤미가 마담으로 있는 삼원각이라는 곳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휘소와 삼원각이 연관되어 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이 곳이 소설에서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으로 나오는데, 그 때에는 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라서 그런지 지금은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변화되어서 사람들이 드라이브 코스로 많이 다닌다고 한다.

실제로 이휘소는 콜로라도 주의 연구정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미국의 I-80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작가는 이 사고마저 의문의 사고가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미국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사고이며, 이 박사 가족들은 모두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인정을 했다.

그리고 소설에서는 이휘소 박사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고 설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공원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고 한다. 이 소설이 한창 유행할 때 몇몇 독자들이 국립묘지로 이휘소 묘지에 참배하러 온 적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이휘소는 1968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죽을 때까지 이를 유지했으며, 지금도 ‘벤자민 리’라는 미국명으로 묻혀 있는 것이다.

## ③ 풀리지 않는 죽음의 의문

이휘소 박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다. 작가 쪽과 이휘소 측근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17) ‘엔리코 페르미’,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일리노이 주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당시의 사고 기록을 보자.

세계 최대 입자가속기가 있는 페르미 연구소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일리노이 주의 80번 고속도로. 길은 한산했지만 안개가 끼고 노면이 젖어 있었다.

시속 88km 속도로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갑자기 소리를 냈다. 그러나 운전사는 타이어 펑크를 알아채지 못했다. 차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바로잡으려 했으나, 이번엔 왼쪽으로 미끄러졌다. 중앙분리대를 넘은 트레일러는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사람은 이휘소 박사였다. 병원에 옮겨졌을 때 그는 이미 숨져 있었다. 1977년 6월 16일 오후 1시 22분에 일어난 일이었다.<sup>18)</sup>

이휘소 측근들 중 이휘소 박사의 유일한 제자인 강주상 교수의 말을 들어보면 교통사고 직후 한국인 물리학자들이 여러 명 모여 사고 경위를 따졌지만 의문사의 가능성은 당시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77년 당시의 교통사고는 왕복 4차선 고속도로의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에서 튀어나온 바퀴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와 이 박사의 차에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일어난 것으로, 고의적 살해로는 보기 어렵고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 선언으로 한미 긴장이 고조됐을 때 교통사고가 났다는 점을 들어 일부 잡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말>지의 오연호 기자가 작가 김씨와 재미 언론인 조광동 씨와 함께 1993년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77년 당시의 사고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 쓴 기사에는 이 박사가 트럭에서 튀어나온 바퀴에 부딪혀 죽은 것이 아니라 대형 트럭 자체와 정면으로 충돌해 숨졌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 기사는 사고 현장의 관할청인 일리노이 주의 경찰청 기록을 인용해 가해트럭이 높이 170cm인 중앙분리대를 넘어와 이 박사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실을 들어 사고를 가장한 살해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 이 박사 어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이 박사가 사고 나기 1, 2년 전 쯤 ‘지금은 아직 귀국할 때가 아니다’라는 답신을 박 대통령에게 보낸 적이 있음을 들어 강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sup>19)</sup>

#### ④ 이휘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

18) ‘무궁화 꽃이 새로 핍니다’ 한겨레, 1997. 3. 24 / <신동호 기자>

19) ‘단순 사고냐, 음모 살해냐 / 이휘소 박사 ‘죽음의 비밀’ 논란’ 한겨레, 1993. 10. 19 / <최재봉 기자>

### 가. 이휘소 박사의 일기문과 박정희 대통령의 편지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라면 정말 이휘소와 박 대통령은 무슨 관계였을까?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소설에서의 이휘소 박사의 일기문이나 박대통령의 편지를 보면 말이다.

이 소설에서 독자들의 심금을 가장 울리는 것은 1977년 3월 20에 쓴 것으로 나오는 이휘소 박사(소설 속 이름 이용후)가 노벨상과 조국의 핵개발을 두고 고뇌하는 내용을 담은 일기문이다.

‘조국에 핵개발의 원리를 제공하는 게 조국을 지키는 데 힘이 된다면... 하늘이여, 무엇이 참다운 삶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안내해 주소서.’

이휘소 박사를 절세의 애국자로 존경하는 이들에게는 섭섭한 일이지만 위와 같은 일기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 내용들은 1989년 작가 공석하 씨가 쓴 <핵물리학자 이휘소>에 처음 등장하는데 모두 창작의 산물일 뿐이다. 이후 이러한 조작들이 김진명 씨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도 그대로 개재되어 문제가 된 것이다. 1994년 7월자 <신동아>에 실린 ‘인간 이휘소는 이렇게 날조되었다’라는 기사에서 공씨는 “1986년에 처음 이 박사에게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3년 후 통일교가 발간하는 월간지 <광장>에서 원고 청탁을 받았다. 그 때 그 동안 구상하던 것을 단 하루만에 써 넘겼다.”라고 실토했다. 이어 그는 “루머가 있었고, 이 박사의 모친께 여쭙본 결과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만하다고 생각되어 대강 이런 내용일 것이라 상상하고 만들어 냈다.”라고 고백했다.<sup>20)</sup>

또 1977년 3월 18일에 썼다고 나와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편지를 보자

“...중략... 이 박사님, 조국을 건져 주십시오. 1974년엔가 박사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저는 ‘이 박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60만 대군이라도 동원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심입니다.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 박사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 중략..... 이 박사님께서 조국을 위해, 한 번 일어서 주십시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 앞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감히 이렇게 박사님께 애원합니다. 박사님의 건강과 가운이 길이 빛나기를 엿드려 비 옵니다.”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이 박사에게 거의 사정에 가까운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다. ‘60만 대군이라도 동원하겠다. 라는 문구는 가히 압도적이어서 『무궁화...』의 광고

20) ‘개인에 대한 왜곡과 어설픈 민족주의의 잘못된 만남’, <김재엽> / 우국충정의 일기와 박 대통령의 서신은 없었다.

문구에도 쓰였는데, 공씨는 이러한 부분조차 자신의 창작이라고 인정했다. ‘60만 대군…’이라는 문구는 이동원 전 외무부장관의 회고록 <대통령을 그리며>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휘소 박사에 대한 조작된 신화가 얼마나 팽배한지 보여 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21)</sup>

## 나. 이휘소 박사와 박 대통령의 관계

소설 『무궁화…』에 따르면 이휘소 박사는 유신체제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박 대통령의 부름에 응했으며, 박 대통령으로부터 유신 포기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이휘소 박사가 핵개발의 비밀이 담긴 필름을 숨기기 위해 특수 수술로 다리뼈에 숨겨서 가져오려 했으며, 그가 1977년 아깝게 숨지자 60일 만에 훈장이 추서된 것 역시 박 대통령이 이 박사에게 대해 큰 기대를 걸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들 역시 사실이 아니다.<sup>22)</sup>

강주상 교수의 기고문을 보면 이박사의 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은 예전부터 강했다고 한다. 1971년 여름에 당시 한국과 학원 정근모 부원장(전 과학기술처장관)과 이 박사 간에는 한국에서 물리학 하계 대학원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형태는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잘 정착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 박사는 한국에서 독재체제가 강화되는 것을 보고 귀국 강연 요청을 이런 정치적 이유로 거절하였다고 한다. 이박사가 1972년 1월 6일 정근모 박사에게 보낸 편지를 보자.

“... 위수령 발동, 학생운동 탄압 등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로 우리가 추진해 온 하계 대학원 행사를 재고하게 됩니다. 하계 대학원의 책임을 맡게 된다면 내가 한국의 현 정권과 그 억압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걱정이 됩니다. 참으로 난처한 입장입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과학 발전을 위하여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들에 실망되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에서 이에 관한 초청이라도 수락하지 않을 결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국민의 장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sup>23)</sup>

또 강경식 교수(물리학)는 7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 이 박사에게 모국 방문 학술대

21) '개인의 대한 왜곡과 어설픈 민족주의의 잘못된 만남', <김재엽> / 우국충정의 일기와 박 대통령의 서신은 없었다.

22) '개인의 대한 왜곡과 어설픈 민족주의의 잘못된 만남', <김재엽> / 이 박사와 박대통령은 상국

23) 이휘소 <강주상> / 핵무기 개발 참여설

회 참여를 권유했다가 “나는 군사독재와 상대 안 한다.”며 잘라 말해 무안당했던 경험담을 전한다. 이 정도만 봐도 이 박사가 얼마나 유신체제에 반대했는지 알 수 있다.

73년 이 박사는 일본의 초청을 받아 도쿄에 와 한국에 올 기회가 있었지만, 보복당할 것을 우려해 어머니를 일본으로 오라고 해서 만나기도 했다. 이박사의 어머니인 박순희 씨는 “유신에 반대하기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없다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밝힌다. 24)

이 박사의 제자 강주상 교수가 전하는 이야기는 유신 이후에 이 박사는 외국인 동료들 대하기가 부끄럽다고 가까운 한국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한국정부를 더욱 비판하는 자세였다고 한다. 이 박사가 도미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에 귀국했던 것은 1974년 9월 1개월뿐이다. 이것도 박대통령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AID)의 서울대 자연과학계열의 대학원과정 육성프로그램을 위한 5백만 달러 원조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 평가 일원으로 서이다. 그의 유신혐오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한국정부는 미워도 한국의 과학발전을 위해서 도와야 한다는 한국인 동료 과학자들의 조언 때문에 고국 방문에 마지못해 응했다고 한다.

공석하 씨는 이 방문 때 이박사가 박 대통령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한 달 동안 매일 함께 다녔던 서울대 김제완(물리학) 교수는 “이 박사는 한 달 내내 한남동 미 8군 영내에서 숙식을 했다. 평가단 일행과 함께 민관식 교육부장관을 만난 것 외에 고위관리는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한다.25)

다리뼈 속의 원자탄 설계도는 『핵물리학자 이휘소』에서는 1977년 5월 15일 일본 동경에서 핵개발 필름을 숨기기 위해 특수수술을 받았다고 묘사되어 있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미국에 있던 한국인 핵물리학자가 다리의 뼈 속에 원자탄 설계도를 감춰서 한국으로 왔다’라는 잠시 떠돌다 사라진 소문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도 공씨의 창작의 산물이다.

그 시기에 이 박사는 동경에는 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진명 씨는 1994년 3월 28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2학년 시절이었던 1977년 이 박사의 부고 기사를 읽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물리학자가 다리뼈 속에 원자폭탄 설계도를 넣어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설이 떠돌기도 했다.”라고 말해 이 묘사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취약성을 자인한 셈이 되었다.

24) ‘무궁화 꽃이 새로 피니다’, 한겨레, 1997. 3. 24/ <신동호 기자>

25) ‘무궁화 꽃이 새로 피니다’, 한겨레, 1997. 3. 24 / <신동호 기자>

두 소설은 이박사가 죽은 지 불과 60일 만에 훈장이 추서된 것을 그와 박대통령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묘사하지만 역시 사실이 아니다. 그가 훈장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긴 재미 한인 과학자협회가 당시 한국물리학회 간사장이었던 조병하 박사(작고)와 논의했으며, ‘교포학자도 고국의 이름을 빛냈음을 후학에 알려 자극제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 박사의 건의로 한국물리학회가 정부에 훈장추서를 건의한 것이다.

한때 정부와 당시 물리학회 내에서는 이박사가 한국 내에서 봉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 반응을 보일 정도였으니 그의 훈장 추서는 어렵게 이뤄진 것이었다. 또한 그 훈장은 3등급인 동백장이었다. 만 일 박 대통령이 60만 대군으로 보호하겠다고 할 정도로 아끼는 인물이었으면 1등급인 무궁화훈장이나 최소한 모란장을 내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게다가 그 훈장조차 미망인 마리안느 여사가 "평소 유신체제를 반대해 온 남편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독재정권이 제공하는 여행경비를 받으며 독재정권이 주는 훈장을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했으며 결국 이 박사의 노모가 받게 된 것이다. 26)

#### ⑤ 아폴로 계획

소설에서 보면 미국의 중대한 우주개발 프로젝트인 아폴로 계획이 있는데 모든 점검이 끝나고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자신의 분야도 아닌 이 휘소 박사가 아주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해 낸다. 이 부분은 작가가 창작한 부분이다. 작가가 이런 설정을 한 이유는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의 중대한 우주계획에 우리나라 핵물리학자가 문제를 지적하게 하여 이 박사의 천재성을 알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한다.

### 4. 작가의 의도

#### 1) 왜 핵물리학자인가?

이휘소의 전공은 ‘고에너지 소립자 이론물리학’이다. 물리학에 문외한인 사람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박사의 수제자들은 핵물리학과 이론물리학의 차이를 엄격히 구분 짓는다. 그러나 내가 고에너지 소립자 이론물리학에서 찾아보니 고에너지 물리학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핵물리학의 한 분야로 오늘날에는 소립자의성질이나 구조를 밝

26) ‘개인에 대한 왜곡과 어설픈 민족주의의 잘못된 만남’ <김재엽> / 이 박사와 박 대통령은 상극

히는 소립자 물리학을 고에너지 물리학이라 하며, 원자핵의 성질이나 구조를 밝히는 학문을 좁은 뜻으로 핵물리학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소립자 물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 \*소립자 물리학

소립자가 나타내는 정적(靜的)인 성질이나 그 들뜬 상태[勵起狀態]를 이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소립자의 내부구조 분석과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새로운 법칙이 발견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러한 통일적·체계적인 이론은 현재 소립자론으로서 발전되고 있다. 한편 소립자는 원자핵 다음가는 기본적인 운동형태이며, 따라서 원자핵 연구에 필요하였던 수백만 eV 이상의 고에너지 현상이 주요 대상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고에너지물리학이라는 분야가 소립자물리학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소립자물리학은 당초에는 핵물리학과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연구되었다. 전자쌍(電子雙)의 생성·소멸 현상이 실험적으로 확인되어 소립자의 내부자유도(內部自由度)의 하나로서의 전자스핀 이론이 제출된 것은 1920년대 말이었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에서의 소립자물리학의 발전은 핵력(核力)에 관한 실험적 연구, 중간자론(中間子論)의 건설이 실시된 1930년대에 시작되었다. 우주선(宇宙線)이 고에너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무대이며 1940년대까지 많은 새 입자가 우주선 속에서 먼저 발견되었는데, 1950년대가 되어 입자가속기의 에너지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상의 실험실에서 거의 대부분의 소립자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sup>27)</sup>

소립자 물리학이 당초엔 핵물리학과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연구되었다는 것에서 작가가 이휘소 박사를 핵물리학자로 단정 지은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이론물리학과 핵물리학은 다르다고 하지만 이휘소 박사를 핵물리학자라고 오해한 것 같다. 그리고 엔리코 페르미도 맨 처음에는 이론물리학의 교수로 시작했다는 것과 더구나 이휘소 박사가 페르미 연구소에서 일했다는 것도 이런 판단에 한몫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이 소설을 쓸 때쯤에 북핵문제와 우리나라의 비핵화선언이 불거져 있을 때여서 소설의 주인공을 핵물리학자라고 설정하여 핵을 주제로 한 소설을 쓰려고 했던 것 같다. 내 추측은 이러한데 작가의 인터뷰에서 작가는 이휘소 박사가 이론물리학자였지만 요즘 대학생들도 핵 제조법에 대하여 정확히 쓸 수 있는데 이휘소 박사라고 전공이 아니라고 몰랐을 리 없다고 하면서, 또 이휘소 박사의 어머니와 아들의 증언을 들어 핵무기 제조에 참여했을 거라고 주장한다.

## 2) 부인과의 사별, 외동딸.

이 소설을 읽다가 보면 팔각정이란 고급요정이 나오는데 거기의 신윤미가 ‘박사님은 부인과 사별 뒤...’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 실제로 이휘소는 외동딸이 아니라 중국계 싱가포르 출신인 마리안느(심만칭) 여사와 1962년 5월 7

27) ‘소립자 물리학’,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

일 결혼을 하여 아들 제퍼리(한국명 천)와 딸 아이린(한국명 안)을 두었다.

여기서 작가가 이휘소 박사가 부인과 사별을 했다고 설정한 이유는 고급요정에 정치계 소문들이 많을 것이고, 또 그 신윤미라는 의문의 여인을 통해서 좀더 재미있고 신비롭게 이휘소 박사에 대한 사건들을 풀어내려고 그렇게 설정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외동딸이라고 설정한 것은, 나름대로 추측하건대 자식이 둘인 것보다 한 명인 것이 가지는 일종의 희소가치인 것 같다. 만약 이휘소의 죽음이 의문의 사고라고 가정할 때, 자식이 하나라면 더욱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깊게 알고 싶어 할 테고,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게 되는 상황이 설정될 것 같다.

### 3)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작가의 울분이 들어 있는 이 소설은 과거 일본의 침략에 대한 보복은 아니다.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힘을 좀 더 경제 개발에 돌리면서도 국방력을 강하게 하려면 핵을 가져야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진명 씨는 『한반도』라는 소설의 작가 후기에서 “때로 나는 허구의 소설이 발표된 사실보다 훨씬 진상에 가깝게 접근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다.”라고 본인의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다.

## 5. 소설의 허구성이 가지는 기능과 김진명 『무궁화...』의 리얼리티(진실성)

소설의 특징 중 제일 대표되는 특징이 진실성과 허구성이다. 난 이 둘 중에서 허구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한 역사소설이 가지는 허구성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소설은 현실과 비슷하면서 현실 그 자체는 아니다. 소설이 현실의 반영이나 모방이든, 수용에 의한 창조이든 소설은 현실과는 다른 질서의 세계이다. 최재서는 『문학과 인생』에서 소설의 세계가 현실 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현실의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란히 있다고 말했다. 소설의 그것이 아무리 전기나 역사소설이라고 해도 현실일 수는 없다. 그건 작가의 상상이나 새로운 고조에 의한 가공(fiction)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소설은 현실과 방불하지만 현실 그 자체는 아니다. 여기에 소설은 현실을 바탕으로 한 상상에 의한 가공의 세계이며, 있을 수 있는 세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허구의 세계가 질서 없이 형성된 세계는 아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의한 질서의 세계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리얼리티(reality)가 있는 질서이다. 리얼리티는 소설 속의 필연적 인과 관계에의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말한다. 소설을 소

설이 되게 하는 것도 소설의 허구성에 있으며, 소설의 허구성은 리얼리티가 있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초인주의 사상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사상을 주축으로 하는 『죄와 벌』에서 주인공인 라스코리니코프는 돈 이자를 받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전당포 노파를 죽이고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몸은 매춘부이나 마음은 천사와 같은 쏘니아의 구원으로 시베리아의 형지로 떠난다. 그런데 소설이 나온 지 일주일 뒤에 모스크바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여 세인이 놀라게 된다. 그것도 소설의 허구적인 세계가 얼마나 리얼리티가 있기에 현실에서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소설의 세계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실체가 아니고, 작가의 주관적 상상에 의해 창조된 허구적인 세계이다. 따라서 현실사회의 실제 인물과 소설 속의 작중 인물은 처음부터 그 세계를 달리하고 있다. 물론 그 둘은 서로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소설을 생동하게 하는 흠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소설이 현실과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와 진실과 논리에 의해 운행되는 하나의 우주이기 때문이다. 소설이 어디까지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일상적인 현실과 다른 허구적인 현실이며, 그 허구적인 현실이 리얼리티가 획득될 때 그 세계는 생동하고 살아 있는 현실이 되는 것이다. 『죄와 벌』에서 쏘니아나, 라스코리니코프는 작품 속에서 허구적인 질서 속에서 살아 있는 인물이요, 실제 현실이 아니다. 모스크바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긴 것은 허구적인 진실이 실제적 현실로 변용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sup>28)</sup>

김진명 소설에서의 허구성을 보면, 사실에 허구성을 잘 첨가하여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휘소 박사에 대한 신비함,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잘 살리는 반면, 많이 왜곡이 된 것도 있어 소설의 인물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하나의 설을 신빙성 있는 사실로 믿게 하는 면도 있다.

이 소설에서 허구성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예로 미국의 아폴로 계획에서 이휘소 박사가 문제점을 지적해 내는 부분을 들 수 있다. 미국 같은 강대국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한국인이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것은, 이휘소의 천재성을 더 드러내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더 높이 평가하고, 또 그것에 독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는 것에서 작가의 의도와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부정적인 부분을 들자 하면, 이휘소가 부인과 사별했다고 설정한 것이다. 실체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묘사를 하여 이박사와 이 박사 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실제로 작가는 이 부분 때문에 이휘소 가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부정적인 부분의 대표

28) 문학동/자료통/소설/ '허구성과 리얼리티' , <[www.moonhakdong.pe.kr](http://www.moonhakdong.pe.kr)>

적인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 같은 것도 이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은 양면적 결과를 나타내는 데 소설적인 진실이라는 점에서는 그다지 높  
이 평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작가의 의도가 너무 분명해서 민족적 문제에 대한 작  
가의 발언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실을 소설로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에 대  
해서는 소홀했다. 사실을 허구화 시킬 때 사실에 근거한 것과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데 작가의 상상력 부분이 의도에 너무 맞추어져 있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작가가 이휘소 박사를 핵물리학자라고 설정한 것도 그냥 물리학자 그대로 받아  
들일 수도 있는 것인데 자신이 핵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에 핵물리학자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로 된 것도 독자들이 작가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보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더 보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가설이 실제의 인물과 사건들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제시되고 있기 때문  
에 실제의 사실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고 그래서 독자들은 이에 더욱 신뢰를 가지게  
된다.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세계적인 한국인 물리학자를 비참하게 살  
해했다는 작가의 주장을 사실로 믿게 되는 독자들은 미국의 음모에 분노를 느끼며 핵  
주권을 갖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회한을 느끼고 미국에 배타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 또 조국의 핵개발을 위해 애쓰다 불의의 죽음을 당한 이 박사를 영웅으  
로 생각하게 된다. 작가의 뜻대로 허구의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소설의 특성이 하  
나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sup>29)</sup>

## 6. 소설에서의 허구성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렇게 위에서 말한 것처럼 허구성이 강한 소설은 독자들의 사고방식에도 큰 영향  
을 끼칠 수 있다. 핵을 주제로 삼은 김진명 씨의 소설과 이현세 씨의 만화가 젊은 독  
자들의 국제 정세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놓은 기사를 비교하여 살펴  
보자.

김진명 씨의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이현세씨의 만화 『남벌』.

소설과 만화로 각각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이 두 작품은 모두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  
당사국간의 힘겨루기에서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고 그 와중에 북한이 남한의 협  
력자가 된다는 줄거리를 갖고 있다.

최근 이 두 편의 인기문화상품이 젊은 독자들의 국제정세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김기정 교수가 이 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

---

29) 김진명 소설의 위험성<?>

학논집'(26집)에서 제기해 관심을 끈다.

김 교수는 연세대와 이화여대 재학생 3백 명을 대상으로 이 두 도서의 구독 여부, 남북한의 핵 보유,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 일본관과 미국관 등을 설문조사 해 『무궁화...』와 『남별』을 읽은 응답자와 읽지 않은 응답자간의 차이를 분석했다. 응답자중 어느 책도 읽지 않은 학생은 20.9%였으며 두 책을 모두 읽은 응답자는 27.5%, 『무궁화...』만 읽은 응답자는 35.3%, 『남별』만 읽은 응답자는 16.3%였다. 조사 결과 구독자와 비구독자간에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은 적절했다’라는 문항에 대해 소설을 읽은 응답자 중 73.8%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비구독자 중 부정적인 응답자는 40.6%였다. 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한국이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책을 읽은 응답자는 47.6%가 ‘그렇다’라고 답한 반면 비구독자는 25%만이 긍정했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핵개발을 해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설문에 대해서도 두 종의 책을 다 읽은 응답자는 59.5%가 ‘그래야 한다’고 답한 반면 안 읽은 응답자는 21.9%만이 이에 찬성해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응답자들의 일본관을 점검한 문항 중 ‘일본은 한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해에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무력 침공할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책을 읽은 응답자는 57.1%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읽지 않은 응답자 중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18.8%에 불과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김 교수는 ‘젊은 독자들의 배외주의적인 민족주의 감성과 작가가 제시한 가상의 해법구도가 결합해 마치 현실적인 대안인 것처럼 인식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여론이 외교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제정치를 다루는 대중소설이 국민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sup>30)</sup>

이렇게 책 한권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문제 인식 정도를 변경시킬 수도 있으며, 또한 소설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그 존재 가치나 위상이 흔들려 보이는 텔레비전이라는 대중매체는 매체 간 대체가 일어날 것이라는 여러 학자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일상의 하나로 굳건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만큼 대중매체가 가지는 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들은 텔레비전에서 그려지는 내용들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결정할 만큼 사회화 과정에서 대중매체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역사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보면 시청자들이 영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에 더욱더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나 문제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는 더욱 사건에 대해 정확한 고증을 거쳐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항상 많이 지적되는

30) ‘젊은 층 국제정세 인식 바뀌’ / 연세대 김기정 교수 분석, 동아일보, 1996. 6. 4, <정은령 기자>

프로그램은 대부분 역사적 사실을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대중들과 만나는 드라마일 것이다. 특히 높은 시청률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더욱 그렇다.

최근에 논쟁거리가 되는 프로그램은 SBS의 드라마 ‘야인시대’이다. 지금까지 역사적 소재를 다룬 드라마에서 사실과 허구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이지만, 최근 드라마 ‘야인시대’는 ‘특정 인물 미화’라는 부분까지 겹쳐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드라마라는 속성상 일정부분 가공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야인시대’가 그려내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은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는 대중, 특히 아직 역사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야인시대’가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단순히 드라마의 허구적인 특성만을 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높은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역사적 사실도 뒤집을 수 있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다. 최근에는 ‘4·3사건’의 발단을 다루면서 제주도 4·3사건을 왜곡하고, 주인공 김두한의 활약상뿐 아니라 친일파라고 일컬어지는 인물들을 영웅으로 미화시키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제작진은 ‘드라마는 이야기를 만드는 픽션’이기 때문에 드라마는 드라마로서 시청해달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드라마에 허용되는 재구성의 범위는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드라마는 논픽션이 아닌 픽션이다.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엮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 대상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다르다. 과거의 사건을 없다고, 혹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묘사한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올바른 지적이 있어야 한다.

‘야인시대’가 역사적 사건의 올바른 전달에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미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한 이유는 초기에 가졌던 높은 시청률과 함께 얻은 대중적인 인기 때문일 것이다.

저명한 언론인이자 학자였던 월터 리프먼(Walter Lippman)은 사람들이 가지는 매스미디어의 의존도를 “매스미디어가 대중들 머릿속의 상을 구축한다.”는 말로 설명하였다. 그만큼 미디어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방송사가 가지는 높은 인지도는 시청자들이 방송사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믿기 쉽게 만든다. 시청률을 위해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교과서의 역할을 텔레비전이 앞장서서 해서는 안 될 것이다.<sup>31)</sup>

이렇게 소설이든 드라마든 허구성이라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다고는 하지만, 허구성이 지나치면 위에서 말했듯이 역사인식이 잘 잡혀져 있지 않은 청소년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

다시 소설로 돌아와서, 지금은 이렇다고 쳐도 시간이 한 백 년쯤 지났다 해서 이렇게 역사가 거꾸로 왜곡되어도 괜찮을까? 새빨간 거짓말이 역사적 진실로 둔갑을 해도 그만이란 말인가? 북한과의 핵 씨름을 구경하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처량한 생각, 그리고 광복 뒤 조금씩 자라온 반미 의식 등이 이 소설을 잘 팔리게 했대서 뭐 잘못될 것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걱정하는 것은 1세기 뒤의 한국과학사이다. 저 소설 때문에 후세의 과학사는 이휘소를 실제 이상으로 크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이것은 역사의 왜곡일 따름이다.<sup>32)</sup>

이럴수록 허구성의 정도는 제한이 되어야 한다. 어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직 자신의 주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는 더 위험하다. 작가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과 일방적인 바람, 희망사항들이 들어간 소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허구성에 대해서는 더 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다’라는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독자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둔 소설, 또는 드라마들을 보고 작가가 생각하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 자신의 주관을 똑바로 펼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겠다.

---

31) ‘야인시대 시청률이 면죄부?’ / 경향신문, 2003. 5. 6, <이종님 문화평론가>

32) ‘소설과 역사의 왜곡’ / 문명·과학(시평), 한겨레, 1994. 9. 1, <박성래 외대 교수 과학사>

## <참 고 문 헌>

강주상, “이휘소”

김광원, “<시론>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문화일보, 2002.11.15

김기주, “미핵우산 철거되면 한국 독자적 핵능력 개발”, 경향신문, 1975. 6. 13

김재엽, “개인의 대한 왜곡과 어설픈 민족주의의 잘못된 만남”

김진명,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 2, 3」, 해냄, 1993

박건승, “이휘소 박사 잘못 알려져 있다.”, 대한매일, 1994. 1. 20

박성래, “소설과 역사의 왜곡 / 문명. 과학(시평)”, 한겨레, 1994.9.1

신동호, “무궁화 꽃이 새로 피니다.”, 한겨레, 1997. 3. 24

이종남, “‘야인시대’ 시청률이 면죄부?”, 경향신문, 2003. 5. 6

정은령, “젊은층 국제정세인식 바뀌/연세대 김기정 교수 분석”, 동아일보, 1996. 6. 3

최보식,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작가 김진명 씨(만나봅시다)”, 조선일보,  
1993. 9. 13

최재봉, “단순사고냐, 음모살해냐/이휘소 박사 ‘죽음의 비밀’ 논란”, 한겨레,  
1997. 10. 19

최재봉,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자 김진명 씨(화요일에 만난사람)”, 한겨레,  
1994. 6. 7

인터넷자료, “김진명 소설의 위험성”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대한민국 정치“

<http://www.naver.com>(네이버 백과사전), “엔리코 페르미”

<http://www.naver.com>(네이버 백과사전), “소립자 물리학”

<http://www.osan.hs.kr> , “한반도의 비핵화선언“

<http://phys.kyungwon.ac.kr/~science>, “이휘소“

<http://www.moonhaktong.pe.kr>, “허구성과 리얼리티“, 문학동 자료통 소설

[/guno.pe.kr/03classdata/classdata9\\_8.htm](/guno.pe.kr/03classdata/classdata9_8.htm), “박정희 시대를 다시 본다 / 무궁화 꽃은 피었는가?”

## 7. 논문을 마치며

소설에서 허구성은 그 가치를 더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 덧붙여진 허구 속에서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독자들에게도 더욱 큰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김두한은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미화되어 있다. 실제로는 해방 후 좌익계열 청년들에게 백색테러를 자행하고 정치계에 붙어 청부살인으로 사람을 수십 명 죽였지만 드라마에서는 영웅처럼 묘사된다. 하지만 이렇게 사실이 왜곡되었던 것도, 이 드라마의 기획의도에 따라 그런 것인데, 작가가 나타내려고 했던 건 ‘이렇게 썩어 빠진 세상, 그냥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이 주먹이라도 써서 갈아 치워보자’ 하는 생각을 표현하려 했을 것이다.

그리고 장희빈, 삼국지들의 유명한 작품들도 살펴보면 똑같은 소재를 가진 글임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가치관에 따라 매우 다르게 해설이 되고, 다른 방향에서 설정이 된다.

40여 년 동안 7편의 영화, 드라마로 해석된 장희빈을 보면 옛날에 나왔던 장희빈과 지금 방영하고 있는 장희빈의 인물 성격은 조금씩 다르다. 예전엔 그냥 숙종과 인현왕후의 사랑을 질투하는 악녀, 요부로 묘사되었다면, 요즘의 장희빈은 시대적 아픔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장희빈이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었던, 그냥 악녀가 아니라, 권력 상승을 꿈꾸고, 야심만만한 당찬 여자로 표현이 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물이 묘사되는 것도 다르고, 또, 여기에는 작가의 가치관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삼국지를 보아도 이문열이 그리는 유비와 고우영이 그리는 유비는 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꿈이 크고 결심한 것은 꼭 이루는 인물로 묘사되지만 하나는 약간 어눌하고 덜 떨어지는 쪼다로 묘사된다.

이렇게 소설에서는 같은 이야기라도 작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된다. 작가의 세계관, 가치관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대부분 작품의 결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김진명의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진실과 허구에 대해 분석하고 비교, 대조해 보았지만 이 논문의 목적이 이 소설의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떤 허구가 가미되었는가에 대한 규명만이 목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 소설이 역사소설이 아닌 일반소설로서 대중에게 자리매김 되고 있는 만큼, 중요한 것은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작가의 가치관과 시대 관, 그리고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숨은 의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을 읽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너무 진실과 허구의 규명에 얽매이지 말고, 작가가 긴장감과 관심,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설정한 인물의 행적과 사건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라는 것이다. 허구와 현실세계의 경계선을 마음껏 넘나들며 적극적으로 감상하다 보면 좋은 글을 읽은 재미가 더해지고, 이 소설에 대한 이해도 한결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

## ☀ 후기

이 논문은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절망, 피로, 막막함, 압박함, 수면 부족 등등 모든 불쾌지수의 요인들은 다 주었다. 그러나 쓰는 과정에서 소설에서의 진실과 허구란 무엇인가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많은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또 다 쓰고 나서의 후련한 마음은 오랜만에 맛보는 것이었다. 비록 힘든 논문 작업이었지만 보람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얻는 느낌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논문을 쓰면서 우리 반 애들과 더욱 친해진 것 같아 논문 쓴 것에 그리 싫지만은 않다. 그러나 3년 뒤 고등학교에서의 논문을 생각하니 다시 압박해져 온다. 아무튼 한 번쯤은 겪어봐도 괜찮은 경험이었다.

## ☀ 고마운 분들

먼저 내 논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신 재화 아버님과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 담당 선생님이신 희숙쌤과 조언을 많이 해주신 희창쌤과 태쌤, 우리의 영원한 담임, 손쌤과 맛있는 밤참을 만들어 주신 미리쌤, 수정작업을 도와주신 혜상쌤 감사합니다. 또, 이 소설책을 주신 재훈이 아버님과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신 김진명 씨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우리 반 친구들, 1, 2학년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 □ 부록 I

### 《김진명 작가 인터뷰 녹취록》

작가의 집필 의도에 보다 근원적 접근을 위하여, 비록 내가 추측하는 정도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소설의 작가인 김진명 씨를 직접 만나 인터뷰했다.

인터뷰 시간 : 10월 6일 11시 30분~12시 30분

인터뷰 장소 : 제천 세명 대학교 김진명 씨 연구실.

나 : 이 소설이 쓰인 지도 이제 거의 10년이나 되었네요. 결과적으로 사실에 의거한 부분이 많은가요, 아님 허구적인 부분이 더 많은가요?

김진명: 사실성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생각의 근거는 사실로부터 찾지... 사실만으로는 소설이 되는 것이 아니야. 사실들이 생겨난 이유, 진행되는 과정, 진행되어서 초래될 결과..., 아저씨 생각으로 조합, 거기에 작가의 사상과 주관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사실이라는 것만 조합한다면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독자들이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읽고 잘 이해하도록 허구라는 것을 동원하는 거지. 소설이 기사와 다른 것은 허구라는 장치를 쓰는 것이지. 허구를 쓰는 것은 허구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야. 수단으로 동원하지만 결국 허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작가의 진실이란 거야. 작가의 진실이라는 것은 작가에 따라 시각도 달라. 이것이라는 정답은 없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독자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고 허구를 동원하고, 작가의 생각을 종합해 놓은 것이야.

나 : 소설의 끝 부분에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핵을 투하하는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적국을 일본으로 둔 이유는 과거 역사의 인연 때문인가요?

김진명 : 과거의 역사에 대한 한풀이, 분풀이는 아니야. 그것은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 과거는 과거로서 잊지는 말되 묻어 두고, 과거에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걸 더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것이 현대인의 자세지.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상의 적국으로 설정한 이유는 일본의 과거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 수천 년 간의 있었던 일이 갑자기 단절되는 적은 잘 없어. 항상 흐름

이라는 게 있어. 관성의 법칙 같은..., 어떤 일들이 계속되어 오다가 단절되는 일은 잘 없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경계해야 된다는 측면, 또 하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일본과 한국이 지금 독도를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칠 만한 그럴 상황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지만 책에도 언급했듯이 언젠가 상황이 오면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힐 만한 불씨를 항상 가지고 있어. 그럴 시에 강대국은 어떻게 결론이 가든 크게 영향이 가지는 않아. 그런데 약소국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일본으로부터 오랫동안 침략을 당해 오고 그 피해의식이 있고 또 그 피해의식은 열등감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사실 사건이 터지면 국제정치의 현실은 아주 냉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보호해주고, 부처님이 마음을 써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 아주 냉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이 터지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손해를 보는 것이고, 또 그것이 단순히 영토주권에 대한 손상을 입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훨씬 더 열등감을 깊게 하고 치유하지 못하게끔 만들 공산이 커. 미리 대비하자 이런 뜻이야. 여기서 핵무기를 설정한 것은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이야. 일본하고 군사력 경쟁, 즉 재래식 군사력 경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힘들겠지. 그 돈을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경제발전에 쓰고 해야 되는데, 큰돈을 자꾸 미국의 무기를 사고, 젊은이들을 계속 군대에 보내고..., 그런 건 정말 올바른진 않잖아? 그렇다고 해서 국방을 포기할 순 없는 거지. 그러니깐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설정을 우리로선 할 필요가 있거든? 그 강력한 대안 중에 하나가 핵무기 일수가 있어. 핵무기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올바르지 않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남북 간에 쓸 핵무기가 아니고 주변의 이 핵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도록, 그 방편의 하나로 핵무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일본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아 그런 상황을 설정해 본 거야. 그런 이후에는 그것이 꼭 옳거나 그르다 그런 것이 없고 이 세상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여러 가지... 눈으로 볼 수가 있어. 그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 생명이라는 것은 태어나 가지고 다 다른 형태로 살아가거든. 아, 그래가지고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하면 안 되겠지. 그, 다른 방법이 있거든? 그 나하고 같지 않다고 해서 같지 않은 무언가를 경멸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세상은 다양한 시각이 있기 마련이고, 그 하나하나가 존재 이유가 있고, 함부로 무시할 게 아니야. 생각이 깊은 사람은 함부로 말하기보단 오랫동안 관찰을 하는 거야.

나 : 왜, 신문 기사들이나 이 소설을 비평하는 글들을 보면 ‘이휘소 박사가 핵물리

학자가 아니다'라는 글들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작가 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김진명** : 아저씨는... 그런 걸 볼 때마다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거든? 뭐라고 비유하는 게 좋을까...,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대학생이 학과 시험을 칠 때에 학기말 시험을 칠 때에 심심해가지고 답안지에다가 핵무기 원자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쪽 썼어요.... 그건 완벽하게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이야. 그렇게 쉬운 거야. 그러니깐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쉽게 접근하고 만드는 것 자체, 만드는 방법 자체가 어려운 게 절대 아니야. 전공이 무엇이든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뭐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있는 사람은 핵무기를 만들어야겠다 하면은 그 어떤 물리적인 시설이나 돈이나 그런 힘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이지,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 그 이휘소 같은 사람은 전설의 물리학계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이론물리학의 대가인데 그 대학생도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핵무기 제조 방법을 그 사람은 전공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상당히 우스운 논리이고, 이 박사의 전공이 뭐였던 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필요로 했던 것은 그 이휘소 박사라는 거인, 그 위대한 이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자주국방이라는 신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핵무기 제조에 이휘소의 이름을 걸어가지고 그 정당성도 부여하려고 했고 음, 또 그 당시에는 해외 전문가들을 많이 끌어 오려고 했거든? 실제적으로 이휘소 박사의 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이박사가 이 매우 중요한 일에 꼭 비밀을 지켜야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뵈러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에 오지 못하고 동경에서 어머니를 오시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이 서류를 맡긴 것이 있다고 그래. 그런데 그걸 이사를 자주 하다가 잃어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아저씨가 이휘소 박사의 아들 그 제퍼리라는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을 미국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 그 아들이 아저씨를 자꾸 안 만나려고 해서 한국서 그까지 찾아갔는데도 절대 만나려고 하지 않았거든? 집밖에서 대문을 이렇게 사이에 놓고 "just one thing do you remember do you have got some present from korean president Park?"하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 근데 그 제퍼리의 대답이 "I might have but I can not remember." 그래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물어보기를, "박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때에 그 제퍼리 아저씨의 대답이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을 못하겠다." 굉장히 모순된 답이지. 뒤에 그 can not remember는 빼도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기억을 못 하겠지. 'I might have.'라는 건 뭐야? 받은 적이 있었을 꺼다 이런 거거든? 그 어릴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휘소 박사의 아들인 제퍼리한테 선물을 보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세상에선 정말 은밀한 일은 사람들이 모르게 행해져. 모두가 다 알아버리면 그 아무것도 아니지. 신문 같은 것도 그런 거야, 실제로 일어난 것하고 신문을 보게 된 것하고는 그것이 고급 정보일수록 틀릴 때가 많아. 미국이 미국대통령이 자기 본부에서 참모들하고 “야, 이번에 석유 값을 올릴까 말까?”, “ 이번에는 우리가 러시아하고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니까 석유 값을 올립시다!” 또 한 참모가 “석유 값을 올리면 중국이 굉장히 괴로울 텐데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이번 기회에 중국이 힘을 성장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잖아. 그게 그대로 보도될 리는 없지 그게 다 마찬가지야. 어떤 회사에 수위가 있고 그 회사에 회장이 있다고 치자. 같은 직원이라도 수위가 아는 것하고 회장이 아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라는 것은 사람들의 힘을 좌우해. 그래서 신문이나 이런 걸 본걸 가지고, 자기가 아는 모든 것으로 삼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은 끝없이 놀아날 뿐이지. 그래서 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색을 해야 해. 아저씨가 ‘하늘이여 땅이여’에선가 그 함흥차사... 머리가 있는 사람이 이성적인 방법으로 차분히 생각하면은 ‘그 함흥차사가 가짜구나, 거짓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 이방원이 자기 아버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접촉을 하지 못하게 꾸며 낸 일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무런 그것도 없이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항상 머리는 그런 걸로 지배되거든. 정보를 보는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저씨가 잠깐 얘기 좀 한 거야.

나 : 이휘소 박사가 죽은 장소와 묘지가 실제와는 다르게 묘사되었는데, 그렇게 한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김진명: 그 소설의 fact를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핵개발에 맞췄어요. 그래서 그 이휘소 박사가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교통사고 난 것을 이 청와대 주변의 스카이웨이로 옮긴 거나... 그래 실제로 이 박사는 시민공원이 아니고 사설묘지에 거기서도 아주 허름한 곳에 허술하게 묻혀 있던 그걸, 이제 국립묘지로 설정하고 한 것은, 그 fact는 지금 아저씨가 확실하게 증명해 낼만 한 대단한 자료들을 가지지는 못했거든. 그런 그 확실한 근거가 있었으면 미국서 일어난 그대로 상황을 설정하고 그를 살해한 자들의 배후 규명도 가능한데 상징성만 있지 실제로는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상당히 거센 저지를 받았다 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이제 국립묘지로 옮겨가도 사실 크게 훼손되는 것은 아니야. 그것은 소설의 전개 특히 박대통령 의 핵개발 노력 또 그로 말미암아 박대통령의 시해사건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한 거지. 그런 일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기는 했지만 그

진실은 우리에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즉, 신문 등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재규가 우발적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 우발적이라는 것은 김재규가 박대통령을 죽이기 전에 여러 가지 그의 흔적 즉, 그가 준비한 것들을 보면 우발적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 예를 들면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을 자기가 번연히 대통령하고 술 먹고 밥 먹는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참모총장하고 같이 밥 먹자고 해서 청와대 옆에 이렇게 대기시켜 놓는다든지, 참모총장을 대기시켜놓는다는 것은, 일 끝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참모총장이니깐 같이 행동하려고 했던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이잖아. 그래도 신문에서는 그걸 그대로 드러내서 다 보도하지는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추측하고 짐작할 뿐이야. 마찬가지로 이휘소 박사의 죽음도 그것이 매우 이상하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다음은 생각을 해 들어가야지 그것이 CIA가 이휘소 박사를 죽였다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휘소 박사를 죽인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나 :** 이휘소 박사가 실제로는 미국의 일리노이 주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에 관해서도 작가 쪽과 이휘소 측근들의 주장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데, 작가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김진명 :** 음, 그게 이제 각각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고 그러면 그 나라 문화를 잘 모르잖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깡패들이 자동소총으로 수십 명을 죽이고 이런 일이 없잖아. 그런 문화를 잘 모르니깐 다른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또 잘못 판단할 수가 있거든. 우리나라에서 살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러시아 같은 데서는 어른들은 거의 담배를 안 피거든. 7살, 8살, 9살, 10살 이런 애들이 다 피워. 우리나라는 한 살, 열 살짜리들이 안 피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통 생각에 이게 문제로 나온다면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어른들이 담배를 핀다 생각하거든. 어린애들이 담배를 피우면 절대 못 피우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대도시에 사는 흑인들의 평균수명은 40세가 잘 안 돼요. 40세가 안 되는 것은 굉장히 사고로 많이 죽는다는 얘기거든? 이제 거의 총을 많이 맞아서 죽어. 이제 그런 문화는 우리는 모르는 거야. 자동차로 사람을 죽인다던지 총을 쏘서 죽인다던지, 이런 것하고는 우리나라는 경찰력이 강하고 사람 잘 안 죽이고. 말로 욕을 하고 미워하지만 미국은 웃으면서 간단하게 죽이면 이런 걸 잘 모르지. 그리고 CIA라는 그 정부기관의 속성을 사람들이 잘 몰라 국가기관이 설마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러지만 그 CIA의 비행을 쪽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 미국 현직대통령 케네디도, 미국처럼 요만한 것도 다 잡아

내는 수사력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케네디를 누가 죽였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 자기 나라 대통령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그게 뭐 깡패들이 죽였겠고,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죽였겠지. 그런 것도 캐내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 거기서 그 강주상 박사는 그 처음에 뭐였냐면 fact에서 틀렸어. 사실에서 틀렸단 얘기지. 그 사람이 처음 신문에 기고했을 때 뭐라고 기고했냐면 상대편 트럭이 오다가 앞바퀴가 빠져서 바퀴가 날아가서 이박사가 그걸 맞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신문에 기고를 했어. 그래서 아저씨는 직접 미국에 가서 조사를 했거든, 현장도 보고... 근데 좀 생각 있는 사람이면은 그런 주장, 달리는 바퀴가 이렇게 빠지면 앞으로 굴러가는지 뒤로 굴러가는지 또 바퀴가 빠져나가면 이것이 축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바퀴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야. 왼쪽 바퀴는 왼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그 차의 바퀴가 오른쪽 것이 빠졌는지, 왼쪽 것이 빠졌는지, 뒤쪽 것이 빠졌는지, 그 바퀴가 빠져서 날아가서 맞은편에 오던 차를 쳐서 거기에 맞고 죽었다 하는 것이 확률상 뭐 수백만분의 일도 안 되는 세상에 그 맞은편에 오던 차의 바퀴를 맞고 죽었다 하는 것에 대한 예가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할 게 아니야. 학자라면 그 사람이 요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주장의 근거를 신기 위해서 내가 이휘소 박사의 제자였다 제자라는 것은 뭐야. 이런 관계가 제자잖아. 근데 이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학과 박사 같은 걸 하고 다른 학교에 공부하러 가고 하는 수가 있거든. 그런데 잠깐 만나고 한 사이, 그런 건 제자가 아니잖아.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건 뭐 좀 티미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에는 사실 그 바퀴에 맞고 죽었다는 그걸 신문지상에 냈길래 그걸 내가 그렇진 않다, 당신 fact가 틀렸다. 사고 난 경위는 이러이러하다. 아저씨는 경찰이 갖고 있는 기록 다 보고 이게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냐 아니면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사고냐, 그런 것을 연구를 했거든. 근데 그 분의 얘기는 아저씨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바퀴가 날아가서 그렇게 했다는 주장, 그게 아저씨가 사고기록을 그 원본 경찰청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서류하고 그림하고 다해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그다음에 그 사실은 자기가 모르고 진상은 모르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식으로 주장이 되다 보니까 그릴 리가 없다는 아까 아저씨가 얘기했지만... 그랬다 하는 것은 확실한 서류가 없으니깐 똑같다 이 말이야.

**나** : 소설에서 보면 이휘소 박사가 미국의 아폴로계획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작가의 창작인가요?

**김진명** : 그건 이제 아저씨가 재미를 위해서 ‘이 박사라는 사람이 출중한 사람이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좀더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허구를 집어넣은 거야. 근데 아저씨는 이 박사에 대해서 미국 뉴욕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이 박사에 대한 자료를 있는

대로 다 봤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미국의 우주계획에 어드바이스를 했다는 게 있길래 그렇게 허구를 설정한 것이지.

나 : 그냥 제가 작가의 의도를 추측하기에는 미국 같은 강대국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한국인이 미국인도 몰랐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것을 설정해 한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그게 이런 의도인 건가요?;;;//

김진명 : 그렇지. 이 박사라는 분의 여러 가지 천재성을 좀 더 독자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미국의 우주계획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하긴 했더라는 자리에서 그런 장치를 설정한 거야, 그런 건 뭐.;;;;

나 : 소설의 주제를 핵으로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진명 : 그것은 우리나라의 핵주권이라는 문제가 있고, 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 즉, 국제관계나 한국적 정치 군사경제 상황을 집중적으로 나타 낼 수 있는 그런 취재거리가 되기 때문이지...

핵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핵을 가지는 것이 안 된다면 모든 나라가 안 가져야 되잖아. 전 세계 국가가 합의를 해가지고..., 그러나 지금 강대국 순서대로 핵을 가지고 있잖아. 핵은 강대국이면 가짐직 한 것이거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한 거야. 핵이 사실... 그렇지 않으면 무기군사사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적고 하면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계속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무기를 사 줘야 해. 왜 그런가 하면 무기를 안 사주면 강대국들도 무기개발을 하지 못해. 이 세상 모든 생산과 판매가 시장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나 무기 같은 것은 수요가 없으면 누가 사, 아무도 안 사지. 미국은 이미 일반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다 상실하고 있어. 즉 똑같은 품질의 컵을. 미국에서 만들면 10불, 일본에서 만들면 5불, 한국에서는 3불, 중국에서는 2불..., 똑같은 게 그렇거든. 그러니 일반상품에 대한 경쟁력은 없는 거야. 그렇게 때문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해 나가는 것은 세계에서 강한 핵 논리를 가지고 있는 힘은, 무기 같은 것은 우리 일반적인 시장의 법칙을 따르면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야, 항상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깐 미국은 나름대로 일반 힘없는 나라들이 사는 방식하고는 아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전부 까발리고 미국을 다 공격하고 미국을 멀리 하게끔 버려두진 않겠지. 우리나라를 보면 일단 사람이 선하잖아. 모든 이들과 관계를 좋게 해서 같이 잘 살려고 하잖아. 그렇게 보면 핵무기 이런 것은 인류와 세계를 끝장 낼 수 있으니깐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일 것 아니야. 당연히 그 수준에 머물러라 하는 것이 핵을 가진 나라의 사람들이 하는 논리야.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하고의 그런 문제 하나라도 국방을 안 한다면 모르겠으되 국방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또 그 분야의 논리에 따라서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것이잖아. 일단 효율적으로 쓸데없이 우리나라는 미국에 무기를 엄청나게 수입을 해가지고는 다 폐기를 해요... 미국에서 폐기 안하고 일단 우리나라를 걸쳐서 폐기하거든.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 무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부품,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탱크 잠망경 하나가 1억 한다는 것 알지. 그러면 그 잠망경 부품을 또 교체해야 하니깐... 말도 못 해. 우리 산업의 이런 것들, 그래서 한국이 그런 힘을 좀 더 경제개발에 돌리면서도 국방력을 강하게 하려면 핵을 가져야하는 필요가 상당히 있어야 하거든.

나 : 이걸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소설에서는 부인과 사별하고, 또 외동딸을 두었다고 설정하셨잖아요, 특별히 그렇게 한 의도라도.....

김진명 : 아저씨가 그 문제 때문에 재판에 피소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미국의 가족 부인으로부터 이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왜 그 그렇게 써 가지고 이휘소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느냐? 그런데, 아저씨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모든 소설들이 다 그런데 걸려... 소설은 기본적으로 허구이기 때문에 소설이 어느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나가지를 못 하는 거야. 우리 소설을 보면 a씨는 어떻고 b씨는 어떻고 임철수는 뭐 c시에 살고 있다. 심지어는 시 이름도 제대로 못 쓸 정도로... 근데 아저씨 생각은 지나친 익명성의 얘기를 물어 버리면 소설의 여러 기능 중에 허구를 통하지만 사실은 진실을 파헤친다. 이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그 누구나 아는 매우 강한 공인이나 공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얘기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고 부합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경향이나 fact가 있으면 실명을 쓸 수 있다고 봐. 아저씨가 설정한 이휘소라는 인물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박정희하고 매우 강력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관점으로 쓸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중요한 경향을 채택할 수 있으면 조그만 것들은 그게 구태여 모든 것이다.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 재판부에서도 아마 그런 취지로 별일 없음으로...

나 : 이 소설을 쓰면서 느끼신 점은?

**김진명** : 이 소설은 울분 같은 데서 나온 소설이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 잘 사는 나라 사람들처럼 생각이 깊고 진취적이지는 못해. 그런 게 매우 안타까워요. 시각도 달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마 그 미국이 이휘소를 죽였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야. 미국인 여러 사람한테 질문을 했거든. 그럼 100%가 CIA가 죽였습니다다는 게 똑같은 진상은 알려지지 않았거든. 그러니깐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주 달라요. 해변도 보면 우리나라 해변에는 다 2km, 3km 밖에 나가서 윈드서핑하고 이런 게 없거든. 그 앞에서 다 놀지. 외국은 다 앞에 나가서 애 데리고 손녀들까지도 데리고 나가는 그런 도전정신, 진취적이고 공격적이고 용감하고 그런 게 매우 강하거든. 이제 그런 문화의 차이를 보면서 왜 좀 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지 못하나, 이런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어. 핵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어선 안 된다. 그런 것에 사람들이 마치 주술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런 것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는 거야. 개발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러면 언제까지나 그 많은 젊은이들을 군대에 내보내고 감당할 수 없는 재래식 무기들을 사 와가지고… 그런 무기 사와 봐야 중국이나 일본이랑 경쟁이 되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국방정책을 아무도 못 고치고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거야. 허구적인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

#### ◎인터뷰를 마치고

이 외에도 앞으로 쓰시고 싶으신 책과,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해 주셨는데, 지면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다.

밀린 원고 때문에 바쁘시다면서도 내 논문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주신 김진명 씨는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다. 그리고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듯했다. 처음 인터뷰 요청의 거절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김진명 씨의 인상이 좋지만은 않았는데 녹음도 허가해 주시고, 학교와 나에 대해서도 이리저리 물어보시고, 또 질문에 답변을 할 때도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정말 내 예상과는 달랐다. 이 인터뷰는 내 논문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나 보다는 내가 쓰는 논문의 작가를 만나본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다.

## □ 부록 II

### 《김진명의 입장에서 본 북핵 가상 시나리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소설은 그 바탕이 실화라고 할지라도, 작가의 가치관에 따라서 덧붙여진 허구가 다르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김진명 씨는 『무궁화...』 소설에서도 나타내었듯이 평소 핵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그런 김진명 씨가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소설을 쓴다면 어떠한 허구성을 집어넣어서, 어떤 결과를 쓸까? 해서, 내 나름대로의 허구성을 집어넣어 가상 시나리오를 적어 보았다.

2010년 남북한이 통일된 지, 만으로 1년 시점(2020년까지 남북한 별도의 정권상호 인정체제)에 중동의 석유고갈 및 원유값의 인상으로 국제적인 석유파동의 재현된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도 새로운 안정된 석유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한국 서해바다 황해도 앞 대륙붕에서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LNG)가 발견된다. 중국은 12해리 규정(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자국 영토에도 속한다고 주장하고, 러시아는 공해상이니 누구의 소유권도 인정할 수 없으며, 3국이 자원 개발에 공동 투자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북한 정부는 국제 해양법에 의거하면 명백한 자국 영해에 속해 있어 독점적 채굴권을 주장한다.

이렇게 분쟁이 시작되고, 미국은 자국 석유업체의 이익과 유전 개발에 따른 혜택으로 한국의 미국 의존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중국, 러시아, 일본과 비밀협정 체결한다. 즉, 무력으로 북한을 쳐서 유전(석유가 나는 지역)을 확보한 후 공동 개발로 채굴자원을 배분하자고 밀약한다. 먼저 중국의 해군이 서해 유전 발견 지경계 무력점거 및 북한 경비정을 포격하고, 양국간 분쟁이 시작되고, 그리고 필요시 북한 영토로의 침공 및 폭격을 선언한다.

미국은 세계전쟁 확대를 이유로 당사자간 협의, 조정타결 의사를 드러내고 불개입을 표명한다. 러시아는 서해 및 동해의 해상 수송로 차단하여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다.

이 때, 남북한 동시에 장거리 핵무기 수십 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무인도 실험 발사로 세계 여론에 대한 핵시설과 플루토늄의 비축 내용을 알린다.

중국 및 러시아의 북한 영토 내 침공 시 핵무기 사용을 알리고, 사태 해결 기미. 최종적으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이 참여하는 5자회담을 개최하여 채굴 및 생산은 한국이 하고, 대신 천연가스는 해상파이프를 개설하여 4개국에 싼 가격으로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사태는 종결된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배경으로는 200년도 북한 핵무기로 한국의 위협과 미국의 핵 억제력 정책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을 때 남북한 금강산 비밀 정상회담 시 북한에 대한 무료 식량 지원 및 북한 지역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전력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 10년 간 상호 정권 및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경제·문화·군사 교류 협정 체결, 자유무역협정 등을 체결한다. 북한 보유 핵에 대해서는 핵 기술 공유와 남한의 원자로에서 추출된 우라늄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남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 교류와 핵무기 공동 개발 및 상호 보유를 극비에 협의하고, 5년에 걸쳐 극비로 핵무기 개발 실시 및 북한 지하에 저장 시설 마련하여 긴급시 핵탄두를 상호 지원하고 공급해 준다.

김진명 씨라면 이러한 사회 문제보다는 역사 쪽 의문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소설을 쓰겠지만, 이번 북핵 문제에 대해 내가 김진명 씨라면 어떻게 쓸 것인가 추측하면서 썼다. 그리고 김진명 씨가 핵을 옹호하는 입장이라서 결말을 공동 핵개발로 맞추었고, 또 김진명 씨 소설의 특징인 ‘이러이러해서 결국은 다 잘 되었더라...’는 식으로 결말을 맺었다.

이 가상 시나리오에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황해안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되었다고 한 것은 동포에서 느끼는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또한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공격성을 띤 것이 아니라 보안용이다. 이 소설이 실제로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공동 핵개발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미국의 복속에서 빠져나오고, 우리나라의 국방을 안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의 안보를 위협하게 되고 미국의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그러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통일은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한 뒤 남북 공동 핵개발을 비밀리에 한다고 설정한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북핵 해결점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협상하는 것이다. 서로서로 체네바합의를 지키고, 미국은 북한에게 중유 공급과 경수로를 건설해 주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식이다.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북핵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얻고 잃는 게 무엇인지는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 「내가 생각하는 간디학교」



- 김진우

1988년 07월 08일생

혈액형 / O형

학력 / 꿈동산유치원 - 심원초등학교 - 간디학교

별명 / 부천 꽃미남, 책벌레, 신의 목소리, 전설의 피아니스트.

취미 / 열녀 찾아내기, 한국 미인형 찾아내기, 창민이 팬티 검사하기, 노영규

갈굼 당하기, 부연이 기름 칠해 주기, 음악 듣기, 밴드 연습

특기 / 배술이 뽀뽀하기, 책 읽기, 열녀 가려내기, 공부하기, 대금.

소속 / 간락연, 여우하품, GBS, 안티프라민, 개그동아리,

거시기, 205호 찬율파괴당, 중3밴드.

좌우명 / 내가 원하는 곳으로...

## 차 례

### I. 작품 제작의 동기와 필요성

### II. 다큐멘터리의 이해

#### 1. 다큐멘터리의 정의

#### 2. 초창기 주요작품을 통해 본 다큐멘터리의 주요관점

(1) 관찰자적 입장의 사실주의 : 플래허티

(2) 주관적 분석과 설득의 입장 : 지가 베르도프

#### 3. 주목할 만한 다큐멘터리

### III. 제작과정

#### 1. 시놉시스

#### 2. 제작일지

#### 3. 작품 후기

## 1. 작품 제작의 동기와 필요성

처음에 내가 졸업논문(작품)으로 한번 다루어 보았으면 했던 것은 영상과는 거리가 먼 인간 심리였다. 손진근 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 영상으로 간디학교 광고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광고는 무조건 좋은 점을 보여주고 뽕튀기처럼 우리 학교를 더욱 더 좋게 부풀려 무슨 진짜로 환상의 학교, 꿈의 학교처럼 보일 염려가 되어 아이들과 선생님들께 내가 만든 영상을 보여 드리기가 너무나도 싫었고 내 자신이 허락할 수 없었다.

3년간 간디학교 생활을 해본 결과 간디학교는 꿈의 학교도 아니고 환상의 학교도 아닌 그냥 좋은 대안학교 일뿐이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랬다. 간디 학교를 처음 생각했을 때는 따분한 수업도 없고 시험도 없고 자유로운 학교인줄 알았다. 그런데 2년 정도 생활하여 보니 내가 생각하는 간디 학교는 처음 생각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고민을 한 끝에 내가 우리 학교를 꿈의 학교나 환상의 학교로 좋게 소개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간디 학교를 영상으로 만들어 많은 이들과 내 생각을 공감하는 게 더 좋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외부의 부러운 듯한 시각에 너무 길들여져 우리 학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줄어들어는 것보다는 간디학생으로서 겪은 경험을 학생의 시각에서 나타내 보는 것도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간디학교를 지망하려는 많은 외부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스컴 탓에 우리 학교는 시험도 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는 꿈의 학교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영상으로 우리 학교 이미지를 학생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어졌다. 이미 우리 학교는 TV를 비롯한 매스컴에 많이 등장해서 유명하지 않은가?

나의 다큐멘터리 작품 「내가 생각하는 간디학교」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제작되었다. 간디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작품이 간디학교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II. 다큐멘터리의 이해

### 1. 다큐멘터리의 정의

다큐멘터리의 어원은 문서, 증서를 뜻하는 라틴어 documentum이다. 주로 문학 또는 영화용어로 쓰인다. 문학에서는 기록문학과 거의 같은 뜻이며, 기록하는 주인공에 가공인물(架空人物)을 등장시키는 등 허구적인 것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간단하게는 문장이나 방송 또는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제작 또는 구성한 주제와 줄거리가 있는 기록물이라고도 말한다. 이외에도 사람마다 강조하고자 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나올 수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 한다.

- 사실 또는 현실의 창조적 처리 - 존 그리어 슨<sup>33)</sup>의 정의
- 비허구적인 영화(논픽션 필름) - 프랭크 비버<sup>34)</sup>의 <영화사전>
- 어떤 사건이나 문화 현상의 실제적 모습과 가치 등을 예술적 형식으로 기록하거나 묘사하는 것 - 웹스터 사전
- 사실에 입각한 촬영 또는 진실하고 합리적인 재구성(재현포함)을 통해서 현실의 상황을 기록하는 모든 방법 - 1948년 제1회 다큐멘터리 세계연맹 회의

<출전: <http://naver.com> naver백과사전>

이외에도 다큐멘터리의 정의는 한가지로 정의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지만 실제 또는 사실에 기초한 둔 촬영에 바탕을 두는 데 그 공통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각각의 작품에 나타나는 감독의 시각이 객관적인지 또는 주관적인지에 따라 다큐멘터리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어 보기로 한다.

---

33) 스코틀랜드 스털링셔 출생. 기록영화 이론의 확립자이다. 주요작품으로는 《실론의 노래 The Song of Ceylon》(1934) 《야간우편 Night Mail》(1936) 등이 있다.

34) 미국의 사진작가이다. 《미국인들》이라는 사진집 간행 후 날카로운 기록정신이 창출해 낸 독자적인 스타일이 주목받아 젊은 세대의 사진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 2. 초창기 주요 작품을 통해 본 다큐멘터리의 주요 관점

### (1) 관찰자적 입장의 사실주의 : 플래허티

다큐멘터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플래허티는 첫 작품 <북극의 나누크>에서 극지대에 사는 에스키모의 생활을 기록했다. 사실 플래허티는 영화감독이라기보다는 탐험가이면 인류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단지 극지대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의 생활을 기록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다. 그는 단순한 카메라 작동만을 습득한 채 다른 문화를 탐험하고 기록해 나갔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편집이나 연출을 자제했다. 그래서 딥 포커스<sup>35)</sup>와 롱 테이크<sup>36)</sup>로 공간과 시간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려고 애썼다.

플래허티는 항상 자연과 싸우는 인간의 의지를 시적이고 장엄하게 표현했다. <북극의 나누크>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눈 덮인 극지방의 황량함과 그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에스키모 인들을 담아내고 있다. 그는 주로 이렇게 다른 문명의 사람들 특히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록하는 민족지 영화를 만들었다. 그의 작품으로는 <모아나>(1926), <아란의 사나이>(1934), <루이지애나 이야기>(1948) 등이 있다.

### (2) 주관적 분석과 설득의 입장 : 지가 베르토프

<북극의 나누크>와 같은 해에 소련에서도 베르토프가 <키노-프라우다>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달 나오는 이 뉴스필름에 1920년대의 소련의 변화를 기록해나갔다. 그러나 다른 영화에 남아 있는 조각필름으로 찍어야 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베르토프는 편집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단순히 현실 세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분석하고 사실을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29년에 상영된 <카메라를 든 사나이>를 보면 그의 이러한 의도가 잘 드러난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편집이나 다양한 촬영기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카메라를 든 사나이>는 1929년 지가 베르토프(Dziga Vertov)가 각본을 쓰고 연출,

---

35) 사람의 눈과 달리 카메라가 포착해 낼 수 있는 공간의 깊이는 렌즈의 사이즈 등에 따라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곤 한다. 일반적인 표준렌즈로 촬영된 영상의 경우 이 같은 렌즈의 한계를 육안으로 확인하게 하는데, 1930년대 들어 광각렌즈와 조명 기에 발달에 힘입은 영화는 그 심도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하는데 성공한다. 이것이 딥 포커스, 혹은 전심초점이라 불리는 것으로 미장센, 롱테이크의 구현을 통해 영화미학의 영역을 확대시킨 대표적인 영화테크닉의 하나다.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에 관계없이 초점을 중앙에 맞추어 모든 화면을 선명하게 찍는 촬영기법

36) 롱테이크장면은 일명 다다미 쇼트라고도 불려집니다. 완벽하게 짜여진 동선으로 연기하는 연기자를 절제된 카메라가 쫓아가며 찍는 것이다.

편집까지 1인 3역을 담당하였다. 어깨에 카메라를 짊어지고 도시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맨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정리하자면 플래허티의 입장이 관찰자적이라면 베르토프의 입장은 분석과 설득의 입장에서 서 있다. 최소한의 개입으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플래허티의 다큐멘터리이다.<sup>37)</sup> 그러나, 사실 <북극의 나누크>는 처음 촬영됐던 필름이 편집 중 불에 타버린 사고로 그는 에스키모인들의 도움을 받아 재촬영을 했다. 또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사냥법을 촬영하기 위해 에스키모인들은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기도 했다.

관찰자적 입장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고는 했지만, 일단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부터 감독의 시선과 의도는 개입될 수밖에 없다. 베르토프는 이러한 점을 인식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혁명후의 소련의 상황과 민중을 개혁하기 위해, 그리고 현실세계에 대한 단순한 기록의 차원이 아닌 분석을 위해 편집과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화적 기법을 활용했다. 베르토프의 이러한 접근과 영화적 실천은 관객들에게 이 다큐멘터리도 조작된 영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게 했다. (자료 출처 : naver 백과사전)

나의 작품 「내가 생각하는 간디학교」 역시 다큐멘터리적 관점에 의하면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두 입장의 이해가 만나는 곳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최대한 학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한 반면, 학교생활에 대한 느낌과 나만의 인식은 주관적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 3. 주목할 만한 다큐멘터리

#### (1) 북극의 나누크 (감독:로버트 플래허티/1922/미국/55min)

‘다큐멘터리는 사실의 기록을 필름을 통해 재조합함으로써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예술적 영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장을 연 사람이 바

37) <북극의 나누크>는 서사적인 시야를 가지는데, 그 속에서 인간은 아주 보잘 것 없는 것, 즉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광활한 지역에서의 점들로 왜소화되어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나누크와 플래허티 사이에 있어서 개인적인 우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다큐멘터리는 영화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중립적인 의견에 서서 자기의 생각과 그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꼬집어 내는 것이 플래허티의 의도이다. 베르토프는 사실도 좋지만 조금 꾸미는 주의이다. 베르토프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같이 넣기도 하고 슬로우 모션, 역모션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플래허티는 무엇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는 의도지만 베르토프는 분석하는 의도이다. 그래서 플래허티와 베르토프가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다.

로 로버트 플래허티(Robert Flaherty)이다. 다큐멘터리 영화의 역사는 그의 첫 작품인 「북극의 나누크 (Nanook of the North,1922)」로부터 시작된다.

(2) Roger and Me (Michael Moore/87min/1989/USA)

미국의 Flint라는 도시에 있는 GM의 자동차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사회와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을 그리고 있다.

(3) 파나마 사기극 (원제:Panama Deception/A Barbara Trant Film/1993/USA)

1989년 미국이 범죄자 한 사람의 체포를 구실로 파나마를 침공한다. 이 사건을 놓고 미국의 미디어들이 국민을 어떻게 기만했는지를 파헤친 작품.

(4) 하비 밀크의 시대 (원제:The Times of Harvey Milk/로버트 엡스타인/87min/1984/USA)

게이 활동가로서 최초로 샌프란시스코의 시정감시관을 지낸 하비 밀크의 행적을 그가 죽은 이후의 시점에서 각종 자료 화면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 게이 운동에 대해 치밀하게 조명하고 있는 작품.

(5) 티벳의 소금장수 (원제:The Saltman Of Tibet/Ulrike Koch/35min/1997/Germany)

지금도 히말라야에는 해마다 소금 캐러번이 있다고 한다. 천일제염 발전과 화학염의 등장으로 내륙에서 생산되는 질 나쁜 암염이나 정제술이 떨어지는 기타 소금들은 쇠퇴해 갔지만 히말라야의 사람들 사이에는 여전히 이런 소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6) 천안문 (장위엔/중국)

1989년 중국 북경의 천안문 사태, 단순한 사태가 아니라 관료화되어 가는 중국사회주의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봉기. 그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7) 후프 드림즈 (원제 : Hoop Dreams/Steve James/1993)

한 흑인 소년이 미국 프로농구 NBA 선수가 되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7년의 시간을 통해 미국 내 흑인 문제를 새로 바로 본 다큐멘터리.

(8) 바르샤바 게토 (원제 : The Warsaw Ghettos Uprising / Jolanta Dylewska )

2차대전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치의 유대인 탄압에 맞서 일어났던 봉기를 당시 기록필름과 생존자 인터뷰를 통해 다룬 다큐멘터리.

(9) The personals (감독:ibi keiko/1999아카데미 Documentary Short Subject 부분 수상작)

미국 영화학교에 유학중인 한 일본 여학생의 졸업 작품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이례작. 실버세대의 성과 사랑에 대해 잔잔하게 다룬 작품이라 알려져 있음.

(10) 숨결 (감독:변영주/2000,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부문 운파상 수상작)

일본군의 종군위안부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던 정신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연작으로 다루어 온 변영주 감독의 작품, 각종 해외 영화제에 초청되었으며 정신대 문제를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끄집어 올린 화제작.

### III. 제작 과정

자작 다큐멘터리 「내가 생각하는 간디학교」

- 제작 년도: 2003
- 제작/연출: 김진우
- 편집: 일주 아트하우스
- 출연: 간디학교 가족들
- 장르: 다큐멘터리

#### 1. 시놉시스

처음에 간디학교는 정말 꿈의 학교인 줄만 알고 있었다. 공부도 하고 싶을 때 하고 자유롭게 있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학교에 자유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았다. 부모님의 잔소리와 성적으로 인하여 점차 내 자유를 잃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아주 많았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많이 하였고, 실망을 많이 할수록 한심스럽고 내 주위에 모든 것들이 하찮고 귀찮게 느껴지는 때가 많았다.

그러다가 차차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학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생도 하면서 애들과 웃고 떠들고 추억이 많아졌다. 학교를 떠나는 것이 점점 무서워지고 떠나기 싫어지는 감정을 느낀다. 지금 내가 그렇기 때문이다.

처음 2001년에 학교를 들어 왔을 때는 모두 어리고 순진하고 아무것도 몰랐었다.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형들과 애들과 진지한 이야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나... 지나간 옛날 일들을 말하면서 밤새도록 웃고 떠들었다. 지금은 다 헤어지고 연락만 주고받는 상황이지만 커서 어른이 되서 만나서 다시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좋을 것 같다

주어진 자유가 방종이 되어 선생님께 대들고 후배들 괴롭히고 청소안하고 말썽 핀 것도 커서 생각 하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반성도 하고 어른이 되면 선생님과 같이 술 먹기로 한 약속을 생각 하며 찾아 가면 먼저 눈물부터 나올 것 같고 정말 커 버린 내가 싫을 것 같다. 옛날로 그때 16살 뛰어 놀던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 같다.

결국 '내가 생각한 간디학교'는 처음에 큰 꿈을 안고 들어 온 만큼 실망도 많이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점점 학교를 이해하고 말썽부린 지난 학기를 반성하고 방황하던 일들을 돌이켜보고 3학년으로서 학교생활을 되돌아보며 만든 나의 간디학교 체험기이다 .

## 2. 제작일지

9월 15일

기다리던 개학인데 졸업 논문이라는 숙제 때문에 마음이 걸린다.

이번 주를 이용하여 캠코더로 내가 예상한 아이들 모습을 찍고 편집실에 가서 열심히 편집을 해야 한다.

참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 마음이 웬지 모르게 걱정된다.

오늘은 아이들이 짐 풀고 학교 청소하고 바쁜 관계로 찍지를 못해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찍어야지......

9월 16일

오늘 삼각대를 이용하여 강당 입구에 정리 안 된 신발들을 신고 나오는 장면을 찍었다 이 장면으로 좋은 걸 쓸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카메라를 의식하고 떠들고 촬영하는 방해하기 때문에 많이 성질이 난다.

그런데 생각하여 보니 나라도 그러겠다. 카메라가 있으니 분명 오버하고 멋있게 나오려고 튀는 행동을 하니깐 말이다.

이제 많이 힘들어지겠다.

9월 17일

학교생활을 하여 보니... 시나리오에 쓴 것보다 더 많은 모습과 더 좋은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아주 무시하고 보이는 대로 찍어야 겠다.

어차피 나는 다큐 형식이니 시나리오가 없어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시놉시스만 쓰기로 하고 싹 다 찍고 영상을 보고 시놉시스를 쓰기로 마음먹고 마음껏 찍고 편집을 하면서 시놉시스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부연이가 부모님과 통화하는 걸 찍었다. 대충 동생 잘 있냐는 내용에다가 특별 활동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여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부모님과 전화하는 걸 꾸며 야겠다

9월 18일

오늘은 아침 조회 시간에 카메라를 위에 장치 한 다음 1시간 동안 녹화를 하였다. 이 장면을 빨리 감기해서 쓰면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 영규가 부모님과 전화 하는 것을 찍었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 길에 크림빵이 버려져 있어 접사를 이용하여 찍었는데 개미가 우글우글 냄새도 장난이 아니었다.

또 개그 동아리가 강당에서 놓고 있기에 강당에서 노는 개그동아리를 찍었다. 얼마나 행복하던지... 참 너무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9월 20일

참 나도 많이 외롭나 보다

기범이와 산하가 손잡고 걸어가고 있고 내가 그 뒷모습을 보는 장면이다.

휴~ 얼마나 외롭던지.....

인희형이 한 말이 생각이 났다 “진우야 여자친구는 인생에서의 건전지야”

와~ 얼마나 힘들던지..... 졸업논문이고 뭐고 다 때려 치고 여자 친구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편집 하러 외박 가기로 하였는데 인희형이 일이 생겨서 편집은 다음주로 미루기로 하였다.

9월 21일

일요일 외출을 가는 아이들을 따라 촬영을 하였다. 신기한 것과 가지고 싶은 걸 보는 재훈이. 피씨 방에 들어가는 아이들..... 좋은 장면에 쓰일 것 같다

나도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였는데 그 동안은 논문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어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그리고 학교를 가는 아이들 모습도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 이제 찍으면서 어떤 장면에 어떤 글씨를 넣고 어떤 이미지를 심어 줄지를 생각하면서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겠다.

9월 22일

벌써 일주일이나 다 되어 간다.

이제까지 찍은 것은 2시간 정도 되어 사실 조금은 놀랐다 별로 찍은 것도 별로 없는데…….

테이프가 2시간이나 차지하지??

날 잡아서 내가 이때까지 본 영상을 꼭 봐야겠다.

9월 23일

스쿠터를 가르쳐 주시는 주방 쌤과 집사님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당장 달려가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 학교 상량식이 있었다. 카메라를 들고 상량식 하는 것을 찍었다. 풍물 하기 싫은 아이, 음식만 먹는 아이, 절하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 정말 좋은 자료가 되겠다. 양쌤 인터뷰까지 합세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상량식은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었다.

9월 24일

고민하고 있는 부연이와 창 밖을 보는 병삼쌤을 찍었다.

무언가 고민하는 모습을 떠올려 잘 짜 맞추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왠지 모르게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자꾸자꾸 떠올라 기분이 좋다.

특히 어제 찍은 상량식이 너무나도 잘 찍은 것 같아 기분이 좋다.

26일에 편집을 하러 가는데 너무 많이 찍으면 고생할 것 같다.

편집이 진짜 힘들다고 그러는데…….

9월 25일

편집이 내일이다.

학교가 동의를 해주어 정말 감사하다.

아, 이제 편집 때문에 고생해야 한다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힘겨워 잠이 잘 오질 않는다. 우선 집에 간다는 생각에 그런가 보다.

찍은 건 벌써 4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뭘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은 비디오테이프나 다 챙기고 폭 잠을 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9월 26일

집에 도착하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역시 집이 좋다……. 내일부터 편집실에 나가 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눈앞을 가리고 벌써부터 어깨에 힘이 빠진다.

오늘은 별로 쓸 내용이 없는 것 같아 일찍 잔다.

9월 27일

우선 편집실에 가서 내 영상에 넣을 장면 하나하나를 캡처를 뒀다.

캡처를 뒀다는 말은… 작품에 담을 내용을 컴퓨터로 옮긴다는 말이다

4시간짜리를 모두 다 보고서 쓸 내용을 캡처로 뒀다.

그리고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에 캡처 뜬 것을 정렬을 한 다음 이틀 내용을 쭉욱~ 넣고 자막을 쓰고 다시 보고 또 보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하였다.

9월 28일

오늘도 어제에 이어 편집 작업을 계속하였다.

편집 2일째이지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으니 몸이 빠근하다.

근데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 몇 시간이나 한 것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 엄청 속상하다. 그리고 이틀 안에 편집 마무리를 못하여 학교에 부탁해서 며칠 더 작업하기로 하였다.

9월 29일

오늘도 또 편집 작업의 연속이다.

활기찬 하루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도저히 컴퓨터가 내 말을 듣지를 않는다. 이럴 때가 가장 짜증난다.

열심히 4시간을 투자하여 했는데 갑자기 다운이 되는 바람에 다 날렸다.

정말 사람 돌아버리는 일이었다. 세상이 얼마나 허탈하던지 갑자기 다 날아가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 한번 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밤에는 손 쌤에게 전화를 해서 수요일에 가겠다고 미리 전화를 드렸다.

오늘 밤늦도록 편집실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내일이면 다 끝날 것 같다.

9월 30일

이제 요령이 생겼다 5분마다 save를 꼭꼭 눌러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컴퓨터를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컴퓨터도 내 마음을 알고 잘 해줄 것이라 믿는다.  
편집을 끝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다. 정말 행복했다.  
이제 다 끝내고 비디오테이프로 옮기는데 마음이 훌가분하다.  
집으로 오는 길이 너무 가볍다.

### 3. 작품 후기

작품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다. 조사하고 쓰는 것은 그래 어렵지 않았는데 편집 작업이 특히 힘들었다. 그래도 내가 졸업하기 전에 우리 학교에 대한 영상물을 하나 만들었다는 게 뿌듯하고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으로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많았더라면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편집을 많이 못해서 조금 많이 아쉽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와주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하다.

도와주신 분들……………

첫 번째로 촬영에 있어 너무나도 고마운 영규, 편집을 가르쳐 주신 일주 아트하우스 관계자 분들……. 그 중에서도…이섭 선생님(안이 아버님), 인희형, 등등등…….

인터뷰를 허락해 준 새벽, 범린

촬영에 협조해 준 잠자는 허수, 개그동아리, 무엇보다 중요한 부연이,

현민이, 유리, 누군가가 버려준 크림빵, 외박을 갈수 있게 해준 간디학교 선생님들,

창 밖을 바라보는 병상선생님, 필선선생님, 인터뷰를 해주신 교장선생님, 커플 기념 산하, 그리고 힘을 주신 우리 부모님, 모두 말하고 싶지만 제작에 도움을 준 간디학교 학생들…….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저희 학년을 챙겨 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시는 손진근 선생님…….그리고 저희를 위해 밤늦게 치킨, 김밥, 샌드위치를 챙겨 주신 김미리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애들아 고맙다.

2003학년도  
간디청소년학교 졸업논문집

편집 장인혜, 이새벽(후계자)

담당자 태영철T

편집 마감일 2003년 12월 21일  
“논문은 나누어 저장, 디스켓은 소중히”